

제9기

가야학아카데미

Academy

■■■ 바다와 역사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제9기

가야학아카데미

Academy

■■■ 바다와 역사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제9기 가야학아카데미 강의내용 및 일정

회차	일자	주제	강사
1	4/18	신석기시대 바다와 교류 - 어로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인수 (북천박물관장)
2	4/25	가야와 해양교류	김태식 (홍익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3	5/2	1차 답사: 신석기 해양교류(부산광역시)	
4	5/9	바닷길을 통한 변한사람들의 대외교류	이양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5	5/16	장보고 해상왕국과 청해진	강봉룡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6	5/23	조선표류민과 지볼트의 교류 - 19세기 초 조선과 유럽의 만남	하우봉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7	5/30	2차 답사: 임진왜란(경상남도 진주시, 통영시)	
8	6/13	고려시대 송상왕래와 김해지역	이진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9	6/20	백제의 해양교류와 대외 외교	정재윤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10	6/27	한민족의 바다와 해양신화	윤명철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11	7/4	3차 답사: 고려시대 표류와 해양교류(전라남도 강진군, 완도군)	
12	7/11	21세기 한일관계와 독도 · 동해문제	이신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13	7/18	세계 해전사와 임진왜란	이상훈 (해군사관학교박물관 기획연구실장)

목차

- 신석기시대 바다와 교류 - 어로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5
하인수(북천박물관장)
- 가야와 해양교류 31
김태식(홍익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 바닷길을 통한 변한사람들의 대외교류 51
이양수(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 장보고 해상왕국과 청해진 91
강봉룡(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 조선표류민과 지볼트의 교류 - 19세기 초 조선과 유럽의 만남 121
하우봉(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고려시대 송상왕래와 김해지역 137
이진한(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 백제의 해양교류와 대외 외교 151
정재윤(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한민족의 바다와 해양문화 167
윤명철(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 21세기 한일관계와 독도 · 동해문제 177
이신철(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 세계 해전사와 임진왜란 191
이상훈(해군사관학교박물관 기획연구실장)



GIMHAE NATIONAL MUSEUM



신석기시대 바다와 교류

- 어로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인수 / 복천박물관장

I. 머리말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성립 과정과 문화적 양상뿐만 아니라 신석기인들이 언제부터 한반도에 정주하고 바다를 생존기반으로 하여 생업활동을 전개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약 12만년 전에 시작된 최종 빙하기가 끝나는 1만2천년을 전후한 무렵,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신석기인들이 생존을 위해 수렵과 어로, 농경, 채집, 교류(교역) 활동 등 다양한 생업 형태를 통해 생존영역을 확대하고, 생활양식을 개선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바다는 육지보다 자연환경이 불안정하고 위험한 공간임은 주지하는바와 같지만,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항해술과 조선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신석기시대의 바다는 어쩌면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석기시대 1만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다는 생업과 삶이 터전이자 사람과 문화가 오가고 만남이 일어나는 교류와 소통의 공간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다는 인간이 생활하기에 육지보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고 위험이 따르지만, 연중 이용 가능한 풍부한 어패류 등의 식량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뿐만 아니라 물자의 이동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교류의 교통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특히 바다를 무대로 오랫동안 전개되어 온 어로활동과 생활은 우리나라 신석기문화를 지탱하는 주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최근 발굴과 연구 성과를 참조하면서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신석기인의 해양생활과 문화교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바다와 생활

1. 어로활동

<어로의 시작>

신석기시대 다양한 생업형태 중 특히 바다를 생업공간으로 한 어로는 구석기시대 생업 형태와 뚜렷이 구분될 뿐 아니라 한반도 신석기문화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신석기시대 전 기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어로는 어민의 생계양식과 생업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변 지역과 문화교류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로가 신석기시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어로 활동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정주형 자원개발 전략으로 채용되었는가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는 불확실하다.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후기 구석기시대에 어로행위의 흔적이 단편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새로운 생존전략으로써 어로가 본격적으로 이용되고 생업형태로 자리 잡은 것은 신석기시대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로 활동에 관한 현재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인 증거는 기원전 6,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형성된 동삼동과 창녕 비봉리, 울진 죽변, 양양 오산리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여기서 출토된 결합식조침(낙시바늘)과 그물추를 포함하여 동삼동과 비봉리유적에서 확인되는 패총, 통나무 배 등은 신석기인이 직접적으로 어로 행위를 하였음을 확실히 보여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패총의 출현과 패류의 식량자원화는 본격적인 어로 활동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유적에서 확인되는 어로의 흔적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가장 오래된 어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 신석기의 시작이 주변 지역의 사례로 볼 때 기원전 1만년 무렵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보다 앞서는 어로 관련 유적과 유물의 존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직은 단정적으로 언급할 수 없으나 신석기시대 초창기유적으로 확실시되는 제주도 고산리유적을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는 소형 타제석촉이 궁시어로구로 전용되었을 개연성과 침두기, 석인 등이 어로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초기 어로 활동은 더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어로활동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패총의 출현과 형성 시기도 현재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어로의 흔적과 도구〉

한반도에서 현재까지 발굴과 지표조사로 확인된 신석기 유적은 약 900개소에 달한다. 내륙지역에도 많은 유적이 발견되고 유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유적은 생존과 생업활동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춘 해안지대나 도서지역, 큰 하천의 내만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식량자원 획득과 생업활동에 적합한 입지 환경에서 그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바다는 안정된 식량자원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연중 활동 가능한 생업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어로가 수렵에 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것도 신석기인이 장기간 해안지대에 정주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어로 행위와 활동을 단적으로 잘 보여 주는 유적은 패총이다. 패총은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이용해 왔던 육지라는 생활무대에서 벗어나 바다라는 거대한 공간을 삶의 터전으로 활용

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패총에는 그들이 살아온 역사의 궤적이 고스란히 퇴적되어 있으며, 그 곳에 남겨진 다양한 유구와 유물은 해안지역에 거주했던 어로민(어민)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 신석기시대는 패총시대라고 할 정도로 한반도에 많은 패총이 분포한다. 패총에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생활했던 신석기인의 생활과 문화뿐만 아니라 당시의 생태와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신석기시대 패총은 현재까지 조사 자료에 의하면 320여개소에 달하는데,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을 제외한 서해안과 남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그것은 이들 지역이 어패류 서식에 적합한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동삼동, 범방, 연대도, 옥지도, 안도패총 등은 신석기인의 어로활동과 어로민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어로 행위는 해양어보다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내만지역이나 내수면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생태계 순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의 축적과 기술의 발달로 점차 해양 어로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로는 해양의 생태 환경과 지역에 따라 어로방법과 종류, 포획 대상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남해안에는 동해안이나 서해안과 달리 리아스식해안이 발달하고 한류와 난류의 유입으로 다양한 어패류가 서식한다. 이와 더불어 외양성 어로가 활발하게 전개된다.

남해안의 동삼동, 범방, 연대도, 비봉리, 옥지도, 여서도패총과 서해안의 가도, 노래섬, 연평도패총, 동해안의 죽변, 황성동, 세죽유적에서 출토된 각종 어패류와 고래, 강치 등의 해수류 유존체 그리고 이들을 포획하는데 사용된 작살과 결합식조침 등의 다양한 어구는 해안지역에 거주했던 패총인들의 어로 실태와 어떤 대상물을 포획하여 식량자원으로 이용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들 유적에서 출토되는 상어, 방어, 다랑어, 참돔, 물개, 강치, 돌고래, 고래 등의 외양성 어종과 해수류는 신석기인이 먼 바다까지 진출하여 어로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외양성 어로는 대한해협을 사이에 둔 일본의 구주지역과의 지속적인 문화교류의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해안가에 거주하던 신석기인이 어떠한 종류의 고기를 포획하고, 어떤 종류의 조개를 채취했는가는 패총유적의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남해안지역의 패총에서는 악상어, 흉상어, 가오리, 대구, 썸뱅이, 정어리, 청새치, 농어, 감성돔, 참돔, 전갱이, 정어리, 고등어, 흑돔, 다랑어, 방어, 삼치, 넙치, 복어, 도미, 대구, 송어 등의 어류 뼈가 출토된다. 갯벌이 발달한 서해안은 어종에서 남해안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노래섬과 가도패총에서는 참돔, 돌돔, 민어, 가오리, 복어, 상어류, 농어, 양태, 방어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 중에서 대구는 겨울철 리만해류를 타고 연해주 연안에서 동해안을 따라 내려 온 것을, 다

랑어와 고등어는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상한 것을 포획한 것인데, 당시 신석기인이 각종 어류의 특성과 회유 시기를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어로민들은 전술한 어류 이외에 패총유적에서 출토되는 다량의 해양포유류 뼈를 통해 볼 때 고래, 돌고래, 물개, 강치, 바다사자 등 대형의 바다동물도 직접 포획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리만해류를 타고 남하하여 암초지대에 서식하는 강치, 물개나 고래 등이 주요 포획 대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삼동패총을 비롯한 외양성 유적에서 다량으로 출토되는 강치와 고래 뼈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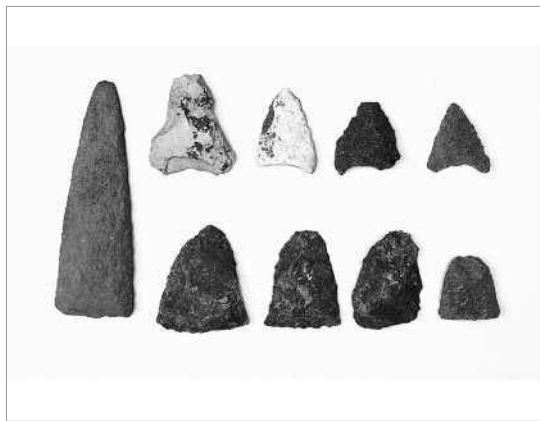
신석기시대 어로구는 재질에 따라 석제, 골제, 패제, 그물 등으로 구분되며, 석제 도구는 어망추, 석추, 결합식조침, 결합식작살, 단식작살 등이 있으며, 골제 어로구는 작살, 단식조침, 빗창, 자돌구류 등이 있다. 이밖에 소수이지만 조개로 만든 조침과 추도 사용되었다.

어로작업에는 작살이나 창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낚시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패총에서 출토된 석제, 골제 작살은 당시 어로형태와 도구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고래를 비롯한 물개 강치 등의 해수류 포획에는 대형작살과 결합식작살이, 상어, 방어, 다랑어, 참돔 등 대형 어류는 결합식조침과 분리식작살 등을 이용해 포획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로활동에 이용된 그물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그물을 토기 표면에 찍어 문양 효과를 낸 동삼동패총 그물문토기나 패총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어망추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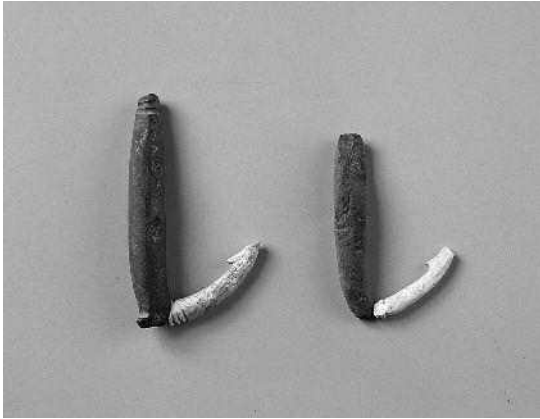
조개류의 채취에는 여러 형태의 도구가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옥지도나 동삼동, 범방패총 등에서 출토되는 소형의 유견석기(有肩石器)와 사슴뿔이나 뼈로 만든 빗창 등은 채집구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타제석부 중 일부는 굴 등 암초성 패류를 채취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동삼동패총 골제 작살



동삼동패총 출토 여러 가지 작살



| 범방패총 결합식조침(낚시)



| 동삼동패총 그물문토기

〈고래사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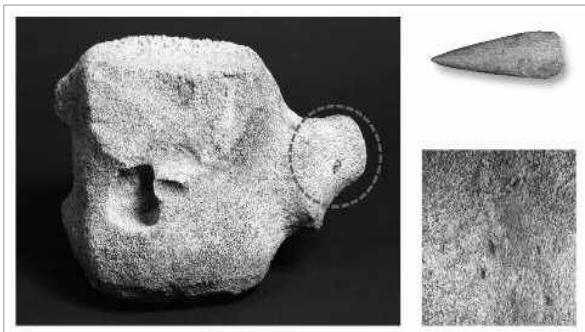
패총유적에서 출토되는 다량의 해양포유류 동물유체는 해안과 도서지역에 거주했던 어로민들이 어패류 이외에 고래, 돌고래, 물개, 강치, 바다표범 등 대형의 바다동물도 직접 포획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특히 동삼동, 수가리, 조도, 상노대도, 옥지도패총, 산등, 세죽, 신암리, 황성동, 서포항유적 등 남해와 동해안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는 많은 양의 고래 뼈는 연안으로 접근하는 고래를 직접 사냥하였음을 보여준다. 물론 패총에서 출토되는 고래 뼈만을 근거로 신석기시대 포경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고 일부 연구자는 신석기시대 포경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사용된 대형 작살의 존재, 사실적으로 묘사된 반구대 암각화의 포경 모습, 동삼동패총의 전 문화층에서 출토되는 다량의 고래뼈, 연안으로 접근하는 고래나 돌고래를 몰이어법이나 대형 작살 등 원시적 도구와 방법으로 포획하는 민족지 사례 등을 통해 볼 때, 신석기시대 고래사냥은 오랜 해양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적인 지식과 어로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신석기시대 포경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2010년에 동양문화연구원에서 조사한 울산 황성동유적에서 발견되었는데, 전기 문화층(기원전 4,000년 전후)에서 골제 작살이 박힌 채로 출토된 고래 견갑골과 흉추가 그것이다. 소형 작살로 과연 고래를 잡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 의문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남아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지 포경이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1999년도 복천박물관에서 조사한 동삼동패총에서 확인된 참고래와 흑등고래 등 여러 종류의 고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형고래

에 속하는 흑등고래는 주로 연안을 따라 느리게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구대암각화에도 묘사되어 있다. 동삼동패총에서 다양한 종류의 고래 뼈가 전시기에 걸쳐 출토된다는 사실은 직접 사냥한 고래를 유적에서 해체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사례는 신석기시대에 고래사냥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어 온 신석기시대 포경불가론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포획된 해수류의 고기와 껍질, 기름과 뼈 등은 다양한 생업도구와 식료로 효용 가치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고래뼈는 골각기 재료로, 돌고래 이빨은 장신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민족지사례에 의하면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의 말라이타섬 원주민들은 집단 어로를 통해 포획한 돌고래를 식량으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빨을 혼자(婚資)나 장식품 등 특수 교환재로 사용하고 있다.



| 황성동유적 출토 작살맞은 고래뼈



| 동삼동패총 출토 흑등고래 귀뼈

2. 주거와 생활

〈주거지〉

신석기인은 주로 자연동굴을 이용한 구석기인과 달리 생업활동에 적합한 환경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을 조성하였다. 지금까지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면 기원전 6,000년 전후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양양 오산리유적과 고성 문암리유적의 주거지가 가장 오래되었으나 주변 지역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신석기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주거시설이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석기인의 주거는 대부분 수혈주거(움집)지만,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자연동굴이나 바위그늘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해안지역에 거주하였던 패총인의 주거와 취락은 관련유적의 조사 예가 적고, 확인된 자료도 일부만 잔존하여 주거의 형태와 구조, 시기별 특징 등 불투명한 점도 없지 않다.

하지만, 동삼동유적의 주거와 같이 전기부터 지속적으로 조영되고 있고 유물 포함층유적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패총을 남긴 주민의 주거유적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대규모 취락도 발견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발굴되어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서해안지역의 영종도 온서동, 삼목도, 시흥 능곡, 안산 신길유적의 취락과 주거지를 통해 볼 때 적어도 해안지대의 어로민 역시 일정한 규모의 취락을 조성하여 생계와 생업활동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 형태는 50~100cm 정도의 깊이로 수혈(구덩이)을 파고 기둥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이엉이나 갈대 등으로 지붕을 이은 구조로 생각되며, 평면 형태는 원형, 방형, 장방형이 있다. 주거 공간 내부에는 취사나 난방을 위한 화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부 유적의 주거지에서는 생활도구를 두기 위한 선반 시설이 마련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구조는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편 취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특정 해산물인을 채취하기 위해 임시적인 거주지도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유적이 한정행위장소인 가도, 노래섬, 목도, 울리패총이다.

〈식생활〉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어로민들은 해마다 찾아오는 봄·여름·가을·겨울의 4계절 변화에 적응하면서 한 해의 살림살이를 마련하였다. 일상생활 중 가장 큰 관심사인 먹거리의 확보는 연중 생활 계획에 따라 계절별로 필요한 생업활동을 통해 해결하였다. 계절에 따라 주변에서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도토리, 가래, 살구 등의 나무열매와 식용 뿌리식물을 채집하거나 부족한 단백질은 수렵과 어로를 통해 확보한 어패류와 포유류 동물성 식료로부터 섭취함으로써 기본적인 식생활을 해결하였다.

특히 도토리는 신석기인이 즐겨 먹었던 음식으로 갈돌·갈판으로 제분하거나 익혀 먹었는데, 최근 조사된 창녕 비봉리유적에서 발견된 다량의 도토리와 저장구덩이는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전기 이후부터는 잡곡 농경이 널리 보급되면서 조와 기장도 중요한 먹거리로 이용되어 식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들 잡곡이 식생활과 생계 경제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로 이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그러나 최근 중서부지역을 포함한 남부지역에서 조, 기장의 재배 곡물의 출토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생활에서 안정된 식료로 이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식물성 식료 이외에 단백질이 풍부한 사슴, 멧돼지, 고라니 등을 사냥하여 식량으로 확보하였다. 해안지역에 거주한 패총인들은 고래, 돌고래, 상어, 강치, 물개, 다랑어, 대구, 방어, 송어 참돔 등을 작살이나 낚시를 이용해 포획하거나 소라·고동·굴·홍합·전복·피조개·백합·성게를 채취하여 식량 자원으로 이용하였다. 특히 해안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굴과 홍합은 신석기인들이 즐겨 먹었던 해산물이었다. 여러 종류의 생선뼈, 조개, 동물뼈가 발견되는 패총유적은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수렵과 어로를 통해 확보한 어패류와 고기들은 주로 토기에 담아 삶거나 돌을 둥근 형태로 깎아 집석노지(화덕시설)를 이용해 조리하였는데, 부산 범방, 가덕도 장항, 군산 가도, 노래섬 패총 등에서 발견되는 야외 집석유구는 신석기시대 어로민의 대표적인 조리시설이다.

〈생활도구와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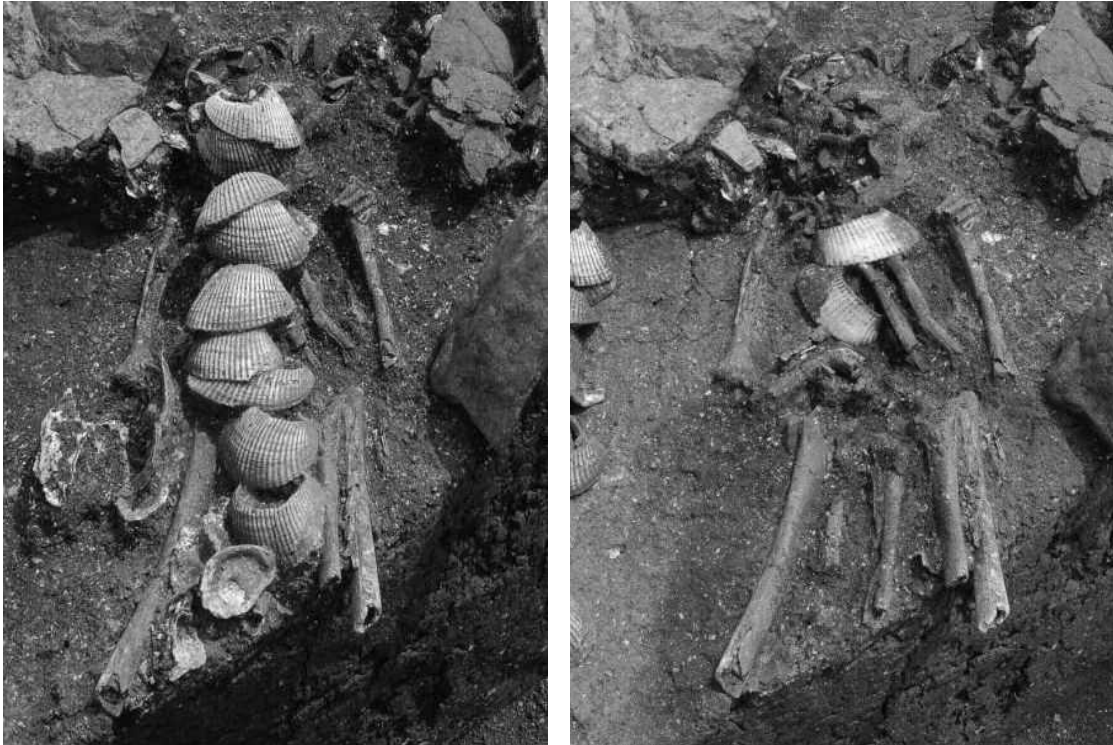
신석기시대 어로민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이나, 동물뼈, 조개껍질 혹은 흑요석 같은 특정한 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였다. 도구 종류는 사용 영역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와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생업도구로 나누어지며, 이중 생활도구는 쓰임새와 용도에 따라 목재가공 및 벌채, 음식물 가공 및 조리, 의복 제작용 등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생활도구로는 마제석부, 타제석부(굴지구) 끌, 갈돌, 갈판, 고석, 돌날, 솥돌, 석추(뚜르개), 골제 바늘, 골제 송곳, 자돌구, 예새형 골각기, 조개 칼, 조개 그릇, 토기 정면구, 방추차 등이 있다.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유물 중의 하나가 즐문토기(빗살무늬토기)이다. 토기의 표면에 빗살같은 무늬를 장식한데서 붙여진 명칭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종류와 문양을 갖는 토기들이 존재한다. 즐문토기는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빚어 야외 가마에서 600~700℃의 온도에 구웠으며, 색깔은 대부분 붉은 갈색을 띤다. 즐문토기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초창기의 고산리식토기, 조기의 용기문토기, 오산리식토기, 전기의 영선동식토기, 중기의 태선침선문토기(수가리1식토기), 후기의 퇴화침선문토기(수가리2식토기, 봉계리식토기), 말기의 이중구연토기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고산리식토기이다. 토기는 용도와 기능에 따라 발형, 옹형, 호형, 갈때기형, 귀때형토기 등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나 밑이 둥근 발형토기가 기본 형태를 이룬다. 발형토기는 음식을 끓이거나 보관 용도로, 목이 있는 항아리는 저장용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밖에 특수한 목적이나 의식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채색토기, 쇠뿔모양토기, 배모양토기, 선각문토기 등도 있다.

〈정신세계 - 무덤과 의례구〉

자연의 변화에 좌우되는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온 신석기인은 사고방식과 생활 자체가 종교적이고 의례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패총인은 생업의 대부분이 해양이라는 거칠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내륙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보다 삶 자체가 신앙적이고 의례적일 가능성이 높다.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나,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이나 산과 바다, 나무, 돌 등 우주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신앙도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패총인의 정신세계와 사유의 흔적, 행동 양식을 잘 보여 주는 예가 무덤과 각종 의례구이다.



| 가덕도 장항유적 무덤

무덤 유적으로는 안도, 연대도, 육지도와 최근 발굴 된 부산 가덕도 장항유적 등이 있는데, 특히 장항유적에서는 40여 기의 분묘와 여기에 묻힌 사람들의 굴장, 신전장, 측와장 등 다양한 매장 자세는 당시 사람들의 장례의식과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을 잘 보여 준다. 의례(의식)구로 대표적인 것은 조개가면과 흙을 빚어 만든 토우 등이 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통과의례 중 마지막 관문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의식이나 시신을 처리하는 장례의식 그리고 시신을 안치하는 무덤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형식과 종류가 있다.

신석기시대의 무덤(분묘)은 청동기시대의 무덤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다. 유적은 주로 해안지역에서 발견되며, 현재까지 발굴된 무덤은 약 100기에 달한다. 최근 48기의 무덤이 확인된 부산 가덕도 장항유적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분묘유적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서해안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무덤유적이 조사된 바 없으나 동해안지역에서는 고성 문암리와 울진 후포리, 울산 처용리유적에서 토광묘와 세골장의 집단묘가 확인되고 있다. 내륙지역에서는 춘천 교동 동굴유적을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해안지역은 무덤유적이 가장 많이 발굴된 곳이며, 여기서 출토된 다양한 부장품과 모제는 어로민의 사후 관념과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범방, 연대도, 옥지도, 안도, 산등패총, 울산 처용리유적에서 확인된 토광묘와 동삼동패총과 진주 상촌리유적의 옹관묘 등이 있다.

무덤의 형식은 옹관묘, 토광묘, 적석토광묘, 집단묘 등이 있으며, 대부분은 지면을 간단하게 파고 시신을 안치한 토광묘이다. 옹관묘는 신석기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 중기(기원전 3,000년 전후)까지 확인되나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화장한 인골을 옹관에 매납한 상촌리 옹관묘와 40여구의 시신을 세골장 형태로 처리한 울진 후포리유적은 신석기시대 장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토광묘는 초기(기원전 5,000년 전후)부터 후·말기(기원전 2,500~2,000년 전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덤 형태이며, 지역에 따라 약간의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매장시설은 묘광을 구축하고 인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토기편이나 돌로써 시상(屍床)을 만들거나 시신을 덮기도 한다. 장법은 신전장, 부신장(俯身葬), 굴장(掘葬), 측와장(側臥葬), 화장(火葬) 등으로 구분되나 대체로 신전장(伸展葬)이 주류를 이룬다. 무덤의 형태는 단장묘가 기본이거나 옥지도 2호묘와 연대도 2호묘, 안도 1호묘와 같이 합장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부장품으로는 연옥제 수식, 귀걸이, 골제 발찌, 조개팔찌 등의 장신구류와 골제 작살, 수식, 석부, 숫돌, 낚시바늘, 석제작살, 빗살무늬토기 등이 있다. 특히 연대도, 안도, 산등, 범방, 가덕도 장항유적에서는 출토된 조개팔찌와 연옥제 장신구는 신석기시대 장신구의 착용 형태와 종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신석기무덤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형태의 부장품은 그 양과 질, 규모에서 무덤 간에 차별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피장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역할, 지위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옥지도패총 동물형 토우



| 신암리유적 인물형 토우

해안지역의 패총유적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신앙과 의례활동과 관련한 정신세계의 흔적을 보여 주는 여러 종류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개가면과 흙을 빚어 만든 토우다. 조개가면은 조개가 갖는 다양한 상징성으로 보아 집단의 공동의식이나 축제 때 사용되었거나 혹은 벽사적 행위와 관련한 주술구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연구자는 어민 제사행위와 관련하여 정신문화의 일면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우는 특정한 물상을 형상화하여 의례 혹은 주술적인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특히 동삼동패총과 오산리C지구 유적, 옥지도, 세죽패총에서 출토된 곰, 멧돼지, 물개 모양의 토우는 특정 동식물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토테미즘의 표현물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경주 봉길리, 부산 울리, 범방패총에서는 출토된 남여 성기를 표현한 토제품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한 기물(器物)로 추정된다.

토기의 기면에 동물 형상을 음각으로 새기거나 토우를 부착한 장식토기도 신앙이나 의식과 관련된 도구로 생각되는데, 비봉리유적과 동삼동패총의 선각문(線刻文)토기, 죽변유적의 인면형(人面形) 파수부(把手附)토기가 대표적이다. 동삼동패총의 사슴선각문토기는 패총인의 주요 수렵 대상인 사슴사냥에 대한 기원과 이와 관련된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된 것으로 용기로 보인다.

〈장신구〉

장신구는 세계 각지의 여러 유적에서 발굴된 예로 보아 후기 구석기시대(BC. 40,000~BC. 15,000년)에는 이미 원시적인 형태가 만들어져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기원은 동물의 이빨이나 뼈, 옥 등을 가공한 주물(呪物)을 몸에 붙이는 것에 미의식이 가미되면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 신석기시대 귀걸이

신석기시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 결과 여러 가지 문화가 창출되고 전개되는데, 특히 신체 장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장신구가 출현하여 유행한다는 점에서 한국 장신구 문화의 조형을 이루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신석기인들은 어로와 수렵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상 활동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 동물 뼈, 옥, 활석, 흙 등의 재료를 가공하여 신체에 장식 하였다. 장신구의 종류로는 귀걸이를 비롯하여 팔찌, 발찌, 뒤꽂이 등과 각종 수식이 있다.

수식은 동물이나 어류의 뼈, 이빨, 발톱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조개, 옥석을 가공하여 한 점 내지 수점씩 끈으로 엮어 목에 걸어 착용하였다. 팔찌는 대부분 조개에 둥글게 구멍을 뚫고 마연하여 만들었는데, 가덕도, 산등패총과 안도패총에서 발굴된 인골의 착용 예로 보아

Ⅲ. 해양 교류

신석기시대 다양한 생업형태 중 특히 바다를 무대로 이루어진 해양활동과 교류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는 아직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단정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성과에 의하면 신석기시대 초기(기원전 6,000~5,000년)까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며, 신석기시대 초창기로 추정되는 제주도 고산리유적에서 내륙지역의 후기 구석기시대 석기 제작기술을 갖고 있는 석기가 출토되고 삼양동유적에서 내륙지역에서 만든 화살촉이 출토되는 사례로 보아 더 이른 시기부터 해양을 통한 문화교류 내지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바다는 지리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지역간 소통을 단절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류, 전파의 공간으로 이용되었음은 선사와 역사시대 유물과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항해기술과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신석기시대에 있어서 바다는 커다란 장애물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바다는 육지보다 문화의 이동과 교류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로의 역할을 하였음은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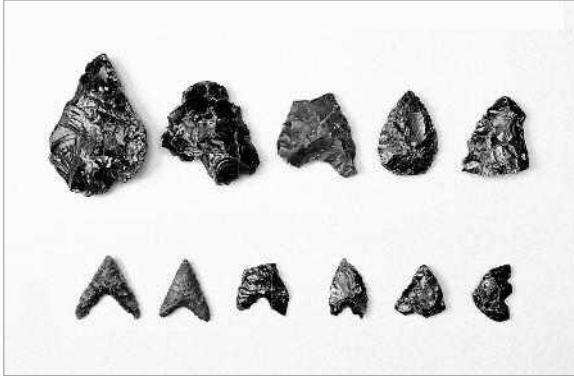
한반도 남부해안과 일본 구주연안지역, 남해안과 제주도 및 원도서권 지역에서 출토되는 양지역의 토기와 석기, 흑요석, 장신구 등의 다양한 유물과 공동의 생활습속, 생업기술 등은 해양을 통한 문물의 이동과 교류가 빠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한반도 남부와 일본 구주지역의 교류

한반도와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위치하는 지리적 환경과 생업형태의 유사성으로 구석기시대 이래 문물 이동과 문화의 교류가 주변의 어떤 지역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한반도 남해안지역과 구주지역은 신석기시대에 접어들면서 대한해협을 공동의 생활 무대로 하여 수천년간의 교류활동이 전개되는데, 이와 관련한 고고학적 유물과 유적이 한일 양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어 당시 빈번한 문화교류의 실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한일교류의 흔적은 남해안지역의 신암리, 세죽, 동삼동, 범방, 가덕도, 대포, 연대도, 상노대도, 안도패총 등 많은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일본 승문(繩文)토기와 석기, 흑요석 등의 각종 유물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같은 양상이 일본의 서북구주 해안지역과 오도 열도, 대마도의 사가(佐賀)패총, 고사다까(越高), 묘오도이시(夫婦石)유적 등에서 출토되는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다양한 즐문토기와 석기, 장신구 등에서 확인된다.



1 흑요석 작살 및 화살촉

석기류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 주며, 특히 석거는 서북구주 지역의 것과 동일한 형태다. 석기의 제작에 사용된 흑요석은 최근 분석 결과 대부분 일본 사가현의 고사다께(腰岳)산과 요도히메(淀姫)산으로 판명되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동삼동패총을 비롯한 범방, 연대도 등의 흑요석제 석기의 원료는 모두 일본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석기류가 완제품으로서 유입된 것인지, 아니면 반제품 또는 원석 형태로 이동한 것인지는 앞으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동삼동과 범방, 연대도패총 등에서 원석과 다량의 박편들이出土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석을 입수해서 재지에서 직접 가공·제작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승문계 유물들이 어떠한 메카니즘하에서 교류되고 유통되었는가는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 구주 연안 사이에 위치하는 대한해협이라는 공동의 생업무대와 환경 속에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어로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가운데 상호 생업기술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물자교류 내지 물물교환이라는 원시적인 교역시스템이 구축되고 그 결과 한일 양지역의 문화교류 기반과 구조의 틀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한반도 남해안과는 지척지간에 위치하는 쓰시마(對馬島)가 양지역 문화교류의 중간지대 혹은 창구로써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문화권의 거리를 단축시켜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가 50km 남짓, 대마도의 최남단에서 이끼까지가 48km, 이끼에서 구주의 요부꼬조(佐賀縣 呼子町)까지는 18km 정도이며, 이들 지역은 상호 날씨가 맑은 날에는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이 한일 양지역 문화교류와 문물의 전파를 지속적으로 가능케 했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교류의 구체적인 실례의 하나가 동삼동패총에서 출토된 흑요석과 투박조개로 만들어진 패천을 들 수가 있다. 흑요석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만 산출되고 그것이 갖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석기의 재료로서 효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남해안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흑요석이 일본 구주지역으로부터 교류의 산물로 유입된 것이라면 이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교환물자 즉 교역품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써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물은 최근 동삼동패총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조개팔찌이다.

동삼동패총에서 생산된 조개팔찌는 국내의 여러 집단 뿐 만 아니라 구주지역의 흑요석과 주요 교역물로서 대마도나 구주지역에 공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즐문토기가 다수 출토되고 있는 쓰시마 사가패총의 투박조개제의 조개팔찌는 구주산 흑요석을 매개로 동삼동패총 집단에 의해 공급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2. 남해안과 제주도와의 교류

남해안과 제주도의 양지역이 해양을 통한 교류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여 100km가 넘는 제주해협을 건너 수천년간 문물이 이동되고 인간의 왕래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험난한 바닷길을 오랫동안 왕래한 교류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실상은 분명하지 않으나 최근의 고고학적인 발굴과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그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에 존재하는 바다라는 거대한 장애물은 구석기시대가 끝날 무렵인 1만 2천년을 전후한 후빙기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형성되었다. 대체적으로 이 무렵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신석기 초창기문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제주도 고산리유적이 신석기 초창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고산리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초창기문화도 아직 실체가 분명하지 않으나 한반도 신석기문화의 유입으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고산리문화 이후 제주지역에서는 남해안 신석기문화와 그 성격과 특징을 공유하면서 동일한 변천과정을 보여 주는데, 제주지역에서의 이러한 신석기문화의 전개와 변천은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해양을 통한 사람들의 이동(이주)과 교류의 결과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당시 신석기인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100km 안팎의 남해를 향해하여 제주도와 교류하였고, 항해 수단은 무엇인가?

현재와 같은 기계 동력이 없었던 당시로써는 원시적인 배를 이용하였음은 확실하다. 최근 배와 노가 발굴된 창녕 비봉리유적과 동삼동패총의 배모양 토기를 통해 신석기시대 배의 구조와 형태가 어느 정도 밝혀지게 되었다. 창녕 비봉리유적에서 출토된 통나무배(丸木船)와 노는 당시 신석기인들의 해양활동과 어로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라는 점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배라는 점에서 신석기시대 어로와 해양 활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신석기시대 배는 반구대 암각화에 부분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물 자료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배는 밑바닥만 남아 있어 전체 구조를 알 수 없으나, 잔존 규모는 길이 310cm, 두께 2~5cm, 최대폭 62cm 정도이다. 비봉리유적 배와 동일한 것이 토기 형태로 동삼동패총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통나무 내부를 가공하여 만든 통나무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창녕 비봉리유적 통나무배



| 동삼동패총 출토 배모양토기

단정 할 수 없지만 이러한 형태를 배를 이용해 어로 행위나 해양교류 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통나무배가 소형인 점으로 보아 남해안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제주도나 원도권 지역으로 장거리 항해할 때는 파푸아뉴기니의 전통 배와 같이 통나무배 몇 척을 서로 연결하거나 뗏목과 같은 것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또 다른 형태의 배가 존재했는지도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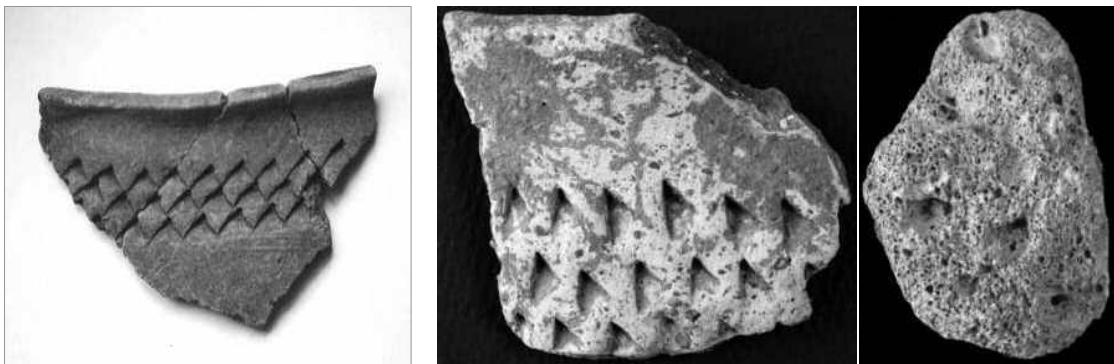
바다라는 환경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의 변화로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해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초기 어로 활동을 전개하던 신석기시대 초기에는 소형 통나무배나 뗏목을 이용하여 연안을 따라 어로활동을 하거나 인접 지역간의 교류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해양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항해기술, 조선술이 발달하고 자연의 변화(조류, 해류, 바람)에 대한 지식이 활용되면서 근해와 원양 항해가 가능하게 되었고 장거리 해양 교역과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석기시대 남해안지역의 조기의 즐문토기(용기문토기)가 대마도, 제주도, 흑산도 등 원도서권역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사실은 이른 시기부터 원양 항해가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남해안지역의 제주계유물〉

한반도 남부지역과 제주도와 직접적인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유적과 유물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남해안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유적 중 해양교류의 흔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여수 돌산 송도, 완도 여서도패총, 부산 동삼동패총에서 출토된 제주계 즐문토기와 현무암이 있다.

동삼동패총의 제주 북촌리식토기는 구연부 편이라 전체 기형은 알 수 없으나 외반구연 하에 여백을 두고 삼각상의 자돌문을 수열 시문한 형태이다. 시문 수법이나 문양 형태, 태토에서 남해안지역의 후기즐문토기와는 형식적으로 확연히 구별되며, 특히 태토에는 제주도 특유의 송이석과 현무암 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지역에서 반입품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동삼동패총의 교란층과 5-2층, 2호주거지 내부 퇴적층, 9층에서 출토된 제주지역의 현무암과 경석이 있다. 이와 같은 제주계토기와 현무암은 국립 광주박물관에서 발굴한 여수 송도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제주 북촌리유적 후기 즐문토기

| 동삼동패총 북촌리식토기 및 현무암

2005년 목포대박물관이 발굴한 여서도패총은 신석기시대 초기~전기(기원전 5,000~4,000년)의 유적으로 신석기시대 어로활동과 생업형태를 보여주는 다량의 어로구와 토기, 석기와 패류, 해양포유류, 어류뼈 등의 동물유존체가 발굴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출토된 즐문토기 중에서 14%를 차지하는 제주도 현무암 알갱이가 혼입된 제주계 즐문토기이다. 현무암 입자가 혼입된 태토로 만든 토기는 제주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기 형식은 용기문토기와 남해안의 영선동식토기이다.

이상의 자료들은 남해안지역과 제주도가 해양 교류망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보

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송도유적이거나 여서도패층에 비해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부산지역에서 제주도 토기가 확인된다는 사실은 양지역 간의 교류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성립과 전개 양상을 이해하는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제주도의 남해안계 유물〉

최근까지 제주지역에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40여개소에 이른다. 이들 유적의 대부분은 해안지역을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한반도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초창기에서 말기에 걸치고 있으며, 토기문화의 변천과정과 성격 면에서 남해안지역 신석기문화와 전체적으로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남해안계 유물은 크게 즐문토기, 석기·장신구로 나누어진다. 제주지역의 즐문토기는 기본적으로 남해안지역 토기와 형식적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기종구성과 토기 변천과정에서도 제일성을 갖는다. 물론 제주지역 토기 중 북촌리유적에서 발견되는 신석기 후기의 삼각점열문토기 등과 같이 시문형태에서 부분적으로 제주지역화 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제주지역의 신석기문화는 기본적으로 남해안지역과 동일한 변천과정과 전개 양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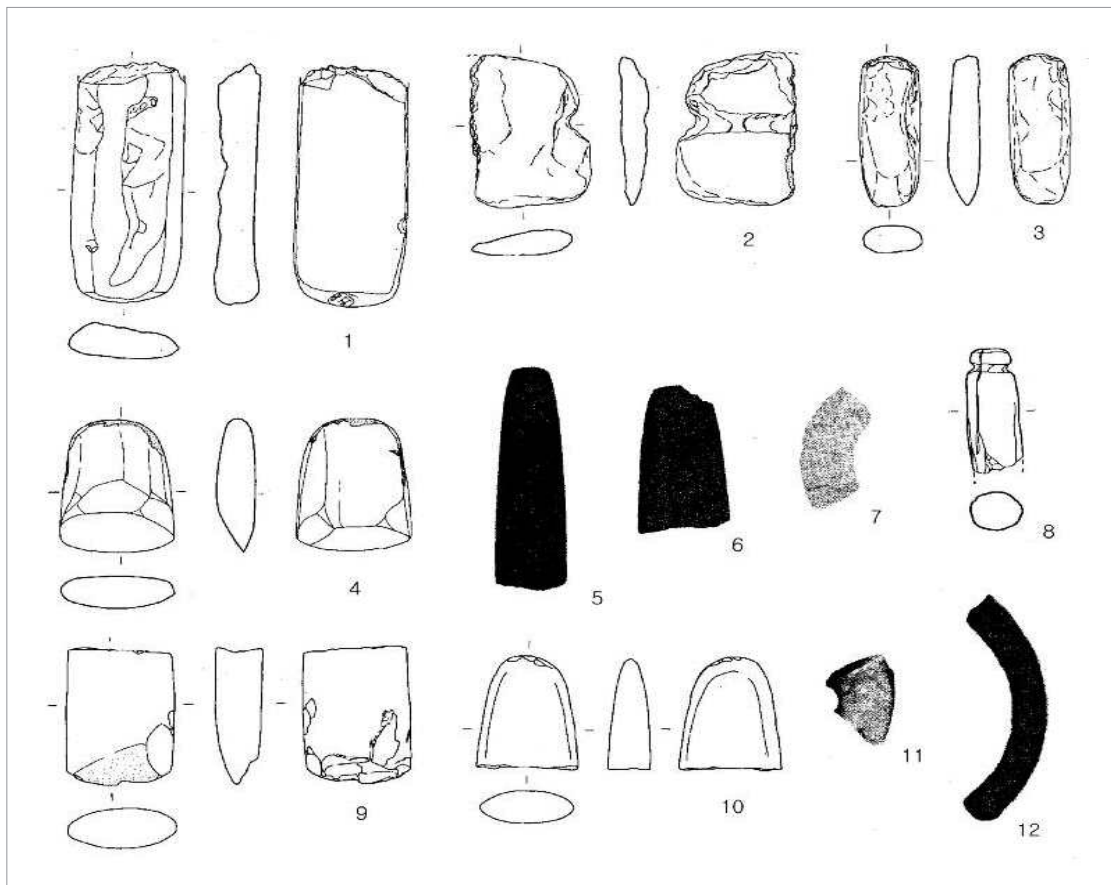
남해안계 석기로는 성읍리, 삼양동 삼화지구택지개발지구, 사계리, 강정동유적의 마제석부, 타제석부, 갈돌, 결합식낚시바늘등이 있다. 이들 석기 중 석부와 갈돌의 석재는 제주도에서는 산출되지 않는 화강편마암계 석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유입된 것이 분명하다.

화강편마암은 남부지역에서는 지리산 일대와 동해안의 울진, 평해 부근에서 산출되고 그 이남에서는 산출되지 않는데, 재질이 단단하고 내구성이 양호하여 벌목 혹은 목재 가공용 석기 재료로 널리 선호되는 암석이다. 특정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생산된 화강편마암계 석부류가 신석기시대 전 시기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이 최근 발굴과 연구 성과를 통해 밝혀지고 있음을 통해 볼 때 제주 성읍리유적을 비롯하여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외래계 석기들은 내륙집단과 해양교류 혹은 교역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계리유적에서 출토된 결합식조침(낚시바늘)은 남해안지역의 대표적인 어로구 중의 하나인데, 소위 오산리형 조침으로 불린다. 바늘의 접합부분이 결실되어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으나 잔존 부분으로 볼 때 남해안지역의 것과 같은 종류임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결합식조침의 출토예가 거의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역시 남해안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제주도에서는 출토예가 드문 장신구류가 확인되기도 하는데, 최근 삼양동 삼화지구 유적과 공항토취장유적, 그리고, 성읍리(국도97호선확장부지)유적에서 귀고리와 팔찌가 발

굴되었다. 이들 장신구는 전술한 석기류와 더불어 제주지역에서 산출되지 않는 옥석으로 제작된 것이다. 성읍리유적 출토품은 부산 동삼동패총과 군산 노래섬패총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형식이다. 귀걸이로 추정되는 삼양동과 공향토취장유적 출토품은 옥으로 가공된 것인데, 소위 결상이식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식의 귀고리는 사천 선진리, 청도 사촌리, 고성문암리, 울산 처용리, 부산 동삼동, 여수 안도패총에서 출토되고 있다.



| 제주도 출토 남해안계 석기·장신구

1~4 : 성읍리, 5~7 : 삼화택지개발지구, 8 : 사계리, 9·10 : 강정동, 11 : 공향토취장, 12 : 성읍리국도97호선확장부지

제주와 남해안 양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상의 교류 관련 유물은 신석기 초기부터에서 말기 까지 지속적으로 해양교류가 이루어 졌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삼양동 삼화택지개발지구유적에서 출토된 화살촉이 내륙지역의 소재로 제작된 점과 동일한 형식이 전남 광주 신

촌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는 점은 신석기 초창기부터 내륙지역과 해양교류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교류 주체는 양지역의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어민으로 추정되며, 이들을 통해 다양한 교류 행위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 지역 간의 교류는 생활도구 등의 유형적인 것 만 아니라 무형의 생업 정보와 기술도 상호 이동되고 교류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양동과 성읍리유적에서 출토되는 장신구는 물질문화뿐만 아니라 정신문화까지도 교류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와 남해안지역의 해양교류 유적과 유물의 분포 양상과 교류루트, 양 지역의 지리적인 관계 등을 통해 볼 때 남해안지역의 교류 중심지는 전남 남서해안지역으로 추정되며, 남서해안 중에서도 해양 교류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여수와 완도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해안지역도 독자적으로 제주 지역과의 교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 북촌리식토기와 제주산 현무암, 경석이 출토된 부산의 동삼동패총 집단도 제주지역과 직접 교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지역은 제주도와 약 300km 정도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부산에서 연안 항로를 따라 거제, 여수의 연안을 거쳐 제주도의 시달거리권에 접어들면 큰 문제없이 제주도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삼동패총 집단이 기원전 5,000년을 전후한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일본 구주 지역과 직접 교류를 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제주지역과의 해양 교류 활동도 충분히 이루어 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최근 연구와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신석기시대 바다와 교류에 대해 어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았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자연환경의 이용에 어려운 점이 많고 문화적으로 지역간 소통을 단절시키기도 하지만, 즐문토기인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생업 터전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신석기문화를 형성 발전시키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석기시대의 바다는 1만년간 전개된 신석기문화의 주요 기반이자 생업의 주요 무대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건수, 1999, 『한국 원시고대의 어로문화』학연문화사
- 국립중앙박물관, 2004·5, 『동삼동패총』 I~III
- 신숙정, 1994, 「우리나라 남해안지방의 신석기문화 연구」학연문화사
- 안승모, 1997, 「신석기시대의 생업과 사회」『한국사』2 국사편찬위원회
- 한영희, 1994, 「신석기시대의 사회와 문화」『한국사』1
- 고재원, 2009, 「제주도지역의 신석기문화」『한반도 신석기시대 지역문화론』 동삼동패총 전시관
- 오연숙, 2004, 「제주도 신석기시대 유적과 유물」『제주문화재연구』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 윤명철, 2003, 『한국해양사』, 학연문화사
- 이영덕, 2004,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 신석기토기의 접촉과 전개양상」『한국신석기연구』 8,
- 하인수, 안성희, 2009, 「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한반도 신석기시대 지역문화론』 동삼동패총전시관
- 하인수, 2009, 「동삼동패총 문화에 관한 시론」『한국신석기연구』 18, 한국신석기학회,
- 하인수, 2006, 「영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연구」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박사논문



GIMHAE NATIONAL MUSEUM



가야와 해양교류

김 태 식 / 홍익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I. 서언

고대의 경제에서 교역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일부 학자들은 고대 국가 형성의 원동력으로서, 필수적인 생업 자원이 되는 물품에 대한 원거리 교역을 지적하기도 한다. 원거리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원정대를 구성하고 지휘하기 위한 권력, 교역을 기획 및 계산하고 기록하기 위한 행정 관료, 원정대와 교역 대상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 조직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하는 중에 사회 조직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원거리 교역은 육로로 행한 것도 있지만 해양이나 수로를 통한 교류도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가야인들은 양호한 해상 운송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양 교류에 활발한 면모를 보일 수 있었다.

해운의 면에서 볼 때, 3세기 당시에 낙랑에서 배가 출발하여 서해와 남해 연안을 따라 항해하는데 狗邪韓國에 들른 뒤 해협을 건너 倭地로 향하는 것을 전하는 『三國志』 魏書東夷傳의 기록으로 보아, 김해를 비롯한 경남 해안지대 가야제국의 입지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후기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擇里志』에서 동해는 바람이 높고 물결이 험해서 서남해의 선박이 잘 닿지 않는데 비해, 서해와 남해는 물결이 완만하여 전라, 경상으로부터 한양, 개성, 황해, 평안까지 장삿배가 이어지며 낙동강 하구에서는 강줄기를 따라 상주, 진주까지 배가 미치는데 경상도에서는 그러한 '남북 해상 육상 운송의 이익'을 金海가 모두 관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해운 기술이 미흡했던 고대의 조건에서는 보다 필연적일 것이므로, 당시에 정치적으로 허용하는 한도에서 김해는 한반도 서북 지역과 경상 내륙 지역 및 일본열도 등을 연결하는 해상 운송의 구심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야가 있었던 지역이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향하는 입구에 해당한다는 점은 해양 교류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대의 한반도에서 가야처럼 일본열도와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이웃은 없었던 듯하다. 일본열도에 대한 선진 문물의 중계 무역을 토대로 발전한 加耶 王權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전통적인 일본 고대사에서는 『日本書紀』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百濟에 대한 친근감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만, 加耶에 대해서는 이를 '任那'라고 부르면서 마치 고대 倭王權의 종속적인 존재인 것처럼 표현해왔다. 이를 '任那日本府說'이라고 하며, 그것이 오해였음은 양국 학계에서 상당한 공감을 이루어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고대 한일관계사는 백제, 가야, 왜 등의 독자성을 토대로 하여 상호간의 교류 관계로 설명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한국의 고대사학은 많이 발전했으며, 그 중에서 특히 가야사의 발전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어 고구려, 백제, 신라를 포함한 四國時代를 제창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또한 197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과 연구 인력 확대에 따라 한일 양국에서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 건수도 늘고 연구 정보도 대폭 증가되었다.

이제 그들의 비교에 의하여 양국 사이의 문화 교류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개략적으로나마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한국사에서의 가야사 연구 진척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어서 가야의 해양 교류 양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가야사의 전개

1. 전기 가야시대

가야 문화의 시작은 경남 김해 및 창원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서력기원전 1세기에 시작되었다. 가야사의 시작은 문헌 사료에 의하면 『三國遺事』의 駕洛國記와 王曆에 따라 후한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 즉 서기 42년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연대는 가야사의 시작이라기보다 신라사의 기년에 맞춘 인위적 연대라고 할 수 있다.

고고학적으로 보아, 김해 지방에서 조그만 하나의 국가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서기 2세기 중엽에 쇄투갑창[鐵鎗] 등의 철제 무기를 많이 부장한 덧널무덤[木槨墓]인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162호분이 나타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시기 이후로 김해의 加耶國(=金官加耶)은 주변 소국들을 영도하는 연맹체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즉, 전기 가야연맹), 그 영도력은 서열상의 상대적 우위에 지나지 않아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었고, 사실상 서열 2위에 해당하는 함안의 安羅國의 세력도 매우 컸다.

그러다가 김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연맹체가 독점적으로 영도되기 시작한 것은 말엽에 가까운 3세기 후반이었다. 이 때 가야국의 중심은 현재의 김해시내 쪽으로 옮겨졌으며, 그 최초의 고분은 김해 대성동 29호분이다. 이 고분은 大形 덧널무덤[木槨墓]으로서 단단한 도질토기를 다량 부장하고 순장을 하였으며 청동술[銅鍔], 쇠로 만든 갑옷과 투구[鐵製甲冑], 기승용 마구 등의 북방 문화 요소를 부장하여 강하고 부유한 지배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고구려가 4세기 초에 낙랑군과 대방군을 병합한 것은, 한반도 남부에서 낙랑·대방과의 원거리 무역을 통해 발전하던 김해 가야국의 영도력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가야연맹 내에 내분이 일어나 가야연맹은 함안 안라국 중심의 서부 지역과

김해 가야국 중심의 동부 지역으로 분열되었다. 김해 중심의 동부 가야는 대방-가야-왜의 교역로에서 대방이 사라지자 왜와의 교역을 좀 더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시기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가야와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백제의 남방 통교는 369년부터 이어지는 고구려와의 전투를 위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가야연맹은 김해의 가야국, 즉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다시 통합되어 백제 및 왜를 연결하는 중계 교역을 하면서 발전하였으며, 이 당시의 가야를 ‘任那加羅’라고도 한다. 가야의 중계 능력은 풍부와 기술과 무력을 모두 갖춘 데서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백제와 왜 사이의 교역을 위한 지리적 편의성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김해 가야국의 우월성은 鐵 생산과 철기 제작 기술과 무력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김해 대성동 2호분에서 출토한 다량의 덩이쇠[鐵錠]와 종장판 정결 판 갑옷[縱長板釘結板甲] 등의 유물은 이를 보여준다.

당시에 김해, 부산 등의 가야 고분에서 기마 무장과 관련된 유물이 다량 나오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아직 重裝 騎馬戰術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아도, 가야에 騎兵이 존재하고 가야의 일부 상위 계층이 중장 기마전술을 수용한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러한 점은 가야가 백제를 통하여 옛 대방 지역, 즉 황해도 방면과 교역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어서 그 지역의 고구려-백제 간 전쟁의 여파로 발생한 유민을 수용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4세기 말 5세기 초에 가야연맹은 고구려와 신라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 몰락하였다. 고고학적인 유적 상태로 보아, 4세기 무렵에 가야적인 색채를 내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던 김해 지방의 고분군들이, 5세기 이후로 넘어가면서 고분의 규모가 급격하게 작아지고 신라 계열의 토기 유물을 일부 부장하는 것은, 이 지역 가야 세력의 급격한 몰락 및 신라 영향력의 확대를 반영한다.

2. 후기 가야시대

전기 가야연맹이 일단 해체되었다고 해도, 신라의 중앙 집권 능력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영역은 그대로 보전되었다. 또한 그 유민들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경상남·북도 내륙 지역으로 옮겨가 가야의 높은 기술과 문화를 전파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 문화를 이어 받은 세력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대두한 것이 고령의 伴跛國이었다.

고령의 반파국은 새로이 경남 합천군 야로면 일대의 철광산을 개발하여 점차 세력이 커져서, 5세기 중반에는 가야 전역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여 가야연맹체를 복구하였으며, 국명도 加羅國(또는 加耶國)으로 칭하였다(즉, 후기 가야연맹). 고령의 가야국, 즉 大加耶는 교역로를 개척하여 전북 남원 등의 호남 동부지역을 포섭하면서 세력을 떨쳤고, 이를 기반으

로 왜와 교역하기도 하고 479년에는 중국 南朝의 齊에 조공하여 ‘輔國將軍 本國王’의 작호를 받기도 하였다. 481년에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신라가 구원을 청하자 원군을 보내 이를 격퇴하기도 하였다. 고령 지산동 44호분은 당시의 모습을 짐작케 하는 고총고분이다.

그러나 6세기 초에 대가야는 호남 동부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백제와 대결하여 패배하였다. 그 사태와 관련하여 대가야는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변경 지역에 축성을 하여 영유권을 보호하려고 하였으니, 당시의 대가야는 초기 고대국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대가야는 522년에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재도약을 꿈꾸었으나 결국 신라의 분열 정책에 휘말려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북부 가야연맹과 함안의 안라국(=아라가야)을 중심으로 한 남부 가야연맹으로 분열되고, 530년 이후로는 백제와 신라의 침략을 받아 남부 지역의 일부를 양국에게 훼손당하였다. 후기 가야권역 내에서 약한 세력이었던 김해의 금관국(=남가라국)이 신라에게 자진 항복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 범 가야권은 회의를 열어 백제와 신라의 침략을 막고 독립적 존재로 남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은 의견 합일에 실패하여 독자성을 일부 포기하고 550년경에 백제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 그러자 백제는 가야연맹을 이용하여 왜군을 끌어들이고 신라와 전쟁을 치루는 등 국제적으로 분주한 활약을 보였으나, 554년에 관산성(현재 충북 옥천) 전투에서 예기치 않은 큰 패배를 당하였다. 가야연맹 소국들은 백제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씩 신라에 기울어갔고, 562년에 맹주국인 대가야가 힘을 모아 신라에 대해 항해 보았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 멸망하고 말았다.

그 때까지 가야의 문화는 전기 가야연맹 때의 문화를 계승하여 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가야의 특색 있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영위하였으나, 대가야가 6세기 후반에 멸망한 이후로는 가야 전역이 급속히 신라 문화로 변모하였다. 이는 정치적 변화가 곧 문화적 변화를 동반한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3. 가야 문화의 범위

가야가 낙동강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에서 약 700년 가까이 그 독특한 문화를 보유하였다는 것은, 그 때까지 가야는 어디에도 복속당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즉 가야는 任那日本府說이나 百濟軍司令部說에서 말하듯이 369년에서 562년까지 왜나 백제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거의 700년 동안 독립적 존재로 있다가, 서기 562년에 신라에게 넘어간 후 신라 문화에 동화되어갔던 것이다. 가야의 물질 문화는 그 점을 증언하고 있다.

가야 문화가 영유된 지역은 洛東江 서쪽의 경북 고령과 경남 김해, 함안 일대가 중심이 되면서, 시기에 따라 약간의 가감이 있었다. 대체로 4세기 이전의 전기 가야시대에는 그에 더하여 낙동강 서북쪽의 성주, 김천 일대와 낙동강 동쪽의 창녕, 양산, 부산 일대를 포괄하되 낙동강 하구의 김해, 부산, 창원 지방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하였다. 그리고 5세기 이후의 후기 가야시대에는 소백산맥 서쪽의 전북 장수, 남원, 임실 지방과 전남 여수, 광양 지방이 포괄되었다. 그 지역 범위 안에서 가야를 이루는 소국이 가장 많을 때는 22개국, 평상시에는 12~13개국, 적을 때는 7~8개국이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다.

후기 가야시대에는 각 지방의 地域色이 뚜렷이 나타나서, 고령, 합천, 함양, 남원 등의 가야 북부지역의 문화가 중심을 이루면서, 함안, 의령 일대의 가야 중부지역의 문화가 있었고, 그 남쪽에서 고성, 진주, 사천 일대의 가야 서남부지역의 문화, 그리고 김해, 창원 일대의 가야 동남부지역의 문화가 균형적 발전을 이루었다.

Ⅲ. 가야의 해양교류

1. 설화상의 해양 교류

(1) 허왕후 결혼 설화

가야와 관련된 설화들에는 해양 교류를 반영하는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수로왕과 허왕후의 결혼 설화이다. 『三國遺事』 駕洛國記에서 허왕후는 다홍색 돛을 달고 꼭두서니뿔 깃발을 내건 배를 타고 왔으며, 자신의 출신지는 阿踰陁國이라고 언급하였다. 왕후의 배는 처음에는 望山島와 乘帖 쪽으로 와서 정박하였으나 다음에는 산 밖에 있는 별도의 나루(主浦)에 배를 매고 상륙하였다고 한다. 또한 『三國遺事』 金官城婆娑石塔 조에서는 許皇后가 바다의 풍파를 일으키는 신의 노여움을 잠재우기 위하여 西域의 아유타국에서 파사석 탑을 가져왔다고도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를 사실로 보아 허왕후가 인도의 아요디아 또는 태국의 아유타야에서 배를 타고 왔다고도 하고, 혹은 중국 四川省 安岳縣 허씨 마을에서 양자강을 타고 내려와 황해를 건너 왔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기원 1세기 무렵에 인도 아요디아국과 김해 가야국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당시 중국도 인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을 때이다. 아요디아국의 商船이 우연히 표류를 당하여 김해까지 흘러왔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럴 경우라도 것처럼 멋진 결혼 설화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결혼 설화에는 기원후 1세기 가야국의 전승이라고 보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첫째는 중국 고대의 결혼 관념에 입각하여 泉府卿 申輔와 宗正監 趙匡이라는 媵臣 夫妻 두 쌍이 동행하였다고 한 점이다. 둘째는 허왕후의 배에서 하역한 錦繡와 綾羅 등과 같은 物目을 일일이 나열하고 그 물건들을 ‘漢肆雜物’ 이라고 표현한 점이다. 셋째는 훗날 金銓王이 허왕후의 혼례가 치러진 곳에 王后寺라는 절을 창건하였다고 한 점이다.

이런 점들을 면밀히 분석해 볼 때, 허왕후가 인도 등에서 왔다는 설화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후대의 윤색에 불과하다. 가락국기에서 허왕후의 배가 도착할 때 수로왕이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마치 거래 관계에 있던 외국 商船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물건을 잘 간수하는 광경을 연상케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漢肆雜物’, 즉 중국 가게의 여러 가지 물건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許王后로 表象되는 김해 駕洛國의 王妃族은 낙랑 지역에서 도래한 2차 유이민이거나, 또는 낙랑 지역에서 이곳을 수시로 왕래하는 商人 집단의 일족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2) 수로왕과 석탈해의 다툼

석탈해에 대해서는 해양 교류와 관련한 두 개의 설화가 전하고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석탈해가 왜국 동북 1천 리 多婆那國 왕과 女國 왕의 딸 사이의 아들로서 알의 형태로 태어나 귀작을 타고 금관국 바닷가에 이르렀으나 금관 사람들이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서 거두지 않으므로 진한 阿珍浦 어구에 다다랐다고 하였다. 반면에 『삼국유사』에서는 龍城國 또는 琯夏國 왕 含達婆와 積女國 왕의 딸 사이에서 출생했다고 하였으며, 그가 바다를 건너와 가락국 수로왕에게 도전하였으나 술법 대결에서 실패한 후 교외에 있는 나루터에 이르러 중국의 배가 와서 닿는 물길을 따라 떠나 雞林 동쪽 下西知村 阿珍浦로 도주했다고 하였다. 또한 그가 조상 대대로 冶匠이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꾀를 써서 瓠公의 집을 빼앗는 이야기도 유명하다.

석탈해 설화는 두 군데에 나뉘어 전하기는 하나, 전반적인 줄거리가 거의 흡사하여 어떤 일정한 줄거리가 있었는데 이를 수록한 집단의 성격에 따라 약간 표현을 달리 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왜국 동북의 다파나국 또는 용성국 또는 완하국 왕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여국 또는 적녀국 왕의 딸이라는 것으로 보아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옥저의 동쪽 바다 안에 있다는 여자만 있는 나라 이야기와 통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그가 한반도 남해안의 금관국에 먼저 도착했다가 다시 동남해안의 울산 쪽으로 가서 정착했다는 것으로 보아, 최초의 출발지가 동해안이었다기보다는 서해안 쪽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탈해는 항해에 익숙하고 제철 기술과 같은 선진 문화를 갖춘 것으로 보아, 서북한 낙랑 지역으로부터의 유이민 세력으로 추정된다.

(3) 일본의 천손강림 설화

가야와 일본열도와의 관계를 보이는 해양 교류 설화로 일본의 천손강림 설화가 있다. 그것은 아마테라스오호미카미[天照大神]의 아들인 오시호미미노미코토[忍穗耳尊]와 다카미무스히노미코토[高皇產靈尊]의 딸인 다쿠하타치지히메[栲幡千千姬]가 결혼하여 天孫 니니기노호노미코토[瓊瓊杵尊]가 태어나, 그가 지상에 강림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1948년에 일본의 岡正雄은, 일본 신화가 원래 다카미무스히를 중심으로 하는 高天原 신화와 아마테라스를 주인으로 삼는 두 개의 독립된 신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자의 관계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카미무스히 신화는 한반도를 거쳐 일본열도에 진입한 天皇族에 고유한 조상 신화이고, 아마테라스 신화는 그 이전에 이미 일본열도에 살면서 농업사회를 형성하고 있던 민족의 신화라고 하였다. 그 결과 신화에서도 다카미무스히와 아마테라스의 Dualism이 생겨 祖上神 니니기가 그들 자녀의 혼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三品彰英이 분석한 바와 같이, 가야의 首露神話와 일본의 天孫降臨神話 사이에는 도저히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치가 있다. 그것은 첫째, 일본에서도 가야에서도 건국 신화에서 國土를 지배하라는 天神 또는 皇天의 명령에 의하여 그 자손이 강림해왔다는 점, 둘째, 그 때에 일본의 경우 眞床覆衾이라는 직물, 가야에서도 紅幅에 싸여 내려왔다고 되어 있는 점, 셋째, 강림한 땅이 일본에서는 구시후루타케[久土布流多氣], 또는 다카치호[高千穗]의 구지후루노타케[穗觸峯], 혹은 구시히[穗日]의 다카치호노타케[高千穗峯]라 하고, 가야에서는 龜旨峰이라는 동일 지명인 점 등이다.

이렇게 볼 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전기 가야연맹의 주도적인 나라인 김해 가야국의 옛 지배층이 일본열도에 새로이 진입한 天皇族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의 건국 신화로 볼 때, 김해 가야국의 지배층 일부는 어떤 계기로 인하여 일본열도에 건너가 先住 支配族과 결합하여 천황족의 일부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가야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열도에 이주해 가서도 높은 지위를 보유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불가피하게 고국을 떠난 가야 왕족 계통의 流亡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만한 계기로서는, 400년의 고구려 군대의 南征과 그로 인한 任那加羅의 몰락이 결정적인 것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蘇那曷叱智 설화

『日本書紀』에는 가야와 왜의 해양 교류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설화로서 蘇那曷叱智 혹은 都怒我阿羅斯等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그에 따르면, “崇神天皇 65년(서기전 33) 가을 7월에 任那國이 蘇那曷叱智를 보내 조공케 하였다. 임나는 筑紫國을 지나 2천여 리에 있다.

북쪽에 바다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鷄林의 서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몇 년 후인 垂仁天皇 2년(서기전 28) 조에는 任那人 蘇那曷叱智가 귀국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그에 대한 주석으로 都怒我阿羅斯等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이 설화는 왜국에 가서 귀화하려 한 意富加羅國 王子인 蘇那曷叱智 또는 都怒我阿羅斯 등이 崇神天皇의 이름인 ‘미마키[御間城]’를 따서 국명을 ‘彌摩那’라고 고친 것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물론 그러한 설명은 후대의 왜곡에 지나지 않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호카라, 즉 대가야의 왕자가 동해에 면한 일본 해안을 따라 호쿠리쿠[北陸] 지방부터 산닌[山陰] 지방을 왕래하고 있으며 이즈모[出雲]에서 상륙하여 육로로 야마토, 즉 나라[奈良] 지방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야 지역과 산닌 지역과의 해양 교류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설화는 대가야 왕자가 白石에서 童女로 변한 신을 따라 일본국, 즉 나라 지방으로 가는데, 그는 도요쿠니, 즉 규슈 북동부의 신으로 되어 있고, 또 나니와, 즉 오사카 지방의 신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가야와 일본 긴키 세력과의 교류에서 규슈 북동부와 세토[瀬戸] 內海를 거쳐 가와치[河内] 지방으로 상륙하는 해상 교통로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가야와 일본열도 사이의 다양한 해상 교통로를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都怒我阿羅斯 등의 童女와 같은 神이 일본열도로 이주했다는 것은 神만의 이동이라기보다 그 신을 모시는 사람들의 이주로 보아도 지장 없을 것이다.

2. 낙랑 · 대방과의 해양 교류

(1) 중국 문물의 교류

경남 사천 늑도 유적이거나 창원 다호리 1호분의 납작도끼[板狀鐵斧], 성운문 거울[星雲文鏡], 五銖錢, 창원 성산 패총에서 나온 오수전, 김해 패총에서 출토된 王莽錢과 같은 출토 유물로 보아, 경남 해안지대는 낙랑군 설치 직후인 서력기원전 1세기부터 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외래 문물을 교류하는 중개지였다. 지속되는 부의 축적에 따라 여러 읍락들이 통합되어 작은 정치 단위인 小國이 성립되고, 소국 對 소국 사이의 정치성을 띠는 교역으로 이행해갔다. 그래서 늑도와 같은 섬이나 해안가에 생겼던 移民村들이 사라지고, 교역의 범위가 좀 더 멀리까지 확대되었다.

한반도에서 중국 거울과 중국 화폐가 출토된 곳을 토대로 3세기 이전의 교역 상황을 추정해 보면, 당시의 교역은 평양시 일대와 해운이 편리한 남해안 일대 및 낙동강 유역의 세력들이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3세기 이전 동북아시아의 교역은 낙랑 · 대방군을

매개로 하여 중국-한반도-일본열도가 연결되는 형세에 있었으며, 남한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중계자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김해의 가야국(구야국, 금관가야)이었다.

서기 2세기 중엽 또는 후반으로 추정되는 소국 수장급 목곽묘인 김해 양동리 162호분에서는 후한시대의 內行花文鏡과 四乳鳥文鏡이 출토되어 낙랑과의 교섭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전체 유물 분포상은 평양 정백동 53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청동기, 철기, 토기, 구슬 등과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양동리 고분 축조 세력은 서북한 지역의 낙랑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三國志』 韓傳에 “桓帝(147~167년)와 靈帝(168~189년) 말기에 韓과 濊가 강성해져서 군현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자, 주민들이 많이 韓國에 흘러 들어갔다.”는 기록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3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김해 양동리 322호 목곽묘 출토 銅鼎과 화려한 목걸이(수정제 곡옥 148점, 대형 多面玉 2점) 등도 낙랑 지역에서의 수입품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3세기 이전에 김해의 가야국은 낙랑군 및 대방군을 통해 중국과 교역하였다. 중국 군현 관리와 삼한 臣智와의 교역 활동은 朝貢과 官爵·印綬의 수여라는 ‘조공 무역’을 통해 이루어졌고, 김해와 같이 해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는 중국 상인과 왜인 등 각지에서 모여든 외래 교역인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심지 시장 교역’의 형태도 있었다.

다만 당시의 한반도 남부에는 낙랑과 더 많은 교역을 이루려는 首長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한반도에 통합 권력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중국 군현의 의도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위나라 景初年間(237~239)에 중국 군현과의 교역증서인 衣幘을 갖고 있던 삼한 사람들이 천여 명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보아 원거리 교역만으로는 가야의 독점적 지위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2) 북방 문물의 교류

3세기 말 이후에는 가야연맹체가 좀 더 독점적으로 영도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 가야국의 중심은 현재의 김해 시내 쪽으로 옮겨졌으며, 그 최초의 고분은 김해시 대성동 29호분이다. 이 고분은 대형 덧널무덤으로서 도질토기를 다량 부장하고 순장을 하였으며 오르도스 청동 술[銅鍔], 쇠로 만든 갑옷과 투구[鐵製甲冑], 騎乘用馬具 등의 북방 문화 요소를 부장하여, 강하고 부유한 지배자의 면모를 보였다. 김해 양동리 318호분의 鐵鍔, 235호분의 銅鍔, 김해 대성동 11호분의 청동제 虎形帶鉤, 47호분의 동북, 23호분의 曲刀 등도 내몽고나 중국 동북 지역에 기원을 둔 유목 기마민족 계통의 유물들이다.

혹자는 이러한 북방 문화 도래의 기원을 부여에 의한 가야 정복에 두고, 그 교통로를 한반

도 동해안 방면의 통로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북방 문화 요소는 김해 양동리 162호분의 鐵鍔과 같이 한반도 서북 지역과 원활한 교역 활동을 하고 있던 2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3세기 말, 4세기 초 중국 북부를 중심으로 하여 동북아시아 세계에 전해진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가야의 재지 세력은 외부에서 들어온 강력한 힘에 의하여 정복된 것이라기보다는, 한반도 서북 지역과 원활한 교역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주변 세계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가 무언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하겠다.

4세기에 들어 중국 북방에서는 胡漢의 대립과 융합 과정이 치열하게 일어나자, 고구려 미천왕은 이런 혼란을 틈타 西晉이 경영하던 낙랑군과 대방군을 313년과 314년에 각각 병합하였다. 고구려는 4세기 초에 중국 한족의 쇠퇴를 계기로 낙랑군과 대방군을 병합함으로써 400년 이상에 걸친 민족의 숙원을 푸는데 성공하였으나, 이에 따라 기존의 낙랑을 중계 기지로 한 한반도 남부의 선진 문물 교역 체계가 일단 붕괴되었다.

이는 한반도 남부에서 낙랑과의 원거리 해상 교역을 통해 발전하던 김해 가야국의 영도력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3세기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김해 양동리 고분군에서 출토되던 청동기와 대형 구슬로 장식된 목걸이 등의 낙랑 계통 威勢品이 4세기 이후의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3. 백제와의 교류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3세기 전반까지 마한 지역에는 54개 소국이 분립되어 있었고 그 대표권은 目支國 辰王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백제는 일개 소국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변한 12국들은 중국 또는 중국 군현과의 교역 체계에서 마한 소국들과 마찬가지로 명목상 목지국의 진왕에게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백제와 가야 제국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었으며,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었다.

백제와 가야 사이의 보다 직접적인 교섭은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日本書紀』 欽明 2년(541) 4월 조의 백제 성왕 회고담에 의하면, 근초고왕 및 근구수왕 때에 安羅, 加羅, 卓淳 등의 婁岐들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서로 통하여 친교를 두터이 맺었다고 한다. 이로 보아 4세기 후반에 백제가 가야 지역에 진출한 것의 성격은, 사신의 왕래와 같은 평화적 수단으로 그들의 협조를 얻어 교역로를 개통했다는 점에 있다. 백제가 가야 지역에 와서 왜로 이어지는 해상 교역로를 개척한 것은, 낙랑·대방 멸망 이후 중국계 선진 문물 구입에 난조를 겪던 이 지역 소국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任那加羅를 중심으로 해로를 통하여 한반도 중서부 및 왜로 이어지는 해양 교류가 복원되면서 가야 제국은 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4세기 말에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열세에 밀리게 되자 가야와의 교역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왜군을 동원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백제-가야-왜 사이의 동맹이 형성되었으나, 이들은 400년 및 404년에 걸쳐 고구려-신라의 동맹군에게 큰 패배를 맛보았다. 그 후 백제와 김해 가야국 사이의 교역 체제가 5세기 초에는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5세기 전반에서 중엽에 이르는 시기까지 신라측에 정도되지 않은 낙동강 서쪽 지역의 가야 소국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까? 『日本書紀』에는 서기 262년에 백제 장군인 木羅斤賚가 왜왕의 명령을 받아 加羅의 사직을 복구해 주었다거나, 294년에 그의 아들인 木滿致가 아버지의 공로로 임나를 오로지하고 백제와 왜국을 왕래하면서 백제 조정에서 높은 권세를 누렸다는 등의 기록이 나온다. 이 기사들을 문장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21년(475) 조의 기록을 토대로 木滿致의 존재시기를 조정하고 제한적인 사실성을 인정한다면 442년 및 474년 무렵인 5세기 중엽 이후로 ‘加羅’, 즉 고령의 伴跛國을 중심으로 한 백제-가야-왜 교류 관계가 존재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 교류 관계는 백제 귀족인 木氏의 활동을 매개로 하여 새로이 고령의 반파국이 백제의 대외 교통에 협조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宋書』의 기록으로 보아, 개로왕 4년(458)에 그의 추천으로 송나라로부터 관작을 받은 11인 중에 木羅斤賚로 추정되는 木衿이 龍驤將軍의 작호를 받은 것은, 개로왕이 그의 공로를 크게 인정한 덕분이라고 보인다. 만일 목씨가 마한 목지국의 지배 세력이었고 한성기 백제 5부 중 하나인 南部의 핵심 세력이었다면, 목씨의 활동은 마한시절 목지국과 가야국의 관계와 같은 전통적인 교역망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세기 후반에 이르러 국제 관계는 다시 크게 동요하였다. 백제는 475년에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 漢城을 상실하고 熊津으로 천도하였으며, 천도 당시에 문주왕의 남천을 보필하였던 木滿致 일파는 천도 초기 熊津城에서의 政爭에서 패배하여 왜국으로 이주한 듯하다. 따라서 백제에서 가야 지역을 통하여 왜로 가는 교통로는 다시 두절되기에 이르렀다.

6세기 초에 이르러 국세를 회복한 백제는 왜와의 교역을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 가야 지역을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日本書紀』 繼體 6년(512) 조부터 10년(516) 조까지 나오는 백제의 이른바 ‘任那 4縣’(전남 광양, 순천, 여수 지방) 및 己汶(전북 남원, 임실, 장수)·帶沙(경남 하동) 공략은 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 이어 530년대에 백제는 가야에 대한 잠식 방법을 바꾸어, 선진 문물을 공여하면서 외교적으로 가야연맹 전체를 부속시키려고 노력하였

다. 그 결과 고령, 합천, 거창, 진주 등 주로 대가야 문화권에는 백제 문물의 요소들이 약간 추가된다. 가야연맹은 백제의 거듭되는 선진 문물 증여에 의하여 경계심이 이완되다가 결국 친 백제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그리하여 백제는 549년 또는 550년 초에 걸쳐서 가야연맹에 대한 외교의 대성공을 거두었다.

4. 신라와의 교류

3세기 이전의 가야와 신라는 변한과 진한을 주도하는 소국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1~3세기의 진한과 변한은 문화 성격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어서 흔히 ‘진·변한 공통 문화기반’을 이루고 있었다고 표현한다. 이로 보아 3세기 이전의 가야와 신라는 문화적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상호 교류가 원활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서로 구분되는 세력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3세기 중엽에 이르러 경주의 사로국은 이러한 구도를 타파하기 위하여 낙랑과 직통하는 내륙 교통로를 개설하였다. 『삼국사기』에서 신라가 아달라 이사금 때에 雞立嶺路와 竹嶺路를 개통하였다는 것은 이를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신라도 자기 나름의 교역 주도권을 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가야와 신라는 3세기 후반 이후로 상호 교류보다는 영역을 다투는 분쟁 관계로 돌입하였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보이는 신라와 가야의 전쟁 기사는 그러한 사실의 반영이다.

한편 『삼국사기』 신라본기 나해 이사금 6년(201) 조부터 17년(212) 조까지 나오는 가야 관련 기사를 보통 ‘浦上八國의 亂’ 또는 ‘포상팔국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 요점은 가야에서 해변 또는 강가에 있는 骨浦國, 柒浦國, 古史浦國, 史勿國, 保羅國 등의 여덟 나라가 가야국을 공격하였는데, 신라가 이를 구원해주고 가야 왕자를 볼모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상팔국 전쟁의 성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이 두 차례의 전쟁은 주로 김해나 울산과 같은 해안의 거점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으며, 그 주변의 남해안 지역의 소국들과 동해 남부 해안의 사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4세기 초에 낙랑·대방이 몰락하면서 서·남해안 항로의 역할이 약화되자, 김해 가야국의 주도권을 인정치 않는 서부 경남 지역의 소국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자 김해의 가야국은 그 海路의 배후에 있던 낙동강 중·상류의 소국들이나 동해 남부의 소국 등을 규합해서 이에 대응하였으며, 사로국도 그 배후 세력 중의 하나였다.

이로 인하여 가야와 신라 사이에 일시적으로 화해와 통교의 시대가 이어졌으나, 4세기 중엽에 들어 고구려와 백제가 황해도 지역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한 것의 여파로, 가야와 신라도 다시 분쟁의 시기로 들어섰다. 그리하여 가야는 백제와 교역을 시작하고 신라는 고구려의

문물을 전수받는 위성국의 지위로 들어서면서, 가야와 신라 사이에 문물의 단절이 지속되었다. 결국 이는 4세기 말 5세기 초에 격렬한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 전쟁에서 고구려-신라 연합군이 승리하자, 가야의 교역권은 축소되었고 신라의 교역권은 낙동강 동쪽 지역을 총괄하며 확대되었다.

그러나 522년에 고령의 대가야가 신라의 법흥왕조와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일시적으로 가야와 신라 사이의 문물 교류가 허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것은 곧이어 신라에 의한 己吞(창녕 영산), 南加羅(김해), 卓淳(창원) 3국의 무력 병합으로 이어지면서 가야와 신라 사이의 교섭은 다시 끊어졌다.

5. 왜와의 해양 교류

(1) 김해의 가야국과 九州地域과의 교류

加耶는 일본열도와의 해양 교통이 가장 편리하다는 지형적 요인으로 인하여, 가야사의 전 기간을 통하여 왜와 밀접한 교류를 하였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의 김해 지방에서 출토된 야요이[彌生] 토기 및 그 모방품으로 보아, 그 시기에 규슈[九州] 지방의 야요이인들이 김해 지방으로 들어오거나 방문하였고 그 후손들에 의하여 국지적으로 그 전통이 이어졌다. 야요이인들의 목적은 한반도 서북 지역의 선진 문물인 금속기 및 그 원료 획득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선점하고 있었던 가야 지역 사람들은 우월한 입장에서 그들과의 교역을 이루어나갔다.

2세기 이후로는 좀 더 큰 정치체인 소국 내지 연맹체 단위로 교류가 이루어졌다. 2세기 무렵에는 김해의 加耶國(=金官加耶)이 교류를 주도하였고, 그 상대국은 일본의 북큐슈[北九州] 일대였다. 당시에 가야는 규슈에 납작도끼[板狀鐵斧]로 대표되는 鐵素材와 낙랑을 통해 수입한 漢의 선진 문물을 수출하였다. 부산 및 김해 지방의 생활 유적에서 보이는 야요이 토기와 그 모방 토기의 출토 상황으로 보아, 야요이인들이 이 지역에 직접 유입되어 단기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요이 토기의 출토 지역 분포로 보아, 김해의 가야국은 규슈로부터 제철과 농업을 비롯한 각종 생산 과정에 필요한 노동력, 즉 ‘生口’를 수용하였다고 추정된다.

(2) 山陰, 近畿地域으로의 교류 확대

3세기 무렵에는 가야와 교류하는 일본열도의 영역이 좀 더 확대되어 북큐슈[北九州] 뿐만 아니라 산닌[山陰], 산요[山陽] 지방과도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3세기 중엽에는 새로이 일본

열도의 교역 주체로 떠오른 긴키[近畿] 지방과도 교류하였다. 『三國志』魏書東夷傳 倭人條에 보이는 帶方부터 邪馬臺國까지의 교통로 서술로 보아, 김해의 가야국은 왜의 北岸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중요한 교통 거점이었다.

가야와 왜는 오랜 기간에 걸쳐 鐵을 통하여 밀접한 교류 관계를 맺고 있었다. 弁辰의 鐵을 韓, 濊, 倭가 모두 구해가며, 弁辰에서는 이를 중국의 錢과 같이 이용하고 또 낙랑과 대방에도 공급했다는 『三國志』의 기록은 이를 입증한다. 그에 비하여 일본열도의 철 생산은 한반도 남부에 비해 500년 이상 늦어서, 일본열도에서 제철이 행해지지 않던 5세기 후반까지 왜는 가야로부터 납작도끼나 덩이쇠[鐵鋌]와 같은 鐵素材를 입수해서 철기를 생산하였다. 4세기 전반에 김해나 부산 등지에서 발견되는 북큐슈 및 산닌 지역의 하지키[土師器]들은 일본열도에서 노동력으로 제공된 왜인 1세대가 가져온 토기들이다.

3세기 후반 이후 가야 지역의 중심부에는 철제 판갑옷과 마구, 筒形銅器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4세기에 낙랑, 대방의 멸망과 함께 중국산 銅鏡과 북방계 銅鍍 등의 교류가 쇠퇴하게 되자, 일본열도와의 교류에 더욱 몰두하는 면모를 보였다. 김해 대성동 계통의 鐵素材인 납작도끼는 이 시기에 京都府, 福岡縣, 岡山縣, 愛知縣, 神奈川縣, 群馬縣, 福島縣 등 일본 각지에서 출토된다.

(3) 금관가야(임나가라)와 河内地域의 집중 교류

4세기 후반에 한강 하류 유역의 백제가 고구려의 부진을 틈타 크게 성장하여 옛 대방군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중국 남부의 東晉과 교류하고 동시에 가야와의 교역을 성립시켰다. 이에 따라 가야는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재통합되어 왜와도 긴밀한 교역을 이루게 되었다. 가야의 철의 교역 상대는 일본 긴키 지방의 옛 야마토[大和] 중심지 서쪽에서 새로이 통합의 주체로 대두한 가와치[河内] 세력이었다.

백제는 4세기 후반의 360년대부터 380년대까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우세를 점하였으나, 390년대에 들어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왕위에 오르자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그러자 백제는 가야와 왜에 원군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에 왜군의 武裝 체계는 重裝騎兵 위주의 고구려군은 물론이고 마름모꼴 단면의 쇠투갑창[斷面稜形鐵鏃]과 종장판 정결 판갑옷[縱長板釘結板甲] 위주의 가야군 무장 체계에 훨씬 못 미치는 쇠단검[鐵製短劍]과 두께가 얇은 쇠화살촉[鐵鏃] 위주의 것이었다.

그리하여 가야는 왜군이 유효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즉 자신들을 도울 왜군의 무력 강화를 위하여, 가야의 도질토기와 철기 및 甲冑 관련 工人들을 왜국에 원조하여 그 곳을 가야의 전쟁 배후기지로 개발하였다. 후루이치[古市]와 모즈[百舌鳥]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河內 지방에서 금관가야의 덩이쇠와 筒形銅器가 장착된 鐵銚 및 철제 판갑옷이 나타나고, 4세기 후반의 김해 대성동 2호분, 13호분, 23호분에서 일본 近畿 지방의 巴形銅器가 부착된 방패와 벽옥제 돌화살촉 등이 나타나는 것은 양자 사이의 동맹 관계를 나타낸다.

(4) 가야국, 안라국, 고자국과 近畿, 四國, 九州地域과의 개별 교류

5세기 전반에는 가야 지역에서 일본열도에 철이나 선진 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 주도 세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함안, 고성 등지의 가야 소국들은 각자의 노력으로 소규모로 왜와 교섭하였다. 물론 함안 양식의 繩蓆文打捺壺가 나가사키현[長崎縣] 다이쇼군야마[大將軍山] 고분이나 후쿠오카현[福岡縣] 히가시시모다[東下田]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함안의 안라국은 3~4세기 단계에도 일본열도와 독자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보이나, 5세기 이후로는 그런 관계가 좀 더 강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전쟁의 여파로 몰락한 금관가야의 기술 있는 유민들이 상당수 일본열도로 유입되어 들어간 사태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열도에는 스에키와 직조, 제방, 금속가공 등의 선진 기술이 다량 전수되었다.

오사카부[大阪府] 오바테라[大庭寺] 유적의 TG232 폐기장에서 출토된 鉢形器臺의 문양 구성은 부산 복천동 21-22호분과 거의 일치하며, 그에 이어 복천동 10-11호분 계통의 문양도 나타난다. 부산 복천동 고분군 축조 세력, 즉 瀆盧國은 4세기 후반에는 가야 계통에 속한 세력이었으나 4세기 말 5세기 초에 신라 계통의 문물을 출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들은 김해의 가야국이 약화된 시기에 그를 대신하여 한동안 일본열도 近畿 지방과의 교섭을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반면에 筒形高杯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스에키는 四國 지방의 가가와현[香川縣] 미야야마요[宮山窯]와 미타니사부로이케요[三谷三郎池窯] 및 인근의 에히메현[愛媛縣]의 고분군 등에서 출토되고 있어서, 이 지역에는 함안의 안라국 계통의 工人이 파견되어 활약하였다고 추정된다. 한편 固城 양식의 三角形透窓高杯와 水平口緣壺 등으로 보아, 후쿠오카현[福岡縣] 아사쿠라요[朝倉窯]와 인근 코테라[古寺] 고분군 및 이케노우에[池の上] 고분군의 스에키는 고성 古自國과의 교류를 통하여 工人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인다.

이렇게 볼 때 4세기 후반 및 5세기 전반의 일본열도는 近畿의 왜왕권과 김해 가야국 또는 그 창구인 瀆盧國과의 관계가 주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四國 및 九州 지방 세력들도 각기 가야연맹의 유력 소국들인 安羅國 및 古自國과 별개의 관계를 맺으면서 독자적인 교섭 활동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고령의 대가야와 일본열도 각지(近畿, 東北, 九州)와의 교류

5세기 후반 이후로는 고령의 대가야가 왜와의 교류를 주도하였다. 대가야는 야마토[大和]를 비롯한 일본열도 각지의 작은 세력과도 교류하며 덩이쇠[鐵鋌]와 더불어 장신구, 마구 등의 물품들을 수출하고, 왜로부터 왜인 병력을 들여다 활용하였다. 대가야 계통의 유물은 5세기 중엽에 에히메현[愛媛縣] 키노모토[樹之本] 고분에서 고령 양식의 長頸壺가 출토된 이후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어, 후쿠이현[福井縣] 니혼마쓰야마[二本松山] 고분, 사이타마현[埼玉縣] 이나리아마[稻荷山] 고분,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오타니[大谷] 고분, 구마모토현[熊本縣] 에타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 등에서 대가야의 금동관, 귀걸이를 비롯한 威勢品들이 나타났다. 한편 가야에 의하여 왜의 무력 강화를 위한 원조로서 5세기 중반부터 후반의 일본열도에 말을 사육하는 馬飼集團의 집중적인 이주가 이루어졌으나, 대가야의 상황에 비하면 왜의 重裝騎馬軍團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이며, 6세기에 들어가서는 武裝보다 裝飾馬具의 생산이 성행하게 되었다. 또한 5세기 말엽에는 일본열도에서 자체적으로 철 생산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철 생산 기술은 대가야가 아닌 다른 가야 소국, 또는 영산강 유역의 백제 계통 소국들로부터 전해졌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5세기 후반 이후로 일본열도 각지에서 고령 계통의 위세품과 토기가 분포되기 시작하고, 축소모형 철제 농기구가 4세기 말부터 6세기 초엽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성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고령 지방의 대가야가 자신의 문물과 함께 일부의 백제 문물을 가지고 왜와 교류한 것을 반영한다. 또한 고령 지산동 44호분에서 오키나와산 夜光貝製 국자가 출토되고, 지산동 45호분에서 왜 계통 청동거울이 출토되고, 합천 봉계리 20호분에서 스에키가 출토되어, 왜의 물품이 가야 지역에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대가야가 중국이나 왜와 무역하는 교통로는 낙동강 하구의 김해 지방을 이용하기보다는 서쪽의 하동 방향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낙동강의 동쪽 지역 일대는 신라의 세력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교통로가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가야는 위와 같은 위세품과 합천 야로 지방의 鐵과 같은 물품의 유통권을 대내적으로 장악하는 한편, 대외 교류 창구를 일원적으로 독점하게 되면서 가야의 맹주로 성장했던 것이다. 다만 전 시대와 같이 유리한 수운을 가진 낙동강 하구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은 대외 교역상의 큰 한계였다.

대가야와 왜 사이의 교류는 6세기 전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6세기 중엽 이후에는 새로이 백제가 독자적으로 왜와 교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일본측 상대는 나라[奈良]의 야마토[大和] 정권이였다. 백제는 왜에게 오경박사, 승려, 기술자 등을 교대로 보내주어 고급

정신문화를 전수하였고, 그 대가로 신라와 대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軍兵을 요청하였다. 중앙 집권적인 고대국가 통치 체제의 정비 과정에서 백제 문화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게 된 왜의 아마토 정권은 가야의 중계를 배척하고 백제와 직접 교류하게 되었으며, 이는 가야가 약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IV. 결어

가야는 가장 전성기에 22개 소국을 거느리는 연맹체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6세기 전반에는 중앙 집권적인 고대국가를 건설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10여개 소국의 연맹체 형태를 유지하면서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6세기 중엽까지 700년 가까이 유지되었다. 그 중에서 4세기 말까지는 金海의 加耶國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5~6세기에는 高靈의 大加耶國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가야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바다 건너 일본열도의 세력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는 대체로 물자 교류를 통해 상호 이득을 취하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낙랑이나 백제는 가야가 일본열도에 전해줄 선진 문물의 공급처로 기능하였다. 가야 지역과 일본열도의 교류 상대는 상호간의 역사 전개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6세기 중엽 이후로는 백제가 고급 정신문화를 가지고 직접 일본열도와 교류하게 되었다.

가야는 일본열도라는 대형 소비처를 바탕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물자 교류를 주도할 수 없게 되면서 멸망하였다. 이런 점은 어쩌면 일본열도에서 선진 문물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던 北九州와도 비슷한 운명이었다.

참고문헌

김태식,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3권』, 서울: 푸른역사.

김태식, 송계현, 2003, 『韓國의 騎馬民族論』, 과천: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박천수, 2007, 『새로 쓴 古代 韓日交涉史』, 서울: 社會評論.



GIMHAE NATIONAL MUSEUM



바닷길을 통한 변한사람들의 대외교류

이 양 수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변한은 삼한 중의 하나로 현재의 낙동강 하류를 중심으로 경남지역에 존재했던 정치체이다. 삼한의 시작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위만의 조선공탈에 이어 준왕이 남으로 내려올 때, 이미 韓이라는 세력이 존재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여 기원전 194년 이전에 韓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고고학적인 문화가 점토대토기, 한국식동검으로 대표되는 시기이므로, 韓이라는 세력은 지식묘의 소멸과 함께 시작된 단면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보아 기원전 4세기 말 경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申敬澈 1995; 李在賢 2003). 최근에는 단면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 한국식동검문화의 시작, 다뉴조문경의 유입 등이 기원전 4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견에 따라 삼한의 시작도 좀 더 이른 시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¹⁾

삼한의 성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변한의 경우 기원전 2세기 초-위만의 조선공탈과 준왕의 남하가 이루어진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는 청동기Network에서 철기Network로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즉 청동기의 중심지인 마한이 점차 쇠퇴하고 철기의 중심인 변진한이 성장하는 시기이다. 그 성장배경에는 고조선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유·이민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 유·이민들은 이후 철기를 매개로 한 대외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李在賢 1995).

변한의 성장 원동력이 ‘철’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변한의 ‘철’은 단순히 채광에 의한 원재료의 확보 뿐 아니라 그것을 정련하고 주조 혹은 단조로 철기를 제작하는 기술, 그리고 그것을 멀리 왜와 중국 근현까지도 수출하는 원거리 교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三國志》魏書 東夷傳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國出鐵韓濊倭皆從取之諸市買皆用鐵如中國用錢又以供給二郡.

‘변진한에는 철이 나오는데 한, 예, 왜가 모두 이를 가져 썼다. 시장에서 철을 사용함이 중국의 돈과 같이 낙랑군과 대방군에 공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아래의 세 가지이다.

① 원거리교역을 통해 철이 수출되었다

1) 한국식동검과 동과의 출현이 전국 ‘연’과의 긴장관계에 의해 출현된 무기로 보면 기원전 3세기 초에 한반도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모와 동과의 출현은 한국식동검 발전기에 출현하는 것으로 그보다 앞선 성립기는 진개의 활동시기 이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李陽洙, 2009a)

- ② 교환의 척도로서 철을 화폐와 같이 사용하였고, 낙랑군과 대방군에서도 공급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 ③ 시장이 있었다.

먼저 ①은 원거리교역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②는 현물화폐의 존재와 함께 광역에서 철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은 앞선 두 가지에 비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인데, 시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여기서의 시장은 현대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교환²⁾을 위한 공인된 장소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시장의 존재를 바탕으로 변한사회를 재구성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변한의 대외교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변한지역에서 발견되는 외래문물을 정리하겠다. 외래문물은 마한, 왜, 한군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양 세력 간의 교역 물품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변한의 교역과 교섭의 중심은 이전의 연구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의 김해지역인데, 김해의 구야국이 중심이 되어가는 과정 역시 교역망의 정비와 집중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변한의 대외교역의 특징을 살피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II. 연구사와 문제제기

변한지역의 대외교역의 대상은 韓, 예, 왜, 漢郡縣 등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마한, 왜, 漢郡縣 등이다. 아직 예와 관련된 유물은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명확히 증명하기 힘들다.

대외교역에 관한 연구는 각 지역 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漢郡縣, 왜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피고자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먼저 漢郡縣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朝鮮總督府 1925). 단순히 漢의 문물이 확인되는 것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시작된 대외교역에 대한 연구는 개별 유물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되었다(朴敬源 1970; 尹容鎭 1980; 李康承 1984). 또한 삼한 소국의 성장배경을 철기 생산과 보급에 따른 생산력 향상 그리고 낙랑과의 교역이라는 주장도

2) 이 글에서 사용하는 교환은 최상위 개념으로 물물교환, 교역, 교섭, 교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세부적으로 교역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을 뜻하며, 교섭은 정치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이다. 교류는 무형적인 정보나 문화의 교환을 뜻하며, 호혜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의미로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문헌사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李賢惠(1984)는삼한의 성장배경이 낙랑군과의 교역관계에 있음을 주목하고, 소국 간의 대내교역을 활성화시켜 각 지역 세력의 생산력을 향상시킨다고 보았다. 이후 낙랑군과의 무역형태가 조공무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私貿易이 병존한다고 주장하였다.

尹龍九(1995)는 낙랑군과 삼한의 대외교역의 형태를 관련문헌의 해석을 통해 밝혔다. 그는 낙랑군으로 이입된 중원의 고급물품이 일반적으로 낙랑군에서 소비되고 극히 일부가 삼한지역으로 이입되었다고 보았다. 이런 고급물품이 삼한으로 이입되는 것은 조공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으며, 간헐적으로 조공이 이루어진 점, 사치품에 대한 삼한의 수요가 적었던 점, 수출이 금지된 물품이 많았던 점 때문에 고급물품의 삼한 이입이 적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삼한사회에서 낙랑으로 이입된 물품 중에는 낙랑산으로 바뀌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위만조선과 주변 민족과의 교역형태를 답습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高久健二(1997·2005)는 낙랑군을 통해 삼한으로 유입된 문물 중에는 한식계와 비한식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낙랑군과 삼한의 교역형태는 상위계층 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조공무역과 하위계층 간에 이루어지는 사무역이 공존한다고 보았다. 상위계층 간의 교역을 체계적이지 않은데 이는 삼한에 이입되나 수용되지 않는 한식유물로 설명하였다. 반면 비한식계 유물은 대부분 삼한의 문화요소로 수용되어 변용되는데 상위계층보다 하위계층에서 더 체계적인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천 늑도 유적에서 발견된 한식 문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신의 편년관을 확인하였는데 그는 낙랑군이 설치된 이후에 한식문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³⁾. 이러한 주장은 후술할 鄭仁盛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李在賢(2000)은 동경을 중심으로 漢 문물에 대한 교역을 살폈는데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동경을 집대성하여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교역체계에 대해서 논하였다. 그에 따르면 I기는 성운문경, 이체자명대경, 휘룡문경이 사용되는 시기로 동경의 수입과 방제경의 제작이 활발한 시기이다. 대구와 경주 등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남부와 일본이 교역하는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는 호형대구를 통해 낙랑상인보다는 중국 상인의 활동이 중심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II기는 경북지역이 쇠퇴하고 김해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시기로 후한경이 유입되는 시기이다. III기는 삼국시대로 가야지역에서 동경의 제작이 중단되고 일본을 통해 후한경과 방제경, 왜경 등이 부분적으로 수입되는 시기로 파악하였다.

3) 그는 낙랑군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한식문물에 대해서 낙랑군 설치 이후 유입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양 토성동 486호묘에서 발견된 戰國鏡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일본에서 다량으로 발견되는 한경이 한반도 남부에서는 그리 많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동경이 분배된 것이 아니라 이익에 따른 유통의 측면에서 한반도 남부의 동경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교역루트에 있어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해로를 통해 철을 매개로 한 대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낙랑과의 조공무역은 육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중세의 교역형태를 참고로 조공, 사행, 사헌, 사상무역 등을 상정하여 조공무역과 사무역으로 나뉘던 기존의 연구를 좀 더 구체화시켰다.

鄭仁盛(2003)은 낙랑군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그의 연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단순히 변한지역에서의 외래계 문물의 검토가 아닌 변한과 그 상대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낙랑군, 요동지역을 포괄하여 살피고 있는 점이다. 그것을 통해 근현의 위치가 평양주변이었을 것이라는 밝히고, 요동지역과도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낙랑군과의 교역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는 낙랑군이 설치되기 이전시기, 2단계는 낙랑군이 설치된 이후로 변한에서 목관묘가 사용되는 시기, 3단계는 대형목관묘가 등장하는 2세기 중·후엽으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익산 평장리 출토 사업사리문경, 함평 초포리·완주 상림리 출토 중국식동검, 부여 합송리, 당진 소소리 유적 출토의 유리제 대롱옥, 전남 출토 명도전 등을 근거로 마한과 중국의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변한에서는 아직 중국과의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김해패총의 옹관, 사천 늑도 유적 출토의 城ノ越식 토기 그리고 北部九州에서 확인되는 점토대토기를 근거로 양 지역 간의 활발한 대외교역을 추론하였다. 2단계는 낙랑군 설치 이후인데, 마한의 견제를 위해 변한과의 교역을 증대시키는 시기로 파악하였다. 이 시기는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된다.

전반은 임당 E-58호묘 출토 초엽문경 재가공품, 사천 늑도 출토 반량전·활석혼입계, 심발형토기 등을 근거로 기원전 1세기 전반 대 이전부터 변한과 낙랑군의 교역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이 시기에는 교역권을 장악한 집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후반은 낙랑에서 유입되는 漢 문물이 급감하는 시기이다. 아마도 삼한에서 漢 문물이 가지는 위세품으로서의 가치가 줄어든 것이 이유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한 물물이 재지화되는 양상이 호형대구, 쌍조식 검파두식, 조립식 검초를 동반하는 세형동검, 재갈, 재갈멈추개 등에서 확인된다. 이 시기부터 금관가야의 모태가 되는 김해지역이 대외교역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3단계에는 완제품보다는 원료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며, 사무역이 중심이 되는 시기로 파악하였다. 대방군의 설치로 교역의 중심 창구가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아직 구분이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강원도 해안을 통한 교역루트가 만들어진 것도 이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종합하면 그는 이전과 마찬

가지로 조공무역과 사무역으로 구분하고 중요한 위세품에 대해서는 조공무역,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무역을 논하고 있다.

漢郡縣과의 교역이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면 왜와의 관계는 임나일본부의 연구와 함께 시작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임나일본부는 한반도 남부를 왜가 지배했다는 것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삼국시대 분묘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梅原末治(1947), 穴澤啄光·馬目順一(1975), 韓炳三(1976), 西谷正(1977), 小田富士雄(1980)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대체적으로 삼국시대의 직호문, 동경, 갑주, 곡옥 등에 한정되었다. 삼한시대 왜와 관계를 살핀 연구는 申敬澈(1980)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는 점토대토기의 연대를 구하는데 있어서 弥生土器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사천 늑도유적의 발굴을 통해 점토대토기와 弥生土器의 병행관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韓炳三·小田富士雄(1991)가 편집한 연구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삼한시대에 걸친 한일교역 관련 자료의 집대성하였다.

이후 片岡宏二(1999)·申敬澈·河仁秀(1991), 安在皓·洪潛植(1998) 등의 연구가 주목받았다. 이들은 점토대토기와 弥生土器의 비교를 통해 양국의 편년을 조율하는 연구였다. 井上圭稔(2006·2011)은 이전까지의 연구를 집대성하여 한일교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는 고성 동외동패총에서 출토된 광형동모와 함께 수대경도 왜의 파경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것들이 모두 왜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최근 논문에서 사천 늑도 유적의 쇠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後藤直(2009)은 왜계청동기의 한반도로의 파급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는데 철기, 철소재의 입수를 목적으로 철과 철기 생산을 장악한 유력자에게 왜계청동기를 사여하고 韓의 논리를 따라서 유력자의 보유물로서 철기를 부장하였다고 파악하였다. 武末純一(2009)는 한반도 남부와 교역에 있어 왜의 해촌 사람들을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동전이 어로와 함께 생업활동의 주체인 교역활동에 대가로 사용되었고 거기에는 문자도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하지만 고분시대에 이러한 화폐의 사용이 두절되는 것은 중국의 漢제국을 배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추측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역의 대상물은 원료철 혹은 철소재였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창원 다호리 1호묘의 피장자를 교역의 왕이자 철의 왕으로 상정하였다.

李昌熙(2011)는 토기를 바탕으로 왜와 한반도 남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는 사천 늑도 유적을 중심으로 철을 둘러싼 삼한과 왜의 교역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삼한의 점토대토기를 사용한 이들과 왜인들이 바다를 건너는 데는 목적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 남부의 대외교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 성과도 많이 축적되었다. 이전에는 대상지역이나 토기, 청동기 등을 분리시켜 연구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에는 종합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지역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 변한의 성장—특히 김해세력의 성장요인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철을 매개로 한 대외교역에 있다. 그리고 마한이나 진한과 달리 계속적으로 대외교역의 증거가 확인되며 대형화된 청동기, 방제경과 같은 대외교역의 증거들이 진한에서 시작되어 기원후 1세기 후엽부터는 김해 양동리 유적을 중심으로한 변한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각 정치체들 간의 교역관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그것을 통해 변한의 성장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이 글의 목적이다.

Ⅲ. 대상자료의 분석

교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교역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역품은 실제 물자의 이동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 마한, 왜, 한군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이외에도 중국 요동반도, 러시아 연해주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확인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양이 적고 현재로서는 그 지역의 정치체에 대한 필자의 식견 부족으로 대표적인 세 정치체에 대한 것만을 다루고자 한다.

1. 마한 관련 자료

연번	대상유물	연대	출토지	동반유물
1	동사	BC 3C	산청 백운리 제사유적(?)	동검, 동모
2	다뉴세문경	BC 3C	사천 월성리 1호 목관묘	
3	동사			
4	다뉴세문경	BC 3C	전 마산	
5	동사	BC 3~2C	김해 회현리 D지구	옹관

1. 심봉근, 1980, 「慶南地方 出土 靑銅遺物의 新例」, 『釜山史學』4, 부산사학회.
- 2~3. 이진주 외, 2008, 「사천 월성리 목관묘 출토 다뉴세문경」 『韓國靑銅器學報』1.
4.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1.
5. 樞本杜人, 1935, 「金海貝塚·其の新發見」 『考古學』6-2.

〈표 1. 변한 출토 마한 관련유물〉

마한과 관련된 유물은 동사, 다뉴세문경⁴⁾ 등이다. 동사는 산청 백운리 제사유적, 사천 월성리 1호 목관묘, 김해 회현리패총 D지구 3호 옹관묘 등지에서 확인되었다. 다뉴세문경은 두 점이 확인되는데 한 점은 발굴품, 다른 한 점은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오구라콜렉션 중 한 점이다. 먼저 오구라콜렉션의 다뉴세문경은 마산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데 2구 세문경이다.

경남지역에서 정식 발굴조사에 의해 출토된 다뉴세문경은 사천 월성리 1호 목관묘 출토품이 유일하다. 여기에서는 동사도 함께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유물들은 한반도 서남부 마한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다. 문양의 특징을 살펴보면 3구 세문경으로 외구에 문양을 새기면서 구획을 하지 않고 채워 넣은 듯한 양상을 보여준다. 변한 출토 다뉴세문경의 특징은 가장 고식인 부여 구봉리 출토품과 동일하게 외구에 새겨진 문양이 단순한 문양 단순하다.

동사는 앞서 언급한 사천 월성리 목관묘와 산청 백운리 제사유적, 김해 회현동 패총 D지구 3호 옹관묘에서 출토되었다. 먼저 사천 월성리 목관묘 출토품은 신부 파편으로 가운데 능이 있고 양쪽날에 돌기는 없다. 두 번째로 산청 백운리 출토품은 산비탈의 돌무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져 제사유구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동모 한 점, 한국식동검 네 점과 동반하였으며 일부 결실되었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해 회현동 패총 D지구 3호 옹관묘 출토 동사는 한국식동검 2점과 동반하였다. 옹관은 일본 北部九州에서 김해식 옹관이라고 하는 형식이다. 김해식 옹관이라고 명명된 이유도 바로 이 유적에서 이 형식이 출토되었기 때문으로 일본에서는 한반도의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개시되는 시기 옹관이다. 일본에서 청동기와 장신구가 집중하는 宇木汲田, 吉武, 板付田端, 金隈유적 등 특정집단묘가 형성되는 것도 바로 이 옹관이 사용되는 시기이다(福岡市博物館 1998). 동사는 대략 8점으로 단면형태는 사천 월성리 목관묘 출토품과 동일하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준왕이 남하한 기원전 2세기 초의 것이라 생각된다.

이외에 초기의 한국식동검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마한에서 유입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합천 영창리, 김해 장유 율하리 출토품 등을 들 수 있다.

다뉴경과 동사가 동반하는 경우는 러시아 연해주 이즈웨스토프카부터 시작되어 부여 구봉리, 함평 초포리, 봉산 송산리, 화순 대곡리, 일본 佐賀縣 本村籠 58호 옹관묘 등이다. 이외에도 장수 남양리 4호묘에서는 철사와 함께 동반하여 출토되고 있다.

4) 다뉴세문경은 크게 대동강유역, 금강유역, 영산강유역권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변한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마도 금강유역과 영산강유역권의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대동강유역권의 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다. 다만 분포로 보아 내륙으로는 금강유역, 해안으로는 영산강유역권과 관련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해안에 접하고 있는 사천은 청동기시대 이금동 유적을 비롯해 삼한을 대표하는 늑도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동부 경남, 왜와 서남부를 잇는 바닷길에 해당하고 있었다. 특히 요령식동검의 분포로 본다면 여수 적량동·월내동유적에서부터 고흥 운대리, 사천 이금동, 마산 진동리, 김해 무계리유적까지 파손된 요령식동검을 재가공하여 부장하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바닷길을 통해 변한과 마한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다뉴세문경만을 살펴보면 장수 남양리 유적에서 출토되는 점에서 육십령고개를 넘어 산청-진주-사천으로 유입되는 내륙 루트도 상정이 가능하다. 이는 이후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4세기 전엽까지는 해안길과 내륙길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4세기 후엽에 이르러 경남지역에서 금강유역의 물품은 사라지고 영산강유역의 물품만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해안길 만이 계속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생각된다. 5세기 이후가 되면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마한·백제 관련 유물은 사라지는데 금관가야의 쇠퇴에 따른 정치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 되고 있다(洪潛植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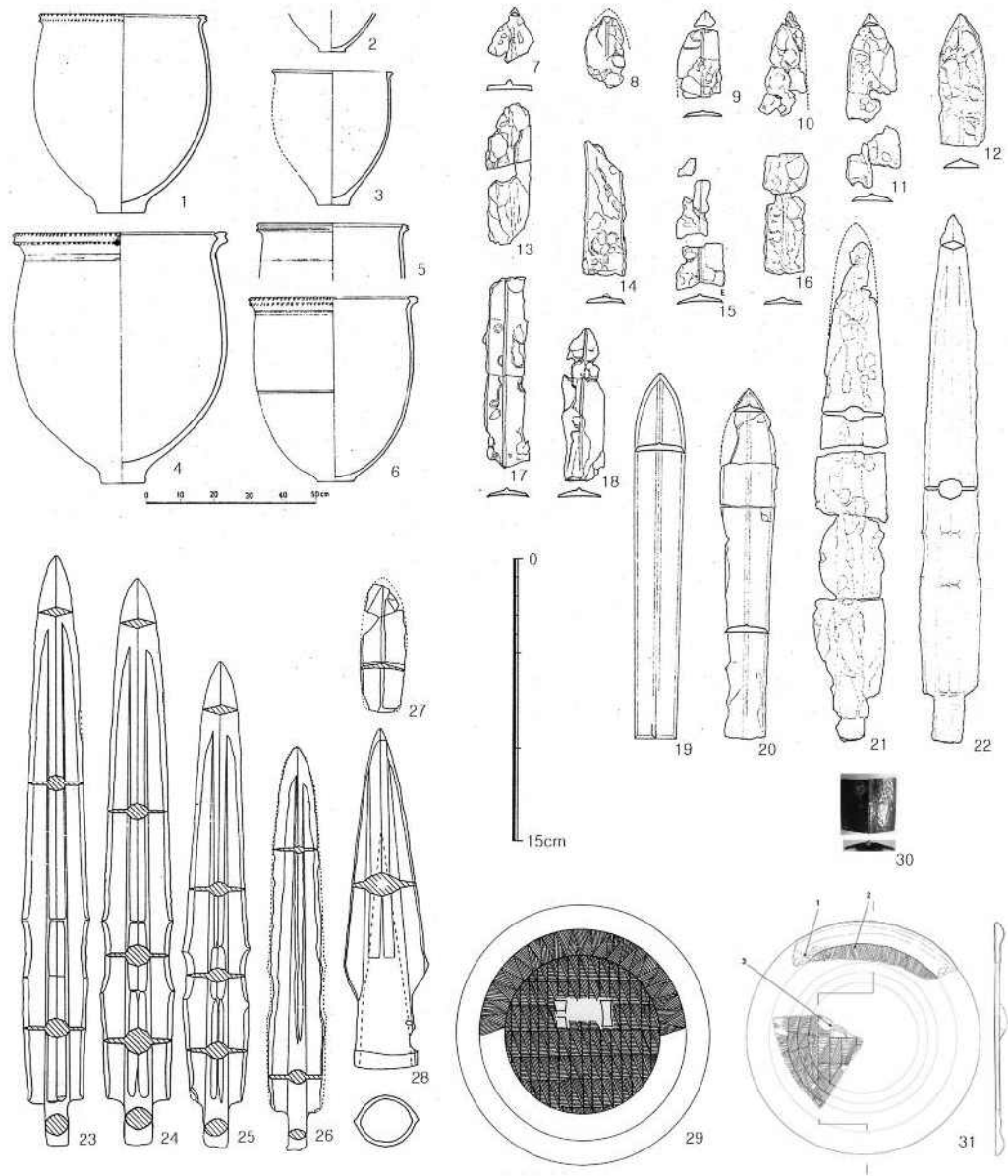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마한 관련 유물들은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아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는 마한 관련 유물들은 모두 삼한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삼한 후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두 번째로 변한의 중심지에서 마한 관련 유물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물론 김해 회현리 패총 D지구 옹관묘에서 출토된 동사가 있지만 다뉴경이 김해에서 출토된 예는 없다. 일본 北部九州에서 10여 점이 출토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마한에서 철을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반대 급부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로 본다면 1~3세기 대에 변한 지역에서 확인되는 마한 관련 유물은 희소하다.⁵⁾

마한에서 확인되는 변한 관련 문물은 극히 드문데 변한과 진한의 문화를 구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변진한을 묶어서 생각한다면, 진천 송두리 1·2호 목관묘와 지표에서 채집된 와질토기, 광양 도월리 유적에서 출토된 철부의 거푸집(李鈺起 2009) 등이 해당할 것이다. 특히 철부의 거푸집은 경주 황성동유적 출토품과 거의 유사하여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특수한 예로서 마한에서 변한 관련 문물도 상당히 희귀한 것이다.

5) 마한과 관련된 토기들은 동래패총 F피트, 낙민동패총, 내성 3·10호묘, 김해 구지로 18·51호묘, 양동리 324·462호묘, 봉황대 8트렌치 등지에서 확인된다. 왜의 경우 西新村유적을 중심으로 마한계토기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현재까지의 분포로 본다면 마한에서 변한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해안 루트의 존재가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토기들은 4세기 대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부분으로 이 글의 시간적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22. 김해패총D지구 / 23~28. 산청 백운리 / 29. 전 마산

30~31. 사천 월성리 1호 목관묘(1~6은 '왜' 관련 유물-김해식용관 7~20 동사 21~26 한국식동검)

〈그림 1. 마한 관련 유물〉

2. 왜 관련 자료

연번	대상유물	연대 ⁶⁾	출토지	동반유물
1	방제경	1C	전 김해 양동리 ⁷⁾ (국은수집품) 불명	불명
2	방제경	1C		
3	방제경	1C		
4	방제경	1C		
5	방제경	1C	김해 양동리 55호 목관묘	철검, 검파두식, 청동검파, 동환 등
6	방제경	1C	김해 양동리 427호 목관묘	철기, 경식 등
7	방제경	1C		
8	방제경	1C		
9	방제경	2C	김해 양동리 162호 목곽묘	연호문경, 사유조문경, 와질토기, 철기 등
10	방제경			
11	방제경			
12	방제경			
13	방제경			
14	방제경			
15	방제경			
16	방제경			
17	중광형동모	유구 4C 유물 2~3C	김해 양동리 90호 목곽묘	와질토기, 도질토기, 연질토기, 철기, 장신구 등
18	중광형동모편			
19	광형동모	3C	김해 양동리 200호 목곽묘	와질토기, 철기, 장신구 등
20	광형동모	3C	김해 양동리 390호 목곽묘	철기 등
21	중광형동모편			
22	광형동모편	3C	김해 양동리 채집품	
23	중광형동모편	2~3C		
24	단뉴경	1C	김해 가야의 숲 3호 목관묘	와질토기, 철기 등
25	동과			
26	방제경	1C	부산 복산동 12호 목관묘	철검,
27	광형동모	1C	김해 내덕리 19호 목관묘	와질토기, 동검,

6) 弥生토기의 연대는 弥生시대의 편년으로 정리하였다.

7) 전 김해 양동리 출토로 전하는 방제경(국은수집품) 5점 중 한 점은 주문경으로 삼국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아라이 사토루, 2010).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연번	대상유물	연대	출토지	동반유물
28	광형동모	1C	고성 동외동패총	
29	방제경	1C	함안 사내리	불명
30	증광형동모	1C	김해 주촌면	불명
31	토기	중기전반~중기후반	사천 방지리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 등
32	토기	중기전반~후기초	사천 늑도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 낙랑토기 등
33	토기	중기전반	통영 우도	
34	토기	중기전반	통영 갈도	
35	토기	후기후반~종말기	고성 동외동패총	연질토기
36	토기	중기전반	양산 하북정	단면원형점토대토기
37	토기	전기?	김해 내동 지석묘	
38	토기	전기말~중기후반	김해 회현리패총	단면원형 · 삼각형점토대토기
39	토기	기원전후	김해 대성동 소성유구	단면원형 · 삼각형점토대토기, 와질토기
40	토기	중기전반	김해 흥동 1호 주거지	단면원형점토대토기
41	토기	전기말~중기	김해 구산동 유적	단면원형 · 삼각형점토대토기
42	토기	중기말	김해 지내동	무문토기 · 와질토기
43	토기	중기전반	부산 조도패총	단면원형 · 삼각형점토대토기
44	토기	중기전반	부산 북정패총	단면원형 · 삼각형점토대토기
45	토기	중기초	부산 온천동유적	
46	토기	중기전반	부산 동래 내성유적	단면원형점토대토기
47	토기	중기중엽	창원 다호리유적	
48	토기	종말기	부산 노포동 41호 목곽묘	노형토기

1~4. 國立慶州博物館, 1987, 『菊隱李養璿 蒐集文化財』.

5~23. 東義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良洞里古墳文化』.

東義大學校博物館, 2008, 『金海良洞里古墳群』I 본문 · 삽도/사진.

24~25. 東亞細亞文化財研究員, 2006, 『(金海 伽耶의 숲 造成敷地內, 金海 茂溪里 共同住宅 建設敷地內)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26. 福泉博物館, 1998, 『釜山の 三韓時代 遺蹟과 遺物』 II.

27. 金海市, 1997, 『金海의 古墳文化』.

28. 金東鎬, 1984, 『固城 東外洞貝塚 發掘調査報告』 『上老大島』, 東亞大學校博物館.

29. 福泉博物館, 2009, 『神의 거울—銅鏡』, 特別展示圖錄.
30. 朝鮮總督府, 1925,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第二冊—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跡』.
31. 慶南發展研究院, 2007, 『泗川 芳芝里 遺蹟』 I · II · III.
32. 釜山大學校博物館, 1989, 『勒島住居址』.
慶南考古學研究所, 2003 · 2006, 『勒島貝塚』A · II · III · IV · V.
李東注, 2005, 「勒島遺蹟 出土 樂浪系遺物の 性格」『三國志 魏書 東夷傳과 泗川 勒島遺蹟, 석당전통문화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한 · 일 국제학술 심포지움.
東亞細亞文化財研究員, 2006, 『泗川 勒島 進入路 開設區間內 文化遺蹟發掘調査 報告書』.
- 33~34. 李東注, 1992, 「南海島嶼地方의 先史文化資料(1)」『考古歷史學志』8. 東亞大學校博物館.
35. 金東鎬, 1984, 「固城 東外洞貝塚 發掘調査報告」『上老大島』, 東亞大學校博物館, 1984.
國立中央博物館, 『固城貝塚』.
36. 東亞大學校博物館, 1992, 『梁山 下北亭 遺蹟』.
37. 安在皓 · 洪潛埴, 1998, 「三韓時代 嶺南地方과 北九州地方의 交渉史研究—竝行關係를 中心으로」『韓國民族文化』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38. 樞本杜人, 1935, 「金海貝塚 · 其の新發見」『考古學』6-2.
釜山大學校 人文大學 考古學科, 2002, 『金海 會峴里貝塚』.
39. 釜慶大學校博物館, 1998, 『金海 大成洞 燒成遺蹟』.
40. 東義大學校博物館, 2003, 『金海 興洞遺蹟』.
41. 慶南考古學研究所, 2010, 『金海 龜山洞 遺蹟Ⅸ』.
42. 沈奉謹, 1982, 「金海 池內洞 甕棺墓」『韓國考古學報』12.
43. 國立中央博物館, 1992, 『朝島貝塚』.
44. 釜山水產大學校博物館, 1993, 『北亭貝塚』.
45. 申敬澈, 1984, 「釜山東萊溫泉洞 出土 無文土器」『伽耶通信』10.
46.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90, 『東萊福泉洞內城遺蹟』.
47. 國立中央博物館, 2007, 『요시노가리』, 國立中央博物館 特別展示圖錄.
48. 釜山大學校博物館, 1988, 『釜山老圃洞遺蹟』.

〈표 2. 변한 출토 왜 관련 청동기〉

왜와 관련된 유물은 크게 청동기와 토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청동기는 무덤 출토품이 대부분이다. 고성 동외동 패총 출토 동모는 제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출토된 광형동모가 일본의 九州를 중심으로 발견되는 무기형청동기의라는 점은 주목된다. 아마도 안전한 항해를 위해 기항지인 고성 동외동에서 의례를 지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⁸⁾.

이외에도 중광형·광형동모는 김해 양동리, 김해 내덕리 19호묘, 김해 주촌 등지에서 확인된다. 먼저 김해 양동리에서는 90호묘에서 중광형동모 완형 한 점과 중광형동모의 신부편 한 점, 200호묘에서 광형동모 완형 1점, 390호묘에서는 중광형동모 선단부편 한 점, 광형동모 선단부편 한 점, 주변에서 채집된 것이 중광형동모 선단부 한 점, 광형동모 선단부 한 점 등 총 7점이 발견되었다. 후술할 방제경의 중심도 김해 양동리 유적이므로 1~3세기 대 왜와 교역의 중심이 이곳이었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김해 양동리 90호묘는 목곽묘로 와질토기, 도질토기, 연질토기, 철기, 장신구 등 30여점이 출토되었다. 이 무덤은 4세기 후엽에 속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출토된 광형동모의 신부는 이후 설명할 390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동모의 봉부와 접합되어 동일한 유물임이 확인되었다(林昭延 2006).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첫 번째는 전세된 유물의 부장, 두 번째는 90호묘를 만드는 도중 390호묘에서 파헤쳐진 동모를 다시 묻었을 가능성이다. 아직 자세한 보고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김해 내덕리 19호묘 출토품은 김해 양동리 200호묘 출토품과 유사하며, 대부에 절대가 없고, 나팔상으로 벌어진다. 귀는 하나 달려있는데 구멍은 없다. 또한 등날도 마연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와질토기, 조문박국경, 양동리식동검 등이 출토되었다.

김해 주촌 출토품은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중광형동모에 속한다. 가운데가 부러졌고 일부 결실되었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있다. 공부는 심이 채워져 있어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소형방제경을 살펴보자. 최근 소형방제경의 제작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먼저 제작지에 대하여 논한 이는 梅原末治(1959)로 그는 변진한에서 제작이 시작되었고 이후 北部九州에서 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일반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며 高倉洋彰(1972)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이후 杉原莊介(1978)는 삼한과 왜의 소형방제경 중 같은 형태를 가진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小田富士雄(1982)에 의해 실증되었다. 이후 高倉洋彰(1985·2002)은 삼한·삼국에서 동경이 그리 중요한 물품으로 인정받

8) 광형동모를 안전한 항해를 위해 행한 의례의 공헌품이라고 본다면 후한경인 수대경편 역시 동일한 성격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주체는 왜인과 낙랑상인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井上主税(2006)는 광형동모와 수대경 모두를 왜와 관련 지어 생각하고 있다.

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형방제경이 삼한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田尻義了(2003·2004)는 방제경의 제작은 석제 거푸집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탕구의 위치가 뉴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제작기술의 일관성을 기초로 모든 소형방제경은 왜에서 제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여기에 더해 柳田康雄(2005)은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뉴공의 연장선상에 탕구가 있는 현상은 중국에서 전한 말 이후의 주조기술이며, 다뉴경의 제작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南健太郎(2007)은 심의 설치방법을 기초로 초기 소형방제경 중 삼한에서 제작된 것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연구자들 간에 방제경의 제작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李陽洙(2010)는 방제경이 단순히 한경을 모방한 소형 동경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뉴경에 필적하는 단뉴경 문화임을 주장하였다.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삼한 최초의 단뉴경인 보령 관창리 KM437호묘 출토품에서 시작된 이 문화는 이후 漢鏡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위 방제경이라고 불리는 일군을 형성하는데 이후에도 삼국시대를 거치고 고려·조선에 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동경문화로 파악된다. 漢鏡의 영향을 받은 방제경은 영천 어은동·대구 평리동 유적에서 등장하는 바, 진한에서 시작된 문화로 봐야할 것이다. 특히 진한은 파경의 원류가 되는 재가공된 한경편도 출토되고 있다(李陽洙 2011). 변한에서는 진한의 방제경 문화가 중단된 1세기 중엽 이후부터 방제경이 급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김해 양동리 162호묘를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서도 방제경은 쇠퇴한다.

김해 가야의 숲 3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단뉴경과 철과형동과 역시 주목되는데 먼저 단뉴경은 일본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인 단뉴경의 계보로 재지에서 제작된 것이라 생각된다. 함께 출토된 철과형동과 역시 손잡이에 고정을 하기 위한 내부 부분이 없는 점에서 실전용 무기로 사용하기는 힘들었으며 결국 의기적인 성격을 가진 점에서 주목된다. 이런 철과형동과 혹은 장신의 철과 역시 왜의 北部九州를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어, 양지역 간에 문화적인 동질성을 보여준다.

토기는 그 자체가 교역의 대상품은 아니었고, 담겨있는 물품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 있을지는 거의 알 수 없다. 이러한 왜계토기에 대해 가장 최근 정리한 井上主稅(2006)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출토된 토기를 살펴보면 크게 무덤 부장품과 주거지 출토품으로 구분된다. 무덤에 부장된 토기는 왜인의 무덤일 가능성, 왜의 조문사절이 가져온 물품을 부장했을 가능성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무덤에서 출토된 것은 대체적으로 완형이며, 단도마연이 되거나 대형인 옹관이라는 특징이 있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기원전 2세기를 전후해서 弥生토기가 나타난다. 김해 회현리 패총 D지점 출토의 김해식옹관은 대표적인 자료이다. 3호 옹관묘에서는 한국식동검과 동사가 동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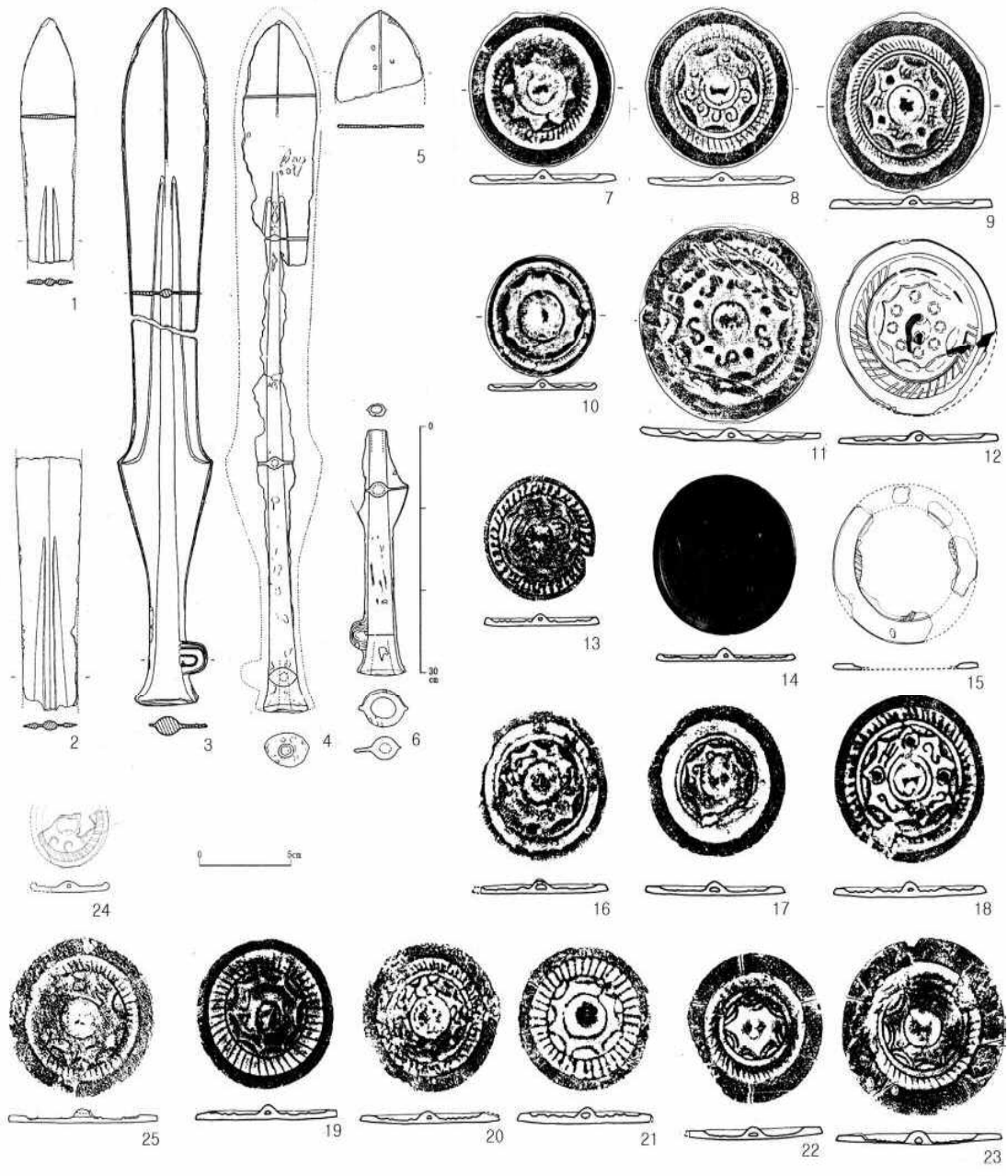
었는데 이를 기초로 왜인의 존재를 상정하기도 하였다. 왜의 경우 점토대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시기는 기원전 3세기 말인데 한반도 남부에서는 기원전 2세기 대에 집중한다. 이러한 시차를 먼저 점토대토기문화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거기에서 구축된 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한반도로 건너온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청동원료를 비롯한 많은 매개물이 있을 것이다. 또한 청동기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한에서도 왜계 청동기라 할 수 있는 것들이 확인되지만 토기는 거의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시기적인 특징을 보면 弥生시대 전기 말에 해당하는 것은 김해 내동 지석묘, 김해 회현리 패총 D지구 옹관, 김해 구산동 486호 주거지⁹⁾ 등이 해당하는데 김해에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중기에 들어서면 창원 다호리, 사천 방지리·늑도, 통영 우도·갈도, 양산 하북정, 부산 조도·북정·온천장·내성, 울산 달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弥生토기가 확인된다. 이 시기에는 가장 많은 토기가 확인되며 가장 활발한 대외교역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후술할 漢郡縣과의 교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후기에는 사천 늑도, 고성 동외동, 부산 노포동 등지에서 확인된다. 사천 늑도의 경우 후기 초에 한정되며 부산 노포동 41호묘 출토품은 종말기에 해당한다. 중기에 그 많았던 토기의 이동은 후기에 들어서면서 아주 줄어든다. 다만 이러한 양상은 청동기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왜계청동기의 경우 후기에 들어서면서 방제경과 동모 등이 급증하는데 토기는 그 이전 시기에 급증하였다가 후기에 들어서면 급감하는 양상이다.

분포의 특징을 보면 전기의 경우 김해에 한정되어 있다가 중기에 들어서면서 해안가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특히 사천 늑도 유적과 같이 연안 교통의 중심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후기에 들어서면 사천 늑도 유적은 쇠퇴하고 고성 동외동 패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통로에 의해 대체된다¹⁰⁾. 이러한 해안길의 변화 이유에 대해서 사천 늑도유적의 발굴자 중 한 명인 崔鐘圭(2006)는 폐결핵 등의 전염병을 몰락요인으로 보았다. 井上主稅(2011)는 기원후 1세기 후반대 김해 세력의 성장과 함께 국제교역항으로 변성하면서 사천 늑도 유적이 쇠퇴한 것으로 보았다.

9) 김해 구산동 유적의 보고자는 板付Ⅱ식으로 추정하였다.

10) 사천 늑도에서 고성 동외동으로 기항지가 바뀌는 것은 아마도 교역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천 늑도의 경우 작은 섬이기 때문에 거주민이 한정되고 때문에 대규모의 교역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에 비해 고성 동외동은 이후 소가야가 위치하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넓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교역이 더욱 왕성하였을 것이다. 또한 사천 늑도 유적을 통제하는 세력이 사천과 고성 일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며 고성 동외동 세력이 주변을 통합하기 시작하면서 사천 늑도 유적은 쇠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李在賢 2005b).



1·5. 김해 양동리 채집 2. 김해 양동리 90호묘 3. 김해 양동리 200호묘 4. 전 김해 명범동 6. 고성 동의동 7~11. 전 김해 양동리 12. 김해 양동리 55호묘 13~15. 김해 양동리 427호묘 16~23. 김해 양동리 162호묘 24. 부산 복산동 12호묘 25. 전 함안 사내리

〈그림 2. 증광형·광형동모(외계)와 방제경〉

3. 군현(漢) 관련 자료

연번	대상유물	연대	출토지	동반유물
1		성운문경		
2	오수전			
3	오수전			
4	오수전	BC 1C	창원 다호리 1호 목관묘	철기, 철기, 장신구 등
5	소동탁			
6	대구			
7	붓			
8	환두도			
9	성운문경	BC 1C	밀양 교동 3호 목관묘	와질토기, 철기
10	소명경	BC 1C	밀양 교동 17호 목관묘	와질토기
11	혜룡문경편	기원전후	김해 회현동 패총	
12	화천			
13	오수전	1C	창원 성산패총	
14	상감대롱옥	BC 3C?	사천 늑도 A지구	
15	반량전	BC 2C	사천 늑도 C지구	
16	반량전			
17	반량전			
18	반량전			
19	오수전	BC 1C		
20	화분형토기편	BC 1C	사천 늑도 B지구	
21	삼릉족	BC 1C	사천 늑도 B지구	
22	삼릉족	BC 1C	사천 늑도 C지구	
23	이체자명대경(?)	BC 1C	사천 늑도 B지구 139호 주거지	
24	수대경	2C	고성 동외동 패총	
25	박국경	1C	김해 내덕리 19호 목관묘	와질토기, 철기 등
26	박국경	1C	전 김해 양동리	
27	연호문경	2C	김해 양동리 채집	
28	사유조문경	2C	김해 양동리 162호 목관묘	와질토기, 철기, 장신구 등
29	연호문경			
30	철북			
31	재갈	BC 1C	창원 다호리 48호 목관묘	와질토기, 철기 등

연번	대상유물	연대	출토지	동반유물
32	재갈	BC 1C	창원 다호리 69호 목관묘	와질토기, 철기, 장신구 등
33	재갈	BC 1C	창원 다호리 70호 목관묘	와질토기, 철기 등
34	청동검파	BC 2C	부산 기장 가동 목관묘	철검

- 1~8. 李健茂 外,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 『考古學誌』1.
- 9~10. 密陽大學校博物館, 2004, 『密陽 校洞遺蹟』.
- 11~12. 釜山大學校 人文大學 考古學科, 2002, 『金海 會峴里貝塚』.
13. 崔夢龍, 1976, 「西南區貝塚 發掘調查報告」, 『馬山城山外洞貝塚發掘調查報告』, 文化財管理局.
14. 慶南考古學研究所, 2003, 『勒島貝塚』A.
- 15~19.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5, 『三國志 魏書 東夷傳과 泗川 勒島遺蹟』, 석당전통문화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한·일 국제학술 심포지움.
- 20~23. 李昌熙, 2004, 「勒島遺蹟 出土 外來係 遺物 報告 - 勒島Ⅲ期の 設定과 함께」, 『勒島貝塚과 墳墓群』.
24. 金東鎬, 1984, 「固城 東外洞貝塚 發掘調查報告」, 『上老大島』, 東亞大學校博物館.
25. 金海市, 1997, 『金海의 古墳文化』.
26. 朴敬源, 1970, 「金海地方出土의 靑銅遺物」, 『考古美術』106 · 107.
- 27~30. 東義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良洞里古墳文化』.
- 31~33. 李健茂 外, 1995,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V)」, 『考古學誌』第7輯.
34. 蔚山大學校博物館, 2008, 『機長 가동 遺蹟』.

〈표 3. 변한 출토 군현(漢) 관련유물〉

최근 가장 주목되는 의견은 한사군이 설치된 기원전 108년 이전부터 한 관련유물이 한반도 남부로 유입된다는 의견이다. 물론 이전에도 익산 평장리, 함평 초포리, 완주 상림리 출토품들을 통해 중국의 문물이 삼한으로 유입되었다는 의견은 제시되었지만 최근 연구는 와질토기의 출현도 漢郡縣 설치 이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鄭仁盛, 2003 · 2008).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고조선의 유물로 생각되는 것은 기장 가동 목관묘 출토의 청동 검파를 들 수 있다(李陽洙 2009b). 이 검파와 유사한 것은 경주 입실리, 전 평양 유적 등지에서 출토된 바 있다. 마한과의 관련지는 다뉴경이나 동사 역시 고조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뉴세문경에서 보이는 세밀한 문양은 마한 쪽에 가깝고, 청동검파에서 보이는 정치한 문양은

고조선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조선과 관련 있는 유물들은 대체적으로 변한보다는 마한과 진한에서 주로 발견된다. 변한이 한반도 서북지역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한사군 설치 이후로 생각되는데 대표적으로 와질토기가 출토되는 목관묘 유적인 창원 다호리, 김해양동리, 밀양 교동, 함안 도항리 등은 한사군의 설치를 전후로 해서 형성되기 시작한 유적들이라는 점은 중요하다. 漢과 관련된 유물들은 김해, 밀양, 창원, 사천 등지에서 발견된다. 그 분포를 통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해안가, 강변 등 교통의 중심지에 집중한다. 군현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물은 漢鏡이다. 한반도에서 漢鏡은 대동강유역, 낙동강유역에 한정되어 출토되고 있다. 물론 극소수의 한경이 다른 지역에서도 출토되지만 출토정황이 명확하지 않거나 삼국시대 이후의 再鑄鏡이다. 낙동강유역은 경주-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진한과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변한으로 나뉜다. 진한은 전한경은 발견되지만 후한경은 아직 발견된 예가 없다. 또한 전한경은 모두 무덤에서 출토되었고 여러 개의 전한경이 하나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예가 대구 지산동, 경주 조양동 38호 목관묘 등에서 확인된다. 이에 반해 변한에서는 전한경 뿐 아니라 후한경도 김해 양동리 162호묘, 김해 내덕리 19호묘, 고성 동외동 패총 등지에서 확인된다. 또한 무덤 뿐 아니라 패총, 주거지 퇴적층 등 다양한 유구에서 한경이 출토된다.

창원 다호리 1호 목관묘와 밀양 교동 3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성운문경이 변한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한경이다. 성운문경은 경산 임당 E-58호 목관묘에서 재가공품, 포항 성곡지구 22호 옹관묘(한빛문화재연구원, 2010), 평양 토성동 4호 목곽묘, 정백동 3호(동곽)·92호 목곽묘 등지에서도 출토되었다¹¹⁾. 또한 일본 須玖岡本D지점, 三雲南小路 2호 옹관묘에서도 출토되었는데, 須玖岡本D지점 출토품은 파편이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창원 다호리 1호묘 출토품과 유사하고, 三雲南小路 2호 옹관묘 출토품은 甗의 형태가 고식에 해당 한다¹²⁾. 성운문경은 한사군 설치를 전후해서 중국에서 유행하던 형식의 동경이다. 그리고 사용되는 중심시기는 기원전 1세기 대이므로 이 동경의 유입은 한사군 설치 이후로 보인다. 창원 다호리 1호묘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한반도 남부 지배자 무덤의 대표적인 예이다. 밀양 교동 3호묘도 동 유적에서 가장 많은 부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밀양 교동 17호 목관묘에서는 소명경이 출토되었다. 이체자명대경이라고도 불리는 이 동경은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형식이다. 특히 밀양 교동 17호 목관묘에서는 철기가 전혀 출토되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¹³⁾. 사천 늑도 B지구 139호 주거지의 퇴적층에서도

11) 한사군 출토 유물에 대해서는 高久健二(1997)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12) 일본 출토 동경에 대해서는 車崎正彦 編(2002)을 참고하였다.

13) 밀양 교동 유적의 경우 3호묘와 17호묘에서 전한경이 출토되었다. 시기는 기원전 1세기 중엽과 후엽에 해당하는데 철기를 가지는 3호묘는 정치적 수장이라고 본다면 17호묘는 제의를 담당할 제사장일 가능성이 있다.

동경의 파편이 확인되었는데 이체자명대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 지산동, 경주 조양동 38호묘, 영천 어은동, 울산 농소 2호 목관묘(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전 상주, 평양 정백리 127호, 정백동 2호·3호(서곽)·36호·37호(남곽·북곽)·53호(남곽)·58호(서곽), 석암리 52호·212호·257호 목곽묘, 일본 三雲南小路 1호·2호 옹관묘, 立岩 10호 옹관묘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김해 회현동패총 11층에서는 휘룡문경 파편이 출토되었는데 이 층에서는 화천이 출토된 바 있어 시기적으로 1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연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있다. 이런 휘룡문경은 대구 평리동, 영천 어은동, 경산 신대동 57호묘 등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후한경인 박국경은 김해 양동리, 내덕리 19호묘에서, 연호문경은 김해 양동리 162호묘 등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외에 세선식수대경편이 고성 동외동 패총에서 출토되었다. 한반도 서북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후한경이 출토되지만 남부지역에서는 변한에서만 후한경이 출토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동경의 제작이 중국 남부로 이전된 뒤 만들어지는 신수경, 화상경 등은 전혀 발견된 바 없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철경동축 혹은 삼릉축이라고도 불리는 동축은 사천 늑도 B지구와 C지구에서 출토되었는데 철원 와수리 26호 주거지, 포천 금주리, 가평 대성리, 양평 양수리, 경주 구정동, 광주 신창동, 제주 삼양동 등지에서도 확인되었다¹⁴⁾. 한사군의 경우 기원전후를 경계로 동축에서 철축으로 변화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鄭仁盛 2002), 이를 근거로 한다면 이것들의 유입시기도 기원전후 이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늑도 출토 동축에 대해서는 낙랑토성 내에서 구조가 이루어졌으며(鄭仁盛 2001), 이것들 역시 낙랑산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高久健二 1997). 이러한 동축은 실제 사용된 것보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분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낙랑토기가 발견된 유적은 사천 늑도 유적이다. B지구에서 화분형토기, C지구에서 S자형 구연대옹이 출토되었다. 이 둘 모두 낙랑고분에서 자주 보이는 것이다. 화분형토기는 구연부편으로 내면에는 형뜨기의 흔적인 포흔이 남아있다. 바닥에 굽이 없는 전형적인 화분형토기일 것으로 생각된다. 화분형토기는 남경유적의 옹관에서부터 확인되기 때문에 한사군 설치 이전부터 존재한 재지적인 토기로 생각된다(鄭仁盛 2004). 가평 달전리 2호묘, 가평 대성리, 포천 금주리에서도 이러한 화분형토기가 출토된 바 있다.

S자형구연대옹은 낙랑고분에서는 자주 확인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이며, 비교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이 많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연대를 말하기 힘들다.

14) 한반도 남부 출토 한식문화에 대해서는 李在賢(2005a)의 글을 참고하였다.

앞서 언급한 화분형토기와 함께 기원전 1세기 중~후엽에 유입된 것으로 보는 설이 일반적이다(高久健二 2005).

유리구슬은 상감대롱옥과 금박구슬로 나뉜다. 먼저 상감대롱옥은 사천 늑도에서 출토되었는데 원통형에 몸통을 이등분하여 위아래 각각 3개씩 나전과 같은 윤이 나는 조개를 박아 넣었다. 그 주변으로 연주문을 지그재그 형태로 장식하였다. 유사한 것이 전국시대 말에 중국 三峽地區에서 출토된 바 있다고 한다.

금박구슬은 한사군의 석암리 219호묘, 정백동 37·53호묘, 낙랑토성 등지에서 출토되었고 남부지역에서는 2세기 이후에 주로 확인된다. 김해 양동리 462호묘와 부산 동래 복천동 80호묘에서 금박유리가 출토되었는데 모두 3세기 대의 것이다. 아마도 낙랑군에서 대방군이 분리되는 204년 이후 유입된 것을 보인다(李在賢 2005a).

마구의 유입도 대외교역과 관련 있다. 변한지역에서는 한반도 북부지역에 존재한 2연식 함과 이공식의 결구구조를 가진 프로펠러형 표비가 유입되어 이것을 표지로 삼아 동일한 형태의 표비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질적으로는 청동제를 모방하여 철제화시킨 것으로 생각되는데 2세기 무렵부터 프로펠러형에서 고사리상 S자형이 등장한다. 이것이 변진한의 재지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표의 장대화과 더불어 1공식의 결구 구조로 바뀌면서 의기화 된다(李尙律 2006). 이러한 자료는 창원 다호리 48·69·70호묘, 울산 하대 1·43호묘, 김해 양동리 162·382호묘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형태적으로 본다면 프로펠러형을 하고 있는 창원 다호리 48·69·70호묘 출토품, 꺾수문이 들어가면서 아직은 이공식인 김해 양동리 162호묘 출토품, 꺾수문으로 의기화되고 일공식인 울산 하대 1·43호묘 출토품의 순서로 발전하며 균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프로펠러형일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전국시대 연의 수도인 燕下都 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일부 연구자들은 漢郡縣 설치 이전에 이러한 표비가 전래되었다는 의견도 있다(李昌熙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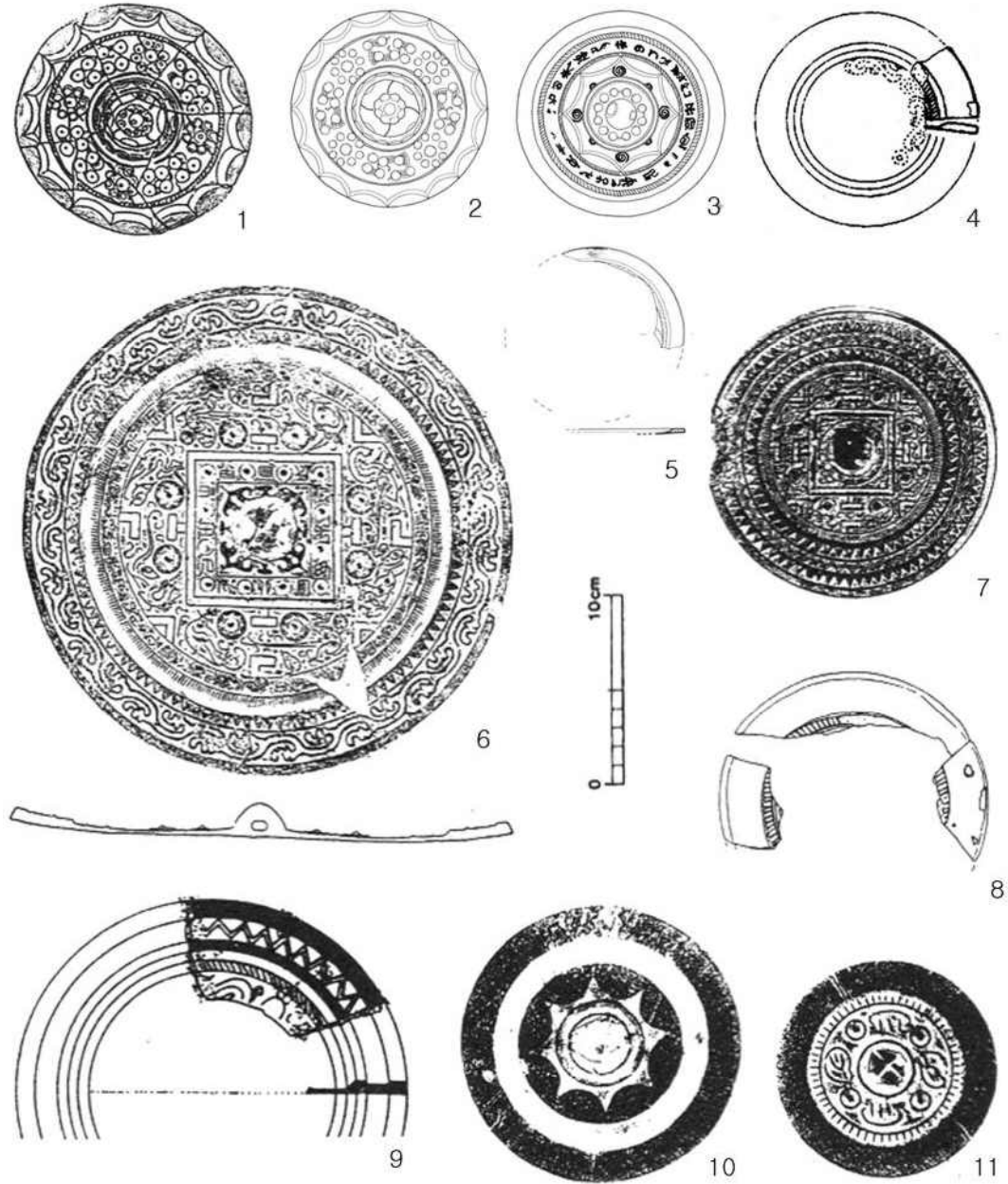
銅錢은 반량전, 오수전, 화천 등이 확인되는데 해로의 중심지에 해당한다. 전국시대 진에서 주조되기 시작하여 오수전이 사용되는 기원전 118년 폐지된 반량전은 사천 늑도 C지구에서 네 점 발견되었다. 사천 늑도 C지구 출토품은 직경 2.4cm로 전한 문제오년인 기원전 175년부터 주조되기 시작한 四銖半兩錢으로 추정되고 있다. 高久健二(2005)는 중국 燒溝漢墓와 西郊漢墓에서 왕망의 신대까지 사수반량전이 출토되고, 낙랑군 남정리120호묘에서 네 점, 남사리 17호묘에서 반량전의 거푸집, 낙랑토성에서 채집된 두 점, 낙랑토성 내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사수반량전의 거푸집, 왜의 御床松原, 新町, 沖ノ島유적 등지의 출토품을 종합하면서 사천 늑도 C지구 출토품은 한사군의 설치 이전 주조된 것이 기원전 1세기 중~후엽에 낙랑군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한사군의 재편성을 계기로 시작된 새로운

교역을 통해 삼한과 왜에 반량전이 다른 한 관련 문물과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았다. 이외에 마한의 완주 상운리 가지구 1호 분구 2호 토광에서 반량전 한 점과 함께 토기, 금박구슬, 옥 등이 출토된 바 있다. 다만 이 유구의 연대는 4세기 대의 것으로 반량전이 전세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五銖錢은 사천 늑도 IC지구, 창원 다호리 1호 목관묘, 창원 성산패총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이외에 서울 풍납토성 경당지구 101호 제의유구, 강릉 초당동 강릉고등학교 화장실 중축 부지 1호 주거지, 인천 영종도, 여수 거문도, 경산 임당 A-I-74 · 121 · E-132호 목관묘, 영천 용전리 목관묘, 제주 산지항 등지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시기 폭이 큰 유물이기 때문에 편년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

貨泉은 김해 회현동 패총에서 출토되었다. 소위 왕망전이라고 불리는 동전 중의 하나로 天鳳元年(14) 처음으로 주조되기 시작한다. 왕망전은 왕망의 新이 존속하던 시기에 극히 한정되어 제작되어 절대연대의 좋은 자료가 된다. 삼한에서는 김해 회현리패총 외에도 해남 군곡리패총 B2피트 11층, 제주 종달리 패총 5층 · 금성리 원형석렬주거지, 나주 랑동유적에서 확인되었고, 제주 산지항에서는 五銖錢, 貨布, 大泉五十, 漢鏡片 등과 함께 출토된 바 있다. 시기는 1세기 전엽에 한정된다.

한경의 출토양상을 보면 진한의 상주-대구-경산-영천-경주를 이어서 밀양-창원-김해를 연결하는 내륙길로 군현과의 교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천 늑도 유적 출토의 반량전, 오수전, 화분형토기 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천 늑도 유적은 마한지역으로 군현의 문물을 전달하던 기항지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군현지역에서 변한관련 유물은 황해도 갈현리 화석동 목곽묘 출토의 판상철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 창원 다호리 1호묘 2. 밀양 교동 3호묘 3. 밀양 교동 17호묘 4. 김해 회현동패총 5. 사천 늑도 B지구 나-139호 주거지 6. 전 김해 양동리 7. 김해 내덕리 19호묘 8. 김해 양동리 지표 9. 고성 동외동 10~11. 김해 양동리 162호묘

〈그림 3. 변한 출토 한경〉

IV. 교역의 특징

1. 청동기시대와의 비교

청동기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패총이 발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 뒤 시기인 신석기시대나 삼한시대에는 패총이 자주 발견되는 것과는 이질적이다. 남부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신석기시대 패총의 최상층에서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의 패총이 발견되는 양상이다.

청동기시대의 패총은 안면도 고남리, 제주도 상모리 유적 등 도서지역에 국한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해안기피’ 현상¹⁵⁾이라 생각된다. 해안은 개방된 공간으로 언제든 적이 쳐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을이 형성되기 힘들었던 것 같다. 해안에 마을이 형성되지 않음으로서 원거리교역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청동기시대에도 한반도 남부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래되는데, 이는 비정기적이며 원정식의 원거리교역의 결과일 것이다. 물론 당시 사회에서도 교역은 존재하였을 것인데 이는 자급자족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윤이 목적이 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등가교환으로 보인다. 결국 청동기시대는 자급자족 경제 사회로 유추할 수 있다¹⁶⁾.

청동기시대 후기에 들어서면서 변화가 감지된다. 먼저 해안가에 거주세력이 증가하는데 대표적으로 여천 적량동·월내동, 김해 회현동 유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여천 적량동·월내동은 단일 유적에서 가장 많은 요령식동검이 출토되어 청동기 제작세력과 관련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요령식동검과 같은 청동기의 제작과 분배를 통해 원거리교역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해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삼한시대에 들어서면 해안개발이 본격화되며 원거리교역도 눈에 띄게 증가한다. 삼한시대는 청동기와 토기의 제작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유리, 철기와 같은 새로운 재질의 도구 생산이 시작된다. 즉 생산력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철기의 제작을 통해 현물화폐가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사천 늑도 유적에서 알 수 있듯이 원거리 항해를 위한 바닷길이 정비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생산력의 증대, 원거리교역, 교통로의 정비는 근대적 시장사회의 맹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시의 시장은 현대적 관점과는 다를 것이다. 대표적인 교역항인 사천 늑도 유적을 통해 당시 시장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사천 늑도 유적은 조그만 섬으로 주변 바다의 유속이 빨라 항해에 유리

15) 해안기피현상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 등에서도 일정시기 확인되는 것이다(칼 플라니[이종욱 역], 1994).

16) 자급자족적인 교역의 형태를 유추해보면 아마도 양 집단 간의 직접교역으로 생각된다. 콜린 렌프류의 직접접근 혹은 호혜교환에 해당한다(콜린 렌프류[이희준 역] 2006)

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조그만 섬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교역의 증거가 남아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된 무덤에서는 신분의 격차를 보여줄 만한 부장품의 차이는 그리 인지되지 않는다¹⁷⁾. 동일시기의 무덤인 창원 다호리 1호묘나 경주 조양동 38호묘 등과 비교하면 신분의 차이는 확실하다. 즉 교역을 담당하는 사천 늑도의 지배자는 그리 높은 지위의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천 늑도 유적은 변한의 중심지인 김해와 서남부해안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다. 때문에 기항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기항지는 목적지에 가기 전 식량, 식수 등의 공급을 위해 들리는 곳인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었을 것이고 다음으로 풍부한 식량, 식수의 수급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변한이라는 정치체가 경남 해안 지역 모두를 장악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며, 김해를 정점으로 하는 해안의 교역망이 청동기시대부터 천천히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이다.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를 공유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동질성으로 안전을 보장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토기는 해안을 중심으로 멀리 중국 요동반도의 高麗寨 유적에서부터 왜에 이르기까지 광역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패총을 만들고 횡치의 옹관묘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교역항은 단순히 교역을 위한 시장적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천 늑도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왜계유물을 비롯해, 한군현, 요동지역, 연해주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즉 여러 지역에서 원거리교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원거리교역은 대규모의 원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필경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품을 가지고 교역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주변 세력들 간의 합의에 의한 안전보장이 된 교역항은 정치·군사적인 중재 역할도 함께 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교역항을 통제하는 세력이 성장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2. 지역 간 관계

1) 마한과의 관계

마한과의 교역은 한사군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주로 이루어졌으며 다뉴세문경, 동사 등 의기가 중심이며 대부분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것들은 아마도 마한과 의례를 공유하면서 유입된 제기라 판단된다.

17) 가장 주목되는 무덤은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조사한 가-100호묘이다. 여기에서는 철사와 한국식동검이 출토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鈹는 의례와 문자기록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문자사용층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조선에서 시작된 청동기 의례는 沈陽 鄭家窪子 6512號墓로 대표된다. 다뉴뇌문경, 요령 식동검, 방패형동기, 나팔형동기, 동포 등 다양한 청동기가 확인되는데 이는 이후 마한지역에 영향을 주어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리, 예산 동서리에서 다뉴조문경, 한국식동검, 방패형동기, 나팔형동기, 검파형동기 등으로 확인된다. 이것이 다시 재지화 되면서 마한적인 청동기 의례로 변화하는데 그것이 다뉴세문경, 간두령, 쌍두령, 팔주령 등의 조합으로 바뀐다. 방울류는 예산 동서리의 방패형동기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으며 아마도 목에 걸던 방울에서 흔드는 방울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이후 진한에도 영향을 주는데 상주에서 출토된 팔주령을 비롯해 경주 입실리에서 출토된 닳모양 쌍두령은 손에 쥐고 흔드는 전형을 보여준다(李陽洙 2009). 하지만 변한지역에서는 이러한 방울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본에서도 이러한 이형동기, 방울류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마한적인 청동기 의례가 완벽하게 이입된 것은 아니며 재지에서 적절히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뉴세문경과 동사가 동반되어 사천 월성리 목관묘에서 확인되는 점, 이러한 예가 일본 佐賀縣 本村籠 58호 옹관묘에서도 확인되는 점에서 동사를 이용한 의례¹⁸⁾는 마한을 거쳐 변한과 왜에도 이어졌던 것 같다.

이러한 청동기의례는 지리산을 넘어 내륙에서 들어오는 산청 백운리 유적과 해안을 타고 유입되는 사천 월성리 유적으로 나누어진 루트가 있다. 김해에서도 마한적인 동사가 확인되



1. 산청 백운리 2. 사천 월성리 3. 마산 4. 김해 회현동

<그림 4. 마한 관련 유물의 분포>

18) 필자는 동사를 북골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보지만 최근 사도의 기능으로 보아 문자생활과 관련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가 있다(윤태영, 2010). 북골의례는 갑골문과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자와 북골의례 역시 관련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연구가 주목된다.

지만 단뉴경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아직 교역망을 장악한 것은 아니라 생각되며 단뉴경 의례가 전달되지도 않았다 생각된다.

결국 마한과 변한은 한군현이 설치되기 이전을 중심으로 서부경남의 일부에서 단뉴세문경을 공유하는 의례가 존재하였고, 동사는 변한의 중심인 김해에 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단뉴경은 사라지지만 동사는 철사로 변하여 계속 이용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자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후 자료의 증대와 함께 새로운 의견이 개진되기를 기대한다.

2) 왜와의 관계

김해 양동리 유적을 중심으로 발견되는 방제경은 단뉴경 문화의 한 부분이다. 단뉴경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확인되는 것은 기원전 4~3세기 경의 보령 관창리 KM437호묘 출토품이다. 두 점으로 문양과 주연부가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머리의 양쪽에서 출토되었다. 그 다음으로 변한지역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영천 어은동 출토의 소위 방제경이다. 한경을 모방하여 만든 동경이라는 의미로 방제경이라 명명되었는데 그 보다는 재지적인 태양무늬, 구름무늬 등에서 기원을 찾는 의견이 최근 더 강하게 되었다(李在賢 2004). 하지만 진한에서도 경주 사라리 130호묘 출토의 4점을 마지막으로 단뉴경은 사라지고 변한에서 갑자기 단뉴경이 급증하기 시작한다. 그 중심은 바로 김해 양동리 유적이다. 김해 양동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단뉴경은 한경에서 일정부분 문양에 영향을 받은 것이 인정되는데 방제경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제경은 일본 北部九州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함께 중광형·광형동모 역시 北部九州를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다.

결국 청동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왜와의 교역은 弥生시대 후기, 김해 양동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왜의 교역대상은 무기형청동기 의례권역인 北部九州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이전시기 진한을 중심으로 왜계 청동기가 출토되는 것과는 비교된다. 진한 지역에서는 대구 비산동·만촌동 출토의 중광형동과, 대구 평리동, 영천 어은동, 경주 사라리 130호묘 출토의 방제경 등이 왜와 관련있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1세기 후엽 이전에 한정되고 있다. 즉 경주 사라리 130호묘를 끝으로 진한에서는 왜의 물품이 거의 확인되지 않다가 4세기 대에 들어서야 경주 월성로 유적에서 확인되는 스에키계 토기, 석천 등이 확인된다¹⁹⁾.

변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중광형·광형동모가 확인되는 점이다. 모두 김해를 중심

19) 진한지역에서 왜계유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마도 교역루트의 변화와 관련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선학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초기 한군현과의 교역은 내륙루트가 이용되었는데 이것이 해안루트로 바뀌면서 내륙을 통한 교역은 급감하게 된다. 이 시기는 사천 누도 유적이 쇠퇴하고 고성 동외동 유적이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와도 일치한다.

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김해에서는 주로 무덤에서 발견되는 반면 고성 동외동에서는 패총에서 발견되는 점에서 그 사용용도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해 출토품 들은 왜의 北部九州와는 다른 용도-개인위세품으로 무덤에 부장되었지만 고성 동외동패총에서는 北部九州와 같은 공동의 목적-항해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김해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재지인의 무덤에 재지화되어 부장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고성 동외동 출토품은 재지민이 아닌 왜인에 의해 의례가 행해지고 매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왜인의 이동을 더욱 잘 보여주는 것은 토기이다.

토기를 살펴보면 해안가에서 주로 발견된다. 마한지역인 광주 신창동, 남원 세전리, 보성 금평 패총²⁰⁾ 등지에서 弥生토기 혹은 절충형토기가 확인된다. 광주 신창동과 남원 세전리는 내륙이지만 강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 하지만 해안의 교역로 상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유적은 당시 해안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성 금평 패총은 해안교통로에 위치하는데 절충형의 토기가 출토되는 바, 이곳까지 왜인이 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왜인의 토기를 모방하여 재지민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진한지역에서는 울산 달천유적에서 弥生시대 중기의 토기가 확인되었고 弥生 후기의 토기가 경산 임당 조영동 EIII-15호 옹관의 주옹으로 이용된 예가 확인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왜계토기는 극히 적다.

왜계토기로 본다면 왜와의 교역의 중심은 김해에서 통영을 아우르는 남해안 일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이다. 일반적으로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는 준왕의 남하와 관련된 것이라 생각된다(鄭澄元·申敬澈 1987). 그리고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는 한반도 남부해안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며 이들이 해상세력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집단의 Network를 기초로 왜인들도 함께 교역에 참여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방제경은 동모의 분포보다는 더 넓게 분포하는데 부산 복산동 12호묘, 함안 사내리 출토품은 재지세력의 분포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3) 군현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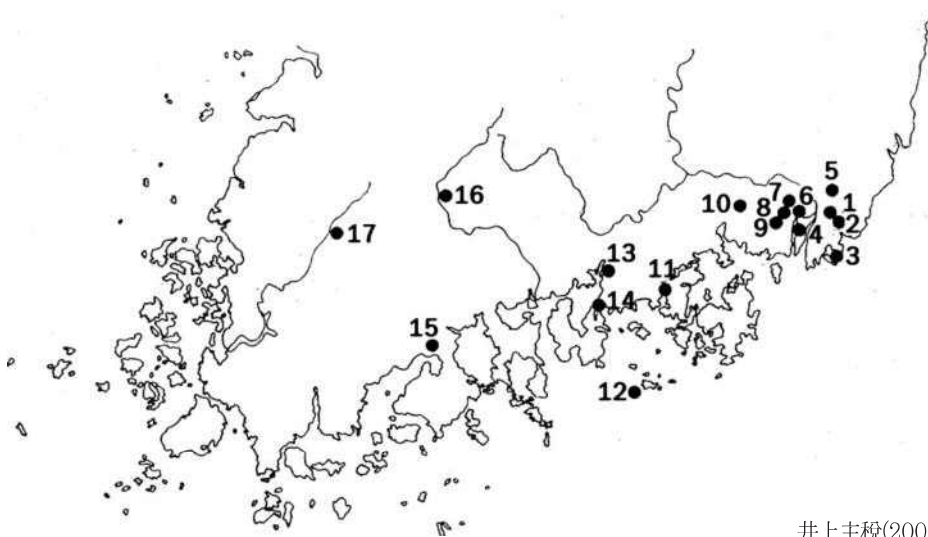
한경은 마한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변진한에서만 확인된다. 변한과 진한도 각기 한경의 출토양상이 다른데, 변한은 전한경과 후한경이 확인되고 출토되는 유구 역시 분묘, 패

20) 보성 금평 패총 출토의 토기편 중에는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의 구연 하단에 돌대가 돌아가는 것이 확인된다(國立金海博物館, 2004, 도판75 참조). 이러한 양상은 弥生토기-아마도 須玖1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1. 부산 북산동 2. 김해 가야의 숲 3. 김해 양동리 4. 김해 내덕리 5. 함안 사내리 6. 고성 동외동

<그림 5. 왜 관련 청동기의 분포>



井上主税(2006) 일부 개변

1. 부산 온천동 2. 부산 동래 내성 3. 부산 조도 4. 부산 북정 5. 양산 북정리 6. 김해 지내동 7. 김해 대성동 8. 김해 회현동 9. 김해 흥동 10. 창원 다호리 11. 통영 갈도 12. 고성 동외동 13. 사천 방지리 14. 사천 늑도 15. 남원 세전리 16. 보성 금평 17. 광주 신창동

<그림 6. 弥生土器의 分布>

총, 주거지 등 다양하며, 하나의 유구에서 하나의 동경이 일반적이다. 물론 뒷 시기 김해 양동리 162호묘와 같이 다량의 동경을 부장하는 예가 확인된다. 이에 반해 진한에서는 분묘에서만 확인되며, 많은 전한경이 발견되고 있는 반면 후한경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하나의 유구에서 여러 개의 동경이 출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진한에서 후한경이 출토되지 않는 이유는 역시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교역로의 변화일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진한에서 한경만 출토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2세기 대부분은 진한에서 한대 유물 자체를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세기 대를 경계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기존에 분배에서 벗어나 있던 지역에서 한대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기 시작한다.

기원전 128년 濊君의 南閩 등이 우거왕에 반대하여 28만구를 이끌고 요동군으로 내속하자, 무제가 그 지역을 滄海郡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기원전 126년 西南夷와 滄海郡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폐지하였다. 이는 漢이 군현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목적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당시의 상황이 흉노와의 대립관계로 인하여 흉노 정벌에 국력을 쏟고 있는 한의 입장에서 이익이 없는 군현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결국 뒤에 설치되는 한사군 역시 정치적인 목적과 함께 경제적 목적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을 것이다. 결국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낙랑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폐지되거나 이동하였고 후에 공손씨에 의해 설치되는 대방군 역시 경제성을 중시한 행위였다고 생각된다. 표면적으로 조공에 따른 무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 동경의 분배가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논리가 주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기원전 2세기 이후 마한의 다뉴세문경 집단은 漢과 교역을 하지 않고 내부적인 분배와 유통 체계를 이용하여 세력을 유지한다. 이는 양양 정암리, 황성 강림리, 경주 입실리 등 마한을 벗어난 지역에서 확인되는 다뉴세문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리고 변진한 지역은 철기의 제작기술을 발전시켜서 기원전 1세기 중엽 다호리 1호묘와 같이 위세품이 청동기가 아닌 철기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철기의 제작기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탁월하였기 때문으로 漢의 철 전래 이전 철기제작기술이 유입되어 재지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사군과의 교역이 늘어나 한경이나 한대문물의 유입이 촉진된다.

결국 많은 수의 동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사군의 필요에 의해 특정 집단에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남부의 지역 집단의 필요에 의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사군과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등가교환 원칙에 의해 한대의 문물이 유통되었다고 생각한다.

변한지역에서 한경 출토 유구가 다양한 것은 쓰임새도 다양하였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것이며 그런 다양성의 존재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경제적 목적에 의해 유입된 한경의 의미라

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렇게 유통된 한대 문물은 변·진한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도 유통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광주 신창동 등지에서 확인되는 한대 유물은 낙랑과의 직접적인 교류라기보다는 변·진한을 통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광주 신창동 유적은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단계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남해안 지역에서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라는 동질성을 통하여 김해 회현리, 사천 늑도 등지를 거쳐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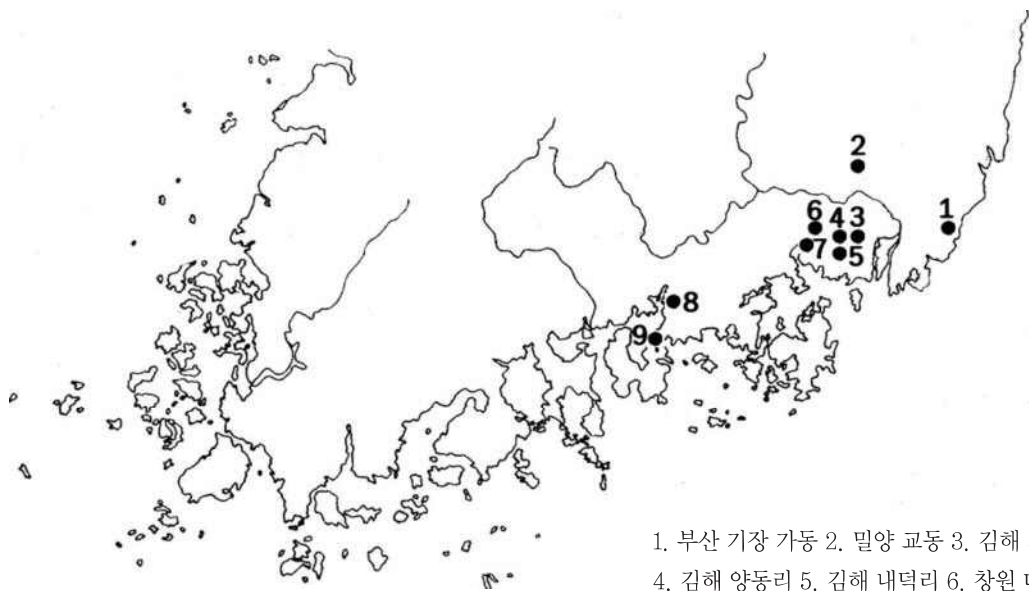
즉 중국에서 漢郡縣으로 동경의 유입은 정치적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유통의 측면이 강하였으며, 그것은 한사군이 변방임에도 불구하고 중원과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한대문물이 많은 양, 빠른 변화를 보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한사군에서 발견되는 대형의 한묘가 漢人이 아닌 韓人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과 요동군의 확장과 공손씨의 대방군 분리 등에 있어서 중원은 낙랑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즉 낙랑-한사군이라는 정체성은 교역을 중심으로 漢과 韓을 잇는 성격이 강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중국의 군현이 아닌 독자적 정치체로서 漢郡縣이라는 성격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문에 漢郡縣은 한반도 남부에 있어서 독자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마한지역에 한대문물이 적은 이유는 이러한 독립정치체간에 정치적 관계에 따른 것이며, 경쟁적 관계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유통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따른 재화의 이동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화의 이동에 따라 직접적인 한사군과의 교역이 아닌 중개지를 거친 교역도 가능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중심 집단이 단일 창구가 되어 漢郡縣과의 교역을 독점하는 것과 달리 한반도 남부는 각각의 집단이 자유롭게 교역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일본과 달리 전한경에서 후한경까지 연속적으로 하나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예가 없는 점에서 증명 가능하다²¹⁾.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삼한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의 대외교역, 교역을 하였고 그러한 양상은 한반도 남부에서 확인하는 한대문물-특히 한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3. 시기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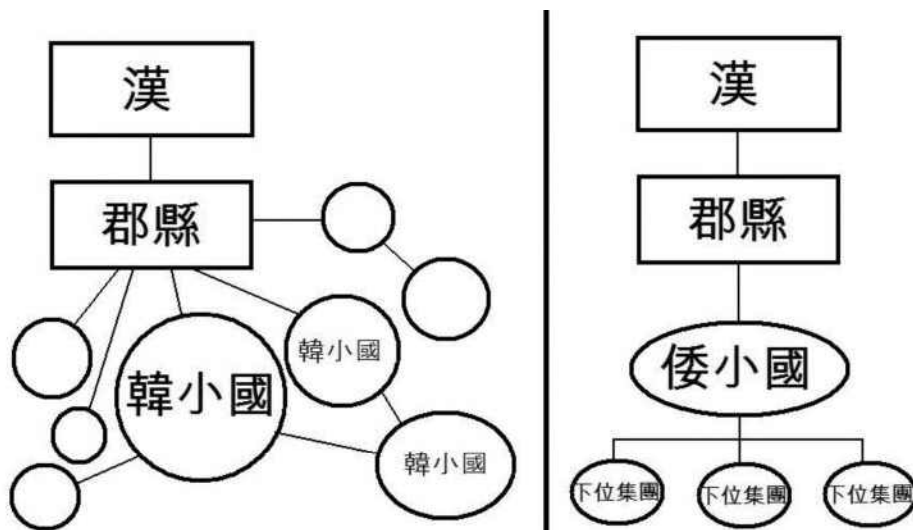
이상을 종합하면 변한의 대외교역은 I~Ⅲ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I기는 청동기시대가 끝나고 한국식동검문화가 시작되는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 대까지이다. Ⅱ기는 기원

21) 물론 하나의 집단이 교역을 바꾸어가면서 성장해 나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김해 양동리 유적은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기부터 유적이 형성되고 있었던 점, 고성 동외동패총의 경우 전한경이 출토되는 시기에는 유적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1. 부산 기장 가동 2. 밀양 교동 3. 김해 회현동
4. 김해 양동리 5. 김해 내덕리 6. 창원 다호리
7. 창원 성산 8. 고성 동외동 9. 사천 늑도

〈그림 7. 한군현 관련 유물의 분포〉



〈그림 8. 韓半島 南部와 日本의 漢鏡 流入 體系 比較〉

전 2세기 초 위만의 조선공탈과 준왕의 남하하는 시기부터 기원후 1세기 중엽까지이다. Ⅲ기는 진한에서 변한으로 청동기 제작이 이동하는 시기인 기원후 1세기 후엽부터 3세기 중엽까지로 구분한다. 또한 Ⅱ단계는 기원전 108년 한사군 설치의 기점으로 ⅡA·ⅡB단계로 나뉜다. Ⅲ단계 역시 2세기 중·후엽 桓靈之末의 혼란기를 기점으로 ⅢA·ⅢB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먼저 Ⅰ단계의 다뉴조문경문화와 관련된 유물은 변한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도 개인위신 중심으로 부상된 사천 이금동 출토의 요령식동검, 김해 울하리 출토의 한국식동검이 이 시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변과의 교역이 그리 활발하지 않으며, 아직 어느 지역도 교역에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다만 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요령식동검의 재가공편이 남해안 일대의 교역-교섭루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단계인 기원전 2세기 초부터 기원후 1세기 중엽에는 가장 활발한 대외교역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바닷길이 정비되고 김해가 교역망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ⅡA단계에는 마한과 관련된 다뉴세문경의 유입이 주목된다. 사천 월성리 목관묘와 전 마산 출토의 다뉴세문경은 아마도 준왕의 남하와 함께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왜와의 교역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弥生시대 중기 전엽에 해당하는 城ノ越식 토기가 출토되는 사천 늑도·방지리, 부산 조도, 김해 흥동유적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의 교역루트를 이용하여 왜인들이 교역을 하는 양상으로 파악된다. ⅡB단계에는 내륙을 통해 한식문물이 유입되는 시기이다. 또한 왜와의 교역도 활발해진다. 삼한에서 가장 대외교역이 활발한 시기가 이 때라고 생각된다. 漢郡縣의 문물은 선학들이 지척한 바와 같이 밀양-김해-창원을 연결하는 내륙루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왜계 문물은 사천-김해를 연결되는데 이는 바닷길을 이용한 것이다. ⅡB단계에는 왜가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집단의 Network에 편승하여 마한으로 교역을 넓히는 양상이 보인다. Ⅱ단계를 종합하면 해안선을 따라 교역망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각 지역에 세력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상위층의 위신재로 한식문물이 내륙을 통해서 유입되고 바다를 통해 弥生토기가 남해안 일대에 분포하는 시기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철을 매개로 교역이 시작되는 시기로 생각된다. 한식문물의 분포로 보아 밀양-김해-창원의 내륙루트의 세력이 성장하게 된다.

Ⅲ단계는 교역망을 김해가 통제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또한 내륙루트가 축소되면서 진한의 중심지인 경주에서 교역품이 거의 확인되지 않게 된다. 이는 철의 교역에 있어 안전한 교역망의 유지가 내륙보다 바닷길이 더 나았기 때문이며, 그로인해 대외교역 경쟁에서 변한이 진한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ⅢA단계는 漢郡縣의 문물은 김해-고성에서 확인되어 해로를 통한 유입을 상정할 수 있다. ⅢA단계의 특징은 방제경에 있다. 진한에서 변한으로 방제경의 제작이 이동하고 김해 양동리를 중심으로 방제경이 급속도로 증가한

다. 하지만 ⅢB단계에 들어서면 방제경은 사라지고 광형동모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또한 ⅢB단계에는 서해안과 동해안을 이용한 해로를 이용한 교역이 중심이 된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주목되는 것은 변한에서 청동기의 유입양상이다. I 단계에는 마한의 청동기, II 단계에는 한군현, III 단계에는 왜의 청동기가 유입된다. 그리고 I B단계에 다뉴세문경, II 단계의 전한경, III A단계의 후한경-방제경, III B단계의 중광형·광형동모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청동기의 변화는 지배계층의 위세품의 변화와 함께 의례에 사용되는 제기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의례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향후 자세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또한 토기의 유입에 있어서도 弥生토기는 한반도 남부로 유입되는 것에 비해 한군현의 토기는 극히 일부만 유입되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토기가 실용재라는 점에서 살핀다면 사람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이동에 토기를 가지고 가야하는 상황과 토기를 가지고 가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변한의 발전에서 대외교역은 중요한 축이었다. 교역은 생산의 일부로서 교역을 통해 많은 이윤을 얻고 있는 것은 과거나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낙동강하구라는 지리적 위치와 철자원을 통해 성장한 변한은 그 철기의 제작기술 뿐 아니라 그것을 수출하는 유통망의 정비를 통해 국가로 발전해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대왜교역과 대한군현교역과 같이 전문분야가 분리된 집단이 존재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세분된 양상을 아직 파악할 수 없지만 향후 자료의 증가를 통해 가능해질 것이라 믿는다. 또한 한반도 남부와 왜를 비교할 때, 일견 왜가 한문화의 수용에 좀 더 조직적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왜-특히 北部九州에서는 많은 한문화가 확인된다. 이에 반해 변한지역은 문헌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철을 매개로 많은 지역과 교역을 하였음이 알려졌지만 상대적으로 외래계 문물은 격이 높거나 양적으로 풍부하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양상은 변한이 시장교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왜는 수장을 중심으로 한 재분배적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내륙루트를 이용하여 교역하던 진한과 바닷길을 이용하던 변한이 계속적으로 경쟁적 관계에 있었지만 1세기 후엽, 바닷길을 이용한 교역망을 원활히 운영하던 변한이 불안정한 내륙망을 가지고 있던 진한보다 교역에 있어서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문〉

- 國立金海博物館, 2004, 『영혼의 전달자』, 特別展示圖錄.
- 고든 차일드(김권구 역), 2009, 『고든 차일드의 사회고고학』, 사회평론.
- 高久健二, 2005, 「靑島遺蹟 出土 樂浪系遺物の 性格」 『三國志 魏書 東夷傳과 泗川 靑島遺蹟』, 석당전통문화 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한·일 국제학술 심포지움.
- 南健太郎, 2007, 「韓半島에서 小形仿製鏡 生産-製作技術로 본 初期 야요이시대 小形仿製鏡의 製作地-」 『한반도의 청동기 제작기술과 동아시아의 고경』, 국립경주박물관 외.
- 朴敬源, 1970, 「金海地方出土의 靑銅遺物」, 『考古美術』106·107.
- 福泉博物館, 2009, 『神의 거울-銅鏡』, 特別展示圖錄.
- 申敬澈, 1980, 「熊川文化期 紀元前 上限說 再考」 『釜大史學』7.
- 申敬澈·河仁秀, 1991, 「韓國出土의 弥生土器系土器」 『한일교섭의 고고학 -야요이시대편』.
- 申敬澈, 1995, 「三韓·三國時代의 東萊」 『東萊區誌』.
- 아라이 사토루, 2010, 「한반도 남부 출토 고분시대 왜경」 『청동거울과 고대사회』, 복천박물관.
- 安在皓·洪潛埴, 1998, 「三韓時代 嶺南地方과 北九州地方의 交渉史研究-並行關係를 中心으로」 『韓國民族文化』,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 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 농소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 윤태영, 2010, 「扶餘 九鳳里遺蹟 出土 鉞에 대한 考察」 『考古廣場』7, 부산고고학연구회.
- 尹容鎭, 1980, 「韓國靑銅器文化研究-大邱坪里洞出土-一括遺物檢討-」 『韓國考古學報』10·11.
- 尹龍九, 1995, 「三韓의 朝貢貿易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162, 歷史學會.
- 小田富士雄·韓炳三 編, 1991, 『한일교섭의 고고학 -야요이시대편』.
- 李康承, 1984, 「漢鏡을 伴出한 細形銅劍의 一例」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 井上主稅, 2006, 「嶺南地方 出토 倭系遺物로 본 한일교섭」, 慶北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 井上主稅, 2011, 「泗川 靑島遺蹟의 쇠퇴-그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30週年 記念 考古學論叢』.

- 李尙律, 2006, 「三韓時代 鑣鐙의 展開」『石軒 鄭澄元教授 停年退任記念論叢』, 釜山考古學硏究會·論叢刊行委員會.
- 李陽洙, 2006, 「韓半島 南部 出土 漢鏡의 分配와 流通」, 『考古學誌』15.
- 李陽洙, 2009a, 「韓式銅戈로 본 韓·中·日 三國의 交差編年」『新羅文物硏究』3.
- 李陽洙, 2009b, 「靑銅器의 磨研과 磨耗」『考古廣場』4, 釜山考古學會.
- 李陽洙, 2010, 「韓半島 出土 三韓·三國時代 銅鏡의 考古學의 硏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李陽洙, 2011, 「圓形으로 再加工된 漢鏡에 대하여-破鏡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嶺南考古學報』57.
- 李在賢, 1995, 「弁·辰韓 社會의 발전과정 -木槨墓의 출현배경과 關係하여-」『嶺南考古學報』17.
- 李在賢, 2000, 「加耶地域出土 銅鏡과 交易體系」『韓國古代史論叢』9.
- 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의 硏究」釜山大學校史學科博士學位請求論文.
- 李在賢, 2004, 「영남지역 삼한시기 倣製鏡의 文樣과 의미」, 『韓國考古學報』53.
- 李在賢, 2005a, 「금관가야의 성장과 대외교역-교역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加耶의 海上勢力』, 제11회 가야사학술회의
- 李在賢, 2005b, 「남한출토 낙랑유물의 성격」, 『낙랑의 고고학』, 제33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집.
- 李昌熙, 2006, 「嶺南地域으로의 鐵器文化 流入에 대한 再考」『考古廣場』1.
- 李昌熙, 2011, 「토기로 본 가야성립 이전의 한일교류」『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제17회 가야사학술회의 자료집.
- 李賢惠,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硏究』, 一朝閣.
- 林昭延, 2006, 「弁·辰韓地域 出土 銅矛 硏究」, 釜山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 鄭澄元·申敬澈, 1987, 「終末期 無文土器에 관한 硏究-嶺南地方을 中心으로 한 예비적 고찰-」『韓國考古學報』20.
- 鄭仁盛, 2001, 「樂浪土城と靑銅器製作」『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硏究科·文學部考古學硏究室 紀要』16.
- 鄭仁盛, 2002, 「樂浪土城と靑銅鑿」『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硏究科·文學部考古學硏究室 紀要』17.
- 鄭仁盛, 2003, 「弁韓·加耶의 對外交渉-樂浪郡과의 교섭關係를 中心으로」『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
- 鄭仁盛, 2004, 「樂浪土城의 「滑石混入系」土器와 그 年代」『百濟硏究』40.
- 鄭仁盛, 2008, 「'瓦質土器樂浪影響說'의 검토」『嶺南考古學報』47.
- 崔鐘圭, 2006, 「늑도유적의 구조」『勒島貝塚 V』, 慶南考古學硏究所.
- 韓炳三, 1976, 「曲玉의 起源」『考古美術』129·130.
- 한빛문화재연구원, 2010, 『포항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洪潛植, 2007, 「신라·가야권역의 마한·백제계 문물」 『4~6세기 가야·신라 고분 출토의 외래계 문물』, 第16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資料集.

칼 플라니(이종욱 역), 1994, 『초기제국에 있어서의 교역과 시장』, 민음사.

콜린 렌프류(이희준 역), 2006, 『현대 고고학의 이해』, 사회평론.

〈일문〉

穴澤咏光·馬目順一, 1975, 「南部朝鮮出土の鐵製鋌留甲冑」 『朝鮮學報』76.

梅原末治, 1947, 『朝鮮古代の墓制』, 座右寶刊行會.

梅原末治, 1959, 「上古初期の仿製鏡」 『國史論集』1.

小田富士雄, 1980, 「九州系弥生文化の對外傳播覺書」 『日本民族とその周邊·考古篇』.

小田富士雄, 1982, 「日·韓出土の同範小銅鏡」 『古文化談叢』9.

片岡宏二, 1999, 『彌生時代 渡來人と土器·青銅器』.

車崎正彦 編, 2002, 『考古資料大觀』5 - 弥生·古墳時代 鏡 -, 小學館.

後藤直, 2009, 「弥生時代の倭·韓交渉-倭製青銅器の韓への移出」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51, [共同研究] 『三國志』魏書東夷傳の國際環境.

杉原莊介, 1978, 「日·韓出土の同鑄型による小銅鏡」 『日本考古學協會昭和53年度大會 研究發表要旨』.

朝鮮總督府, 1925,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查報告 第二冊-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跡』.

高久健二, 1997, 『樂浪古墳文化研究』, 學研文化社.

高倉洋章, 1972, 「弥生時代小形仿製鏡について」 『考古學雜誌』58.

高倉洋章, 1985, 「弥生時代小形仿製鏡について(承前)」 『考古學雜誌』70.

高倉洋章, 2002, 「弁韓·辰韓の銅鏡」 『韓半島考古學論叢』.

武末純一, 2009, 「茶戸里遺蹟과 日本」 『考古學誌』特輯號.

田尻義了, 2003, 「弥生時代小形仿製鏡の製作地-初期小形仿製鏡の檢討」 『青丘學術論集』22.

田尻義了, 2004, 「弥生時代小形仿製鏡の生産體制論」 『日本考古學』18.

西谷正, 1977, 「朝鮮考古學の現段階」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福岡市博物館, 1998, 『弥生人のタイムカプセル』.

柳田康雄, 2005, 「銅鏡鑄造における湯口について」 『鏡範研究』Ⅲ.



GIMHAE NATIONAL MUSEUM



장보고 해상왕국과 청해진

강 봉 룡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1. 해상왕 장보고의 진면목

1) 장보고의 위력과 그 원천

장보고가 한국 역사상 최고의 해양영웅인 것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정작 그에 대한 역사 정보는 그 명성에 비해 너무나도 소략하다. 그의 부모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태어난 시기, 유년시절, 그리고 당나라로 건너간 시점 등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 828년에 신라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중국에서 펼쳤던 활동상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아주 적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장보고에게 ‘해상왕’이라는 닉네임을 붙여 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무엇 때문일까? 그 자세한 이유는 이 책을 통해서 서서히 소개하겠지만, 우선 두드러진 바를 몇 가지 전하기로 한다.

먼저 828년에 장보고가 신라에 귀국한 직후에 보여준 행적이다. 그는 신라로 돌아오자마자 당시 신라왕인 흥덕왕을 만나서 해적 소탕을 역설하면서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고, 왕은 즉석에서 이를 허락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왕은 그에게 1만 여명의 군대 지휘권을 공인해 주었고, ‘대사(大使)’라는 특별 직함까지 내려주었다. 신라왕이 내린 일련의 조치들은,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를 고집하고 있던 신라사회에서 출신 성분조차 알 수 없는 미천한 장보고에게 내려주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파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바가 있다. 그렇다면 장보고에게는 흥덕왕을 매료시킨 무언가의 특별한 위력이 있었던 것일까? 만약 있었다면 그 위력의 비밀은 장보고가 당에 머물러 있던 시절에 성취했을 놀라운 성공담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음에 왕위 쟁탈전에서 발휘한 장보고의 위력이다. 836년에 흥덕왕의 사후에 신라의 중앙에서 김균정과 김제룡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김제룡이 승리하여 왕위에 올랐고(희강왕), 김균정은 패배하여 살해당했으며 균정의 아들 김우징과 지지자 김양 등은 청해진의 장보고 대사에게 찾아와 의탁하였다. 그럼에도 승리하여 즉위한 희강왕은 청해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 장보고의 위력이 만만치 않았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838년에 중앙에서 다시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김명이라는 권신이 자신이 추종립한 희강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민애왕) 그러자 청해진에 의탁해 있던 김우징은 장보고를 설득하였다. 자신의 아버지인 균정을 죽였을 뿐 아니라, 신하의 몸으로 군왕까지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민애왕 김명을 용납하는 것은 결코 의(義)가 아님을 집요하게 역설하였던 것이다. 결국 장보고는 김우징에게 설복당하여, 그 휘하의 군대로써 중앙으로 진군하게 하여 민애왕을 제거하고 김우징을 왕으로 추대하였다.(신무왕) 이처럼 장보고가 구사한 청해진의 군사력은 한 국가의 그것을 가볍게 능가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왕위까지 교체할 정도로 엄청났던 장보고의 위력은 신라 중앙 정치세력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으니, 바로 이점이 그의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 그는 중앙 정치권의 사주를 받은 염장이란 자의 손에 암살당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841년의 일이었다. 그런데 장보고의 위력은, 다음 사례에 나타나듯이 그의 사후에도 당분간 유지되었다.

염장은 장보고 암살 후에 청해진의 관할권을 접수하였다. 당시 청해진의 무역 사절단의 대표(회역사)였던 이충과 양원 등은 장보고의 명을 받아 진귀한 무역품을 무역선에 가득 싣고 일본에 도착해 있었다. 염장은 옛 장보고의 부하였던 이소정 등을 일본에 보내어 장보고의 무역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일본 당국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일본 지쿠젠국의 전직 장관이었던 미야다마로(宮田麻呂)라는 자가 댓가를 미리 지불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역품을 빼앗아 일본 당국을 난처하게 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장보고의 무역품은 그의 사후에도 심각한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치열한 쟁탈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통한 가공할 경제력의 확보, 이것이 장보고 위력의 원천이자 실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보고가 828년에 귀국했을 때, 신라 흥덕왕이 그를 기꺼이 접견하고 그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알고 보면 그의 경제력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경제적 위력은 이미 귀국 전 재당시절에 성취된 바였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 흥덕왕을 사로잡아 청해진을 건설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통해 더욱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혹자는 장보고 세력이 급성장했다고 간주하여, 그것은 아마도 해적질이나 인신매매업과 같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편견에 따른 평가일 가능성이 크다. 그의 행적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장보고 위력의 원천과 실체는 동아시아 국제 해상무역을 주도하면서 축적한 그의 해양력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2) 동아시아 3국의 정사(正史)에서 특필한 인물

장보고(?~841)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인 기록은 그와 동시기에 살았던 당나라의 저명한 시인 두목(杜牧, 803~852)의 문집 『번천문집』에 「장보고·정년전」이라는 항목으로 실려 전한다. 두목은 이 글에서 장보고가 30세의 나이로 10년 연하의 정년과 당으로 건너간 일, 무예에 출중했던 점, 귀국하여 청해진을 건설하고 해적을 소탕했던 일, 재당시절에 원수지간이 되었던 정년이 청해진에 찾아오자 기꺼이 받아들여 중용했던 일, 신라 중앙의 반역 사건을 평정하고 새로운 왕을 세웠던 일 등을 소개하면서, 장보고를 인의(仁義)의 마음이 충만하고

명견(明見)이 있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나라에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잠언을 소개하면서 장보고가 그런 사람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장보고에 대한 두목의 서술과 평가는, 송나라 때 국가 차원에서 편찬된 『신당서』의 동이열전 신라전에 거의 그대로 전재되었다. 당나라 인물도 아닌 신라인에 대하여 당의 정사에서 이처럼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대서특필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신당서』의 편찬에 참여한 사신(史臣) 송기(宋祁)는 장보고 관련 기사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사찬(史贊)을 붙여 극찬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다.

“아! 서로 간에 원망과 해독을 끼치지 않고 나라의 우환을 먼저 생각한 것은 진(晉)의 기해란 사람이 있었고, 당에는 괘분양과 장보고가 있었으니, 누가 동이(東夷)에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인가!” 장보고가 원수지간이었던 정년을 중용했던 것을, 춘추시대 진나라의 대부 기해가 원수 사이였던 해호를 천거했던 것, 그리고 당나라의 장수 괘분양이 역시 원수지간이었던 이 임희를 중용했던 것과 견주면서, 장보고를 동이의 최고 인물로 내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 정사의 장보고에 대한 서술과 평가는,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현전 정사 『삼국사기』의 「장보고·정년 열전」으로 이어졌다. 김부식은 그 말미의 사론(史論)에서 두목과 송기가 장보고에 대해 내린 극찬에 가까운 평가를 소개하면서 자신도 같은 생각임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유신 열전」에서는 사론을 붙여서, 자료가 풍부하여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칭송하고 있는 김유신과 비교하여 중국의 서적에 의존하여 겨우 그 편린을 살필 수 있는 사례로서 을지문덕과 장보고를 들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내리기도 하였다.

“비록 을지문덕의 지략(智略)과 장보고의 의용(義勇)이 있어도 중국의 서적이 아니었다면 사라져서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김부식은 장보고를 ‘의롭고 용기있는 자’로 호평했던 것이다.

한편 장보고가 암살된 지 30년도 채 안된 869년에 편찬된 일본의 정사 『속일본후기』에는 장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가 세 군데나 나오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장보고가 회역사(廻易使=무역사절단 대표)가 이끄는 무역선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과 대규모 국제무역을 하고 있던 정황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장보고 이름의 한자 표기를, 일본 사서에서는 보배 보(寶)와 높을 고(高)를 써서 ‘張寶高’라 표기하여, 보호할 보(保)와 언덕 고(阜)를 써서 ‘張保阜’라 표기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서와 차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보고 이름의 한자 표기는, 당시 일본사회에서 장보고를 ‘보배롭고 높은 존재’로 특별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한 인물이 동아시아 3국의 정사에 모두 이름을 올린 것 자체만도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하겠는데, 더욱이 이처럼 극찬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사례는 아마도 장보고가 유일하지 않을까 한다. 이는 곧 장보고의 특별한 활동상에 대한 당대 국제사회의 평가가 대단히 우호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당시 장보고는 대규모 국제 해상무역활동으로 동아시아 최고의 거부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당나라의 두목이나 일본의 고승 엔닌(圓仁)과 같은 동아시아 지식인들을 지원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의 호평을 받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는 돈만 아는 졸부가 아닌, 돈을 쓸 줄 아는 통큰 무역인의 전범(典範)으로 국제사회에 각인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보고가 해적질이나 인신매매업 등을 통해 급성장했다고 폄하한 일부 연구자의 평가는 장보고의 진면목을 헤아리지 못한 잘못된 편견임에 분명하다.

2. 장보고 선단의 대두 배경(1) - 바닷길의 확대

삼국 통일전쟁의 과정에서 황해 횡단 및 동지나해 사단 항로로 개척되어, 기왕의 연안항로와 더불어 동북아 바닷길은 크게 활성화되었다. 통일 직후인 7세기 후반에는 당·신라·일본 사이에 정치군사적 긴장관계가 조성되어 평화로운 무역활동이 잠시 위축된 적도 있었지만, 8세기에 접어들면서 해빙무드가 조성되면서, 동북아 무역활동의 새로운 전성기에 접어들었다. 8세기 말~9세기 초에는 장보고라는 한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私設) 선단이 동북아 무역활동을 장악·주도하는 극히 특이한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역사적 배경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번 호부터 이 문제를 중심으로 몇 차례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번 호에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해상 실크로드’라고도 불리는 ‘남해로’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것이 신라와 일본까지 확대되었던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장보고 선단 대두의 한 배경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남해로(南海路)’의 범위

남해로란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중해에서 홍해, 아라비아해를 지나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이르는 광활한 해상에서 동서문화교류와 교역이 진행된 바닷길을 말한다. 이 남해로는, 「시리아-페르시아-중앙아시아-신강성(新疆省)-돈황-장안-낙양-개봉-대운하-[양주(揚州)-동지나해-천주(泉州)-광둥(廣東)]-점성(占星=참파)-말레이-스리랑카-아라비아해-홍해-시리아」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육해(陸海) 순환교통로(광의의 실크로드)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중국 동남해안에 위치한 [양주-동지나해-천주-광둥]을 연결고리로 하여 전반

부의 ‘육상 실크로드’와 연결되는 후반부의 ‘해상 실크로드’를 지칭한다.

그런데 실크는 주로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통되었고, ‘해상 실크로드’는 실상 실크의 이동로라기 보다는 도자기와 향료의 이동로로 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해로를 ‘도자로’ 혹은 ‘향료로’라 칭하자는 견해도 있고, 다시 ‘도자로’는 세라믹로드(Ceramic Road) 혹은 차이나로드(China Road)라 불려지기도 한다.

이러한 남해로의 범위는 시기에 따라 한결같지는 않았지만, 로마를 서쪽 끝[西端]으로 하고 중국의 동남해안 일원을 동쪽 끝[東端]으로 하는 바닷길로 파악하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당시 남해로의 동단이 한반도와 일본열도에까지 미친 것으로 보려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이 견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몇 가지의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인도나 동남아시아에 기원을 두고 있는 금박구슬이나 유리구슬이 2세기 이후의 한반도 남부의 여러 유구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점,
- ② 흥덕왕 9년(834)에 내려진 사용 금령 대상 품목 중에 동남아산 진품이 여러 점 포함되어 있다는 점,
- ③ 가야 등의 불교가 바다를 통해서 남쪽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 ④ 9세기 이후의 중세 아랍 문헌에 신라와 아랍 제국 간의 내왕과 교류상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무함마드 칸수, 1992, 『신라·서역 교류사』, 단국대학교출판부).

그렇다면 특히 8세기에 접어들면서 황해 횡단항로와 동지나해 사단항로, 그리고 연안 항로가 크게 활성화되어가고 있던 동북아의 바닷길은 ‘남해로’와 연결되어 당시의 전세계와 통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8세기 중반에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육상 실크로드의 관문이라 할 안서도호부 등이 대혼란에 빠져 육로가 끊기게 되면서, ‘남해로’가 동서문화 교류의 통로로 더욱 각광받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2) ‘남해로’, 신라 및 일본에까지 확대되다

바로 이 시기에 중국의 동남해안인 양주와 광주 등지에는 페르시아인[波斯人]과 아라비아인[大食人], 그리고 인도인과 동남아인 등이 남해로를 통해 내왕하면서 동서 문물교류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국가별로 ‘번방(蕃坊)’이라 칭하는 특수거류지를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거주하였으며, 그들 중에서 ‘도번장(都蕃長)’을 뽑아 자치하기도 하였다. 이에 중국 왕조는 현종 개원 2년(714)에 광주에 시박사(市舶司)를 설치하여 증대되어 가는 대외무역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들의 활동 공간은, 일부가 동북아의 연근해·횡단·사단 항로 등을 통해서 중국 동해안 변이나 신라, 일본 등지에까지 미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중세 아랍 문헌에서 신라에 대해 소개한 부분이 있고, 처용설화나 경주 괘릉의 서역인 석상 등의 존재를 통해서 신라에 아라비아인들의 발길이 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서기』에서 제명천황(齊明天皇) 5년 4월에 토화라국(吐火羅國=이란 동북부와 아프가니스탄 중류지방)의 남녀 2명씩과 사위(舍衛=인도 갠지스강 중류지방)의 여자 1명이 탄 배가 표류하여 휴가(日向) 지방에 표착했다는 가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페르시아, 인도인 등이 간헐적으로 일본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헐적 예외적인 것이었고, 대개 이들이 중국의 양주를 한계로 하여 그 이상 북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 재당신라인(在唐新羅人)들은, 페르시아인이나 아라비아인들이 내왕하며 집단 거류지를 형성하고 있던 광주·천주·양주 등지에 출입하면서 그들과의 국제교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는 한편으로 그들은 페르시아인이나 아라비아인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양주 이북의 대운하변, 회하변, 산동반도 일대에 널리 그들만의 자치구인 신라방(新羅坊) 혹은 신라촌(新羅村)을 형성하여 안착하면서, 동북아의 여러 항로들을 통해서 중국 동해안변과 신라 및 일본 등지에까지 동서 문물교역을 중개해 주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곧 재당신라인들이 동북아의 여러 항로, 즉 연안·황해 횡단·동지나해 사단 항로 등을 동서문화교류의 거대한 통로인 ‘남해로’에 연결시킴으로써, 남해로의 동쪽 끝을 신라와 일본에까지 확대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바이다. 이러한 재당신라인들의 중심에 장보고가 있었으니, 그의 청해진 설치는 한반도 서남해지방을 일약 ‘남해로’의 한 축으로 부상하게 했던 것이다.

3. 장보고 선단의 대두 배경(2) -공무역에서 사무역으로-

8~9세기 무역체제의 변동은, ‘남해로’의 활성화와 함께, 장보고 선단이 대두할 수 있게 한 또 하나의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 무역체제의 변동이란 공무역(公貿易)이 후퇴하고 사무역(私貿易)이 크게 활성화되었던 흐름을 말한다. 이러한 흐름이 없었다고 한다면 장보고 선단의 부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1) 8세기 공무역의 성행

신라의 삼국 통일 후에 동아시아 3국은 당분간 정치·군사적으로 냉랭한 대립관계를 지속

해 갔다. 그러더니 8세기에 접어들면서 발해가 건국되는 등의 변수가 작용하여 국제적 해빙 무드의 조짐이 현저하게 일어났으며, 다시금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해상무역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당시 발해와 일본 간에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긴 했지만 그것은 주로 정치·군사적 목적이 강한 것이었고, 경제적 해상무역 주 대상 국가는 역시 당과 신라와 일본이었다. 이미 통일전쟁의 과정에서 황해 횡단항로가 본격 개통된 상황이었으니, 8세기에 재기된 동아시아 국제 해상교역은 그 질과 양에서 연안항로 시대의 그것을 훨씬 능가할 것이었다.

당시 당과 신라와 일본의 3국은 공통적으로 황제 혹은 국왕을 중심으로 강한 집권국가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으므로, 3국 간의 무역은 국가의 강력한 관리와 통제를 받는 공무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 공무역을 매개하고 활성화시킨 것은 신라의 견당사(遣唐使), 견일본사(遣日本使)들이었다. 신라의 견당사는 당에 머물면서 외교 활동을 펼치면서 당의 허용 하에 진귀한 당물(唐物)들을 수매하여 신라에 돌아왔다. 이 당물들의 일부는 신라에서 소비되기도 했고, 그 일부는 신라물(新羅物)과 함께 견일본사를 통해서 일본에 수출되었다. 당시 신라인이 가져간 당물과 신라물은 통칭하여 신라물로 불렸고, 일본인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높아서 ‘얻고 싶은 물건’이란 의미의 ‘염물(念物)’이라 불리기도 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신라물에 대한 과도한 구매 경쟁을 벌였고, 일본 조정은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대한 통제를 맡은 것은 대장성(大藏省) 관리였다.

대장성 관리들은 신라물 구매를 원하는 자들에게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라는 일종의 구매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거기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신라물의 품명과, 그 물품의 값에 응해서 지불할 견제품의 종류와 분량, 그리고 기재연월일, 구매 희망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일본의 국제 무역에 대한 통제가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보여주는 바이다.

아무튼 8세기에 공무역의 성행으로 가장 이득을 보았던 것은 신라였으며, 이 시기 신라가 정치·문화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엄청난 공무역의 이득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9세기 공무역의 후퇴에 사무역의 활성화

외국인과 사사로이 교역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이를 어길 경우에 중죄로 다스림으로써 국제 무역을 철저히 통제했던 것은 일본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 당과 신라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당 전기에 편찬된 『당률소의(唐律疏議)』에 의하면, 변경 지역에서 외국인과 사사로이 교역하는 것을 금하고, 외국인이 국경을 넘어와 교역하면 내국인이 국경을 넘어 교역한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3국이 공히 무역을 국가가 통제하는 공무역체제만을 유지하려 했던 데에는, 무역

통제체제가 무너지게 될 경우 그로 인해 일어날지도 모를 불순세력의 대두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러나 3국의 일반민들의 입장은 달랐다. 국가가 강력히 통제하는 공무역만 허용함으로 인해 외래품의 유통은 극히 소량에 그쳤고, 그만큼 외래품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다. 사무역 금지를 법으로 정한 것 자체가 이러한 일반민의 욕구를 공권력으로 억눌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들의 사사로운 구매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황제권(왕권)이 전제되어야 했다. 그러나 8세기 후반부터 동아시아 3국에서 똑같이 왕권이 와해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공무역은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당의 경우 755년에 일어난 절도사 안록산의 난을 기점으로 황제권에 도전하는 절도사들의 발호가 전국에서 줄을 이었고, 농업생산력의 발달에 따라 균전제가 붕괴하고 상업 유통경제가 발달하는 경제적 변화의 추세가 겹쳐 일어나면서, 당 왕조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급속히 약화되어 갔다. 신라의 경우 8세기 후반부터 귀족들의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집요한 왕위쟁탈전과 지방세력의 탈왕권화의 경향이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역시 8세기 후반부터 황실의 외척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지방에서 장원(莊園)이 출현하고 이에 기반한 호족들이 대두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외래품의 자유로운 매매를 원했던 3국인들의 욕구가 국가의 통제가 취약해진 틈을 타서 폭발하게 되면서, 국가 통제 하의 공무역은 그만큼 쇠퇴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고 하여 사상(私商)들에 의한 사무역이 곧바로 활성화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장애물이 생겼던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이 약화되면서 해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불법적인 해적집단이 그것이었다. 해적집단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사무역은 활성화되기 어려운 노릇이었다.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당은 국제무역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산둥반도의 고구려계 이정기(李正己) 세력에게 위임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지만, 이정기 세력의 권력기반만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그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결국 당은 이정기 세력 등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나섰고, 이를 위한 대규모의 모군(募軍)을 실시하게 되었다. 모군의 열풍에 휩싸여 있던 당에 건너간 신라의 두 젊은이가 있었으니, 장보고와 정년이 그들이었다. 장보고는 이정기 세력에 대한 진압작전에 참여하면서 당시 세계의 큰 변화와 흐름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가 주목했던 것은 해상실코로드 ‘남해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사무역이 공무역을 대신하여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을 것이

다. 그의 의중엔 이런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을 것이다. ‘해적만 통제할 수 있다면…’ 결국 그의 생각은 적중했던 것이다.

4. 재당신라인(在唐新羅人) 장보고의 입신(立身)

장보고의 유년시절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8세기 후반 경에 완도, 혹은 그 인근에서 출생하여 유년기를 보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후 청년으로 성장한 장보고는 10세 가량 어린 동향(同鄕)의 후배 정년(鄭年)과 함께 품은의 꿈을 안고서 당으로 건너가서 30세 가량에 서주(徐州) 무령군소장(武寧軍小將)이라는 군직(軍職)에 올랐다 한다. 신라에 귀국하는 828년까지 그가 당에 머무른 기간은 9세기 초의 20~30년 간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재당시절 장보고는 무엇을 했을까? 이 기간은 그의 인생을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애석하게도 이 기간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일단 그가 무령군 소장직에 있었다는 사실을, 재당 시절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로 삼을 수밖에 없다.

1) 무령군 장보고와 평로치청의 번수 이사도의 해후

당시 무령군의 주요 임무는 당 조정에 반기를 든 평로치청의 번수 이사도(李師道)가 이끄는 평로군을 소탕하는데 선봉에 서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사도의 평로군은 결국 819년에 완전 진압되고 말았다. 장보고는 무령군의 일원으로 평로군 진압전에 참전하여 그 전공을 인정받아 소장직에까지 승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참전의 경험이야말로 장보고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구상을 하게 하는 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평로치청의 번진세력이 반당의 기치를 내걸고 대두하게 된 것은 765년에 고구려유민 출신인 이정기(李正己)가 당 조정으로부터 임명받은 평로치청절도사 후희일을 무력으로 몰아내고 스스로 번수가 되면서부터였다. 이후 819년 완전 진압될 때까지 3대 55년 동안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소왕국’을 이루어 군림하였다.

무령군 소장으로 이사도 세력의 진압전에 참전했던 장보고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동족이 이런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자책이 앞섰을까? 아니면 이정기 일가의 반당행위로 인해 재당 신라인사회가 통채로 당 조정의 위협세력으로 낙인찍혀 버릴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을까? 그의 심사는 매우 복잡다단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점차 재당 신라인의 저력을

발견하고 이를 확신하게 되면서, 이정기 일가가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 대안으로 그들의 경제적 권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하여 장보고는 819년에 이사도 세력이 완전 진압되자, 미련없이 무령군 소장직에서 물러나 828년 귀국할 때까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모종의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갔을 것으로 보인다.

2) 장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장보고의 '새로운 사업'이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첫 단서를 두목(杜牧)이 쓴 「장보고 정년전」에 나타난 두 사람의 어긋난 인생 행로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장보고와 정년은 동향의 선후배로서 그가 처음 고향 땅을 떠나 이역만리 당나라 땅에 건너 온 데에는 그들만의 의기투합된 공통의 꿈이 있었을 터였다. 그것은 그들의 빼어난 완력과 무술 실력으로 당시 당나라에 일고 있던 모군(募軍)의 열풍에 응하여 군인으로 성공해 보자는 것이었을 것이다. 실제 두목은 두 사람에게 대해서 “모두 전투를 잘하여 그 본국에서나 서주(徐州)에서 능히 적대할 자가 없었다”고 적고 있다. 과연 그들은 같이 서주 무령군에 입대하여 나란히 군중소장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그런데 이사도세력을 진압해 가는 과정에서 장보고와 정년의 인생 행로는 서서히 엇갈리게 되었던 것 같다. 장보고는 이사도세력이 진압된 뒤에 스스로 군직에서 물러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던 반면에 정년은 계속해서 군인의 길을 고집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보고는 보기 좋게 성공을 거두고 828년에 금의환향하여 동북아 바다를 호령하는 '해상왕'으로 등극했던데 반해, 정년은 당 조정의 감군(減軍) 조치로 실직당하여 끼니조차 잇기 어려운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던 것이다. 이러한 두 사람의 상반된 처지에 대해, 두목은 “장보고는 그 나라에서 이미 귀하게 되었는데, 정년은 어긋나고 초라하게 직을 떠난 신세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인생 행로의 엇갈림으로 인해, 그들의 우정은 금이 가고 서로 질시하는 관계로 변질되었던 것 같다.

이처럼 두 사람의 우정이 벌어지게 된 계기를, 장보고가 원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택했던 것에서 찾게 된다면, 그 시점은 역시 이사도 세력의 진압 직후부터였을 것이다. 그리고 장보고의 '다른 길', '새로운 사업'이란 재당 신라인들을 조직화해서 국제적 해상무역에 투신하는 일에 다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장보고가 이처럼 재당 신라인들을 조직화하는 주역으로 급부상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3) 장보고의 성공 배경

먼저 9세기 초반에 광범위한 번진세력의 발호로 당의 지방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어간 추세에 편승하여 기승을 부리던 해적의 무리에 대해서 장보고가 단호한 대처를 해낼 수 있는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했으리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실제 당시 해적이라 불리는 불법적인 해양세력의 약탈 행위는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될 정도로 심각한 바가 있었다.

당시 사무역업을 위시로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재당 신라인들 역시 이러한 해적의 피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더욱이 그나마 그간 자신들을 지켜주던 이정기 일가의 동족정권마저 무너지면서, 재당 신라인들은 해적들의 약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생업에 심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적들에 대한 퇴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던 인물이 바로 장보고였지 않았을까 한다. 그렇지 않아도 동족 출신인 이정기 일가의 정권이 붕괴되면서 구심력을 상실하여 심리적 허탈감에 빠져 있었을 재당 신라인들에게, 이런 장보고란 인물이 급속하게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터이다.

생각전대 군중소장의 경험에서 나온 군사전략가적 그의 소양은 해적 퇴치에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게 하였을 것이고, 여기에 두목(杜牧)이 추켜세웠듯이 인의지심(仁義之心)과 명견(明見)의 통찰력을 겸비한 빼어난 그의 자질은 재당 신라인사회에서 대중적 인기과 신임을 한 몸에 받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대중적 인기과 신임을 통해서 그는 재당 신라인사회에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해 갔을 것이고, 이것이 장보고가 당대 최고의 국제 해상무역가로 입신하게 되는 기반이 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5. 장보고의 귀국과 청해진 건설

1) 장보고의 귀국

당에서 당대 최고의 해상무역가로 대성한 장보고는 828년에 급거 신라에 귀국하였다. 그리고 흥덕왕에게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당에서 동북아 최고의 국제 해상무역가로 부상하여 그 명성을 떨치던 장보고가 왜 갑자기 귀국을 결행하게 되었을까?

장보고가 귀국하기 불과 6년 전인 822년에 신라에서는 김헌창(金憲昌)이 반란을 일으켜 신라 정국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게 한 큰 사건이 일어났다. 한 때 김헌창은 신라 영토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 위세를 크게 떨쳤으며, 그 여파는 전국에 미쳤다. 김헌창의 난은 겨우 진압이 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국왕의 권위를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게 되었고, 지방세력의

동향 역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자연 신라국가의 지방 통제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국가 재정도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828년 장보고가 귀국한 것은 신라의 어려운 내부 사정에 편승하기 위한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할 것이다. 당시 신라 조정에서는 궁핍한 국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장보고의 재력이 필요했고, 장보고에게는 완도와 그 주위의 서남해지방에 대한 관할권이 필요했다. 따라서 신라의 흥덕왕과 장보고 사이에 무언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타협의 핵심 내용은 장보고가 신라 조정의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그 대신 신라는 완도에 군사·무역기지의 건설을 승인해 주는 것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보고의 귀국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던 셈이다. 오히려 일찍부터 한반도의 서남해에 위치한 완도지역을 국제 해상무역의 새로운 중심기지 건설의 후보지로 낙점하고, 이의 건설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온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도를 펴보면 곧바로 알 수 있듯이 서남해지방은 동아시아 삼국을 연결하는 바다의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와 함께 이곳이 마침 그의 고향이라는 점도 그의 낙점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그가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 귀국한 것은 이런 모든 준비의 마무리 과정이었던 것이다.

2) 청해진의 건설과 관할 범위

과연 신라의 흥덕왕은 장보고의 모든 요청을 쉽게 승인해 주었다. 1만여 군대가 주둔하는 청해진을 완도에 설치하는 것을 승인해준 것은 물론, 장보고를 청해진의 대사(大使)로 임명해 주기까지 하였다. 당시 신라 조정은 1만여 명이나 되는 대군을 즉시 마련해줄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였고, 그런 처지에 있었다 해도 섬 출신의 이방인에게 국가의 군대를 선뜻 내준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청해진에 주둔한 1만여 군대는, 장보고가 신라 조정의 양해를 받아 서남해지방의 변민(邊民)을 직접 징발·조직한 민군(民軍)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곧 장보고가 서남해지방의 해양세력을 미리 규합하여 구축해 놓은 군사적 기반을 국왕으로부터 추인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완도에서 청해진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먼저 장도(將島)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토석 혼축의 성지와 우물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장도 주위의 바닷가에서는 직경 30cm 안팎의 참나무와 소나무 기둥들을 약 10여cm 간격으로 박아 세운 목책(木柵)의 흔적이 확인되어 2중의 방어망이 구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1만여 명이 주둔한 청해진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앞으로 장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요망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장도와 장도 밖의 장좌리, 그

리고 그에 인접한 죽청리·대야리 일대에 청해진의 본영과 병사들이 머문 군영이 산재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겠다.

청해진이 관할했던 지역 범위는 단순히 완도 몸섬에만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위 서남해지방의 도서연안지역을 포괄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강진군 대구면과 해남군 화원면 일대에 9세기 대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해무리굽 청자 등을 굽던 요지들이 대규모 집단 군을 이루며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장보고에 의해 조성된 대규모 도자기 생산단지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에 장흥 천관산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호족세력이 장보고의 영향권 하에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견해가 있어 주목해볼 만하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당시 청해진의 관할 범위는 적어도 강진군과 해남군, 그리고 장흥군의 연안지역을 포함하는 서남해지방 일대에 미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청해진의 특징과 의의

청해진은 비슷한 시기에 설치된 다른 군진(軍鎭)들, 즉 패강진(溟江鎭)[782년에 설치], 당성진(唐城鎭)[829에 설치], 혈구진(穴口鎭)[844년에 설치]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그 명칭에서 타 군진들은 지명을 관칭(冠稱)했던 데 반해, 청해진은 ‘바다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의 추상명사를 앞세운 당풍(唐風)의 명명법(命名法)을 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완도의 원래 이름은 청해가 아니라 조음도(助音島)였으며, 청해란 이름은 장보고가 완도에 진(鎭)을 설치하면서 해양에 대한 그의 포부를 밝히면서 명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다음에 장관의 명칭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패강진의 경우 처음엔 두상대감(頭上大監)이라 칭하다가 신라 말기에 도호(都護)라 개칭하였고, 혈구진의 경우는 진두(鎭頭)라 칭했던 데 반해, 청해진의 경우는 신라의 관직체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사(大使)란 직명을 쓰고 있다. 이는 아마도 당에서 번진(藩鎭)의 절도사(節度使)에 대한 별칭으로 쓰이는 대사(大使)를 염두에 둔 명칭이라 생각되며, 이 점에서 청해진이란 당의 번진과 같이 독자적 세력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해진의 설치에 장보고가 재당 시절에 성취한 동북아 국제 해상무역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야심찬 기획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먼저 그는 청해진과 그 관할 지역의 해양세력을 결집하여 1만 여명에 이르는 군사력을 확보하고, 이로써 해적들의 준동을 잠재우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잠시 경색되었던 동북아의 해양 물류체계를 재가동시키고, 이미 무력화된 8세기의 공무역체제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무역체제를 일으켜 이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갔던 것이다.

6. 청해진대사 장보고의 대당(對唐)·대일(對日) 무역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무역을 주도해 갔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가능했다. 첫째, 더욱 강고한 재당 신라인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원격 조종·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는 일, 둘째, 일본 규슈지방에 우호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대시키는 일, 그리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신라·당·일본을 잇는 하나의 해양 물류시스템을 정비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여기에서는 매물사(賣物使)와 회역사(廻易使)의 사례를 중심으로 당시 청해진이 대당·대일 무역을 전개해간 면모를 엿보기로 한다.

1) 대당무역(對唐貿易)과 매물사(賣物使)

장보고가 재당 신라인사회를 장악하고 이를 원격 조종하고 있었음은 엔닌(圓仁)의 일기『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장보고는 그의 대리인격인 등주(登州)의 장영(張詠)과 초주(楚州)의 유신언(劉愼言) 등을 통해서 재당 신라인사회를 원격 조종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가 세운 적산 법화원은 신라인사회를 결집하는 상징적 구심체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청해진의 장보고는 매물사(賣物使)가 이끄는 교관선(交關船)을 당에 수시로 파견하여 재당 신라인사회의 조직망을 점검하고 이를 활용하면서 무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엔닌의 일기에 의하면 839년 6월 27일에 장보고가 보낸 두 척의 교관선이 적산포(赤山浦)에 도착했는데, 청해진병마사(淸海鎭兵馬使)란 직함을 가진 최훈(崔暲)이란 인물이 교관선을 대표하는 매물사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청해진에 병마사라는 독자적인 관직체계가 있었다는 것이 우선 관심을 끄는데, 그것이 군사적인 냄새를 물씬 풍기는 관직이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이는 곧 청해진이 반독립적 군정체제(軍政體制)를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병마사의 직을 가진 이를 구매사절단격인 매물사로 파견했다는 점에서, 청해진의 조직이 ‘군산(軍産) 복합체제의 종합상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매물사 최훈은 적산 법화원에 들러 장보고를 대리해서 이를 관리하고 있던 장영 등을 위로하고, 7개월 보름 동안 중국 동해안 변의 주요 항구에 들러서 무역 활동을 전개하고 다시 적산포로 돌아오는 대장정의 무역활동을 전개했다. 그가 들른 주요 항구를 보면 유산포(乳山浦)·해주(海州)·초주(楚州)·양주(揚州) 등 산둥반도에서 강남지방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걸치고 있었다. 이들 항구는 물자의 집산이 이루어지는 대항구였고, 이런 대항구에는 예외 없이 신라촌이 조성되어 있었다. 최훈이 무역활동을 전개하는데 신라촌에 사는 재당 신

라인들의 존재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되었다. 따라서 무역활동 이외에 이들을 관리하는 일도 그의 주요 임무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매물사 최훈은 산동반도 적산포에서 양주에 이르는 주요 항구들을 왕래하면서 신라인사회의 네트워크를 직접 점검하면서 기나긴 국제 무역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발착(發着)은 항상 산동반도의 적산포에서 시작하여 적산포에서 끝났던 것으로 보아, 적산포는 장보고가 재당 신라인사회를 원격 조종하는 중심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청해진대사 장보고는 적산포를 통해 매물사를 당에 파견하여 재당 신라인사회의 해양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당과의 반공식화(半公式化)된 무역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2) 대일(對日) 무역과 회역사(廻易使)

장보고는 당에 매물사를 파견하여 무역활동을 전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는 회역사(廻易使)를 파견하여 일본에서의 무역활동을 전개하였다. 회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의 하나는 일본측 사서인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에 전한다. 그 내용은 대체로 이러하다.

장보고는 암살당하기 직전 이충(李忠)과 양원(兩院)을 회역사로 삼아 많은 진귀한 물건들을 실은 교관선(交關船)을 일본 큐슈의 축전대진(筑前大津)[지금의 박다항(博多港)]으로 보냈다. 그런데 841년에 장보고가 죽음으로써 그 물건들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였다. 장보고를 암살하고 임시 청해진을 관장하고 있던 염장(閻長)은 이소정(李少貞)을 일본에 보내어 장보고의 물건들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공경들은 장보고가 암살당했다는 것을 이유로 반환해주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전축전국수(前筑前國守) 궁전마려(宮田麻呂)가 당나라 물건을 사기 위해 장보고에게 미리 값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물건들을 모두 빼앗아간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당국은 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일부를 돌려주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장보고의 회역사는 주로 축전대진(筑前大津)을 통로로 하여 일본에 출입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장보고는 당에 머물고 있던 때인 824년경에 축전국(筑前國)에 방문하여 당시 국수(國守)였던 수정궁(須井宮) 등을 만나 무역에 관한 업무를 협의한 적이 있었다. 이는, 궁전마려(宮田麻呂)의 예와 더불어, 장보고의 대일본 무역이 축전국수(筑前國守)와 직접 담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장보고의 회역사가 가져간 진귀한 물건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구매 욕구는 매우 강렬하여, 으레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을 초래하곤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궁전마려가 장보고에게 가격을 선납(先納)했다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일본 조정은 장보고의 무역활동에 대해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곤 했다. 축전국 소재의 대외업무 전담기관인

대재부(大宰府)의 모관리는 장보고 개인 자격으로 일본에 파견한 회역사가 국가의 공식 사절단의 성격을 농후하게 띠는 점을 지적하면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장보고의 무역활동을 끝내 완전 금지할 수는 없었다. 이는 아마도 일본인들의 강렬한 구매 욕구를 틀어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장보고의 무역활동은 일본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장보고의 무역품에 대한 구매경쟁으로 인해서 가산을 탕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사치 풍조와 왜래품 선호의 풍조도 만연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 신분제에 따라 엄격하게 차별적으로 적용해 오던 물화(物貨) 사용에 대한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신분제의 문란을 야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만큼 일본사회에서 장보고란 이름 석자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일본 사서에서는 장보고의 한자 표기를 ‘張寶高’라 쓰고 있는데, 이는 ‘보배롭고 높은 존재’란 의미로서 중국 사서에서 ‘張保皋’라 표기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장보고에 대한 일본인들의 특별한 경외의 정서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7. 장보고와 동아시아의 지성들

장보고는 승려나 문인과 같은 당대 동아시아 최고의 지성들과 폭넓게 교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아시아 여론주도층인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무역활동에 대한 국제 여론의 우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 일본 승려 엔닌(圓仁)과 장보고

장보고가 일본의 도당 유학승 엔닌의 입당구법 활동을 배후에서 적극 지원해 주었던 것은 가장 저명한 예이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보면, 엔닌은 장보고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번도 친견하지 못한 장보고가 자신의 구법 활동을 배후에서 도와준 사실에 크게 감사하면서 한번이라도 그를 친견했으면 하는 소망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장보고가 매물사로 파견한 청해진 병마사 최훈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도움에 대해 감사하고 청해진을 방문하여 장보고 대사를 직접 만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하였다.

장보고와 그 추종자들에게 호의와 환대를 받은 엔닌은 일본에 돌아가 적산선원(赤山禪院)을 세우고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겨 재신(財神)인 적산명신(赤山明神)을 봉제(奉祭)하게 했다. 이는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에 오랫동안 머물고 도움을 받으면서 구법순례를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보고를 재신의 화신

으로 간주해 이를 적산명신으로 삼아 봉제하게 했던 것은 장보고에 대한 감사와 우호의 심정이 신격화의 단계로까지 승화된 예가 되겠다. 그리하여 당시 일본사회에는 장보고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이니, 일본 사서에서 그를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는 ‘張寶高’라 표기하고 있는 것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2) 신라 선승(禪僧)들과 장보고

또한 장보고는 당시 크게 유행으로 번지고 있던 신라 선승들의 도당유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역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보인다. 장보고와 그들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들이 대부분 장보고의 대활약 시기에 서남해지방을 통해 당에 건너가거나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장보고의 후원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먼저 보조체징(普照體澄)은 837년 당에서 돌아와 장흥 보림사에서 가지산문(迦智山門)을 일으켰으며, 혜철(慧哲)은 814년에 당에 건너갔다가 839년 2월에 돌아와 곡성의 태안사에서 동리산문(桐裏山門)을 열었다. 그리고 홍척(洪陟)은 당에 건너갔다가 826년에 임피를 통해 귀국해 남원의 실상사에서 실상산문을 열었으며, 현욱(玄昱)은 824년에 당에 건너갔다가 837년 9월에 나주 회진포를 통해 돌아와 창원 봉림사에서 봉림산문(鳳林山門)을 열었다.

또한 도운은 825년에 당에 건너갔다가 847년에 귀국하여 한 때는 화순 쌍봉사에 자리를 잡았다가 후에 강원도 영월로 옮겨 사자산문(獅子山門)을 열었다. 한편 성주산문(聖住山門)의 개산조(開山祖) 무염(無染)은 821년에 중국에 건너갔는데, 그의 비(‘重修無染寺院記’)가 장보고의 근거지였던 산동성 문등현 곤륜산 아래에서 발견되어, 장보고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장보고시대에 도당유학을 하고서 서남해지방을 통해서 귀국한 이들 선종 승려들은 장보고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신라사회에서 돌아와 장보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주었을 것이다.

3) 당(唐)의 저명한 시인 두목(杜牧)과 장보고

기록으로 전해지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장보고와 그의 추종자들은 당의 승려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특기하고 싶은 것은 장보고와 당의 저명한 시인 杜牧(803~852)과의 관계에 대해서이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려진 바는 없지만, 두목이 그의『번천문집(樊川文集)』에 입록(入錄)한 「장보고·정년전」을 통해서 장보고와 두목의 긴밀한 관계를 살필 수 있다. 두목은 이 전기문에서 장보고와 정년의 관계를 안록산 난 직후의 곽분양(郭汾陽)과 이임회(李臨淮)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장보고를 ‘인의지심(仁義之心)이 충만하고 명견(明見)을 가진 인물’로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라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어(語)의 잠언을 인용하면서 장보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장보고가 중앙의 왕위 쟁탈전에 간여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우호적으로 평가하여 배반자를 평정한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장보고가 귀국한 후에도 두목은 장보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목의 장보고에 대한 평가와 관심은 곧 장보고가 당시 당의 지식인들 사이에 얼마나 우호적인 인물로 비쳐지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이다.

4) 역사서에서 장보고에 대한 평가

두목의 장보고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이후 역사서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예를 들어 송대(宋代) 11세기 중엽경에 편찬된 『신당서』에서 편찬자의 한 사람인 송기(宋祁)는 장보고에 대한 두목의 평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장보고에 대한 자신의 논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아아 원한이 있어도 서로 봉공함을 저해하지 않고, 국가의 근심을 앞세운 이로는 진나라 때는 기해가 있었고, 당나라 때에는 곽분양과 장보고가 있으니, 누가 이국(夷國)에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랴.”

김부식 역시 그의 『삼국사기』 장보고 열전에서 두목과 송기의 논찬을 그대로 소개하였고, 김유신 열전에서는 “비록 을지문덕의 지략(智略)과 장보고의 의용(義勇)이 있어도 중국의 서적이 아니었다면 민멸(泯滅)하여 전무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여 을지문덕을 지략의 인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장보고를 의용의 인물로 평가하면서, 우리 사서에서 그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전하지 않음을 아쉬워하였다.

8. 장보고의 암살

1) 암살당한 해양 영웅

841년은 한국 해양사에서 전무후무한 대역사를 개척한 해양 영웅 장보고가 염장이란 자에

게 암살당한 해이다. 장보고의 비극을 불러온 사건은 836년에 일어났다. 그 사건의 내막은 대충 이리하다. 흥덕왕이 후사 없이 죽자, 흥덕왕의 당제(堂弟)로서 상대등의 지위에 있던 김균정(金均貞)이 왕위 계승에서 제1 순위자로 떠올랐다. 균정의 아들 우징(祐徵)은 매서(妹婿)인 예징(禮徵)과 김주원계의 김양(金陽) 등과 더불어 균정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흥덕왕의 아우인 충공(忠恭)의 아들로서 당시 시중의 지위에 있던 김명(金明)은 이홍(利弘) 등을 포섭하여 헌정(憲貞)[균정의 형]의 아들인 제룡(悌隆)을 지지하면서 왕위쟁탈전에 뛰어들었다. 양파벌은 치열한 시가전을 벌였으며, 결국 김명이 지지한 제룡이 왕좌에 올라 희강왕(僖康王)이 되었다. 균정은 그 쟁투의 와중에 피살되었고 그의 아들 우징과 그를 지지하던 김양 등은 잔병을 거두어 청해진을 찾아가 장보고의 보호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838년에 중앙에서 상대등 김명과 시중 이홍 등이 정변을 일으켜 자신들이 옹립한 희강왕을 퓌박하여 죽게 하고, 자신이 직접 왕위 오르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민애왕(愍哀王)이 그였다. 이에 대해 우징은 아버지와 임금의 원수 민애왕을 토벌할 것을 장보고에게 요청하였고, 장보고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청해진의 군사를 일으켜 민애왕을 죽이고 우징을 왕위에 추대하였다. 이가 신무왕(神武王)이다. 장보고의 비극은 여기에서 싹이 텄다. 신무왕(혹은 그의 아들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을 것을 약속하였는데, 군신(群臣)들이 이에 반발하여 좌절시켰다.

이에 신라 조정은 장보고의 동향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중, 무주 출신 염장이 자청하여 장보고를 암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두목(杜牧)이 평했던 인의지심(仁義之心)이 충만한 그의 성품이 그로 하여금 의(義)를 좇아 정치관으로 쓸리게 했던 반면에, 또 한편의 성품인 ‘명견(明見)’으로도 정치관 개입 이후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예견하지 못했던 셈이다. 바로 여기에 장보고의 비극이 있었다.

2) 장보고가 왕위쟁탈전에 관여하게 된 동기

장보고가 왕위 쟁탈전에 개입하게 된 것은 김양이 희강왕을 퓌살(逼殺)한 직후인 838년의 일이었다. 김우징은 김양의 희강왕 퓌살 사건에 대해 신하가 임금을 죽인 무도한 행위로 지목하고 장보고의 개입을 설득하였던 것이고, 장보고는 이 사건을 무도한 난으로 간주하고 ‘의로운 일’에의 동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미 우징은 김명 일파에 패하여 청해진에 피신해 들어간 이후로 집요하게 장보고의 개입을 설득했을 것이나, 장보고는 이에 일체의 미동도 보이지 않다가, 김명 등의 반란 사건이 터지자 비로소 우징의 설득을 받아들여 난을 평정하는 의로운 일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이러한 장보고의 왕위 쟁탈전에의 개입 시점은 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정보고는 정치적 사건에 가능하면 개입하려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만약 그가 정치에 관심이 컸다면, 우징이 청해진에 들어왔을 때 곧바로 그와 결탁해서 군사 행동을 감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보고는 이미 재당 시절에 이사도 세력을 진압하는 전투에 참여하면서부터, 정치군사적 도발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상한 것인가를 이미 절감했던 것 같다. 이사도 세력이 진압된 직후에 그가 무령군 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서 재당 신라인사회를 국제 해상무역이라는 새로운 길로 이끌어갔던 것이야말로, 이러한 그의 성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귀국후에 청해진체제를 건설하면서도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837년에 우징이 청해진으로 피신해 들어오면서, 장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정치판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 같다. 즉 중앙에서 신하(김명)가 왕(희강왕)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자, 우징은 장보고의 의분(義憤)에 호소하여 반역자의 징벌에 동참할 것을 적극 권유했던 것이고, 장보고는 그에 설복당하여 결국 헤어날 수 없을 정치판에 깊숙히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다.

3) 장보고 딸 납비(納妃) 문제를 둘러싼 파워게임

장보고의 비극은 그의 딸을 왕비로 들이는 문제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장보고 암살의 성격을 살피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 점에서 장보고 딸의 납비에 관한 사서의 기록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국왕은 장보고 딸을 비(妃)로 맞는 것에 대해 적극성을 띠고 있었던 것에 반해, 군신들은 이를 극력 반대하여 저지하려 했다는 점이다. 실제 신무왕은 즉위하자마자 장보고를 감의군사(感義軍使) 식실봉(食實封) 이천호(二千戶)로 삼았고, 문성왕도 역시 즉위하자마자 그를 진해장군(鎭海將軍)으로 삼고 장복(章服)을 하사하였으니, 두 부자왕(父子王)은 장보고의 공적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 수 있겠다.

신무왕과 문성왕이 장보고에게 특별한 작호를 내리고 그의 딸을 납비하려 했던 것은, 장보고의 공훈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왕위를 위협하는 권신들의 발호 가능성에 대비해 장보고의 힘을 빌어 왕위를 지키려는 의도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실제로 그 직전에 권신(權臣) 김명이 자신이 추대한 희강왕을 퓌살하여 왕위를 찬탈한 사건이 일어난 바 있었으며, 또한 장보고가 거느린 군사력의 위력은 민애왕 김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왕의 납비 시도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중심 인물은 누구였을까? 아마도 우징을 신무왕으로 추대하는데 앞장섰던 김양(金陽)이 바로 그였을 가능성이 크다. 김양은 일찍이 흥덕왕 사후에 균정을 추대하려다가 김명 일파에게 패하여 균정의 아들 우징과 함

계 청해진에 피신하여 와신상담 기회를 엿보던 중, 838년 장보고의 거병(擧兵)에 힘입어 평동장군(平東將軍)의 군호(軍號)를 띠고서 참전하여 민애왕 김명을 타도하고 우징을 신무왕으로 즉위시키는데 앞장선 자이다. 신무왕과 문성왕에게 김양은 장보고와 더불어 당연히 일등공신에 책봉되었어야 할 인물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신무왕과 문성왕은 장보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작호를 내리고 그의 딸을 납비하고자 하는 등 특별 배려를 하였던 데 반해, 김양에게는 어찌된 영문인지 일체의 관직 제수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신무왕과 문성왕이 중앙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김양의 정치적 야망에 대해 장보고의 힘을 빌어 견제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김양은 이에 대해 군신(群臣)들을 동원하여 신분의 측미(側微)함을 내세워 장보고 딸의 납비 시도를 두 차례에 걸쳐 좌절시키는 한편, 최대의 정치적 위협 대상 인물인 장보고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 그 때 마침 염장(閔長)이 장보고 제거의 행동 대장을 자처하고 나서자, 김양이 그를 사주하여 장보고를 암살케 하고, 중앙의 막후 실권자로 부상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양이 일찍이 청해진을 관내에 둔 무주(武州)의 도독을 지낸 바 있다는 사실과 염장이 무주 출신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김양이 염장을 사주하여 장보고 암살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 장보고 사후(死後)의 청해진과 청해진 사람들

1) 장보고 사후 청해진의 운명

중앙에서 신하가 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는 불의(不義)의 왕위쟁탈전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혼돈의 시대에 장보고는 정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당의 저명한 시인 두목(杜牧)이 ‘나라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어(語)의 잠언을 인용하면서 장보고가 바로 그런 사람임을 극찬해 마지않던 그런 장보고였다. 뿐만이 아니었다. 『신당서(新唐書)』의 편찬자의 한 사람인 송기(宋祁)는 ‘장보고란 인물이 있는데 누가 이국(夷國=신라)에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고 반문했던 그런 장보고였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추앙하던 장보고를 신라가 죽였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장보고의 암살은 김양(金陽)과 염장(閔長)의 합작품이었다. 장보고를 제거함으로써, 김양은 신라 국왕과 장보고와의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국왕을 능가하는 권신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고, 염장은 장보고가 건설해온 청해진의 거대한 이권을 강탈하려 했던 것이다. 과연 841년에 염장은 장보고를 암살하고 예정대로 청해진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이에 대해 청해진의 부하들은 다양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염장에 대항하여 마지막까지 저항한 부류가 있었는데, 염장의 휘하에 들어가 달콤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부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으로, 일본으로 도피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부류도 있었다.

2) 청해진 사람들의 동향

청해진의 부장(副將) 이창진(李昌珍)은 장보고의 부하들을 모아 염장에 끝까지 저항하였다. 그러나 염장이 이미 절단한 장보고의 목을 들이대면서 청해진의 군중들을 압도한 상황에서 그들의 저항은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오래지 않아 진압되고 말았다. 대부분의 청해진 사람들은 염장을 그들의 새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소정(李少貞)과 같은 인물은 그런 부류의 대표자 격이었다.

다만 당에 혹은 일본에 매물사(賣物使)나 회역사(廻易使)로 파견되어 있던 자들은 장보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청해진으로의 귀환을 포기하고 이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청해진 병마사를 역임하고 장보고에 의해 당에 매물사로 파견된 적이 있던 최훈(崔暉)은 당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었다. 일본의 유학승 엔닌(圓仁)은 그의 일기에서 845년 7월 9일에 중국 연수현의 신라방에서 ‘국난(國難)을 만나 도망하여 이곳에 머물고 있던 최훈을 만났다’고 적고 있다.

일본에 회역사로 파견되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장보고에 의해 회역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이충(李忠)과 양원(楊圓) 등은 회역의 일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왔다가, 장보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을 피해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 갔다. 그런데 그들의 수중에는 장보고의 진귀한 무역품이 있었으니, 원 주인인 장보고가 죽은 상황에서 그 물화(物貨)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없을 수 없었다. 가장 먼저 이를 탐낸 이는 암살자 염장이었다. 염장은 그의 새로운 충복이 된 이소정으로 하여금 일본에 건너가 일본 당국에 첩장(牒狀)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 첩장에는 공식문서를 가지지 않은 신라인들을 잡아들여 줄 것과 장보고의 물건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관리들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보고가 암살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후에 어려계(於呂系)를 위시로 다수의 청해진 사람들이 탄압을 피해서 일본에 귀화해 왔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서, 이러한 염장의 요청을 거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보고의 물건을 탐낸 이는 또 있었다. 장보고의 단골 고객이었던 전축전국수(前筑前國守) 궁전마려(宮田麻呂)가 그였다. 그는 장보고가 살아있을 때, 물건 값으로 비단을 이미 선납(先納)했다고 주장하면서 장보고의 물건을 빼앗아 갔다. 이에 대해 일본 당국은 면밀히 조사하여 일부의 물건은 다시 되돌려 주는 조치를 취했다.

3) 청해진의 폐지와 벽골군(碧骨郡)으로의 사민(徙民)

염장 치하의 청해진 체제는 비록 약화되긴 했지만 당분간 지속되었다. 그런데 851년에 이르러 신라 국가는 청해진을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청해진 사람들을 벽골군으로 집단 사민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장보고 사후 정확히 10년만의 일이었다. 권신 김양의 비호 하에 염장이 관할해 오던 청해진을 이 때 이르러 왜 폐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일까?

청해진이 염장의 철저한 통제와 관리 하에 있었지만, 신라의 집권세력에게 청해진 세력은 여전히 부활할 가능성을 가진 위협 잠재세력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청해진을 폐지하고 청해진 사람들을 타 지역으로 이주시켜 버리는 것만이 청해진 세력을 발본(拔本)하는 궁극적 대책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벽골군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먼저 벽골군은 이미 4세기 경부터 대규모의 벽골제를 축조하여 우리 나라 최고(最古)·최대(最大)의 담수호를 조성했으며, 이와 함께 서해 바다의 간척을 병행하여 광활한 가경(可耕) 농지를 확대해 오던 곳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청해진 사람들의 벽골군 이주는 벽골제의 수축과 간척 사업에의 사역이라는 경제적 목적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청해진 사람들이 벽골제를 수축하는 일에 사역되었으리라는 점이다. 기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벽골제를 수축하는 일은 험난한 바다의 조수와 싸우는 어려운 과정을 무릅써야 했던 것이니, 이런 일에 관한 한 청해진 사람들이 어느 지역의 사람들보다 잘 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신라국가가 고려했음 직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청해진 사람들은 동북아 바다를 좌지우지하던 사람들로서, 바다의 속성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청해진 사람들은 벽골제 수축 뿐만 아니라 벽골제 주변의 저습지대를 가경농지화(可耕農地化)하는 간척 사업에도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벽골제는 모악산에서 발원하는 원평천·두월천·금구천·연포천 등 크고 작은 물줄기의 길목을 막아서 담수호를 조성한 일종의 대규모 제방으로서, 오늘날의 다목적댐을 연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벽골제는 서해 바다와 인접한 지점에 남북으로 길게 축조되었으므로, 만조 시에 바닷물이 하천의 물줄기를 통해서 역류하는 것을 차단하여, 이미 갯벌화 혹은 저습지화되어 있는 저지대의 간척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도 수행했을 것이다. 이러한 저지대의 간척 사업에 청해진 사람들이 투입되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이 점에서 해상왕 장보고의 분신들이라 할 청해진 사람들이 벽골제의 수축과 간척 사업에 투입된 것이야말로 ‘벽해수전(碧海水田)’의 호남평야 형성사에서 또 하나의 장보고 신화를 투영시킨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10. 장보고가 남긴 해양사적 유산 : 청자문화와 국제항로

1) 해남 산이면 일대의 '초기청자' 생산단지

해상왕 장보고는 많은 해양사적 유산을 남겼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청자 제작 기술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청자 제작의 도입 시점을 둘러싸고 9세기 설과 10세기 혹은 11세기 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9세기 전반에 장보고가 청해진 활동을 개시한 것만큼 청자 도입의 계기가 될만한 사건은 찾기 어렵다.

장보고는 8세기 후반에 중국으로 건너가 재당 신라인사회를 결집하여 국제 해상무역에 집중시킴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한 바 있다. 그런 그가 828년에 신라에 돌아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이곳을 국제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삼게된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청자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된 시점을 해명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장보고가 단순한 중계 무역업만을 염두에 두었다면 잘 나가던 당나라 생활을 정리하고 굳이 청해진으로 옮겨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해진 인근에 당시 중요 무역품으로 각광받던 청자를 직접 생산하고 그것을 신라와 일본에 공급하려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최근에 해남 화원면 신덕리 일대에서 대규모의 '초기청자' 생산단지가 확인되었다. 그간 해무리굽 양식과 무문(無文)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생산 요지(窯址)는 중부와 서남부의 해안을 따라서 다수 찾아진 바 있는데, 여타의 요지는 겨우 2~3기에 불과한 반면, 해남 화원면의 요지는 일시에 조성된 60여기에 달하는 요지가 집단군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일시에 이만한 규모의 청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할만한 세력으로 장보고세력을 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장보고는 이곳에 대규모 청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귀국 이전부터 면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을 것이다. 양질 태토(胎土)의 출토 여부, 화목(火木)의 부존 여부, 그리고 청자 제작 기술자들의 현지 조달 여부 등이 현지 조사의 핵심 항목이었을 것이다. 장보고는 화원면 일대에 태토와 화목이 풍부하다는 것을, 그리고 인근의 영암 구림리 일대에 7세기이래 도기(陶器)를 생산해오던 기술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이 지역이 고래(古來)로 국제 해상 문화교류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청자 생산단지 건설의 최적지로 결정했을 터이다.

2) '초기청자'의 계통과 고려청자

화원면 '초기청자' 요지는, 대규모의 집단군을 이루고 있다는 점 이외에 그 계통에서도 중

부권의 그것과는 판이한 점이 있다. 중부권의 그것은 벽돌을 쌓아서 만든[전축요(塼築窯)] 중국 자기요(磁器窯)를 그대로 이식한 것임에 반해, 화원면의 그것은 흙을 쌓아서 만든[토축요(土築窯)] 우리의 전통적인 도기요(陶器窯)를 계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화원면 인근의 구림리에서 토축요를 이용해 도기를 생산해오던 도기 기술자들을 화원면 ‘초기청자’ 생산단지 조성에 적극 참여시킨 결과일 것이다. 이는 곧 장보고가 중국의 청자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 여기에 우리의 전통적인 도기 제작기술을 가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보고는 청해진에 인접한 강진군 대구면·칠량면 일대에도 대규모의 ‘초기청자’ 생산단지를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해무리굽과 무문을 특징으로 하는 초기청자가 대구면과 칠량면 일대에서도 간혹 찾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바에 의하면, 화원면의 청자 생산단지는 장보고 사후에 곧 폐지되고 말았던데 반해, 대구면·칠량면 일대의 것은 이후 고려 말까지 개량되면서 생산을 계속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화원면의 요지는 ‘초기청자요’의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것에 반해, 대구면·칠량면의 요지는 이후 고려시대의 새로운 청자요가 만들어지면서 ‘초기청자요’가 파괴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이므로 ‘초기청자요’의 원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결국 장보고의 청자문화 파종(播種)은 대구면과 칠량면, 그중에서도 특히 대구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저 유명한 고려청자 생산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니, 그 수확자는 고려왕조였던 셈이다.

3) 국제항로의 요충지

전통 도기의 생산지인 영암 구림리는 새로운 ‘초기청자’ 생산지인 화원면에 인접해 있으며, 고대로 국제 해상문화교류의 요충지였다. 조선후기 이증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신라시대에 당나라를 왕래했던 사신선(使臣船)과 상선들이 모두 구림리에서 출발하고 돌아왔다고 전하면서 마치 통진(通津) 건널목에 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왕래하는 형상과 같다고 하였다(팔도총론 전라도편).

그는 또한 최치원·김가기·최승우 등의 유명한 도당 유학생들도 상선에 편승해 구림리에서 도당한 사실도 부기(附記)하였다. 그가 말한 통진이란 김포에서 강화도를 잇는 나룻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증환 시대에 김포에서 강화도 사이를 나룻배가 매우 빈번하게 왕래했던 것을 염두에 둘 때, 신라시대 구림리의 성황을 누린 국제 항구적 면모를 엿볼 수 있겠다. 구림리의 국제 항구적 면모는 5세기 초에 왕인이 구림리의 상대포를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설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구림리에는 고대이래 중국과 일본에 왕래하던 국제 항구가 있었다고 보아야겠다.

화원반도의 끄트머리에는 오늘날까지 당포(唐浦)라는 지명이 전하고 있어, 이곳이 당나라에 왕래하던 포구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사사해준다. 뿐만 아니라 당포와 인접한 곳에 최치원이 세웠다는 서동사(瑞東寺)라는 절이 있어, 이중환이 전한 최치원의 도당로(渡唐路)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서동사의 뒷산이 ‘구름이 머무는 산’이라는 의미의 운거산(雲居山)이고, 최치원의 호는 ‘외로운 구름’이라는 의미의 고운(孤雲)이고 보면 최치원과 인연이 진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다. 더욱이 이곳에서 당으로 건너가는 바닷길의 길목에 해당하는 비금도와 우이도 등지에 최치원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이 길이 중국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항로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항로는 장보고시대에 크게 활성화된 이래 고려시대까지 그 지위를 유지해 갔던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이는, 『송사』에서 송과 고려 사이의 주요 항로로서 명주(明州)[오늘의 영파(寧波)]에서 흑산도와 서남해지역을 거쳐 개경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고, 이 길을 통하면 평균 일주일이면 당도할 수 있다고 특기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실제로 송의 사신 서공(徐兢)은 1123년에 이 항로를 따라 고려 개경에 왔다가 돌아간 행적을 『고려도경』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소개·기술한 바 있다.

이처럼 고려시대에 강진 대구면 일대가 고려청자 생산의 메카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서남해지방이 국제 해상교류의 요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장보고가 남긴 중요한 해양사적 유산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서남해지방은 장보고 사후 나말·여초시대에 영웅들의 각축의 대상지가 되었으니, 견훤과 왕건 등이 이 지역에 몰려들고, 토착의 능창이 일어났던 것은 모두 이런 배경에서 이해해 볼 일이다.

참고문헌

- 강봉룡, 『장보고-한국사의 미야 해상왕 장보고의 진실』, 한얼미디어, 2004
- 강봉룡, 『바다에 새겨진 한국사』, 한얼미디어, 2005
- 김문경, 『청해진의 장보고와 동아세아』, 향토문화진흥원, 1998
- 손보기 편, 『장보고와 청해진』, 해안, 1996
- 완도군문화원 편, 『장보고신연구』, 1985
- 윤명철, 『장보고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2002
- 최광식 외, 『천년을 여는 미래인 해상왕 장보고』, 청아출판사, 2003



GIMHAE NATIONAL MUSEUM



조선표류민과 지볼트의 교류

— 19세기 초 조선과 유럽의 만남

하 우 봉 /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전근대 동아시아의 표류와 표류민송환체제

전근대 조선, 일본, 청의 동아시아 삼국은 각각 해금체제(海禁體制) 아래서 자국민의 자유로운 항해를 금지하였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한 표류는 해금체제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건이었다. 그것은 대부분 우발적 사고였지만 쇄국체제 하에서 해외여행과 사적인 교류가 금지당했던 민중들에게는 거의 유일하게 열린 ‘숨구멍’ 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17세기 중반부터 조선·일본·청(淸)·유구(琉球) 사이에서는 표류민에 대해 표착국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무사히 송환하는 ‘표류민송환체제’가 확립되어 운영되었다. 이 체제는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는데 매우 세련된 방식의 ‘국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것은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근세 200여 년 간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유지시켰던 끈으로서 기능하였다.

조선후기 일본에 표착한 조선 표류민은 기록상 확인된 것만으로도 9,000여 명에 달한다. 그들은 일본의 어느 지역에 표착했든지 간에 모두 나가사키(長崎)로 이송되었다. 심지어 1696년(숙종 22) 홋카이도(北海道)에 표류한 이지항(李志恒) 일행도 나가사키로 가서 심문을 받은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귀국할 수 있었다. 나가사키에 있는 대마도주의 출장소(對馬藏屋敷)에 모여서 나가사키 부교(長崎奉行)의 심문을 받고, 대개 3개월 정도 체재하다가 대마도를 거쳐 조선으로 송환되었다. 나가사키에 머무는 동안 표류민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이 허락되었다. 그들은 시내를 활보하였고 일본인 집을 방문했으며 현지인과 필담창화를 하는 등 문화교류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들이 남긴 ‘표류기(漂流記)’인 이지항의 『표해록(漂舟錄)』, 풍계대사(楓溪大師)의 『일본표해록(日本漂海錄)』 등에는 그러한 교류의 모습이나 나가사키에 대한 묘사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 일본인 화가가 남긴 그림도 있었다. 「표류조선인지도(漂流朝鮮人之圖)」, 「조선표객도(朝鮮漂客圖)」가 그것인데, 표류민에 대한 그림과 함께 간단한 설명문이 병기되어 있다.

나가사키는 16세기 중반에 개항되었고, 17세기 초반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의 직속관할령(‘天領’)으로 지정되면서 1854년 미일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유일한 국제항구로서 대외무역과 교류, 정보소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일본 내에 표착하는 조선·중국·유구·동남아시아·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외국인은 일단 나가사키로 이송되어 심문을 받은 후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타국에 표류한 일본인이 귀환할 경우에도 모두 나가사키로 이송된 후 부교(奉行)의 심문을 받은 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요컨대 나가사키는 근세 동아시아 표류민송환체제의 중심무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에 표착한 조선 표류민이 일본인과의 교류가 아니라 유럽인을 만난 사례도 있

었다. 19세기 초반 독일인 의사로서 나가사키 데지마(出島)에 있는 화란상관(和蘭商館)에 파견나와 있었던 지볼트(P. Siebold)가 조선표류민을 수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저서 『일본』에 그 대화내용과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조선표류민과 유럽인이 만난 것은 필자가 관견한바 유일한 사례이다. 이 희귀한 만남의 주연배우는 지볼트라는 독일인 의사와 일본에 표류한 전라도 어민 일행이었고, 무대는 에도시대 일본 유일의 국제무역 도시인 나가사키였다. 그런 만큼 흥미로울 뿐 아니라 지볼트가 남긴 기록물 또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지볼트와 그의 저서 『일본』

1) 지볼트는 누구인가?

필립 프란츠 폰 지볼트(Philip Franz von Siebold; 1796-1866)는 독일 출신의 의학자인데, 조부와 부친 모두 저명한 의사이자 의학교수로 의사가문 출신이다. 그는 1820년 뷔르츠부르크(Würzburg)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 1822년 화란동인도육군병원의 군의관으로 임명되어 바타비아(Batavia; 현재의 자카르타)에 도착하였다. 이어 일본 나가사키 데지마에 있는 화란상관의 의사로 임명되어 1823년 7월 6일 나가사키에 도착하였다.

1826년에는 화란상관장(和蘭商館長)과 함께 에도삼푸(江戸參府)여행에 참가하였다. 3월 4일 에도에 도착하여 장군 도쿠가와 이에나리(徳川家齊)를 알현하였다. 지볼트는 4월 12일 에도를 출발할 때까지 많은 문인, 사상가 및 에도지역의 난학자(蘭學者)들을 만났다.

그는 6년간 일본에 머물렀기 때문에 일본에 익숙하고 친구도 많았다. 1823년 가을에는 16세의 일본인 유녀 출신의 타키와 결혼하였다. 지볼트는 1828년 8월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이 해 이른바 지볼트사건이 생겨 1829년 일본으로부터 추방되었다.

지볼트는 의사였지만 네덜란드 왕립 동인도연합회사의 직원으로서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다. 즉 그는 네덜란드 정부의 지령에 의해 일본의 자연환경·지리·물산을 비롯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그는 체일 기간 동안 정력적으로 일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각종의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여 본국에 보내었다. 그 종류의 풍부함과 수량의 방대함은 현재 네덜란드의 라이덴(Leiden)대학과 독일 베를린(Berlin), 보훔(Bochum)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컬렉션에 의해 확인된다. 그는 풍부한 연구자금으로 자료를 구매하고, 회화와 표본 등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그는 일본인 학자들과 많은 교류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얻었고, 고위직 인사와의 친분

을 이용해 고급 정보도 수집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접촉한 일본인에게 ‘뇌물’을 증여하는 대신으로 귀중자료를 얻기도 하였다. 결국 이런 지나친 방식이 막부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지볼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즉 외국으로의 반출이 금지된 일본지도를 구입해 귀국 시 가져가려던 시도가 발각되었던 것이다. 1828년 마침내 그는 화란상관에 억류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듬해 국외추방 처분을 받았다. 1830년에는 그에게 일본지도를 넘겨준 막부천문방(幕府天文方) 다카하시(高橋景保)가 사형을 받는 등 관련자 50명이 처벌을 받았다. 지볼트는 일본 난학(蘭學)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지만 이 사건의 파장으로 난학의 발전이 일시 위축되었다.

1830년 7월 네덜란드 라이덴으로 돌아간 그는 일본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작에 몰두하였다. 수집한 소장품을 중심으로 박물관을 개설하였고, 연구성과를 세계에 소개하였다. 1840년 아편전쟁 후에는 일본개국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1845년에는 독일 귀족의 여인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다. 1858년 지볼트추방령이 해제되자 이듬해 여름 화란무역회사 고문으로 36년 만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1861년에는 막부의 고문으로 5월 에도로 가지만 9월 해촉되어 다시 나가사키로 돌아왔다. 1862년 네덜란드로 귀국하였고, 이듬해에는 네덜란드정부의 관직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갔다. 그는 노년에 고향인 남부 독일의 뷔르츠부르크에서 일본 연구에 열중하다가 1866년 70세로 생을 마쳤다. 그는 일본에 관한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주저작으로는 『일본(Nippon)』 『일본식물지(Flora Japonica)』 『일본동물지(Fauna Japonica)』의 3부작이 있다.

2) 『일본, 일본과 그 이웃나라 및 보호국』 과 ‘조선편(朝鮮篇)’

지볼트의 필생의 대저인 『일본』의 원제목은 『일본, 일본과 그 이웃나라 및 보호국 - 에조(蝦夷) · 미나미치시마열도(南千島列島) · 가라후토(樺太) · 조선 · 류큐열도(琉球列島)의 기록집(NIPPON. Archiv zur Beschreibung von Japan und dessen Neben und Schutzländern ; Jejo mit den südlichen Kurilen, Krafto, Koorai und den Liukiu Inseln)』이다.

일본(NIPPON)이 주제목이고, 그 이하가 부제목인 셈이다. 요컨대 저술의 주된 내용이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웃나라 및 보호국의 기록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1) 『일본』의 저술방식과 ‘조선편’

지볼트의 저서 『일본』은 1832년 초판이 완성된 이래 1851년까지 20년에 걸쳐 도합 20권의 분량으로 네덜란드에서 출간되었으며, 원본은 독일어로 기록되었다. 그의 저작은 매우 방대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서구에 이 책만큼 일본을 학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한 것은 없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일본』은 일본을 연구한 저술이지만, 조선에 관한 서술내용도 매우 풍부하고 깊이가 있어, 조선과 한글을 서양에 체계적으로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조선에 관한 기술은 『일본』의 제7권에 해당하는데,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상당히 방대한 저술이다. 지볼트는 조선 표류민을 만나 한국의 역사·관습·지리·종교 등에 관해 들은 이야기를 기술하였으며, 부록으로 직접 만난 조선표류민의 초상화 6매를 비롯해 의상·화폐·소장물품·선박 등을 그린 11장의 그림과 2장의 지도(朝鮮八道之圖, 朝鮮地圖) 등을 첨부하였다.

(2) 간행과 번역

『일본』은 1832년 초판이 나온 이후 때때로 간행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 부분적으로 번역된 것 이외에는 독일어 원전이 4차례 간행되었다. 『일본』의 원전은 A3변형(세로 382mm/가로 297mm)의 큰 책으로 2권 합계 1,428쪽에 달하는 팽대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본에서는 편의상 6권과 도록 3권으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조선편은 제5권에 배치되어 있으며, 지도와 그림은 별도의 도록(圖錄)에 수록되어 있다.

3) 『일본』조선편의 체재와 내용

(1) 목차와 내용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8장으로 구성된 조선편의 장과 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조선 표류민으로부터 들은 사정

① 조선어민의 그림 ② 일본 연안에 난파한 조선 상인들과의 면담 ③ 언어와 문자

제2장 조선인, 대마도의 무사 및 관리, 부산의 일본상관(日本商館)으로부터 얻은 정보

: 조선의 국명(國名)에서부터 유럽과 조선의 교류사에 이르기까지 23개 항목에 걸쳐 소개하였다.

제3장 어휘

: 455개의 단어를 독일어, 조선문자발음, 중국문자발음, 일본문자발음, 일본문자 뜻의 5개 항목으로 준비하면서 작성하였는데, 모두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또 뒤에는 별도의 표를 만들어 한자, 한글의 뜻과 발음, 일본식발음과 뜻의 5개 항목으로 대비해 작성하였

다. 이 어휘표는 지볼트가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작품으로서, 소규모의 獨-韓-中-日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표에 이어 한글로 된 시조의 원문, 그리고 김치윤과 허사침의 한시를 원문 그대로 소개하였다.

제4장 달단해안(韃靼海岸)에 표착해 북경에 보내지고, 조선을 거쳐 귀향한 일본인 어민의 조선견문기 - 일본책『조선모노가타리(朝鮮物語)』(1644년 만주에 표류했다가 청, 조선을 경유해 귀국한 일본표류민이 쓴 표류기)로부터

제5장 조선국의 제도, 관리 및 정신(廷臣)

제6장 중국어휘「유합(類合)」(J. Hoffmann이 교정, 번역함)

: 1,512개의 한자에 대한 한독사전(韓獨辭典; 모두 알파벳으로 표기) 및 중한사전(中韓辭典; 한자를 중심으로 그 글자의 조선식 발음과 뜻을 각각 좌우로 표기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7장 일본문헌에 나오는 일조(日朝)·일중(日中)관계 (J. 호프만 저술)

제8장 천자문(千字文) - 조선어 번역 및 일본어 번역을 참고로 해서 독일어로 번역함 (J. 호프만 저술)

(2) 저술동기와 학술적 의의

① 저술동기

지볼트는 ‘수용소’에 있는 조선 표류민을 방문이 허락될 때마다 기꺼이 찾은 이유에 대해 “조선어는 유럽에 미지의 언어이다. (중략) 우리 서양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국어와 한글 자모를 학술적으로 연구해 서구 언어학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매번 나가 사키부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지볼트는 조선 표류민을 방문해 대화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는 서구 문헌과 일본, 중국 문헌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조선인들에게 질문하였고, 조선의 상인·유학자·한학(漢學)의 소양이 있는 선주(船主)·수부(水夫) 등으로 구성된 면담자들에 대해 행동거지와 얼굴 표정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이밖에도 “조선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구절이 책의 곳곳에 눈에 띄는데, 조선편의 주요 저술동기를 스스로 밝힌 셈이다. 또 그는 제8장 천자문을 서술한 목적에 대해 1833년 11월 리용에서 쓴 서문에서 “이 천자문을 출판함으로써 나는 아시아제민

족의 문자사(文字史)를 스스로도 잘 참조하려고 한다. 또 우리나라의 동양학 애호자에게는 이 책이 비교언어학에 새로운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요컨대 지볼트의 지적 호기심과 탐구열은 일본에 그치지 않고 조선국에 대해서도 미쳤다. 또 조선에 대한 그의 관심사는 조선의 언어와 문자에서 출발하였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조선의 역사와 문화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기록으로 남겨 유럽의 조선연구자들에게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조선편을 저술한 것이다.

② 참고문헌과 학술적 의의

지볼트는 일본문헌과 중국 및 유럽의 문헌을 참고한 위에 조선표류민을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확인한 체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연구를 통해 조선편을 저술하였다. 그의 학자적 면모는 그가 조선편을 저술하면서 참고한 20여종의 문헌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조선편의 학술적 의의를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일본』조선편의 공헌은 서구사회에 한글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는 점이다. 한글 단어와 한국말을 한글자모 그대로 표기하였고, 또 알파벳으로 발음기호로 적어 대비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아주 편리한 455개의 한글 단어표를 만들었고, 한시와 한국노래 등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 점에서 조선편은 수준 높은 학술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의 한국 이해에 크게 기여하였다. 1668년에 간행된 이른바 『하멜표류기』는 하멜 일행이 13년 간 조선에서의 직접적인 체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는 점에서는 ‘1차적인 자료’이지만, 학술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했다. 이에 비해 지볼트의 조선편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학술적 기여도가 컸다고 여겨진다.

3. 지볼트와 조선 표류민의 교류

1) 만남의 목적과 경위

『일본』조선편 제1장 첫머리에 지볼트와 조선 표류민과의 대화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지볼트와 조선 표류민이 처음으로 만난 시기는 1827년 3월 17일이었다. 그는 1828년 8월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었으므로 조선 표류민과의 만남은 그보다 1년 5개월 정도 전이었던 셈이다. 조선의 표류민 일행은 전라도 출신의 선주, 상인, 여객 등 36명으로 3척의 배에 타고 남서해안에서 규슈(九州) 서쪽 해안가와 고토열도(五島列島)로 표류했다가 나가사키의 대마번의 상관(商館)으로 이송되었다.

지볼트는 조선의 표류민들과 수개월간 이웃으로 지냈다고 하였는데, 실제 그가 있었던 데

지마의 화란상관과 조선표류민들이 머물렀던 대마번 상관과는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웃에 있는 조선표류민의 일상생활과 왕래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지볼트는 그들에 대해, “조선표류민의 집은 초라했지만 식료는 고급이었고, 시내를 자유롭게 통행하면서 일본인의 집도 방문하였다.”고 묘사하면서 생활이 사치스럽지만 수인(囚人) 처럼 간혀 있는 자신들에 비해 오히려 부럽기조차 하다고 평하였다.

표류민 가운데 지볼트와 면담한 사람은 상인 2명, 선주 1명, 유학자 1명, 수부 2명으로 모두 6명이었다. 지볼트가 조선 표류민을 만나기 위해 대마번의 출장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아주 귀찮은 절차가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우선 막부의 지시를 받아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나가사키부교의 허가가 필요했고, 대마번 감독관의 입회하에 나가사키만이 내려 보이는 그의 응접실에서 만나야 했다. 이러한 번거롭고 어려운 절차를 무릅쓰고 지볼트는 일본인 친구의 도움으로 허가를 받아 방문하였다. 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선인을 만나고자 한 이유는 유럽에 미지의 나라인 조선의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마침 근처에 머물고 있었던 조선인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궁금한 점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볼트가 조선관을 방문할 때는 통역과 함께 2명의 화가를 대동하였다. 동행한 화가는 화란인 카를 위베르 드 빌네브(Carl Hurbert de Villeneuve)와 일본인 화가 도오 요스케(登与助; 川原慶賀)였다. 일본 화가는 조선인의 의상과 소품, 선박 등에 대한 그림과 지볼트와 조선인의 대화 장면을 그렸다. 네덜란드인 화가는 지볼트와 면담한 6인의 초상화를 사실적 수법으로 그렸다. 또 그는 일본 화가가 그린 그림도 다시 석판에 옮겨 문헌으로 보존하였다. 그는 표류민의 초상화를 그릴 때 “이전의 조선인보다 매우 잘 응해주었으며 그 결과 그들의 생활상을 서양에 전하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이 구절로 보아 지볼트와 빌네브는 이전에도 비슷한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그들은 1827년 3월 17일의 첫 만남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방문하였다고 하였다. 지볼트는 이전부터 부산의 왜관(倭館)에 있는 지인을 통해 조선의 국토·문자·풍속·습관에 관해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날의 만남에서 조선의 언어·문화·학문·예술에 관해 대화를 나누면서 미지의 나라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만족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얻은 것은 언어와 문자에 관한 정보였다. 그래서 그는 별도로 장을 개설해 연구성과를 정리하였다.

지볼트와 조선 표류민 일행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면담하였으며 통역을 매개로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었다. 조선인들도 지볼트의 질문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응해 주었다 한다. 조선 표류민들은 이해 5월 동남풍이 불자 취항하여 귀국하였다. 대마도주 휘하의 수행선과 감독관이 호행하여 나가사키-(13리) 일기도-(40리) 대마도-(48리) 부산 왜관-동래부를 거쳐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2) 지볼트가 묘사한 조선 표류민의 모습

지볼트는 직접 만나 면담한 6명의 모습과 복장 등을 상세히 묘사하였고, 행동거지와 표정까지 세밀하게 관찰하였다. 예를 들면, “갓 쓴 상인은 의기소침하고 향수병에 걸린 것 같았다.”, “상인[허사침]은 명랑하고 현실인식이 뚜렷하였다.”, “학자 선생[김치윤]은 몽골 타입으로 골격과 차림새는 다소 비천해 보였다.” 등의 존평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는 조선인의 모습에 대해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몸집이 크고 튼튼하다. 얼굴표정은 몽고인을 닮아 넓고 특불거진 광대뼈며 납작하고 넓직한 코에 큰 입모양, 뺨뺨하고 솟이 많으며 검은 머리카락, 굵은 눈썹, 누런색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또 얼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몽골형과 유럽형(코카스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직접 만난 6명의 조선인을 각각 세 사람씩 형태를 분류하기도 하였다. 조선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본인에 비해 자율적이고 자유로우며, 활발하고 전투적이라고 하였다. 표류민들의 생활상과 태도에 대해, 그들은 귀국에 대한 희망이 용기를 제공하는지 주어진 여건에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새벽에 북소리에 맞춰 예불을 드리고, 노동하며, 휴가시에는 노래, 춤, 담배를 즐긴다. 서민들도 놀이를 아주 좋아하여 장기와 바둑을 두고 묵화를 그리기도 하면서 지루한 날을 보낸다고 하였다.

3) 조선 표류민의 대응

지볼트는 조선관을 방문할 때마다 선물을 준비하였다. 지볼트는 먼저 조선표류민에게 면담의 의도를 알리고 몇 엘레(elle; 1엘레는 55-80cm)의 염색한 천과 사라사(sarasa; 비단의 일종), 몇 병의 아라크(네덜란드의 국민음료)와 게네버(genever; 杜松의 열매로 향료를 넣어 증류시킨 술)를 선물하였다. 이에 대해 표류민 일행은 매우 반가워하면서, 답례품을 상의한 끝에 김치윤이 대표로 나서 난파선에서 건져낸 물건 중에 필사본 책 몇 권, 두루마리그림 몇 권, 작은 소반 1개, 몇 개의 향아리와 접시 등의 생활소품, 몇 개의 옷가지와 부채 등 장신구를 답례품으로 선물하였다. (이 때 지볼트가 표류민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라이덴에 있는 민족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유학자인 金致濶과 상인 許士瞻은 지볼트에게 漢詩를 지어주기도 하였다. 그들의 대화내용과 이별시 주고받은 한시에는 표류민들의 네덜란드에 관한 인식이 표출되어 있다. 이에 지볼트는 “세 사람으로부터 시를 받았는데 내용과 글씨가 좋고 매우 흥미롭다.”고 평하였으며, 두 나라의 사람이 또 다른 나라에서 만난 기념이라고 하면서 원문을 다 수록하였다.

이하 조선편에 수록된 한시를 잠시 살펴보자.

(1) 김치윤(金致潤)의 한시

“하늘과 땅 사이에 바다가 큰데/ 몇 곳에서 나라가 있는 지 누가 알 수 있으랴/ 평생 아
란타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만나니 뜻이 서로 통해 서로 느긋하도다/ 술잔 잡
고 상좌에 앉은 고귀한 사람이/ 표류하여 고향을 떠난 뜻을 누가 알겠는가/ 이제 배를
타고 어제 있던 곳에 있으리니/ 어느 날에 고향에 돌아가 기쁘게 춤을 출 것인가
- 조선 전라도 사람 김치윤 씀”

(“天地之間海爲大 幾處開國誰能知 平生不聞阿蘭陀 今日相逢意相悠 卮酒坐上高會人 誰
知漂泊離鄉志 從今乘船在昨日 何日還鄉欣喜舞 朝鮮全羅道金致潤書”)

귀향하기 전날 지볼트에게 선물로 준 작별시로 칠언절구(七言絕句)이며 8행 58자로 구성
되었다. 난생 처음 네덜란드 사람을 만난 소감을 피력하고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표류에서 귀
향하기까지의 감회를 읊었다.

(2) 허사첨(許士瞻)의 한시

“세 나라의 사람이 이 방에 모이고 보니/ 한무제는 세상 떠났는데 먼 곳의 이방인을 만
났네/ 오늘 만나 후한 대접을 받으니/ 헤어져 돌아와서도 잊을 수가 없네.
처음 만나 친절하게 대접해 주면서 위로의 송별을 해준 것에 감사하면서 조선국 전라도
강진사람 허사첨 씀”

(“三國既會此房中 漢武已逝觀葡萄 今日相逢寬待厚 分手回去尙不忘 初逢待接感謝慰送 朝
鮮國全羅道康津許士瞻書”)

허사첨의 시도 칠언절구로 4행 28자이다. 타국에서 조선과 독일, 일본의 세 나라 사람이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회를 토로하였고, 처음 만났지만 후한 대접에 감사하
면서 드린다고 하였다.

지볼트는 김치윤과 허사첨의 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이 난파한 사람들의 심정을 토로한 것은 제한된 지식의 단편에 지나지 않지만 그 내용
과 표현을 보면 마음과 정신이 도야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자신의 사상을 즉석에
서 漢詩의 형식에 맞춰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중국문자로 거침없이 쓰는 능력은 조
선의 문화수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들의 문장 전체에 스며 나오

는, 그리고 이러한 시로써 자신을 따뜻하게 말하는 진지한 마음의 뿌리는 이 국민에 대해 지금까지 강제적으로 해안과 국경으로부터 외국인을 추방해온 국민이라는 이미지보다 훨씬 호감을 가지게 하는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주었다.”

지볼트와 조선 표류민과의 만남은 양자에게 모두 유익했으며, 상호간에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사람의 한시에 대한 지볼트의 논평을 보면, 이 만남을 통해 『하멜표류기』 이래 유럽사회에, 좁게는 지볼트에게 선입관으로 각인된 조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4. 지볼트의 조선 인식

1) 한글에 대한 인식

지볼트의 조선의 문화와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주로 조선편 제2장, 제4장, 제5장에 나와 있다. 그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분야인 언어와 문자에 대한 정보는 제1장 3절 〈언어와 문자〉를 비롯해 제3장 〈어휘〉, 제6장 〈유합〉, 제8장 〈천자문〉 등에 있다.

지볼트는 언어학에 깊은 조예를 지녔다. 조선 표류민을 만난 주된 목적도 언어와 문자를 서구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이다. 그는 우선 조선이 독자적인 문자와 언어를 가진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한글의 구성을 잘 이해하였는데, 자음 15개와 모음 11개의 결합 방식을 그리스어와 비교하였고, 명사·대명사·자동사·조사 등의 형태와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또 455개의 한글 어휘를 소개하면서 단어표를 만들었다. 이것은 조선 표류민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지식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 단어표는 상당히 세련되고 유용한 사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서구에 소개된 한국어사전으로서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몇 가지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지볼트의 한국어 연구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첫째, 서구 언어학계에서 한글을 학술적인 체계로 다룰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한자와 한글을 독일어로 해석했고 일본어까지 비교한 것, 다시 말해 한국어·중국어·독일어·일본어 등 4개국 언어의 최초의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집을 편집해 서구의 언어연구자와 학자들에게 알렸다는 점이다. 또 천자문을 독일어를 비롯해 중국어, 일본어, 조선어로 표기해 비교언어학의 연구재료로서 제시한 점도 의미가 있다.

또 그는 조선은 일본과 같이 한자로 표현하는데, 읽는 방식은 달라도 뜻은 다 통하며, 따라서 한자는 북아시아 여러 민족의 공통문자이면서 공통언어이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

고 “조선어 알파벳인 한글은 일본어보다 훨씬 완전하기 때문에 중국문자 발음을 원음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일본의 발음은 조선으로부터 전래되었다는 일본학자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동조하였다. 모두 정확한 이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조선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

특히 제2장 <조선인, 대마도의 일본무사 및 관리, 부산의 일본상관으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정보>에서는 ①조선의 국명 ②지리 ③기후 ④농작 ⑤작물 ⑥가축 ⑦새 ⑧물고기 ⑨광산물 ⑩행정구역(8도) ⑪정치와 외교 ⑫대마도의 역할과 왜관 ⑬지방행정 ⑭신분계급 ⑮무기와 전술 ⑯종교 ⑰산업 ⑱생활습관 ⑲공예기술 ⑳교역 (21) 화폐 (22) 조선인관 (23) 유럽과 조선의 접촉사 등 조선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도합 23개 항목에 걸쳐 소개하였다.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인상적인 몇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정치와 외교 부분에서 지볼트는 일본인 친구와 일본서적의 정보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일본에 ‘조공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대등적인 ‘선린관계’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일본』 조선편에서 조일관계사에 관해 거의 전적으로 일본서적에 의거한 만큼 사실에 대한 오류가 적지 않지만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실상을 거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지볼트는 유럽과 조선의 접촉사를 정리하면서 주목할 만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조선에 대한 선행적인 관념과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유럽에서 조선에 대한 종래의 인식은 하멜 일행의 역류와 그들의 보고서, 그 후의 구전(口傳)에 의해 ‘비기독교적 야만인’이라는 두려운 이미지가 정착되었고, 조선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빈약한 물산과 연안 주민이 불친절하다는 등의 정보에 의해 100년 이상 유럽인은 조선에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리학·민속학의 발전에 의해 18세기 세 차례의 항해자가 조선의 연안에 접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유럽국가가 조선과 통상을 희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지볼트는 당시까지의 유럽과 조선의 접촉사에 관해 비교적인 검토를 시도하면서 나름대로의 전망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조선과 네덜란드 간의 최초의 접촉 사례로 1627년 벨테브레(Jan janse Weltevreë; 朴燕) 등 3인이 표착한 사실을 소개하였고, 이어 1653년 하멜(Handrick Hamel) 일행 35인이 제주도에 표착했다가 13년 만에 탈출해 귀환한 사건을 상술하였다. 지볼트는 이 사건으로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의 대응방침은 조선과의 통상 시도를 포기하고 소극적으로 변화했다고 지

적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지볼트는 하멜이 조선을 비난한 태도를 비판하였다. 조선의 입장으로 보면 하멜은 탈주자이자 배반자이며, 그들에 대한 유배형은 온당한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하멜 일행은 ‘노예상태가 아니라 자유스런 고용인’ 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 밖에 1787년 페르즈(De la Perouse) 함장의 제주도, 동해안 지역의 항해, 1797년 브로톤(Broughton) 함장의 부산 입항, 1816년 맥스웰(Murray Maxwell)과 홀(Basil Hall)의 황해도 탐사 항해 등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지볼트는 세 차례에 걸친 유럽선박의 출현과 관련해 유럽인들의 무례한 태도를 비판하였고, 조선 지방관이 이들을 유럽 어느 나라의 사절이라기보다는 해적이거나 모험가로 생각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지볼트의 입장이 조선에 대해 우호적이고 동정적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나아가 그는 “조선과 통상하려면 조선정부의 정신과 통치원리를 알고, 그 나라의 풍속, 습관 및 언어에 충분히 통달해야만 교류가 가능하다. 그렇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으로는 계속 곤란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리하게 지적하였다.

지볼트는 조선을 야만의 나라가 아니라 ‘반문명국(半文明國)’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조선의 쇄국정책에 대해 동정적이며, 내재적 접근방식을 통해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는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 유럽인의 정복주의적·문화제국주의적인 인식과 태도를 비판하였다. 이 부분은 본 장의 결론이기도 한데, 크게는 지볼트의 인식과 사상의 에센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5. 바다를 통한 조선과 유럽의 만남

근대 이전 시기에 조선인과 유럽인이 한국이나 중국에서 접촉한 사례는 적지 않지만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직접 만나 교류한 사실은 매우 희귀하며, 그만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전근대 동북아시아에서 표류민송환체제가 운영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였다. 지볼트의 표현을 빌리면 유럽과 조선 두 나라의 사람이 또 다른 나라에서 만난 기념비적인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교류의 모습과 흔적이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아 지금 일단이나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지볼트는 1827년 3월 나가사키부교의 허가를 얻어 통역과 화가를 대동하고 대마번출장소에서 조선 표류민을 만났으며,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방문하여 교류하였다. 그는 조선 표류민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그의 저서 『일본』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일본』은 19세기초 유럽인이 기술한 일본소개서로서는 가장 방대하고 깊이 있는 저술이었고, 유럽인들이 일본

을 비롯한 아시아를 이해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 편도 『하멜표류기』 이후 유럽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조선연구입문서가 되었다. 조선편의 내용은 매우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학술성과 체계성 면에서 뛰어나 유럽인의 한국이해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한글을 유럽에 최초로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선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한 한 독일인 의사가 일본에서 조선의 역사·문화·지리·정치·사회·한글의 발음까지 연구해서 유럽에 소개하였던 것이다. 『하멜표류기』에도 조선의 지명과 체험한 어휘들을 중심으로 소개되기는 하였지만 숫자도 훨씬 적고, 알파벳으로 네덜란드식 발음을 표기하였다.

또 조선편에는 조선에 관한 지볼트의 인식도 많이 표출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바가 많다.

그가 접한 조선인과 조선의 문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조선에 대해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지볼트는 스스로 조선 표류민과의 만남과 본서[『일본』]에서의 조선인에 대한 설명에 의해 독자[유럽인]들은 조선에 대해 종래보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정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멜 이래의 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배제하고 문화상대주의적 인식에 기초하여 조선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그는 조선에 대해 동정적이고 우호적이었으며 유럽인의 문화제국주의적인 인식을 비판하였다.

그와 교류한 조선의 표류민들도 그들이 지볼트에게 준 송별시를 보면 처음 보는 낯선 유럽인과의 만남이었지만 인간적인 교감을 느꼈으며 결국 그들에 대해 매우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만남은 그들에게도 매우 귀하며 소중한 체험이 되었을 것이다. 추측컨대 귀국 후 자신들이 겪은 기이한 경험을 주위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였을 것이다.

하여튼 19세기 초반 일본의 국제무역도시인 나가사키에서 이루어진 지볼트와 조선 표류민의 교류는 조선인의 유럽에 대한 이해, 유럽인의 조선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알 수 없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GIMHAE NATIONAL MUSEUM



고려시대 송상왕래와 김해지역

이진한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1. 식민지시대에 송상의 고려 왕래를 주목하다

고려시대에 개경의 해상 관문인 예성항에는 송나라를 비롯하여 일본·대식국 등 여러 나라 배들이 머물며 개경 등지에서 활발히 교역하였다. 이러한 점은 망국의 원인의 하나라고 여겨졌던 조선의 쇠국 고립 정책과 대비되면서 일찍부터 역사학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였던 安在鴻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新羅의 領域이 동남에 치우쳐서 慶州의 서울이 동해안에 다가붙었으니, 東으로 日本의 各港과 西로 渤海 黃海와 支那海인 唐의 諸港灣에는 왕성하게 그 商船이 출입하였고, 惠超의 五天竺 巡歷을 최고봉으로 印度 왕래의 學僧들은 長安의 유학생과 함께 新舊가 빈번히 교대하였으니, 新羅의 聯唐政策이 民族史上 심대한 罪過로 되었으나 오히려 內剛 自衛의 實을 나타내었다. 高麗의 시대가 또한 그러하여 宋과의 교통통상이 松京으로 國際都市化하였을 뿐 아니라 禮成江口에는 멀리 사라센의 交易船까지 맞이하여 인도양을 건너오는 西方의 文物에 영향된 바 많았으니 밖으로는 국제적 접촉이 그 宗國意識을 싹새없이 깨우침 있고, 안으로 國風派的의 금지는 그 自立魂의 警勵가 오히려 埋沒됨 없어, 거꾸거꾸 닦쳐오는 침략에서 오히려 百戰抗爭의 氣魄을 드날린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漢陽朝의 鎖國孤立과 尊明自安의 政策이 얼마나 民과 國에 蠱毒되었을 것은 可謂 생각이 반이 넘는 것입니다(民世安在鴻選集刊行委員會編, 1983, 「退嬰의 由來와 經緯(2)」 『民世安在鴻選集』 1, 知識産業社, 489쪽)¹⁾

안재홍은 쇠국고립과 존명자안의 태도를 조선 멸망의 원인으로 들었으며, 그와 상대되는 고려는 신라에 이어 문호를 열어서 松京은 국제도시를 이루고 멀리 사라센-아라비아-의 교역선이 드나들 만큼 무역이 번성하고 서방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나라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거의 같은 시기 대표적인 사회경제사학자인 白南雲도 송나라 배가 남송이 멸망하기까지 거의 300여 년에 걸쳐 끊임없이 개경의 관문인 예성항을 방문했다

* 송상왕래를 다룬 1장에서 3장까지는 필자의 최근 저서인 『고려시대 송상왕래 연구』, 경인문화사, 2011에서 발췌하여 편집한 것으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다. 송상의 고려왕래를 김해 지역과 연관시켜본 4장은 발표의 청탁을 받고 해당 분야의 선행연구도 참고하지 못한 채 필자가 나름대로 써 본 것인데, 김해 지역사 전문가에게는 매우 졸렬한 설명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사에 대한 문외한의 견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많은 양해 바란다.

1) 이 글의 바로 뒷부분은 “이와 같이 國際事情과는 전혀 담싸고 돌아앉은 色盲의인 처지에서, 中國 이외에 문명한 世界없고 朱子學 이외에 다시 學問없고 膏肓에 든 병은 자신을 因循한 속에서 스스로 빼칠 수 없이 줄연 급격한 國際勢力에 다닥치매, 措手의 겨를도 없이 낭패하는 體勢가 灰色的인 覆沒의 局을 짓고 만 것이며 이 웅대한 悲劇 …’ 이라고 하였다”(같은 책, 490쪽). 또한 民世는 이 글의 筆者後記에서 “新羅 高麗 兩朝 700년간 오히려 왕성하던 海外交通조차 딱 끊어버리고 鎖國 孤立에서 생겨난 固陋한 宗派主義의 惡習을 집어내고, 永續的인 自滅의 길을 밟아오던 由來를 드러내었다”라고 하였다.

는 점을 비중있게 서술하였다. 이처럼 당시에 학문적인 경향을 불문하고 고려의 해상 활동은 긍정적으로 이해되었다.

고려의 해상 무역은 식민지시기부터 해방이후까지 식민주의 사관의 극복과 우리 민족사의 복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金庠基의 한국 고중세의 해상활동과 무역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더욱 많은 것이 알려졌다. 그는 실증적인 연구자로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정밀하게 다루었다. 현재의 학계에서 그의 견해가 대부분 수용되어 고려의 해상 무역이 개설서와 교과서에서 빠지지 않고 실리게 되었던 것도 그의 영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향은 고려의 해상 무역을 강조하는 북한의 역사학계도 마찬가지이다.

2. 송상은 항상 고려에 와 있었다

고려시대에 宋商往來가 많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한 사실은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 기록된 다수의 宋商 來獻—渡來와 進獻—기사를 통해 확인되는데, 송상이 오지 않았던 시기도 많았다. 그러나 직접 송상이 왔다고 하는 기사 이외에도 고려와 송의 교류와 관련된 기록을 분석해보면 송상이 왔다고 이해할 만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1) 문집에 기록된 송상

의천은 송상을 통해 淨源法師의 명성을 듣고 송에 유학할 것을 결심하였고 1085년에 송상 林寧의 배로 송에 건너갔다. 다녀온 이후에도 정원을 비롯한 많은 송의 승려들과 서신 및 경전 등을 교환하였는데, 양국을 오가며 그것을 전해준 송상은 洪保, 李元積, 陳壽, 徐都綱, 郭都綱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이원적은 1081년 8월에, 홍보는 1098년 11월에 각각 고려에 왔었는데 서신에는 그 보다 훨씬 많은 왕래 기록이 남아있다. 그것은 『高麗史』 등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송상왕래가 더 많았음을 알려준다.

(2) 고려 송나라 외교와 송상

고려를 왕래하는 송상은 송의 사절을 태워준다든지, 직접 사신이 되어 고려에 문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등 고려와 송의 외교에 핵심적 가교 역할을 하였다. 대부분의 문헌에 송상은 빠진 채 송나라 사신이 왔다거나 송나라의 소식을 전한 것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도 당연히 송상왕래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표류민의 귀환과 송상

표류민이나 탈출한 포로의 망명과 같이 고려와 송에 어떤 難民이 발생하였을 때, 그들이 언제든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송상이 고려를 왕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088년 5월에 宋의 明州가 高麗 羅州의 飄風人 楊福 등 23인을 돌려보냈다는 기사에 송상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자체로 송상이 고려에 왔다는 정황적 증거가 된다. 고려 시대에 송에 표류한 고려사람들이 되돌아왔다는 단순한 기사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들이 송상왕래에 더해진다면 그 횟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4) 송나라 사람들의 내투와 송상

고려시대에 宋人들의 來投가 많았고 그들은 宋商의 배를 타고 왔다. 하지만 그것을 송상의 고려 왕래와 관련시킨 연구는 없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에 송상왕래가 매우 많았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굳이 더 많이 왔다는 것을 논증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투화인들이 고려에 올 때는 『高麗史』에 기록된 宋商의 배를 타고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송상이 왔다는 기사와 송인의 내투 기사를 정밀하게 비교하였을 때, 『高麗史』에 기록된 송상의 배를 타고 오지 않았음이 확실하므로 이것들은 송상왕래와 관련된다.

(5) 송상왕래의 유형

송상왕래의 유형은 말 그대로 직접 송상이 왕래했다는 표현이 없어도 송상왕래가 분명한 것들을 몇 개의 범주로 나눈 것이다. 그것을 다시 세분하면 고려와 송의 외교와 관련하여 송상왕래를 추정할 수 있는 유형으로 宋使往來, 入麗通知, 麗使入宋·麗使歸國, 入宋通知, 難民—표류민, 탈출포로, 망명인—의 송환 등이 있고, 고려와 송의 민간 교류와 관련된 송상왕래의 유형에는 人物往來, 宋人의 來投, 민간의 문물교류 등이 있으며, 기타 유형으로는 大食來獻, 宋商在麗, 往來推定·宋商規定 등이 있다.

(6) 송상의 상시 왕래

해마다 송상의 배 두 척 이상이 고려에 가서 1년간 머물다가 돌아왔다는 11세기 후반 송대의 규정이 있었으며, 1년에 3척이 고려에 가고 다시 다음해 같은 수의 배가 고려에 가면 먼저 갔던 배가 되돌아 오는 방식으로 송상이 고려를 왕래했다는 13세기 중엽의 송대 관인이 남긴 기록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송상의 배가 매년 2~3척씩 고려를 왕래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송상왕래에 관한 직간접의 기사를 모두 합하여 매년 왔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다고

해도, 송이 건국된 960년경부터 송이 멸망한 1279년까지 송상은 거의 매년 고려에 왔다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²⁾

3. 송상의 상시왕래가 고려를 동북아시아 교역망의 중심으로 만든다

송상이 매년 와서 예성항과 개경의 객관에 있었으므로 왕실과 국가기관을 포함한 개경과 그 주변의 사치품 수요자들은 언제나 수 백 명의 송상과 무역하였을 뿐 아니라 때로는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여 그 다음번에 수령하는 방법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그와 더불어 고려와 송의 인물들이 오랜 기다림이 없이 양국을 왕래하였고, 양국의 문물이 거의 '실시간'으로 교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송상의 상시왕래는 고려를 동북아시아 교역망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고려 이전에 신라는 당나라에 배를 보냈을 뿐 아니라 9세기 중엽에 장보고는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잡기도 하였다. 발해도 당과 일본에 외교를 겸한 무역선을 보내 활발히 무역을 전개하였다. 후삼국 시기에 고려의 무역선은 산둥반도를 왕래하며 오대의 여러나라 무역을 하였고, 후백제도 거란 및 오월 등과 교류하였으며, 중국 장강 유역의 해상들이 고려와 후백제에 와서 무역을 하였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 농업중심 국가를 지향하였으며,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해상무역을 방치할 경우 해상세력이 성장하여 국가 권력에 원심력으로 작용하였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종대 이후 고려인들의 해상 무역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송상의 고려 무역을 규제하지 않았으므로 송상이 자주 고려에 오게 되고 그들이 항상 고려의 예성항과 唐商館이라고도 불리던 개경의 객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에 발해에 속해 있던 동여진·서여진·흑수말갈 등이 거란에 막혀 송에 가기 어렵게 되자 조공을 명분으로 고려를 찾게 되었고, 항해 여건상 송에 갈 수 없어서 송상에 의존하던 일본의 해상들도 비교적 항해가 쉬운 고려에 와서 무역을 하고자 했다. 이들은 고려 국왕에게 헌상하는 의식을 하고 回賜품을 얻는 것 뿐 아니라 자신들이 머물던 객관과 가까운 곳에 있던 송상의 객관에서 교역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고려와의 외교를 통해 정치적 권위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아울러 송상과 무역할 수 있었다. 고려를 중심으로 송·흑수말갈·동서여진·일본이 연결되는 동북아 지역 교역망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성종대에 고려 상인들이 해외에

2) 더 많은 송상이 왔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 글 말미의 <표>가 도움이 될 것이다.

나가 무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인해 송상에게 서해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었지만, 송상이 고려에 자유롭게 와서 무역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고려는 동북아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교역망은 금나라의 건국에 의해 여진이 이탈하면서 변화되고, 몽고가 중국 동북지역을 차지하고 고려를 포함하는 육로 교통체계를 갖추면서 송상이 줄어들게 되면서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4. 김해 사람들이 바닷길을 통해 송상과 만나다

당시 고려의 교통 여건을 감안하건대, 물자의 운송은 주로 배가 담당하였을 것이며, 최근 충청남도 태안군 마도 주변 바닷속에서 개경에 보내는 많은 물품을 실은 배의 발견은 그것을 확인시켜 준다. 아울러 고려시대 예성항은 조세와 공물을 실은 조운선과 각 지방에서 생산하여 개경에서 소비되는 물품을 실은 배가 모이는 곳이다.

그런데, 개경의 관문인 예성항에 송상이 항상 있었다면, 그 배의 선원들은 개경에 전할 물품을 내려놓고 지방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송상과 교역하여 되돌아갈 수 있었다. 송상은 굳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고 예성항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려 국내 상업망의 한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럼 송상의 상시적인 고려왕래는 지금의 김해지역과 어떻게 연관되었을지를 추정하기 위해 『신증동국여지승람』 김해도호부의 기록을 검토해보자.

【건치연혁】 가락국이다. 혹 가야라 하기도 하였는데 뒤에 금관국이라 고쳤다. 시조 김수로왕으로부터 구해왕까지 무릇 10대, 4백 91년을 왕국으로 내려왔다. 구해왕이 신라에게 항복하니 법흥왕이 객으로 예대하고 그 나라를 읍으로 만들어서 금관군이라 불렀다. 문무왕이 금관소경을 설치하였고 경덕왕이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그대로 소경이라 하였다. 고려 태조는 부로 강등시켰고 그 뒤에 또 임해현(臨海縣)으로 강등하였으나 얼마 안되어서 군으로 승격시켰다. 성종이 금(金?)주 안동도호부(金州安東都護府)라 고쳤고 현종은 방어사로 강등시켰다. 원종은 방어사 김훤(金暉)이 밀성(密城)의 반란을 평정하고 또 삼별초를 막아낸 공이 있다는 이유로 금녕도호부(金寧都護府)로 승격시키고 김훤을 발탁하여 도호로 삼아 진수(鎭守)하게 하였다. 충렬왕 2년에는 안렴사 유호(劉顥)를 죽였기 때문에 현으로 강등시켰다가 뒤에 다시 금주목(金州牧)으로 승격시켰다.

【산천】도요저(都要渚) 부 동쪽 30리 지점에 있으며 강을 따라 민가가 있는데 거의 2백여 호가 된다. 집들이 뽀뽀하게 늘어서서 울타리가 서로 잇닿아 있는데 농업을 일삼지 않고 오로지 수운(水運)만을 익힌다.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 팔아 상류쪽 여러 고을로 다니면서 재산을 만든다. 그곳 풍속이 순박하여 한 집에 객이 있으면 여러 집에서 각자 술과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를 차린다. 혼사와 초상·제사에 모두 그러하다. 한 집에 아내나 딸이 음행을 하였으면 여러 집이 회의하여 쫓아 버린다. 이웃 지역인 마휴촌(馬休村) 2백여 호의 풍속도 또한 같다.

태야강(臺也江) 부 남쪽 40리 지점에 있다. 삼분수(三分水) 전해 오는 속설에, 낙동강 물이 남쪽으로 흘러 부 북쪽 뇌진(磊津)에 이르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 옥지연(玉池淵)·황산강(黃山江)이 되며, 또 남쪽으로 흘러 부 남쪽 취량(鷲梁)에 와서 바다에 들어가며 예성강과 합류하니, 바닷물이 국맥(國脈)을 옹위하고 지겸(地鉗)이 서로 응한다. 이로 인해 고려 문종 때에 본부(本府)를 오도도부서(五道都部署) 본영으로 삼았다. 그 뒤에 도부서사(都部署使) 한충(韓冲)이, 도내가 넓고 멀다고 조정에 아뢰니, 3도로 나누어 각각 본영을 설치하였는데, 그날 저녁 황산강 물이 세 가닥으로 갈라져서 바다로 들어갔으므로 삼분수 또는 삼차수(三叉水)라 하였다고 한다.

【성곽】읍성 석축이다. 둘레는 4천 6백 83척이고 높이는 15척이다. 성안에 샘 28개소와 냇물 하나가 있는데 사철 마르지 않는다. ○ 정몽주의 기문에, “옛날 선왕(先王)께서 남쪽 지방을 순행하시면서 상주(尙州)에 머무르셨다. 그때 나는 부름을 받아 한림(翰林)으로 있었는데, 박위(朴葦)를 여관에서 처음 알게 되어 상종하다가 좋아하였다. 이로부터 10여 년 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선왕을 섬기며 그의 재능에 탄복하였다. 지금 임금께서 즉위하신 다음해에 내가 죄를 입어 남방에 유배를 갔는데, 그해 겨울에 왜적이 김해를 함락시켰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김해는 왜와의 요충지대이다. 지금은 이미 함락된 데다가 전쟁 뒤끝이니, 비록 지혜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아마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얼마 뒤에 박후가 수령이 되어 나갔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을 돌아보며, ‘나는 박후가 반드시 이곳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임을 안다.’ 하였다.

【사묘】사직단(社稷壇) 부 서쪽에 있다. 문묘 향교에 있다. 성황사 분산(盆山)에 있다. 송악당(松岳堂) 금강사(金剛祠)에서 서북쪽으로 2백 보쯤 되는 지점에 있는 작은 언덕 위에 신사(神祠)가 있는데, 송악당이라 한다. 전설에는, “고려 원종이 원 나라의 명을 받들고 장군 김방경을 보내어 동쪽으로 일본을 정벌할 때에 금강사에 머물렀다. 그때에 이

언덕에서 송악의 신에게 제사하였다.” 한다. 고을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 제사하여서 이 고을의 성황당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반드시 여기에도 겸해서 제사지낸다(이상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경상도 김해도호부).

고려시대 김해는 명칭과 수령의 지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대체로 외관이 파견되는 주현(主縣)으로 주변 작은 군현들을 속현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아울러 김해는 남강과 낙동강 본류와 지류의 여러 고을이 수운으로 연결되었으며, 고려 지방 수군의 관서인 도부서의 본영이 있었고, 후기에는 일본에서 오거나 일본으로 가는 문서와 사신의 출발지이자 도착지로서 외교적인 역할도 하였다. 김해는 한마디로 물길과 바닷길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해상의 요충지였으며, 수도인 개경과도 밀접하게 연계가 되었던 것 같다. 삼분수를 설명하면서 바다에서 개경의 해상관문인 예성강과 만난다거나 개경의 별칭인 송악당이 있었다고 하니 ‘작은 개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김해지역도 조세를 조운을 통해 운반하거나, 토산물을 개경으로 보내거나, 관리의 왕래나 군사적 목적으로 바닷길을 이용하여 자주 예성항에 갔을 것이고, 그곳에서 상주하던 송상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의 시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다.

<또 樓閣 위에서 潮水를 보며 同僚 金君에게 주다>

潮水는 밀려왔다 밀려가고
 오고가는 배는 머리와 꼬리를 물어 서로 잇대었더라[來船去舶首尾銜相連].
 아침에 이 다락[樓: 누각] 밑을 떠나면
 한 낮이 못되어 돛대는 南蠻 하늘에 이르도다.
 사람들은 배를 가리켜 물위의 驛馬라 하니
 나는 바람 쫓는 駿馬의 굵도 이에 비하면 오히려 더디다 하리.
 만약 돛단배 바람 속에 달리듯 한다면
 순식간에 蓬萊 仙境에 도달하니
 어찌 구구하게 달팽이의 뿔과 같은 좁은 곳[蠻觸界]에서 작은 일로 다투겠는가³⁾
 이 목도(木道: 배)를 빌리면 어느 곳이든 거슬러 이르지 못하리.⁴⁾

3) 金庠基는 ‘蠻觸界’를 남만의 지경으로 해석하였다(金庠基, 앞의 논문, 461쪽). 그러나 蠻觸은 속어로서 ‘蝸角之爭’과 같은 뜻이며, 조그마한 일로 싸우는 것을 비유한다.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10, 126쪽 蠻條. 그것은 뒷 연에서 배를 빌려 넓은 바다를 거슬러 가는 것과 대구가 된다는 점에서 그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4) 『東國李相國集』 권16, 「又樓上觀潮贈同寮金君詩一予以公事往來數月」.

이 시는 작자인 李奎報가 천우위녹사참군사가 되어 조운을 감독하러 예성항에 갔다가 한 누각에서 바다를 직접 보고 지은 것이다. ‘오고가는 배가 꼬리와 머리를 물어 서로 잇대었다’ 라는 것은 예성항에 배가 많았다는 표현이며, ‘한 낮이 못되어 남만 하늘에 도착한다’ 거나 배를 가리켜 ‘물위의 역마’ 라고 하는 것은 그 배의 빠름을 나타낸다. 그 가운데 ‘남만 하늘’ 은 중국 四夷의 하나인 남쪽의 蠻族이 있는 곳이어서, ‘바다 건너 남방의 異國’ 의 뜻이 되는데, 약간 과장된 것 같으므로 고려의 남쪽 바다로 해석한다면, 고려 해운의 가장 최남단인 김해 지역을 오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개경과 김해의 물리적 지리적 거리는 멀었지만, 당시 가장 편리하고 빠른 교통수단인 배를 이용한 시간적 거리는 육로를 이용하여 개경에서 경기 내륙 지역에 가는 것보다 가까울 수 있었다.

따라서 송나라의 선진문물에 관심 있는 김해 지역의 토호들은 예성항에 가는 뱃사람들을 통해 김해 지역의 토산물과 송상의 물품을 교역할 수 있었다. 송상이 고려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은 화려한 비단, 높은 수준의 예술품, 불교와 유교 서적 등이었다. 이것들이 고려에 수입되는 것은 곧 당대의 최고 기술과 지식이 전해지는 것을 의미했다. 고려에서 중앙과 지방의 경제적 차이는 있었겠지만 문화 수용의 격차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해상교통이 발달한 김해 지역은 더욱 그러했을 것이며, 김해에 ‘송악당’ 이 있고 김해 사람들이 바다로 예성항과 만난다고 인식했던 것은 그와 관련된 정황적 근거이다. 그런 점에서 고려시대 김해 지역은 ‘문화적 변방’ 이 아니며, 고유의 지역 문화에 더하여 송과 일본의 외래 문화가 융합되는 곳으로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대각국사문집》, 《대각국사외집》, 《송사》 권 487 고려전, 《續資治通監長編》, 《許國公奏議》 외.

金庠基, 1937, 「麗宋貿易小考」 『震檀學報』 7; 1948, 『東方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白南雲, 1937, 「商業及商業資本」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改造社.

金庠基, 1959, 「高麗前期의 海上活動과 文物의 交流—禮成港을 중심으로—」 『국사상의 제문제』 4; 1974, 『東方史論叢』, 서울대출판부.

森克己, 1956, 「日本·高麗來航의 宋商人」 『朝鮮學報』 9; 1975, 『續日宋貿易の研究』, 國書刊行會, 341쪽.

金渭顯, 1978, 「麗宋關係와 그 航路考」 『關大論文集』 6; 1985, 『遼金史研究』, 裕豐出版社, 206쪽.

宋晞, 1979, 「宋商在宋麗貿易中的貢獻」 『中朝關係史論文集』 1, 從徐福到黃遵憲, 時事出版社.

倪士毅·方如金, 1982, 「宋代明州與高麗的貿易關係及交其友好往來」 『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2-2.

黃寬重, 1983, 「南宋與高麗關係」 『中韓關係史國際研究討論論文集』(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編).

黃寬重, 1991, 「宋·麗貿易與文物交流」 『震檀學報』 71·72합.

林士民, 1995, 「論宋元時期明州與高麗的友好交往」 『海交史研究』 28.

朴真奭, 1996, 「11-12世紀宋與高麗的貿易往來」 『長白叢書 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 吉林文史出版社.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배무이 및 항해 기술」 『조선기술발전사(고려편)』, 118쪽.

朴玉杰, 1997, 「高麗來航 宋商人과 麗宋의 貿易政策」 『大東文化研究』 32.

楊渭生, 1997, 「宋與高麗: 複雜微妙的‘三角’政治關係」 『宋麗關係史研究』, 杭州大學出版社.

楊渭生, 1997, 「宋與高麗: 民間貿易與商人的作用」 『宋麗關係史研究』, 杭州大學出版社.

〈참고표: 11세기, 12세기, 13세기 송상의 고려왕래 사례〉

	서기 연도	왕대	월	일	송상왕래 기사	왕래 유형	왕래 회수	전거 소재	비고
?	1000	목종			이해에 송 明州가 고려국인 池達 등이 표풍으로 薊隸에 도착하였다고 보고하자 송 조정이 淸州에 명하여 양곡을 지급하여 되돌려보냄(속자치통감장편47). *지달 등이 타고 온 배로 되돌아갔다면 송상왕래와 무관함.	표류 송환		송	
	1000~1010				이 무렵 송 楊州人 劉志誠이 來投한 것으로 추정 (유지성묘지명).	내투			
×	1001~1004								
	1005				송 溫州文士 周侗가 商舶을 따라 내투하여 禮賓注簿로 임명됨(절요2).	내투			
×	1006~1011								
	1012	현종	3	5	송인 王福 등이 내투함(사4).	내투			
	"		6	14	송인 葉居腆 등이 내투함(사4).	내투			
	"		10	12	송 南楚人 陸世寧 등이 와서 방물을 바침(사4).	金			
	1013	정		18	송 閩人 戴翼이 來投하니 儒林郎·守宮丞을 제수함(사4).	내투			
×	1014								
	1015		6+	26	송 천주인 歐陽微이 내투함(사4).	내투			
	1016		2	29	명주에 명하여 이후 고려의 선박이 漂風으로 해안에 도착하면 식량을 지급하고 순풍을 기다려 돌려보내라고 함 (속자치통감장편86).	표류 규정	수회		
	"				이해에 다시 송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함(절요3).	문서전달			
	1017		7	5	송 천주인 林仁福 등이 와서 방물을 바침(사4).	金			
	1018		4+	11	송 강남인 王肅子 등이 와서 방물을 바침(사4).	金			
	1019		5	28	한해 전 明州에 표착한 康州인 未斤達이 고려로 출발함 (小右記6,21條).	표류 송환		일본	
	1020		2	27	송 천주인 懷贄 등이 와서 방물을 바침(사4).	金			
	"		4?		입송사 崔元信이 돌아와 송 진종이 하사한 『天禧4年具註曆』을 바침(동문선33上大宋皇帝謝賜曆日表). 이에 앞서 고려 진봉사 崔元信이 秦王水口에서 선박이 顛覆되고 공물을 漂失하여 사 신단에 수례를 주어 京師로 가게 함(송사487고려전).	여사 귀환			사절 단을 실은 배의 난파
×	1021								

서기 연도	왕대	월	일	송상왕래 기사	왕래 유형	왕래 회수	전거 소재	비고
1022		8	17	송 복주인 陳象中 등이 와서 토물을 바침(사4).	금			
"		8	24	송 廣南人 陳文遂 등이 와서 향약을 바침(사4).	금			
1101	숙종	정	19	송인 郟珪 등이 내투하자 왕이 시험하여 모두 8품관을 하사함(사11).	내투			
"		5	24	任懿 등이 휘종이 하사한 『神醫補效方』을 가지고 돌아옴(사11).	여사귀국			
"		6	7	王嘏 등이 휘종이 하사한 『太平御覽』 1천권을 가지고 돌아옴(사11).	여사귀국			
"		11	14	팔관회를 개최함. 송상·탐라·동서번 주장이 토물을 바침(사11).	금			송상재려
1102		4	13	투화한 송 진사 章忱을 불러 시험하고 別頭及第를 하사함(사11).	내투			
"		6	6	송상객이 머물고 있는 東西館에 불이남(사53오행1).	기타			송상재려
"		6	14	송상 黃珠 등이 옴(사11).	금			
1102		6+	1	송상 徐脩 등이 옴(사11).	금			
"		6+	23	송상 朱保 등이 옴(사11).	금			
"		9	21	송상 林白徇 등이 옴(사11).	금			
1103		2	20	宋 明州教練使 張宗閱·許從이 강수 楊瓘 등과 함께 來朝함(사12).	금			입려통지
"		6	5	宋 國信使 劉達 등이 고려에 옴(사12).	송상왕래			
1104		2	4	송 의관 牟介 등이 돌아감(사12).	인물왕래			
"				추밀원사 崔洪嗣 등이 사은하러 송에 감(사12).	여사			입송
"		7	20	*사전에 송에 통지되었을 것이며, 최홍사의 귀국도 송상과 관련될 것임.	입송	3회		통지 귀국
"		8	16	송 도강 周頌 등이 와서 토물을 바침(사12).	금			
×	1105							
1106	예종	7	24	왕이 투화한 송인 陳養 등을 불러 兵手를 誅罰하고 물품을 하사함(사2).	내투			
×	1107							
1108		7	27	형부상서 金商祐 등을 송에 보내 방물을 바침(사12). *사전에 이 사실이 통지되었을 것임.	여사 입송			입송 통지
1109		6	5	金商祐 등이 6통의 조서를 받고 송에서 귀국함(사13).	여사귀국			
"		12	9	송 教練使 明州都陔 兵馬事 任郭 등이 옴(사13).	문서전달			입려통지
1110		6	4	송 명주에서 온 女樂 2인을 불러 봄(사13).	인물왕래			
"		6	7	송상 李榮 등이 옴(사13).	금			
"		6	14	송 사신 병부상서 王襄 등이 왔다가 7월1일에 돌아감(사13).	송사입국			신주외척
"		7	2	송상 池貴 등이 옴(사13).	금			

	서기 연도	왕대	월	일	송상왕래 기사	왕래 유형	왕래 회수	전거 소재	비고
×	1222~ 1223	고종							
	1224				이해에 고려가 금의 正朔을 버리고 간지를 사용하며 曆法이 송과 동일해진 것이 송에 전해짐(寶慶四明志6).	문물 교류		송	
	1225		12		崔瑀가 고려의 文物 禮樂을 중국의 제도에 따르게 할 것과 宋의 來投者를 자질에 따라 臺省·政曹에 탁용할 것을 건의함(節要15).	내투 규정	수시		
	1226				이전에 송의 市舶稅가 粗色은 1/5, 細色은 1/7,5이던 것을 이 해부터 高麗·日本의 강수에게 細色·粗色の 구분없이 1/19로 통일함(寶慶四明志6).	송상 규정	상시	송	
	1225~ 1227				慶元府와 고려 禮賓省이 貢舶으로써 문첩을 통하고 있다고 함(寶慶四明志6).	왕래 추정	상시		
×	1128								
	1229		2	26	宋의 도강 金仁美 등이 제주의 漂風民 梁用才 등과 함께 음(史22).	금			표류송환
×	1230								
	1231				이해에 宋商이 채단만을 구매하여 돌아와서 정부가 違約을 책망하자, 水牛角은 활을 제작하는 이유로 송 조정이 수출을 금지하여 구매할 수 없다고 하므로, 崔怡가 도강의 妻를 가둠(史129 崔忠獻傳 怡).	차	3회↑		
	1232~ 1235								
	1236				이해에 李奎報가 江都에서 몽고군이 江南으로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들음(東國李相國集18).왕래	송상			
	1237				이해에 崔璘이 開京에서 무사히 羅州副使로 부임하기 위해 宋人 楊赫에게 推命하게 하고 부처에게 공양을 함(法華靈驗傳下).	인물 왕래			
	"?"				이해에 鄭仁卿의 父 鄭臣保가 片舟를 타고 고려 간월도에 도착했다고 함(『湖山錄』 古今人物).	내투			
	1238				歐陽修的 11대손이라고 하는 歐陽伯虎가 고려에 와서 이규보와 교류하며 시문을 창화함(東國李相國後集序). *이규보가 실제 재신에 재직한 것은 1233년~1237년까지임.	인물 왕래	수회		
×	1239~ 1246								



GIMHAE NATIONAL MUSEUM



백제의 해양교류와 대외 외교

정재윤 /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에서 건국하여 한강을 확보하고, 미추홀을 통합하여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隋書』에 “처음에 백 가(家)가 바다를 건넜다 하여 백제라 불렀다.”라는 국호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백제가 해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나라였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남부 지역과 일본 열도에 있는 세력들이 백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중국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의 해양교류는 동북아시아 교역로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제 이전에 동북아시아 교역을 주도한 세력은 중국 군현이었다. 중국의 한나라는 B.C 194년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하였다. 이 중 임둔과 진번은 곧바로 폐지되고, 현도는 흥경 방면으로 이동하여 낙랑군이 한반도를 관할하였다. 발달한 선진문물을 겸비한 낙랑군은 한반도와 왜 세력을 통제하였으며, 인수와 의책을 받은 자가 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분열과 회유 정책을 통해 그 지배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세기 후반에 이르러 韓·濊가 강성해지고 군현의 통제가 힘들게 되자 백성들이 오히려 한국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일어났다¹⁾. 이에 공손씨 정권은 대방군을 설치하여 한과 일본열도를 지배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군현과의 교류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본열도에서 한반도 서남해안을 거쳐 중국 군현에 이르는 바닷길이 개척되었다. 『三國志』에는 당시의 교역로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군에서 왜까지는 해안을 따라 물길로 가서 韓國을 거쳐 때로는 남쪽으로 때로는 동쪽을 나아가면 그 북쪽 대안인 狗邪韓國에 도착하는데, 거리가 7천여 리이다. 처음으로 바다를 건너는데, 1천여 리를 가면 對馬國에 도착한다. (생략) (대마국에서) 남쪽으로 바다 1천여 리를 건너는데, 이름은 澣海라고 하며, 一大國에 이른다²⁾.”고 한다.

이 교역로를 주관한 세력은 중국 군현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철과 소금 등의 원자재를 구입하는 대신에 토착세력들에게는 선진문물을 전수해줌으로써 교역로를 주도하였다. 백제 또한 초기에는 중국 군현에 이르는 길목인 한강 하류 지역을 장악하면서 성장한다. 이후 마한의 여러 세력을 병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서해와 남해 일대를 관할하며, 중국 군현을 대신하여 교역로를 장악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백제의 해양교류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

2) 『三國志』魏書 東夷傳 倭條.

Ⅱ. 백제의 가야 진출과 대외 외교의 개시

백제는 고이왕 때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마한연맹체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마한과 서진과의 교역을 주관한 세력을 백제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³⁾. 문제는『晉書』에 新彌諸國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 신미제국은 영산강 유역에 비정되는 소국임에 틀림없다. 이 교섭 기사 시기는 282년이므로 신미제국은 마한의 맹주국이었던 목지국의 쇠퇴 이후 등장한 새로운 세력으로 보인다. 이를 통하여 백제가 3세기 후반 전라북도 지역에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고, 마한의 잔여 세력이 영산강을 중심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신미제국 등 영산강 유역도 독자적인 교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백제는 마한 지역에 대한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더 이상 마한의 잔여 나라들이 독립된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게 되었다. 이제 영산강 유역의 마한 소국마저 백제에 복속된 것이다. 영산강 유역을 백제가 정벌한 시기는 4세기 후반, 5세기 후반, 6세기대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아래와 같다.

A. 이어 比自 · 南加羅 · 喙國 · 安羅 · 多羅 · 卓淳 · 加羅 등 7국을 평정하였다. 이에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古奚津에 이르러 남쪽 오랑캐인 忱彌多禮를 무찔러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그 왕인 肖古(근초고왕)와 왕자인 貴須(근구수왕)가 또한 군사를 이끌고 와서 모였다. 이때 比利 · 辟中 · 布彌 · 支半 · 古四 읍이 자연스럽게 항복하였다(『日本書紀』 9 神功皇后 49年條).

위의 사료 A에 등장하는 비자벌 등 7국은 가야제국을 지칭한다. 다음으로 고혜진과 침미다례는 강진 혹은 장흥 일대로 보고 있다. 끝으로 비리, 고사 등은 전북 혹은 전남 일대로 본다. 따라서 신공왕후의 정벌은 가야 지역과 전라도 지역이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벌의 주체는 신공왕후로 되어 있으나 신라의 정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 점, 또한 여기에 참여한 장수인 木羅斤資가 백제 장수이며, 주로 마한 지역을 정벌하였다는 점에서 백제의 마한 정벌 기사로 이해된다. 정벌의 주체를 신공왕후에서 근초고왕으로 대치하면 무리가 없는 것이다⁴⁾.

3) 마한과 서진과의 교역은 『晉書』에는 276년에서 291년까지 기사가 등장한다. 당시 마한을 대표하는 세력으로는 목지국으로 보는 세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백제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李丙燾, 『韓國史』 古代編, 1959, 350~351쪽. 千寬宇,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341~342쪽).

4) 千寬宇, 『復元加耶史』中, 『文學과 知性』29, 1977.

당시 백제는 북쪽에서 치열하게 고구려와 낙랑군과 대방군 지역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따라서 후방인 전라도 지역에 대한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나아가 전쟁을 수행하기에 백제 만의 힘으로는 벅찼고, 전라도 지역의 물적·인적자원의 도움도 필요하였다. 근초고왕이 고구려와의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이와 같은 마한의 복속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야 지역의 정벌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는 가야 지역의 정벌보다는 이 지역에 영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이를 전하고 있는 『日本書紀』에 의하면 백제는 신공왕후 46년(366) 卓淳國⁵⁾을 매개로 왜와 교섭을 시작하여, 367년 연이어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야 지역의 정벌은 백제가 가야 지역까지 진출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백제는 가야를 매개로 왜와 교섭을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백제가 전라도 지역을 복속하면서, 남부 지역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사실도 빠뜨릴 수 없다. 신공왕후 50년(370) 왜가 “多沙城을 주어 왕복하는 길의 역으로 삼게 하였다.” 라는 『日本書紀』 기사는 가야 정벌 기사의 성격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다사성은 계체천왕 7년(513) 때에도 왜가 백제에 하사한 것으로 나온다⁶⁾. 그렇다면 왜가 두 번이나 다사성을 준 것일까. 두 번의 하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후대의 사실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의 기사는 교류를 나타내주며, 두 번째 기사는 영역화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점을 고려하면 神功期 일련의 기사는 백제와 왜의 교섭을 보여주기 때문에, 백제는 가야 지역인 다사성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탁순국을 매개로 왜와 교섭을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된다.

이어 근초고왕 27년(372) 백제에서는 칠지도를 왜에 하사하였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백제왕이 칠지도와 칠자경을 현상하였다고 기록⁷⁾되어 있지만 자국 중심의 관점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칠지도는 백제 현상설⁸⁾과 백제 하사설⁹⁾, 동진 하사설¹⁰⁾ 등 여러 견해가 분분하다. 그런데 고대 국가의 성장 단계에서 환두대도는 위세품으로 지배권을 인정하는 징표이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현상설은 맞지 않는다. 따라서 백제에서 하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최소한 칠지도는 백제와 왜의 교류 관계

5) 창원설(金泰植, 「6세기 전반 加耶南部諸國의 소멸 과정 고찰」, 『韓國古代史研究』1, 1988), 대구설(주보돈,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 『慶北史學』4, 1982)이 대표적이다.

6) 『日本書紀』17 繼體天皇 7年 冬 11月條.

7) 『日本書紀』9 神功皇后 52年條.

8) 神保公子, 「七支刀研究の歩み」, 『日本歴史』301, 1973, 50쪽.

9) 金錫亨, 『초기 조일관계사 연구』, 1996, 사회과학원출판사.

10) 栗原朋信, 「七支刀の銘文よりみた日本と百濟・東晋の關係」, 『歴史教育』18-4, 1970.

를 확인해주는 실물인 것이다.

최근에는 칠지도 기사 자체를 5세기에서 6세기 초의 상황으로 이해한 견해¹¹⁾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칠지도 등 일련의 백제와 왜의 교류 기사를 6세기 무렵의 사실로 본다면 『廣開土王碑文』에 나오는 왜병과 404년 백제와 왜 연합군의 帶方界 침입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아신왕 6년(397) 전지를 왜에 質子로 보내는 『三國史記』 기사¹²⁾를 부정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 이전에 백제와 왜가 친밀했어야 한다. 따라서 『日本書紀』 神功期에 보이는 기사가 근초고왕 때 백제와 왜의 교섭을 보여주는 사료인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백제는 왜 이 무렵에 왜와 적극적으로 통교하였을까. 이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관련되어 있다. 좁게는 백제와 고구려의 한반도 내에서 주도권 다툼이며, 넓게는 국제 관계를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외교까지 확산된다. 이에 주목되는 것은 백제의 요서 지역 진출 기사이다.

B. 백제국은 본래 고려(고구려; 필자 주)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 천여 리에 있었다. 그 후 고려가 요동을 경략하였고, 백제도 요서를 경략하였다. 백제가 다스린 곳은 靑平郡 靑平縣이라 한다(『宋書』97 列傳 57 東夷 百濟國條).

백제의 요서 진출은 위와 같이 중국 正史인 『宋書』에 나온 이후 『梁職貢圖』, 『梁書』, 『南史』, 『建康實錄』, 『通典』 등 여러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역사적 사실로 간주해야 하는데, 정작 요서가 있는 지역의 북중국 역대 왕조 史書와 국내 사서인 『三國史記』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백제가 중국 지역에 진출할 만한 국력이 있었는가 하는 회의론도 무시할 수 없다.

먼저 북중국 사서에 기록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은 당시 부상하고 있던 北魏가 중국 대륙에 아직 본격적인 진출을 하지 못한 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백제 사정에 어두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후의 기록에서도 백제는 북중국보다 남중국 위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백제의 사정을 남조가 훨씬 잘 알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단순히 기록이 없다고 무시할 수는 없고, 남조만 백제의 요서 진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다음으로 백제가 요서를 진출할 만한 국력이 있었는가 여부는 당시 요서 지역 정권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백제 내부를 살펴보면 전성기인 근초고왕 무렵이 국력 면에서

11) 연민수, 「칠지도명문의 재검토」, 『고대한일관계사』, 1998, 해안.

12) 『三國史記』25 百濟本紀 3 阿莘王 6年條.

가능하다. 북중국 동향을 보면 당시 패자인 前燕이 이 시기에 비록 중국 본토에 진출하였지만 367년 이후 극심한 내부 분열에 휩싸여 이 지역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반면 새로 등장한 前秦은 370년 전연을 멸망시킨 이후 이 지역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380년 유주자사 符洛의 반란이 일어나는 등 완전히 통치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384년 건국한 후연도 부여 계통의 餘巖이 이듬해에 기주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등 혼란에 휩싸였다.

그런데 요서 지역에는 부여계 유민들이 사민되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부여계가 전연과 후연, 전진 등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요직에서 활약하는 것은 유민들의 세력 기반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백제는 314년 한 군현의 축출 이후 남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중간 거점이 필요하였다. 또한 북중국의 여러 세력 집단들과도 통교할 해상 교역로의 확보도 절실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백제는 중국의 혼란 시기이자 백제의 전성기인 4세기 후반 무렵(구체적으로는 360년대 후반~370년대) 요서 지역에 일정한 거점을 확보하여 동진과의 교역로를 개척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 군현이 설치된 이후 한반도와 왜 세력들은 이들을 통하여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고, 따라서 한 군현이 설치된 한반도 서북부 지역은 중요한 문물 교류지역이었다. 그런데 한 군현이 축출된 이후 고구려가 남하하여 북쪽에 있는 낙랑을 편입하였고, 그 남쪽에 있는 대방 지역의 지배를 놓고 백제와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하였다. 371년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평양성 전투는 바로 이러한 대방 지역을 둘러싼 두 나라의 주도권 확보와 관련이 있다.

근초고왕 때에 이루어진 전라도 지역의 경략도 이러한 고구려와의 싸움에 사활을 건 국력의 재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후방기지의 확보였다. 아울러 이 시기에 주목되는 것은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왜와의 통교도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왜왕에게 칠지도 등 선진 문물을 주어 왜를 대고구려 전쟁의 원군으로 삼으려는 한편 왜-한반도-중국으로 이어지는 해상 무역을 개척함으로써 국제 무역의 주도권을 잡고자 한 근초고왕의 바람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교역을 위한 거점을 확보한 것이 바로 백제 요서 진출의 실체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고구려를 제압하고 왜를 끌어 들이고, 동진 및 북중국과의 교역 거점을 확보하는 등 일련의 활발한 해외 진출로 백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372년 백제 근초고왕은 동진으로부터 領樂浪太守職을 제수받았다. 이는 백제가 동진과 직접 통교할 수 있는 교역로를 개척하였음을 뜻하고, 이제까지 마한 연맹체의 수장으로서가 아닌 당당한 백제왕으로서 국제사회에 첫걸음을 딛는 중요한 행보였다. 아울러 왜로 이어지는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중국 군현을 대신하여 동북아시아 교역로를 주관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Ⅲ. 백제의 응진 천도와 동북아시아 교역로 확보

백제의 응진 천도는 자발적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였다.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방어를 고려하여 응진으로 천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고구려에 밀린 수세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응진 천도 이후에는 여러 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천도 직후인 476년 남조의 송에 조공을 시도하였으나 고구려가 길을 막아 실패한다. 또한 484년에도 새로 등장한 남제에 조공하였으나 고구려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백제는 해상권도 고구려에 빼앗긴 것이다. 이는 백제가 한강 유역을 상실한 것과 관련이 있다. 중국과의 연안 항로는 한강 하류 지역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고구려 영역을 지나며, 이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로가 막힌 것이다. 이에 백제는 기존의 항로 대신에 다른 항로를 개척해야만 하였다.

479년 加羅王 荷知가 남제에 사신을 보낸 것도 흥미해 볼 사안이다. 가야는 중국과 통교를 할 때 남해안과 서해안 연안항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백제의 통제권 아래에 놓였다. 그런데 이 무렵 가야는 중국과 직접 통교하여 輔國將軍本國王이라는 칭호를 받았다¹³⁾. 이는 가야가 중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세력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며, 백제의 해상 통제력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된다.

그러나 백제는 동성왕이 즉위한 이후 신진세력을 등용하여 왕권 강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대중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484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남제에 조공하였다. 이는 백제가 송 말기 남조와의 소원한 관계를 극복하고, 남제가 고구려를 중시하려는 대외정책을 재고시킴으로써 백제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 이를 전하고 있는 사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C. 春二月 王聞南齊祖道成 册高句麗巨璉爲驃騎大將軍 遣使上表請內屬 許之. 秋七月 遣內法佐平沙若思 如南齊朝貢 若思至西海中 遇高句麗兵 不進(『三國史記』26 百濟本紀 4 東城王 6年條).

위의 사료에 의하면 백제는 남제에서 고구려를 표기대장군으로 책봉하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內屬을 청하였다. 원래의 의미로 본다면 ‘내속’이란 국가의 독립체제를 상실하고 漢나라의 국가체제 속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⁴⁾.

13) 『南齊書』58 列傳 39 東夷 加羅條.

14) 김한규, 「진과 한, 화진과 내속」, 『천하국가』, 97~119쪽.

따라서 ‘내속’이란 표현을 중시하면 백제가 남제의 영역 속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¹⁵⁾. 실제와 상관없이 이와 같이 매우 강한 표현은 백제가 남제와의 특별한 관계를 자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기존의 조공과는 다른 적극적인 시도로 보인다. 더욱이 7월에는 백제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內法佐平 沙若思를 직접 파견하였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는 남조와의 외교를 중시하려는 동성왕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후 동성왕은 486년, 490년, 495년 남제와 계속 통교함으로써 안정적인 항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하여 동성왕 때에는 왜와의 교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동성왕은 461년 왜에 파견된 昆支의 아들로, 왜에서 귀국하여 왕이 된 인물이다. 昆支가 倭에 파견되어 백제계 이주민을 규합시켜 大和 정권을 도우면서 유사시에 백제를 구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정착한 지역은 近飛鳥 지역이며, 이러한 왜에서의 기반 때문에 그의 적자인 동성왕은 왕에 즉위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동성왕 때에는 왜와 밀접한 교류를 해야 하는데, 교류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분명 이상한 현상이다.

더욱이 『日本書紀』顯宗紀 3년(487)조에 보이는 紀生磐宿禰의 반란 사건을 보면 왜와의 갈등이 빚어졌을 가능성도 있다¹⁶⁾. 무엇보다도 동성왕대 왜와 교류를 나타내는 기사가 없는 점은 최소한 왜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반증이 된다. 최소한 동성왕 때에는 왜보다 중국과의 교역로 개척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령왕이 즉위한 후 백제는 회복된 국력을 바탕으로 점차 한성시대에 개척된 동아시아 교역로를 재건하게 된다. 더욱이 백제의 수도가 금강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에 간접통치를 하고 있었던 전남 해안과 동부 지역에 대한 장악을 확고히 하게 된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백제는 왜로부터 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 등 임나 4현을 할양받았다¹⁷⁾. 사료에는 왜가 백제에 할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왜곡의 껍질을 벗긴다면 실제로 백제가 이 지역에 진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상다리와 하다리는 여수반도와 돌산도로 보거나¹⁸⁾, 강진 지역과 인접한 지역인 장흥 지역으로 보기도 한다¹⁹⁾. 사타도 곡성으로 보거나²⁰⁾ 구례로 보는 견해²¹⁾, 순천으로 보는 견해²²⁾가 있다. 모루는 승평군과 보성군 일대로 비정한다²³⁾. 따라서

15) 金壽泰, 「웅진시대 백제의 대남조 외교」, 『百濟文化 海外調査報告書』VI-中國 南京地域, 국립공주박물관, 2008, 96쪽.

16) 李在碩, 「5세기말의 백제와 倭國」, 『日本歷史研究』14, 2001, 19쪽. 정재윤,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백제와 섬진강』, 백제학회, 2008, 245~251쪽.

17) 『日本書紀』17 繼體天皇 6年條.

18) 全榮來,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정음문화사, 1985, 146쪽.

19) 李根雨, 「熊津時代 百濟의 南方境域에 대하여」, 『百濟研究』27, 1997, 62쪽.

20) 酒井改藏, 「日本書紀の朝鮮地名」, 『親和』195, 1970, 170쪽.

21)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49, 122쪽.

22) 全榮來, 앞의 논문, 1985, 146쪽.

23) 李根雨, 앞의 논문, 1997, 62쪽.

당시 임나 4현이 섬진강 하구인 전남 동부지역으로 비정된다면 백제는 무령왕 12년(512) 전라도 내륙 지역을 넘어 섬진강 하류 지역까지 영역화를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백제는 513년 역시 왜로부터 己汶과 滯沙를 할양받았다²⁴⁾. 이 때 백제와 신라는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백제가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문은 남원으로 비정하거나²⁵⁾, 임실로 보는 견해²⁶⁾, 남원을 중심지로 하고 그 북방 임실까지 포함한 일대에 세력권을 형성하였다고 보기도 한다²⁷⁾. 대체적으로 섬진강 중·상류 지역에 기문으로 불리는 세력이 있었고, 백제가 이 무렵 이를 차지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대사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섬진강 하류인 하동 지역으로 보고 있다. 대사는 섬진강 하류에 위치하여 백제의 대왜 교역 항구로서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백제 무령왕은 이 지역을 513년 무렵 확보하려고 대가야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이전과 달리 섬진강 상류인 임실로부터 하류인 하동에 이르는 섬진강 일대를 영역화함으로써 직접 왜와 교섭할 수 있는 항구를 확보하였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무릇 조공하는 사신은 늘 嶋曲을 피하느라 매번 풍파에 고통을 겪습니다.”라 하며 다사진을 할양해주기를 원하는 기록²⁸⁾에서도 드러난다. 실제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현지인이 아니면 항해하기 힘든 험로였다. 때문에 다사진을 확보함으로써, 남해안 항로의 안정을 기하며, 한편으로 섬진강 상류를 통한 안정적인 길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

무령왕은 이를 바탕으로 동성왕 때와 달리 왜국과 우호 관계에 관심을 기울였다. 무령왕은 재위 5년(515) 전 해에 보낸 麻那君 대신 骨族인 斯我君으로 교체하였다²⁹⁾. 이는 무령왕의 직계를 보냄으로써 對倭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인다. 실제 무령왕 이후 백제와 왜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짐은 이를 확인시켜 준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백제의 활발한 대중외교이다. 『梁職貢圖』에는 叛·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汶·下枕羅 등이 백제에게 부庸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³⁰⁾. 이 중 사라를 신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논란이 많지만, 이 자료는 사실성을 떠나 백제 측의 입장이 전달되어 기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梁書』新羅傳에 보이는 “나라가 작아서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할 수 없었다.”라는 기록도 흥미롭다³¹⁾. 이 구절은 신라를 백제

24) 『日本書紀』17 繼體天皇 7年條.

25) 今西龍, 「己汶伴跋考」,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70, 375~390쪽.

26) 金泰植, 「5世紀 후반 大加耶의 발전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13, 서울대, 1985, 83~87쪽.

27) 延敏洙, 「六世紀前半 加耶諸國을 둘러싼 百濟·新羅의 動向」, 『新羅文化』7, 東國大 新羅 文化研究所, 1990, 111~112쪽.

28) 『日本書紀』17 繼體天皇 23年 春 3月條.

29) 『日本書紀』16 雄略天皇 7年 夏 4月條.

30) 『梁職貢圖』百濟國條.

31) 『梁書』54 列傳 48 東夷 新羅傳.

에 의존하여 양나라에 사신을 보낸 나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이를 고려하면 양나라는 실제와 상관없이 신라를 백제의 부용국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³²⁾.

이와 같이 양이 백제를 한반도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나라로 인식하였다면 백제에 대한 위상과 역할이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높아졌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무렵 신라가 입장 변화를 보인 것도 흥미롭다. 신라는 백제를 따라 사절을 보낸 결과 양나라의 발달한 문화와 제도를 보고서 새로운 문물에 대한 동경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을 것이다. 양나라는 성왕이 새로 즉위하자마자 책봉하였다. 그런데 성왕은 다음 해인 525년 신라와 通好하였다. 두 나라는 이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때 통호의 의미는 처음으로 교류한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왕이 무령왕의 3년 상을 치루고 난 뒤의 첫 만남으로, 두 나라 사이에 매우 괄목할 만한 협정이 맺어진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미묘한 시점에 백제의 요청에 의해 신라와의 통호가 이루어졌다면 백제는 신라에게 제공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상정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발달된 선진문화를 매개로 한 신라의 문물수입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백제는 가야와 고구려 문제 등에 대한 일괄적인 타결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³³⁾.

흥미로운 점은 541년 봄에 신라와 다시 강화를 하며, 이 해 3월 백제가 양에 조공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 때 백제는 양나라에 毛詩博士 涅槃等 經義, 工匠·畫師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 무렵 陸詡가 양으로부터 와서 백제에 禮學을 전수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백제 내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백제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청한 시기에 하필이면 신라와 강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4월에 임나부흥회의가 열리는 등 양과의 교류 이후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백제의 요청과 양나라의 문물 전수가 두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³⁴⁾.

다시 말하면 백제는 양으로부터 받은 선진문물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라와 왜를 견인하면서 고구려와의 전쟁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자 양과 백제 사이에 이루어진 문화적 네트워크는 두 나라를 넘어서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까지 확대되었다³⁵⁾.

32) 정재윤, 「집권 기반의 확립과 영토 확장」, 『熊津都邑期の百濟』百濟文化史大系 研究叢書 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182~185쪽.

33) 525년의 통호를 가야 지역에서 상호 권리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이용현, 「6세기 가야제국과 백제·왜」 발표요지문, 『6세기의 한반도』,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2008, 5쪽)도 있다. 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야 문제는 한강 유역과 당시 밀접한 관련성을 지녔으므로, 고구려 문제도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34) 이용현, 앞의 발표요지문, 2008, 7쪽.

35)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일 무렵인 법흥왕 15년(528) 양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와 의복과 향을 보내준 사실, 진흥왕 10년(549) 양나라에서 사신과 入學僧을 覺德을 파견하여 부처의 사리를 보내온 것 등은 백제를 통한 양과 신라의 교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웅진 천도 후 백제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교역로를 재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항구와 섬진강 루트까지 확보함으로써 정례적인 교역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양과 왜를 잇는 동북아시아 교역로가 활발하게 가동된 것은 이와 같은 교역로의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는 웅진 천도 이후 대외 외교의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IV. 백강 전투의 발발과 의의

백강 전투는 663년 8월 27·8일 양일에 걸쳐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왜군과 당의 수군이 백강에서 벌인 전쟁을 말한다³⁶⁾.

이 때 파병된 왜의 구원군은 『日本書紀』에서는 27,000명, 『三國史記』에서는 倭船 1,000척, 『舊唐書』 劉仁軌傳에서는 400척이라고 하는 등 그 규모에 차이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수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전쟁이었다는 점이다. 당군 또한 170척이 백강에 진을 치고 있었다. 특히 전쟁의 당사자인 백제 부흥군과 신라군은 강가에서 이들 군대를 엄호하며, 육상에서의 전쟁에 돌입하고 있었다. 또한 고구려는 왜군이 고구려 구원을 표방하고 있었고³⁷⁾, 軍務를 고구려에 가서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했을 것이라 추측된다³⁸⁾.

이와 같이 백강 전쟁은 한반도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열도의 세력까지 참가한 대규모 국제전의 양상을 보여주었다³⁹⁾. 이러한 국제전은 당시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체제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제 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이 전쟁이 벌어진 장소인 백강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異說이 있다. 이는 660년 백제 멸망 당시에 등장한 白江과 혼용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단 663년 백강 전투와 관련된 부분만 언급하겠다. 이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백강을 현재의 錦江⁴⁰⁾, 東津江⁴¹⁾ 혹은 변산반도 남에 있는 菴浦 內浦⁴²⁾에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36) 『日本書紀』의 표기에 의해 白村江 전투라고 부르기도 하며, 혹은 白江口 전투라고도 한다. 본고에서는 백강 전쟁이라고 부르는 설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따른다.

37) 『日本書紀』, 天智天皇 卽位 是歲條 및 元年 3月條.

38) 김현구, 「白江戰爭과 그 역사적 의의」, 『백제 부흥운동과 백강전쟁』,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박물관, 2003, 2쪽.

39) 이와 같은 국제전은 백강 전투가 처음이라 할 수 있고, 이후 1592년의 壬辰倭亂과 1894년의 淸日戰爭 등 3번 벌어졌다.

40) 池内宏, 「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地理歴史報告』14, 岩波書店, 1934, 141~144쪽.

41) 小田省吾, 『朝鮮史大系』 上世, 1927, 194~195쪽.

42) 今西龍, 「白江考」, 『百濟史研究』, 1934, 375쪽.

이와 달리 아산만으로 비정⁴³⁾하거나 안성천 하구의 白石浦으로 보는 견해⁴⁴⁾도 있다. 이들 견해 중 후자인 아산만이나 안성천 하구인 백석포는 부흥운동의 중심지인 주류성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른 편의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류성을 금강과 관련된 지역으로 본다면 백강을 금강 하구로 보는 설이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왜는 어떠한 이유로 백제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였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살펴보자. 642년 백제에서는 의자왕의 친위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고구려의 淵蓋蘇文 또한 같은 해 10월 榮留王을 弑害하고 집권하였다. 영류왕의 시해 이유로는 연개소문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겠지만 당에 대한 유화책도 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연개소문의 집권 직전인 642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백제 의자왕은 신라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하였다. 아울러 11월에는 고구려와 화친하고 신라의 黨項城을 취하여 入朝의 길을 막으려 하였다⁴⁵⁾. 그리고 이 해 겨울 신라의 金春秋는 고구려에 가서 백제의 침략을 호소하고 이를 구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만 연개소문에 의해 거절된다.

이와 같이 백제와 고구려의 연합으로 신라는 수세에 몰리게 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당외교를 펼쳐 649년 당의 衣冠을 도입하고, 650년 당의 永徽 연호를 채용하여 親唐自立路線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전략을 취한다⁴⁶⁾. 신라와 당의 결탁으로 이제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당과 신라가 대결하는 양상이 전개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백제와 왜는 4세기 후반 이래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다소 간의 갈등은 있었을 지라도 왜의 親百濟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었다. 이는 백제가 필요한 군사력을 왜가 지원해주고 반대 급부로 백제는 왜에 선진 문물을 전해주는 상호 호혜 관계가 유지된 것이다. 특히 백제와 특수 관계에 있던 蘇我氏가 권력을 장악하여 왜와 백제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졌다. 그런데 동아시아 정세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왜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있었던 듯하다. 이에 645년 中大兄皇子가 중심이 된 反蘇我氏 세력들은 소아씨를 타도하고 大化改新 정권을 세운다.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가 왜에 위기의식을 불러오고, 정권의 교체에 이른 것이다. 大化 정권은 654년 12월 수도를 難波에서 내륙인 飛鳥로 옮김으로서 중국의 통일세력인 당의 팽창주의에 대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백제가 멸망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이는 백제의 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의 팽창주의가 바로 왜까지도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실을 말

43) 朴性興, 「唐津 白村江과 洪州 周留城」, 『백제 주류성의 현황과 과제』, 1999.

44) 金在鵬, 「百濟 周留城研究」, 『백제 주류성의 연구현황과 과제』, 1999.

45) 『三國史記』28 百濟本紀 8 義慈王 2年 11月條.

46) 鈴木靖民, 「7世紀 中葉 百濟의 政變과 東아시아」, 『百濟史의 比較研究』, 忠南大 百濟文化研究所, 1993, 179~181쪽.

해준다. 적계는 백제에서 왜로 이르는 교역로의 붕괴이며, 이는 왜의 고립을 뜻한다. 따라서 왜가 백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민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의安危와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백제의 패망 소식이 전해진 660년 12월 齊明天皇은 출병을 결정하고 직접 北九州에 가서 이를 준비하는 중 급사하였다. 天智天皇 또한 이를 계승하여 상복을 입은 채 전쟁 준비를 하여 663년 본진을 출병시켰다.

이와 같이 상중에도 구원병 파견 작업을 차질없이 한 것은 백제의 구원에 왜가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왜의 수군은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기하고 있던 당의 수군과 4번에 걸친 전투 끝에 대패를 하게 된다. 이 전투에서 왜군을 이끌며 분전하던 朴市田來津은 전사하고 부여풍은 고구려로 망명하였다. 또한 왕자 忠勝과 忠志 등은 殘衆 및 倭人을 이끌고 당에 항복하였다. 이러한 왜군의 패전은 무엇보다도 백제 부흥군 지도부의 분란이 큰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63년 3월에 출병한 본진이 8월에야 백강구에 이른 사실은 무언가의 이유에 의하여 왜군이 바로 백제 부흥군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였던 것을 말해준다. 이는 바로 왜군이 도착한다면 부여풍의 권력 장악을 염려한 복신의 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⁴⁷⁾. 부여풍이 복신을 제거한 6월 이후 관망하던 왜의 구원병이 7월 나당연합군의 대규모 공격이 개시되자 이를 구원하기 위해 출진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이미 왜의 구원병이 이를 것에 대비하여 작전을 세운 당군과 별다른 대책이 없이 황급히 구원하기 위해 출진한 왜군과는 처음부터 대적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는 당군이 왜의 선단을 포위하자 뱃머리와 고물을 돌릴 수가 없어 궤멸해버렸다는 기사⁴⁸⁾에서도 확인된다. 즉 당군은 지형적으로 유리한 지점을 택하여 기다린 후 물길을 장악함으로써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당군은 율령에 의거한 군대인데 반해 왜군은 각 지방 호족이 동원한 군으로 구성된 國造軍의 연합체로 구성되었다. ‘우리들이 앞을 다투어 나가면 저들은 저절로 물러날 것’이라는 치졸한 생각을 가진 왜군이 율령 군제에 의해 지휘 체계가 정연하게 통솔된 당군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⁴⁹⁾

다음으로 백강 전쟁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백강 전쟁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고대 제국주의 전쟁설⁵⁰⁾로 주로 일인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며, 백제는 일본의 속국이기에 때문에 이를 지켜주기 위하여 출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국부흥전쟁설⁵¹⁾로 주로 한국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며, 한반도 이주민들이 大化 정권을 장

47) 김현구, 앞의 논문, 2003, 3~4쪽.

48) 『日本書紀』 27 天智天皇 2年 秋8月條.

49) 佐藤信, 『白江戰爭과 倭』, 앞의 책, 2003, 63쪽.

50) 石母田正, 『日本の古代國歌』, 岩波書店, 1971, 70쪽.

51) 林宗相, 『七世紀中葉における百濟・倭の關係』, 『古代日本と朝鮮の基本問題』, 學生社, 1974.

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국인 백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출병을 하였다는 견해이다. 이들 두 견해는 민족이라는 현재적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많은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교역로를 재건하여 고립을 타파하려는 생각과, 일본 열도에까지 파급될 전쟁을 한반도에서 저지하려는 왜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백강 전투는 한반도, 일본, 중국의 여러 세력이 참여한 동북아시아 최초의 국제 전쟁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들이 전투에 참여한 이유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국의 한반도 장악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의 충돌이었다. 전쟁의 결과 패배한 백제 부흥군은 동북아시아 교역로를 상실하였으며, 왜 또한 크게 위축되었다. 반면에 신라는 백제를 대신하여 동북아시아 교역을 주관하는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V. 맺음말



GIMHAE NATIONAL MUSEUM



한민족의 바다와 해양신화

윤명철 /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1. 들어가는 말

바다는 생명이었다. 인간은 지구에 발을 내 디딘 이래 한동안은 산과 들을 뛰면서 정신없이 먹을 것을 구하고, 그러다가 자기보다 조금 더 큰 짐승을 만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도망쳐야만 했다. 이러한 초기의 인간들에게 자연 그 자체는 너무나 커서 인식영역 밖에 있었다. 바다도 그냥 덩 덩히 바라만 볼뿐이지 미처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켜켜 쌓여가면서 인간은 점차 많은 일을 겪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나무가 그렇듯, 돌덩어리가 그렇듯 하늘과 산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더구나 한없이 넓고 크다 못해 헤아릴 길조차 없는 바다는 그저 한계상항 그 자체였다.

수많은 생명체들을 쏟아내는 그 큰 덩어리는 우주에서 가장 큰 생명 덩어리로 여겼을 것이다. 끝 간데를 모르는 깊이에다가, 아득한 수평선, 파도라도 칠랑이면 전체가 펄펄 살아서 움직이고, 바람에 갈갈이 깨어져나가 하얗게 뒤덮이는 바다는 가장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바다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이나 거대한 괴물이 사는 곳이었다. 바람결에 날려온 바닷가 사람들의 공포심은 바다를 본적이 없는 산골 마을에조차 그런 외경의 자취를 남겨 놓았다. 인간은 그래서인지 바다 그 자체를 생명으로 여겼고, 생명의 본질을 간직한 근원의 장소로 여겼다. 바다를 우주의 근원, 생명이 탄생한 신성한 장소로 하는 신화나 설화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민족이 선사시대부터 열심히 활동한 터는 한반도와 광활하고 다양한 자연환경을 지닌 만주일대의 육지이고, 육지를 340만 평방 km에 달하는 바다가 둘러싸고 있다. 황해 동중국해 남해 동해 그리고 심지어는 연해주와 사할린 사이에 있는 타타르해협이다. 그리고 그 바다를 다시 여러나라의 육지들이 이어지면서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다. 말 그대로 지중해의 모습을 띄우고 있다. 주변의 여러 지역 및 해역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고 교류가 중층적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그리고 모든 문화는 해양을 매개로 환류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 바다는 地政學(geo-politic), 地經學(geo-economic) 地文化(geo-culture) 地心學(geo-mentology)적으로 내륙과는 다른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아주 친숙한 공간일 뿐 만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고, 그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삼은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다. 바다와 관련된 우리 문화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이 건국신화와 역사신화이다. 우리 존재의 근원과 실존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본고는 주로 필자의 논문-1988 「瓊君神話에 대한 構造的 分析」 『韓國思想史學』 2집, 韓國思想史學會 및 저서 1996 『동아시아중해와 고대일본』(청노루), 2003 『한국 해양사』(학연), 2012.1 『윤명철 해양논문 선집』(학연)등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각주 부분에서 빠진 것은 필자의 원문에는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알립니다.

2. 역사에서 신화란 무엇인가?

1) 신화의 정의

일반적으로 신화는 「虛構의 이야기」 「꾸며진 이야기」 또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간의 생활과는 직접 관련이 없이 필요에 의해 무원칙하게 양산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신화는 줄거리 자체의 분석과 그것이 적용되는 문화권 안에서의 생활규범·의식·생산양식의 비교 검토에 의해 그 진면모가 밝혀져 왔다.

신화는 한 집단이 경험하였거나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역사적 사건에서 구성단위를 취하여 그 집단이 심층에 감추고 있는 무의식의 경험과 꿈을 체계화시킨, 합리적이면서 또한 초논리의 세계를 인정하는 종합적인 논리체계인 것이다. 그 논리체계는 고대인이 가진 정신성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각각 개별체로서 분리 독립하여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출발하여 상호 보완하며 조화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Freud의 뒤를 이은 Jung은 “인간의 마음은 개인의 역사를 가질 뿐 아니라 인류문화 최초의 단계로부터 남겨진 인류공통의 경험을 심리적 잠재의식 속에 이어 받는다”고 하였다. 이 같은 古代로부터의 유전물을 원형(原型, Archetype), 혹은 原始心像이라 한다. 그와 같은 심리학적 분석과는 달리 C.L.Straus는 神話的 思考는 문명인이나 미개인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작용의 기본적인 論理體系라고 하였다. 그렇게 볼 때 신화는 共通性和 普遍性을 띄우며 정신의 論理體系로서 구실을 하는 것이다. Eliade는 『Myth and reality』에서 “고대인은 宇宙 및 宇宙의 리듬과 일체감을 갖는다” 한다.

이처럼 신화의 중요성은 신화가 인간행동의 Model을 제공해주고 그럼으로써 생활에 의미와 가치를 주는데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사회의 한 국면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오늘날 신화라든가 전설 등 과거의 의식과 산물이 중요시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생존적 필요로까지 그 비중이 커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고대의 정신성 때문이다.

2) 신화의 특성

◎ 신화는 歷史性和 說話性이 공존하고 있다.

신화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가장 의미깊었던 시간, 인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물의 의식활동에 대한 기록이다. 즉 현존세계의 存在方式을 무언가의 형태로 결정한 사건에 대한 說話이다. 우주의 창조, 인간의 탄생, 나라의 건국, 생활방식의 변경, 자

연에 대한 적응, 그리고 단편적인 생활의 모습과 그것을 영위하던 인간들의 생동 등 다수의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산출된 관념은 이상적 세계관과 우주관을 낳고, 그것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과 작용하면서 역사를 이루어 왔다.

◎ 은유법을 사용하며 상징으로서 사건을 형성한다.

象徴(symbol)은 단일한 매개를 통하여 좀 더 복잡하고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신화 속에서는 言語의 형태로써 세계와 인간의 교통을 이루게 한다. Eliade는 『Image and Symbols』에서 “상징적 사고는… 존재의 가장 깊숙이 숨어 있는 양태를 드러내는 욕구와 기능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간존재와 同體이며 언어나 추론적 이성의 앞에 있다.”고 하였다. 문양·씨족명·Totem 등이 이러한 종류들이다.

은유는 언어에 있어서의 상징이며 인간으로서는 달할 수 없는 형태나 의식 등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논리체계로서 범주와 범주 사이의 간격, 즉 구분을 메꾸어 주는 작용을 하고 있다. 소랑이나 곰 등의 神聖獸를 ‘그분’, ‘山神靈’ 등으로 표현하는 등이 그것이다.

◎ 다섯째, 신화는 祭儀와 밀접한 관련이 이다.

Durkheim은 “인간이 신성한 대상물의 現前에서 어떻게 자신을 完全하게 하는가를 규정하는 行動規約이다,”라고 제의를 정의하였다. 祭儀는 그 소속 집단의 구성원이 필요한 儀式을 고양시키기 위해 그 제의에 바탕이 되는 이념을 구현하면서 행하는 행위로서 주로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집단의 구성원은 祭儀를 통해 집단개념을 형성하며 일체감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공동목적을 확인하는 것이다. 제의가 언어화할 때 신화가 되고 신화가 행동화될 때 제의가 되는 것이라고 할 만큼 신화와 제의의 관련성은 깊다. 신화는 그 이론적 근거로서 제의의 구조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신화와 언어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언어는 문화의 일부로서 인간에 의해 창조되고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일정한 범위에서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유된 상징이므로 사회적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화에 있어서 일정한 의미를 가진 신화소가 人文의 이동에 의해 그 언어가 변형되거나 借辭·借訓을 하는 경우 언어의 정확한 의미 분석은 신화전체의 의미 규명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

3) 신화 연구방법론

첫째, 신화를 고정된 實體로 보아서는 안된다. 현재 전승된 신화는 발생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해 온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존신화에 대한 분석으로서 신화전체에 대한 일정한 결론을 내려서는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

둘째, 신화를 구성하는 비합리적 요소를 종교적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신화 속에서는 현실의 관념을 떠난 비합리적 요소가 많이 발견되는데 특히 인간의 잠재의식 내지 잠재능력이 표출된 현상들이 있다. 예를 들면 降神·入神·超能力·祭儀 등이 그것인데 이 모든 것을 종교현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된다.

셋째, 신화의 구성에 있어서 복합적 요소가 겹쳐 있을 때 임의로 그 중의 한 요소만을 선택하여 神話化해서는 안된다. 한 신화 속에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투영되며 두가지 이상의 구조가 공존하는 예가 많이 있다. 그것은 신화의 형성과정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文化素가 주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3. 해양과 한국신화

바다 가운데 땅덩어리이니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들 때 바다를 건너서 오는 경우가 많다. 대륙과 붙어있는 북방만 빼놓고는 사람이 모이고 나라가 세워질 때는 모두 바다와 관련이 있다. 우리의 건국신화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흔히 알려진 것은 천손강림신화이나 난생신화이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해신화이다.

첫째, 가야의 허황옥 신화이다. 홀연듯 바다를 건너 붉은 빛의 돛과 기를 단 배를 타고 온 여인은 자신을 기다렸던 金首露王과 침전에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본래 阿踰陀國의 공주인데 성은 許씨요, 이름은 黃玉이며 나이는 16세 입니다.--바다를 떠서 --- 이렇게 해서 허황옥은 駕洛國의 시조 김수로왕의 비가 되었다. 이것은 가락국이 해양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는 설화이다. 아유타국이 어디있는지, 또 허황옥은 어디를 거쳐서 들어왔는지 아직 정확히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다를 건너서 온 것이다.

그런가 하면 김수로왕과 세력을 겨루다가 도망가 계림 땅으로 들어가 신라의 왕이 된 昔脫解신화는 항해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그는 왜의 동북방 1 천 여리 밖에 있는 용성국 사람으로서 알로 태어나 귀짝에 떨어져 신라 땅에 도착했다고 되어있다. 삼국사기는 약간 달라 그는 多波那國 태생으로서 알로 태어나 귀짝에 떨어져 바다를 떠다니다가 처음에는 금관국에 도착했다가 다시 신라의 아진포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런 귀짝설화는

흔히 표류설화라고 하는데 아마 항해설화라고 하는 편이 옳을 듯하다. 우연하게 도착하거나 표류의 결과가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갖고 어떤 집단이 조직적으로 들어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해양과 관련된 설화는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 문화 건국과 관련된 항해설화는 대체로 남방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바닷길이 남방길이기 때문이다. 물길은 멀리 인도 남부나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부터 필리핀을 거쳐 대만 등을 거쳐 오키나와로 해서 제주도를 경유하거나 아니면 직접 한반도 남부의 점점히 흩어진 섬들과 바닷가로 상륙한다. 또 동남아에서 올라오거나 티베트 등 중국 내륙에서 양자강을 타고 내려와 황해남부를 건너 흑산도에서 잠시 머물다가 해남 진도 등으로 상륙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계속해서 한반도 남해안을 감싸고 돌다가 북상하여 동해안을 타고 올라와 삼척 강릉 까지 올라와 동해안에서 몸을 푼다. 그러다 보니 남방민속과 신화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다.

한편 신화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延鳥郎과 細鳥女의 이야기가 있다. 연오랑과 세오녀는 신라 제 8 대 阿達羅王 즉위 4년 동해가에 살던 부부로서 가가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일본에서 왕이 되었다고 한다. 『三國遺事』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화는 瓠公이나 昔脫解의 신화가 연대나 인물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역사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실증성이 강한데 반하여 인물의 실존이 분명치 않고 설화적 표현이 더욱 강하다. 또한 前者의 신화들이 한반도로 유입된 과정을 표현한 것임에 반하여, 이 신화는 일본열도로의 진출을 사건발생의 단초로 삼고 있다.

이것은 한일관계의 교섭을 나타내며 그 교섭과정에서 양 지역에 해(日)의 사라짐과 王의 탄생이라는 각각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것은 양 지역간 교섭의 기본형태나 문화적 성격을 암시한다. 더구나 구조나 시기상 거의 비슷한 天日槍 신화의 존재는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그리고 항해수단으로 바위를 설정하고 자연의 힘으로 저절로 갔다는 표현은 첫째, 移動.移住의 합법성, 정당성을 암시하는 측면이 있으며 둘째, 항해가 자연의 섭리 즉 자연현상을 최대한 이용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다. 이 신화는 한반도에 존재했던 정치집단의 항해가능성과 이동의 당위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의 섭리와 역할을 강조하는 신화 및 설화는 한·일 양 지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교섭의 연결고리였던 쓰시마(對馬島)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쓰시마 중부에 위치한 천연의 항구 시다루(志多留)에는 항아리 설화가 있으며 그 바로 옆의 우나즈라(女連)에는 속이 텅빈 배를 타고 한국에서 건너온 여왕의 이야기와 무덤이 있다. 그리고 그 옆 마을인 이나기(伊奈崎)에는 빈상자 설화 등이 전해오고 있다. “먼 옛날 시다루의 해변에 커다란 항아리가 흘러왔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말하기를 ‘나는 加羅國으로부터

왔다. 가라국이 보이는 것으로 갈려고 한다.’ 하자 그 말을 들은 마을사람들이 뒷산 위에 그 항아리를 안치하였던 바 만조때가 되면 항아리에 물이 차고 간조때에는 항아리에 물이 비어졌다”하는 말이 전해온다.

그런데 이 항아리설화는 단순한 표류나 항해를 나타내주는 것만이 아니라 항해의 조건으로서 潮流의 움직임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즉 만조와 간조에 따라 水位가 변하는 항아리라면 그것은 당시대인들에게 있어서 항해에 도움이 되는 항해계기 내지는 그것의 성질을 띤 상징물로 추측이 된다. 이 항아리설화는 양 지역의 바다를 통한 교류관계가 꾸준히 있었으며 그것은 선박발달, 항해술의 발달 이전에도 가능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항해해 온 정착민들에게는 항해계기 자체가 信仰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쓰시마에서 지방설화의 형태로 남아있는 항해신화가 일본역사의 기술 속에서는 천지창조신화, 건국신화로서 역사사실과 역사관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일관계를 나타내는 신화는 주로 일본역사 속에 남아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경우는 파견의 주체일 경우이거나 아니면 전파 자체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일본열도의 경우는 전파의 담당주체인 경우이거나 아니면 사건이 先占定着集團에게 충격을 준 것이므로 중요한 일, 의미깊은 사건이 되어 신화로서 기록, 보존되어 왔다. 그러므로 일본사 속에는 신화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이 풍부하다.

일본신화는 그 첫 장부터 이동과 항해를 상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일본신화의 맨처음은 천지개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거대한 혼돈 가운데에서 먼저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고 그 중간에서 모양이 갈싹(葦芽)같은 신이 나타났다. 그리고 신들이 나타났으며 나라가 만들어졌고 일본열도를 구성하는 8개 섬(大8洲國)이 생겼다. 다시 태양신의 여신인 아마테라스 오오미가미(天照大神)와 남동생 스사노노미코도(素戔鳴尊)가 태어나고 또 여러 신들이 태어났다. 이들 신은 다카마노하라(高天原)에서 권력투쟁을 벌인다. 아마테라스는 여신으로서 청동거울, 곡옥, 목걸이 등 상징물을 갖고 주술적인 힘을 사용하는데 이는 흡사 야마다이국의 여왕인 히미코를 표현한듯한 느낌을 준다.

이 여신은 남동생인 폭풍과 폭력의 신인 스사노노미코도(素戔鳴尊)와 투쟁을 벌이며 많은 고난을 겪는다. 그 후 아마테라스여신(天照大神)의 손자인 니니기노미코도(瓊瓊杵尊)는 삼중신기를 갖고 다카마노하라(高天原)를 떠나 히우가(日向)의 다가치호노다께(高天穗峰)의 쿠시후루(瓊觸峰)에 도착한다. 그 후 니니기노미코도의 후손인 초대 짐무(神武)천황이 B.C 660년에 즉위한다.(스이코 천황 9년은 서기 601년이다.)

이때를 기준으로 1260년을 역산하여 신무의 기원으로 삼았다.) 큐우슈우를 떠나 세토(瀬戸) 내해를 거슬러 올라가 오오사카만으로 들어가 야마도(大和) 지방을 점령한다. 이것은 큐우슈우에 진출한 집단이 다카마노하라로 상징되는 한륙도에서 이주하여 있다가 기반을 잡은 다음 다시 동정하여 야마도 지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편 하늘에서 아마테라스와 경쟁관계에 있던 신라계의 스사노노미코도(素盞鳴尊)와 그 후손들은 이즈모(出雲) 지역에서 지배권을 확립한다. 일본서기의 한 기록에 의하면 스사노노미코도는 다카마노하라에서 쫓겨난 후 출운국에 하강했다고 한다. 또 다른 기록에는 스사노노미코도가 아들 5십맹신(五十猛神)을 데리고 신라국에 내려와 소시머리(曾尸茂利)에 살다가 식토(埴土)로 배(舟)를 만들어 타고 출운의 (파)히川에 있는 도리가미노다께(鳥上峰)에 내려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스사노노미코도는 큰 뱀을 물리치는데, 이것은 철을 다루고 신라계로 여겨지는 스사노노미코도 집단이 그 지역에 있던 토착세력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이즈모에 정착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런데 스사노노미코도를 해로의 신이고, 대한해협에 있어서 제해권을 장악한 海事의 司祭이며, 바다의 지배자로 해석한 견해도 있다. 『日本書紀』 神代編에는 須佐之男命이 埴土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 타고 東으로 건넜다는 기술이 있다. 그런데 埴은 물이 스미는 것을 방지하고 장식의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가 생각한다. 또 한편 식토로 일종의 항아리같은 浮囊을 만들어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 (松枝正根)

한편 『日本書紀』 垂仁天皇 2년 조에는 加羅國의 왕자 都怒我阿羅斯等(쓰누가아라시도)이 穴門(오늘날의 下關)에 도착하여 이즈모(出雲)를 지나 越國(福井縣 敦賀市)에 닿은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고대 항일항해에서 해로의 한 형태를 묘사하고 있다.

또한 3년조에는 신라국의 왕자라는 天日槍이 7개 또는 8개의 보물을 갖고 艇을 탄 때 일본 열도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古事記』에서는 天日(之)矛라는 명칭으로 8가지 보물을 가져왔다고 했으며 그 보물을 명시하고 있다. 珠二遺, 浪振領布, 浪切領布, 風振比禮, 風切比禮, 奧津鏡, 辺津鏡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항해계기 내지 항해에 필요한 도구로 보여지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茂在寅男 『古代日本の航海術』) 이 天日槍 설화는 『三國遺事』에 실린 연오랑과 세오녀의 기사에 대응되어 있다. 양자가 다같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渡海 내지 漂着하였다는 점 이외에도 태양송배, 呪具로서 비단과 천을 사용하는 등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일본서기 崇神紀(65년조)에는 임나국(任那國)이 소나가시치(蘇那曷叱智)를 파견하여 조공해 왔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垂仁紀 2년에는 그 소나가시치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신라인이 길을 막고 임나왕에게 주는 보물을 가로 채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이 지역이 계속해서 신라세력의 진출과 깊은 관계에 있었으며 해상통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을 추측케 한다. 동시에 지역의 연접으로 인하여 가야계 세력의 진출도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제상의 기록은 영일만이나 울산만 등이 일본열도로 진출하는 중요한 항구였음을 알려준다. 제주도의 벽랑국 신화 등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 열거한 신화 외에도 항해와 관련된 신화나 설화 등은 양 지역에 수없이 분포되어 있다. 이 같은 신화들의 존재는 한 지역에서 발행한 조그마한 사건에서부터 양 지역사이에서 벌어졌던 정치집단의 대규모 이동과 관련이 깊은 역사적 사건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신화에서 보여지는 이 같은 접촉은 자연의 섭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연의 섭리는 합법성 획득과 함께 교류에 있어서의 자연적 조건에 대한 간접적 표현임을 나타낸다. 즉 이 신화들은 한·일 양 지역은 접촉이 가능했고 전파의 주제는 한반도이며 대상은 일본열도이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은 자연조건이 만들어준 한·일 교류관계의 기본성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 맺음말

우리민족에게 바다는 이렇게 존재의 근원, 문화의 토대로서 중요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바다는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바닷가를 떠나 들판으로,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다보니 먹을 것을 땅에서만 구하게 되고, 곡식과 산과일을 얻는데 온힘을 쏟게 되었다. 자연히 바다의 깊이 대신 산의 깊이만을 알고, 바다가 주는 動中靜의 메세지보다는 산이 가진 靜中動에 마음을 달래곤 했다. 바다의 폭풍같은 변화 대신 산의 그윽한 변화를 택하고, 바다가 끌어내는 힘의 이동을 잃어버린 채, 들판에만 안주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암전해졌고, 현실에 순응할 줄 알게 되었으며, 그러다보니 민초들은 암전해져 윗사람들이 다스리기 쉬어졌고, 상국은 소국을 길들여 변방을 평화롭게 할 수 있었다.

신화는 지배계급이 없애고 왜곡시킨 진실, 문자가 감추어버린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알려준다. 그래서 오히려 문자나 역사서보다 더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진솔한 태도와 방식으로 신화를 발굴하고 이해하면서 해석을 잘 해나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복원하고, 그 속에 선조들이 숨겨놓은 고귀한 멧세지를 읽어낼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사람다운 사람, 우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 받으면 좋으련만---



GIMHAE NATIONAL MUSEUM



21세기 한일관계와 독도·동해 문제

이 신 철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1. 한일관계의 현주소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던 1945년으로부터 67년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 한 지도 4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0년 한 해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간 사람들이 마침내 500만 명이 넘었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979만 명이었고, 그 중에 중국인이 220여만, 일본인은 무려 330만 명이다. 일본인 관광객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3.7%에 달했다.

일본에서 한류의 위력은 익히 알려진바 그대로다. 일본의 신주쿠와 신오쿠보 사이에는 소위 코리아타운이 만들어졌고, 매일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는 일본인들로 북적이다. 인사동의 호떡장수를 흥내 낸 호떡판매대 앞에는 일본 여성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본의 TV에서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본 드라마에서 한국의 스타들을 만날 수 있다. 덩달아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배우기 열풍이 일어나 유학생들의 일거리가 늘어나, 학비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반면에 한국에도 최근 일본 사케와 음식 바람이 불어서 대학로를 비롯한 강남, 홍대 앞 등지에 일본식 카페나 술집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곳곳에는 배낭여행을 온 한국 젊은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한일관계는 2000년이 넘는 한일 교류의 역사에서 가장 왕성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11월 한국의 한국일보,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사, 중국의 신화통신사 발행의 주간지 료오왕둥팡(瞭望東方)이 공동으로 조사한 한중일 3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일본을 신뢰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21%(2007년의 조사에서는 24.4%), 중국을 신뢰하는 경우가 20%(2007년 26.2%)에 불과했다. 반면에 일본인들은 한국을 신뢰하는 경우가 50%(59%←)에 달했고, 중국은 11%(←24.9%)만이 신뢰한다고 대답했다. 중국인의 경우는 한국을 신뢰하는 비율이 54%(←73.1%)나 되었고, 일본을 신뢰하는 비율은 1% 더 많은 55%(←15.2%)에 이르렀다.

이 수치를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인들이 주변국을 신뢰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변국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은 중국인이었다. 일본은 한국은 높이 신뢰하지만, 중국은 별로 믿지 않았다. 오랜 기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던 한국인들의 심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세계의 초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그것을 경계하는 일본인들의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중국인들은 급성장하는 국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역사적 자신감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같은 조사는 2007년에도 똑 같이 진행되었는데, 중국인들이 일본을 신뢰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3~19%

정도 감소했다. 이러한 요인은 한일 간에는 역사분쟁과 독도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고, 중일 간에는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분쟁과 중국의 급부상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한중간에도 역사분쟁이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 남·북·중·일 4국의 미래전략과 역사문제

2010년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했던 해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였다. 그런데도 위의 조사처럼 역사문제가 한중일 간의 상호인식에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한일 간에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양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한일 국민 모두 독도문제를 꼽았다. 물론 일본은 이 문제를 ‘역사문제’가 아닌 ‘영토문제’로 보고 있지만, 이 문제는 역사(청산)문제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현안이 분명하다. 그것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벌인 러일전쟁의 결과로 독도를 침탈당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한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문화재 환수문제, 야스쿠니 신사문제, 재일조선인·한인 문제, 사할린 억류 동포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BC급 전범문제 등 수없이 많은 역사문제들을 안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들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에 일본에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지지하는 여론은 그다지 높지 않다. 2009년 일본에서 패전 후 최초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한일 양국에서 과거사청산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술이 전면적으로 기술되는 왜곡이 자행되었다. 올 해 4월에는 고등학교 교과서들이 새로운 검증을 통과했는데, 이들 교과서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반영되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유지를 위해 독도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정권 유지를 위한 방편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법적 책임’ 보다는 ‘합법성’과 ‘도덕적 책임’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1995년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총리가 사과를 표명한 이래 일본 총리들이 그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지만, 그것은 법적인 의미가 아닌 도덕적인 의미의 사과에 머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일본 정치인들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서 양국 간의 모든 청구권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상당수도 그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사과와 법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본 국민들 중 상당수도 이미 피로증을 느

끼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면에서 일본 우익정치세력들의 인식이 일반 국민들에게 먹히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쯤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왜 끊임없이 역사문제를 통해 미래전략을 구사하고 있을까? 중국은 왜 느닷없이 동북공정을 제기해 고대사분쟁을 야기하고 있을까?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미래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일까? 역사인식은 국가전략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과 독도 영유권문제와 동해 표기 문제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3. 독도문제란?

한국인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그렇지만 이 땅이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그것은 내가 사는 곳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듯이 독도도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당연한 인식은 학교교육이나 사회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것이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일본 우익세력들이 일본에서도 이 같은 자연스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여오더니, 2012년 올해부터는 일본 중학교 지리과 교과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일본 중학생들이 배우기에 이르렀다. 독도에 관한 기술은 비단 지리뿐만 아니라, 공민, 역사 등의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기술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조만간 일본인들도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여기게 될 터이고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도문제란 한국이 자신의 영토로서 점유하고, 이용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자신들의 고유영토이며, 국제법상으로도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한일 간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국은 역사문제로 일본은 영토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인들은 일본에 의한 강제적인 식민화 과정에서 빼앗긴 영토로 독도를 인식하는 반면, 일본 우익들은 자신들이 먼저 주인 없는 무인도였던 독도를 법적으로 편입했음에도 한국이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였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이 실리고 있다. 독도가 자신들의 영역에 속해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영토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독도의 일반현황과 한일 간의 인식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위치 : 경북 울진군 죽변 동쪽 216.8km, 울릉도에서 동남쪽 87.4km〉

(cf. 오키군도에서 157.5km)

지명 : 우산도(于山島), 가지도(可支島) - 고지도 등에 등장하는 옛지명

독섬 (1882년 울릉도가 재개척 되면서 울릉도 주민들 사이에서 불린 이름, '독'은
돌의 지방 방언)

석도(石島) - 1900년 고종 칙령 41호에서 사용

독도(獨島) - 독섬의 한자식 표기

리앙쿠르(Liancourt) -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국적의 배 이름을 따서 명명.

호넷(Hornet) - 영국식 명명

메넬라이-올리브차(Menalai-Olivutsa) - 러시아

다케시마(竹島) - 1905년 이후 일본이 부르는 이름.

(그 이전에는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츠시마(松島) 등으로 부름.

〈인식 문제 : 독도문제, 역사문제인가, 영토문제인가?〉

- 한국의 주장 : 역사문제 - 조선침략의 첫 신호탄, 독도 강제편입
- 일본의 주장 : 영토문제 - 근대법적 영토 획득의 과정 (무주지 선점론)

〈사실의 전개〉

- 러일전쟁 발발(1904년 2월 8일)
- 일본의 러시아 견제 :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제국이 러시아에게 주고 있던 울릉도 삼림채벌권 환수하게 함.
- 러시아 함대(블라디보스톡) 견제하기 위해 울릉도 서쪽과 남쪽에 감시망루 설치 결정 (9월 1일), 군함 니타카(新高)호 파견.
- 일본은 당초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해군성 수로국장 기모쓰케 가네유키(肝付兼行) 등의 사주를 받고 1904년 9월 29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청원서를 일본정부에 제출. (나카이 요사부로 - 강치잡이 업자, 어업권 청원)
-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는 총리대신 가쓰라 타로(桂太郎)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 편입을 위한 내각 회의 개최 요청.

- 1월 28일 총리대신과 해군대신 등 11명의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독도 편입 결정.
-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縣) 지사,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오키도사(隱岐島司) 소관(所管)으로 고시.

〈고종 칙령 41호(1900년)〉

- 勅令第四一號 (칙령 제41호)
-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件
-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하여 江原道에 附屬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여 官制中에 編入하고 郡等은 五等으로 할事
- 第二條 郡廳位置는 台霞洞(대하동)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를 管轄할 事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였으므로, 현임도감 배계주(裴季周)가 초대군수가 되었으며, 울릉군을 南面과 北面으로 나눔에 따라 독도는 울릉군 남면에 속하게 됨.)

4. 독도 문제의 쟁점

1) 고유영토론

- 2011년 검정 통과 일본 교과서 서술(『공민』, 自由社, 149쪽)

에도시대부터 우리나라가 영유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대나무가 무성한 섬으로 사람은 살 수 없지만 주변은 해류의 영향으로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 에도시대에는 돛토리번의 사람이 막부의 허가를 받아 어업을 행했다.

〈반론〉

독도에는 역사상 '대나무가 무성' 했던 적이 없었다.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현재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교과서에 기술하고 있는 에도 막부는 17세기에 대나무가 무성한 울릉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있다. 에도시대의 역사에 대한 기술은 울릉도에 대한 것을 마치 독도에 대한 것인 양 서술하고 있다. 일본 학계에서조차 독도에 대한 독자적 도해와 어로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일본 측에 남아있는 여러 사료에는 일본 정부가 17세기 이래 19세기 말까지도 울릉도와 독도

를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실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일본의 다케시마는 19세기까지도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1905년, 러일전쟁 기간 중에 군사적 목적으로 강제로 편입하고, 일방적으로 고시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명한 것이다. 일본의 고유영토를 왜 1905년에 다시 편입했다는 모순된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다.

〈일본측 관련 문서〉

- 1696년 도쿠가와(徳川)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渡海禁止) 문서
- 19세기 말(1870년) 메이지(明治)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담서」
- 1877년 3월, 「태정관 지령」 : 태정관(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 외 1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이라고 지시함.

〈한국측 관련 문서〉

- 1906(대한제국 광무 10)
 - 2월 1일 統監府와 통감 휘하의 理事廳이 업무를 개시, 대한제국은 일본 통감의 지배 하에 들어감.
 - 3월 28일(음력 3월 4일) 島根縣 제3부장 神西由太郎과 隱岐島司 東文輔 등이 울도(鬱島)를 방문하여 울도군수 심흥택(鬱島郡守 沈興澤)에게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으므로 시찰차 왔다고 함. 이에 심흥택은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 서리인 춘천군수 이명래(江原道觀察使署理春川郡守 李明來)에게 “本郡所屬 獨島…”로 시작되는 긴급 보고서를 올렸으며, 이명래는 4월 29일 이 내용을 내부와 의정부에 보고함. 이 보고에 대해 내부대신 이지용은 “독도를 일본속지라고 칭하는 것은 전혀 이치가 없는 것이니, 지금 이 보고한 바가 심히 아연할 일”이라 하였고,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은 “獨島가 일본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며,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해 보라”는 지령을 보냄.
 - 9월 24일 울도군(鬱島郡)을 강원도로부터 경상남도로 이속시킴.
-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 부산 동래 사람으로서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친 도일(渡日) 활동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인 것을 일본 막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왜구가 출몰하는 바다를 지키기 위하여 수군(水軍)으로 들어가 능로군(能櫓軍)으로 복무하였으며, 부산의 왜관(倭館)에

자주 출입하여 일본말을 잘하였다고 한다. 안용복이 1693년(숙종 19) 봄 동래어민 40여명과 함께 고기를 잡고자 울릉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일본 어민들과 시비가 벌어졌다. 조선 정부는 15세기 초 왜구의 침탈로부터 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릉도 주민들을 육지로 데려오는 쇄환정책을 쓰고 있었다. 울릉도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틈을 타서 일본 어부들이 17세기 초부터 울릉도를 드나들면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다. 일본인과 충돌한 안용복은 박어둔(朴於屯)과 함께 일본으로 잡혀갔다. 이때 호키주(伯耆州, 지금의 돗토리현) 태수와 에도 막부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하고 막부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서계(書契)를 받았다. 하지만 부산으로 돌아오던 중 나가사키(長崎)에서 대마도주에게 그 서계를 빼앗겼다. 이미 17세기 초부터 울릉도를 차지하려고 했던 대마도주는 안용복을 송환하는 동시에 조선 정부에 서계를 보내어 조선의 어민이 일본 영토인 울릉도에서 고기 잡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하였다. 1696년 봄, 안용복은 다시 10여 명의 사람들과 울릉도에 가서 마침 어로 작업 중이었던 일본어선을 발견하고 일본까지 추격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한 것에 항의하고 두 섬이 조선의 땅임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그런데 귀국 후, 나라의 허락 없이 국제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조정에 압송되어 사형까지 논의되었으나 영의정 유상운과 전직 영의정 남구만 등의 간곡한 만류로 사형에서 감하여 유배를 가게 되었다.

하지만 안용복의 활동을 계기로 일본의 에도 막부는 울릉도 도해(渡海)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일본 어민들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17세기 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시킨 안용복의 활동은 1870년과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없는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재확인케 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http://www.dokdohistory.com/history_hole/main.asp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사이버 독도 역사관)

2) 국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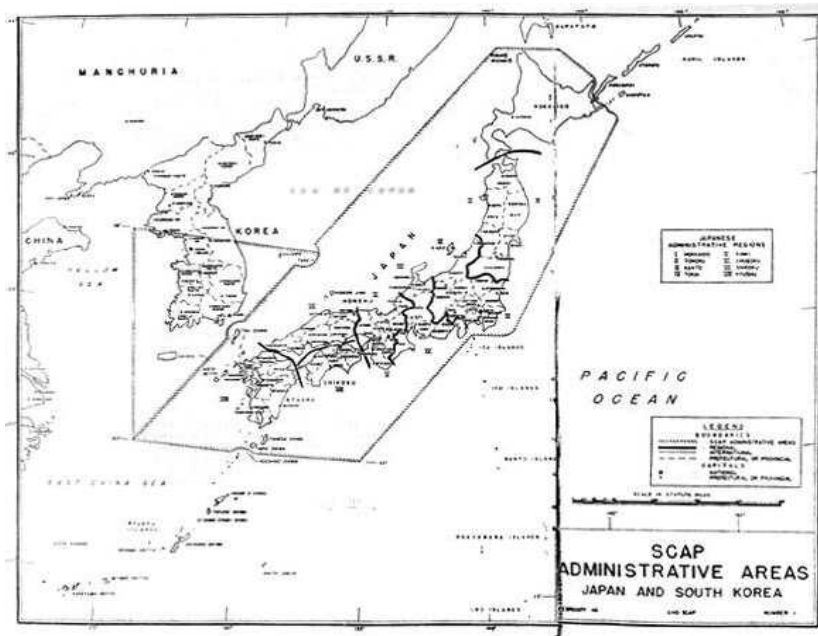
- 2011년 검정 통과 일본 교과서 서술(『공민』, 自由社, 149쪽)

1905년,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로서 시마네현에 편입, 이후 실효지배를 해왔다. 전 후에는 일본영토를 확정된 국제법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 확인되었다.

〈반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독도 귀속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서술도 포함되어 있지 않

음에도 마치 일본의 영유권을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기술도 사실과 다르다. 전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국총사령부는 훈령(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적, 행정적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은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독도 문제와 동해표기문제는 어떻게 다를까?

5. 해결 방안 모색

□ 평화 공동체의 모색

-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는 과연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 한일 간 문제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독도, 동해 표기 문제는 북한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해 나갈 수 있을까?
- 독도문제는 일본의 대러시아, 대중국 영토분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
- 장기적인 동아시아 미래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 동북아 균형자론
- 한미일동맹과 동아시아공동체론의 모순

□ 평화란 무엇인가?

- 어떤 상태가 평화인가?
- 어떠한 수준의 평화를 목표로 삼을 것인가?

□ 누가 주체인가

- 평화는 누가 만들어 가는가?

□ 작은 가능성들

- 일본의 평화헌법
- 일본의 근린제국조항
- 한국의 인권과 평화주의
- 중국의 인권, 민주의식 성장
- 그 밖의 가능성들……

〈참고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첫째, 일본이 여순을 3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군항으로 만들고, 3국이 이곳에 대표를 파견하여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해야 한다. 동양평화회의의 회원에게서 회비를 모금하여 재정에 충당하게 하면 수억 명의 3국 인민이 가입할 것이다.

둘째, 원활한 금융을 위해 3국공동의 은행을 설립하고, 공용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셋째, 3국 공동의 군단을 편성하고 이들에게 2개국 이상의 어학을 가르치면 서로 우방으로 생각하게 되고 형제의 관념도 높아질 것이다.

넷째, 한·청 두 나라는 일본의 지도 아래 상공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청·일 세나라 황제가 로마 교황을 방문하여 협력을 맹세하고 왕관을 받는다면 세계 민중의 신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안중근이 1910년 2월 옥중에서 고등법원장에게 설명한 동양평화를 위한 5개 조항이다. 여기에는 당시에 아무도 제안하지 않았던 동양평화회의, 공동의 군대, 공용 화폐 등의 주장이 들어있다. 안중근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종교적 평화의식의 발로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아시아연대론의 또 다른 이름인 동양평화론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편향된 일면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안중근의 구상이 종교

적인 측면을 뛰어넘은 현실 정치적 대안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안중근이 일본의 동양평화론을 적극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1880년대부터 문명개화론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삼국제후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 동양평화론을 앞세우고 아시아연대론이나 대아시아주의를 주장했지만, 그 속에는 조선의 합병이라는 독소를 품고 있었음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역사과정 속에서도 그러한 점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대한제국에서 폄하하던 삼국제후론은 일본의 중심적인 역할을 인정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독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토히로부미의 동양평화론과는 달랐다. 안중근은 동양평화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반납하고, 청에게 여순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향후의 평화체제를 유지할 평화회의의 운영을 3국 민중의 자발적인 재정후원에 기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안중근의 주장은 당시에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했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이 고려된 주장이었다. 예를 들면, 서양 백인들의 침략에 황인종이 단결해서 막아내야만 다든가, 로마 교황에게 왕관을 받자는 주장과 같은 것들은 아시아연대론의 기세를 일부 반영하고, 서양 제국의 힘에 대한 타협책을 모색한 것이었다. 그 덕분에 그의 주장은 인종주의적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한 로마 교황의 권위를 절대시함으로써 종교적 편향을 보이기도 하고, 유럽정치의 현실을 간파하지 못한 측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안중근의 주장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의 동아시아 인식, 또는 동아시아 공동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서양과 일본의 침략에서 벗어나 보려는 약소국의 반침략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그의 주장은 약한 자의 생존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전제로 한 서구식 평화모델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주장은 서구의 평화모델의 동아시아적 변용이기도 했지만, 반제(반서양)적 성격과 시민적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또 다른 모델이었다. 안중근의 주장이 요즈음 새삼 주목받는 것은 그러한 성격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안중근의 주장은 일제의 조선 강제병합이라는 역사를 거치며 현실 정치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 한인의 동아시아 인식은 순응과 저항의 과정에서 크게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 하나는 일제의 대동아공영권과 5족협화론 등에 기생하며 생존을 모색한 자들의 대아시아주의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극복하려는 진영에서 생겨난 반일동맹적 성격의 동아시아 인식이다. 후자의 경우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주로 중국과의 연대로 나타났지만, 사회주의자들의 경우 좀 더 분명한 연대의식을 추구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제노선과 통일전선론에 기반하여 공동의 전선을 형성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그것은 코민테른의 1국1당주의와 맞물려 한중일 혁명운동의 연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개항기 한인의 동아시아 인식은 일본의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형성된 지역인식과 논리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적용한 형태라는 평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항일운동 시기의 동아시아 인식은 일본의 피침략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동아시아인의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동아시아적인 지역 인식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것이 공동체 의식으로 확장되었다고 하기는 힘들다. 당시 한인들의 1차적 과제는 민족의 형성과 국민국가 수립에 있었기 때문이다.



GIMHAE NATIONAL MUSEUM



세계 해전사와 임진왜란

이 상 훈 / 해군사관학교박물관 기획연구실장

지구의 4분의 3은 바다다. 인류는 당연히 이 지구상에서 활동하면서부터 바다를 이용하고, 저항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자취는 신화의 세계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특히 “지중해(地中海)”라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대륙의 앞마당에 바다를 품고 있었던 유럽은 그러한 경향이 더욱 컸던 것 같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말할 것도 없이 노아의 방주, 해저의 아틀란티스 대륙, 오딧세이아 등등의 신화는 물론이고 중세 전설이나 근대의 고전소설에 이르기까지 바다를 배경으로 한 많은 작품들이 회자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민족의 흥망사’가 아니라 ‘문명의 발전과 교류의 역사’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그 촉매 역할을 해 온 것은 해양교통의 기술과 발달이었다. 고대로부터 역사를 살펴보면 우수한 문명은 언제나 해양력(sea power)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유지되어 왔다. 인간이 처음으로 선박을 수송수단으로 사용했을 때부터 바다는 교역과 문명 전파의 통로로서 이용되었지만 동시에 전투의 장으로도 사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바다는 평시에는 교역의 장소이지만 전시에는 전장(戰場 : battle fields)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다. 지중해(Mediterranean Sea)는 선사시대부터 유럽, 북아프리카 및 아시아 3대륙을 연결하는 교역과 문명 전파의 활동영역인 동시에 해적 행위와 해전의 무대였다. 아테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해양력을 바탕으로 동지중해의 무역을 독점하고 주위에 식민지를 경영하며 번영을 누렸다. 특히 그리스는 살라미스해전(Battle of Salamis, 480 B.C.)에서 승리함으로써 페르시아의 지중해 진출을 좌절시켰으며, 찬란한 그리스문명 특히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꽃피웠다. 또한 고대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포에니전쟁(Punic War, 264~146 B.C.)에서 승리함으로써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였으며, 이후 지중해는 3대륙을 연결하는 로마의 내해로서 로마제국이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었다.

또한 15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페르시아, 인도 중국과 같은 세계의 다른 위대한 문명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던 스페인, 네델란드,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범선을 바탕으로 신항로 개척과 신대륙 발견 이후 해양력을 바탕으로 신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들 서유럽 국가들은 과학혁명을 주도하면서 추진기시대를 열었고 현재까지 정치·경제·문화 그리고 군사적으로 사실상 세계의 역사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들 서유럽 국가들은 해양패권을 둘러싸고 장기간의 치열한 투쟁을 벌였던 것이다. 특히 영국은 강력한 해양력을 바탕으로 19세기에 ‘영국 지배하의 평화’(Pax Britannica)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바다를 중심으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한 인상적인 전투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계사상에서 중요해전으로 4개를 꼽는다고 한다. B.C. 480년 그리스의 데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 제독의 살라미스(Salamis)해전, 1588년 영국 하워드(Howard) 제독의 칼

레(Calais) 해전, 1592년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한산대첩(閑山大捷), 1805년 영국 넬슨(Nelson) 제독의 트라팔가(Trapalgar) 해전 이다. 사실 이 해전들을 4대 해전으로 규정하는 기준이나 최초로 주장했다고 하는 학자나 근거는 모호하고,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인식되고 있는 설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산대첩을 제외한 나머지 해전들이 지중해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럽중심적이고 자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이런 평가를 받는 해전은 나름대로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시대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체로 서양사의 시대구분에 따라 고대, 중세, 근대의 삼분법을 사용하고 여기에 동시대인 현대를 삽입시킨 4시대 구분이 보편적이다. 그러면 바다, 해군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탈리아 해군대학 교수를 지냈던 피오라반조(Giuseppe Fioravanzo) 제독은 선박의 동력 발전과 해군 전술에 따라 노선시대, 범선시대, 추진기 시대, 해군항공시대로 구분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서양의 주요 해전 몇 개와 한산대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살라미스해전 Battle of Salamis

〈해전의 배경〉

고대 그리스인은 기원전 8세기 이전부터 이미 도시국가(Polis)를 건설하고 페니키아인(Phoenician)으로부터 조선훈과 항해술을 배워 해양활동을 하였으며, 기원전 5세기에는 에게해(Aegean Sea)와 흑해에서 페니키아와 카르타고(Carthage) 세력을 축출하고 동부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독점하였다. 또한 그리스는 소아시아 연안, 트라키아(Thrace), 시실리와 남부 이탈리아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무역 거점을 확보하였다.

한편, 기원전 530년경에 페르시아가 현재의 중동 일대를 통일하고 강대한 제국을 건설하였다. 페르시아의 군주 다리우스 1세(Darius I)는 이들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3회에 걸친 그리스 원정을 전개했다. 기원전 481년에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인 크세르세스(Xerxes)가 18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제3차 원정에 나섰다. 이때 페르시아군은 헬레스폰트(Hellespont)에 2개의 부교를 설치하여 1주일 동안 해협을 건너간 다음 트라키아, 마케도니아를 거쳐 그리스를 침공하였다. 한편,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송선과 함께 전투함 1,300척으로 구성된 페르시아 함대가 에게해 북부 연안을 따라 출동하였다.

아테네 동맹은 혼란 속에서 강력한 함대를 건설하여 페르시아군의 침략에 대항하자는 테마스토클레스(Themistocles)의 주장이 시민투표 결과 번어들어져 200척에 이르는 3단노선

(trireme) 함대를 건설하였다. 한편, 그리스 남부의 펠로폰네소스(Peloponnesos) 국가 중 스파르타는 아테네 함대의 능력을 믿고 테미스토클레스의 전략을 지지하였다. 그리스 연합 함대의 세력 중에서 아테네의 전선이 반 이상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테미스토클레스는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합함대의 지휘권을 스파르타의 에우리비아데스(Eurybiades)에게 맡겼다.

<해전의 경과>

페르시아 원정군은 순조롭게 진격을 계속하여 기원전 480년 9월 아테네마저 점령하고 더욱 기세를 올렸다. 또 그리스 연합함대가 아르테미시움에 집결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페르시아 함대는 200척의 전선을 에우보이아 섬 남쪽으로 보내 그리스 함대의 퇴로를 차단한 후 공격하려는 작전계획을 세웠다. 그리스 함대는 이러한 정보를 알고 페르시아 함대를 선제공격 하였으나 밤이 되어 각각 퇴각하였다. 그날 밤에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 에우보이아 남쪽으로 향해하던 페르시아의 전선 200척이 거의 좌초당하여 대파당하는 불운을 겪었다. 제2일과 제3일(육상에서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던 날)에도 해전이 벌어졌으나 승패를 내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이때 육상전투 결과에 따라 그리스 연합함대는 아르테미시움을 떠나 아테네에 인접한 살라미스 섬(Salamis Island)으로 이동하였다.

아테네가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펠로폰네소스의 해군 지휘관들은 후퇴하여 방어 선을 구축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나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를 적극 반대하였다. 결국 그리스 연합함대의 지휘관 에우리비아데스는 아테네 함대 없이는 페르시아 함대에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테미스토클레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살라미스에 머물러 해상결전을 벌이는 안을 채택하였다.



| 살라미스 해전도

페르시아 함대 역시 지상군의 진격에 맞추어 항진하여 살라미스에서 동쪽으로 8마일 떨어진 팔레론(Phaleron)만에 집결하였다. 크세르세스는 함대를 방문하여 친히 해전을 지켜보기 위해 준비하였다.

한편, 그리스 함대는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특히 펠로폰네소스 부대의 동요가 심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테미스토클레스는 전투가 지연될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부하를 거짓 탈출시켜 페르시아 진영에 가 그리스군이 내부 분열로 인해 위기에 있으므로 지체없이 공격하면 아테네군이 협조하겠다는 거짓 정보를 전달하였다. 크세르세스는 이러한 정보를 믿고 한밤중에 은밀하게 전투를 준비하였다. 우선 그의 함대 가운데 이집트 함대로 하여금 살라미스의 서쪽 해로를 봉쇄하게 하고, 주력부대인 500척 이상의 페르시아 함대에서는 전투 진형을 갖추고 동쪽 해로로 진출하게 하였다. 또한 병력을 인근 섬에 상륙시켜 해전이 일어나 난파선과 병사들이 표류할 경우 아군을 구조하고 적을 격멸하도록 조치하였다. 페르시아 함대는 에우보이아 섬 근해에서 당한 해난과 아르테미시움 해전에서 입은 손실 등으로 400척이 피해를 입었으나 여전히 800척이 남아 있었으며, 그리스 연합함대도 약간의 손실로 인해 300여 척이 남아 있었다. 페르시아 함대는 이집트 함대가 서쪽 수로를 봉쇄하기 위하여 살라미스 섬 남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수가 줄었으나 그리스 연합함대에 비하면 두 배 정도 우세하였다.

9월 23일, 날이 밝아오자 해로의 동쪽 입구에 있었던 페르시아 전선들이 진형을 갖추고 해로에 진입하였다. 나팔소리와 북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양측의 전선들이 횡열진을 형성하고 속력을 내어 거리를 좁혀들어 갔다.

전술상의 이점은 그리스 연합함대에 있었다. 그리스 함대는 질서정연하게 전투진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필사적인 각오로 전투에 임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페르시아 함대는 수로가 좁기 때문에 계획된 횡열진으로 전선을 투입할 수가 없었고, 프시탈레이아(Psytalea) 섬 때문에 진형이 흩어지게 되었다.

또한, 그리스 함대가 기대했던 서풍이 불어와 해로에 파도를 일게 하여 페르시아 전선의 기동을 어렵게 하였다. 해협의 폭은 좁은 곳이 1마일, 넓은 곳이 2마일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이 겨우 100척으로 전투정면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페르시아 함대가 그리스 함대에 비하여 수적으로 두 배나 우세하였지만, 전방의 전선 척수는 양측이 비슷한 결과가 되었다. 이와 같이 좁은 해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리스 함대의 전선들은 용감하게 돌진하여 페르시아의 전선을 향해 충각해 들어갔다. 그리스 함대의 우익이 무질서해진 페르시아 함대의 좌익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페르시아 함대의 좌익은 한창 공격을 받고 있는 그들의 우익 쪽으로 밀리어 혼란을 가중시켰다. 페르시아 전선들은 파손된 전선과 바다에 빠진 병사들 사이로 후퇴함에 따라 후위의 전선과 충돌하는 혼란을 겪게 되었다. 백병전에서도 그리스 전사들이 페르시아군에 비하여 중무장을 하였기 때문에 유리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세는 더욱 페르시아 함대에게 불리해졌다.

7시간 이상 동안 계속된 이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대는 그 세력 가운데 절반이 격침되거나 나포되었으며 많은 지휘관을 잃고 대패하였다. 해가 질 무렵에 남은 페르시아 함대는 팔레론만으로 퇴각하였다. 한편, 섬에 상륙했던 페르시아군은 테미스토클레스의 정적이었던 아리스테이데스가 지휘하던 그리스의 지상군에 의해 전멸당하였다. 이리하여 살라미스 해전의 막이 내렸는데, 이 해전에서 그리스 함대는 단지 40척을 상실하였을 뿐이다.

살라미스 해전의 결과 크게 낙담한 크세르세스는 그리스 원정을 중단하고 서둘러 헬레스폰트로 철수하였다. 그리스 북부를 평정하기 위하여 그의 삼촌인 마르도니오스(Mardonius) 휘하에 약 10만 명의 원정군을 남겨두었으나, 원정군도 그 다음 해 여름에 플라타이아(Plataea) 전투에서 그리스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해전의 의의〉

그리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전환점은 살라미스 해전이였다. 살라미스 해전 이후에 페르시아는 감히 그리스를 다시 침공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살라미스 해전은 위기에 처했던 그리스의 운명을 구한 해전이였으며, 페르시아의 유럽 침공을 좌절시키고 유럽의 문명을 지킨 역사적 해전이였다. 살라미스 해전에 참가한 그리스 함대 가운데 압도적인 세력을 갖고 있던 아테네가 해양의 새로운 패자가 되었다. 아테네는 해양력을 바탕으로 그 세력을 소아시아까지 떨쳤으며,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를 이룩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 문명의 발전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악티움 해전 Battle of Actium

〈해전의 배경〉

기원전 36년, 케사르(Julius Caesar)의 후계자 옥타비우스의 오랜 친구인 아그리파(Marcus Agrippa)는 시실리와 이탈리아 본토 사이의 나울로추스(Naulochus)에서 폼페이 함대를 격파하였다. 이 나울로추스 해전에서 양측이 각각 300척의 전선을 동원하였는데, 아그리파 함대는 포에니 전쟁 당시보다 크고 견고한 전선을 건조하였는데, 이 전선들은 투석기(catapult)를 장치하고 적의 충각(ramming)으로부터 선체를 방호하기 위하여 흡수선 부근을 가로 빔으로 보강한 반면에 폼페이 함대는 속력과 기동면에서 우세하였다. 이 해전에서 충각전술과 불화살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아그리파는 갈고리 투사기를 현측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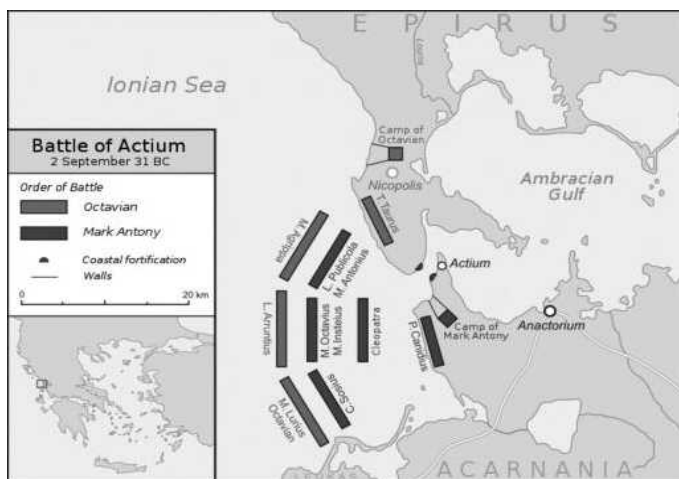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원전 32년에 안토니가 옥타비우스의 누이 동생인 옥타비아(Octavia)와 이혼하기 전에 그리스계의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Cleopatra)와 결혼하자 로마의 두 지배자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었다. 결국 기원전 32년에 서부 로마를 지배하던 옥타비우스와 동부 로마를 지배하던 안토니 사이에 권력투쟁의 내전이 벌어졌다. 이 내전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악티움 해전이었다.

〈해전의 경과〉

클레오파트라로부터 전비를 지원받은 안토니는 기원전 32년 가을에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이동하였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통치하기 위해 안토니의 지원이 필요하였다. 안토니는 30개 군단 15만명과 함선 500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의 군대는 충성심과 전투의지가 부족하였다. 안토니는 암브라키아 만(Gulf of Ambracia)에 함대를 정박시키고는 그리스에서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머물면서 향락에 빠져 반년이라는 세월을 헛되이 보냈으며, 이로 인해 그의 많은 부하들이 그의 진영을 떠났다.

기원전 31년 봄에 옥타비우스는 준비를 마치고 이탈리아 남부의 부룬디시움(Brundisium)과 타렌툼(Tarentum)에 군대를 집결시켜 공세작전을 개시하였다. 안토니 함대가 해상보급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그리파는 해상봉쇄부터 시작하였다. 속력이 빠른 아그리파의 전선이 수송선을 나포하자 안토니 함대는 보급의 부족을 겪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옥타비우스는 악티움에 지상군을 전진배치하고 지상전투에서 승부를 결정지으려는 안토니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육지에서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악티움에 주둔한 안토니 군대는 기아와 질병 그리고 탈출로 인해 세력이 너무나 약화되어



| 악티움 해전도

지상전을 전개할 입장이 되지 못했다. 더욱이 안토니 진영에서는 로마군을 중심으로 한 주전파와 이집트군 중심의 비주전파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였다. 안토니의 마지막 희망은 함대를 이끌고 탈출하여 이집트에서 전쟁준비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클레오파트라도 지지하였으며, 이집트의 함선

66척이 안토니 함대에 가세하였다. 안토니는 약 300척의 함선에 2만 명의 병력을 승선시키고 승조원이 없는 전선을 불태워버렸다. 한편 250척의 옥타비우스 함대에는 3만 명의 병력이 승선하였다.

9월 2일 오전에 안토니는 그의 함대를 3개 전대로 편성하여 전투진형을 갖추었다. 우익전대는 겔리우스(Gellius) 지휘 아래 북쪽 해안 근처에 위치하였으며, 주스티우스(Justijus)가 중앙전대를 지휘하였으며, 코엘리우스(Coelius)가 남쪽 해안의 좌익전대를 지휘하였다. 이와 대결하는 옥타비우스의 함대에서는 아그리파가 중앙전대, 루리우스(Lurius)가 남쪽의 우익전대 그리고 아룬티우스(Arruntius)가 북쪽의 좌익전대를 지휘하였다.

그날 정오 경에 북동풍이 불자 안토니는 이를 이용하여 포위망 돌파를 시도하였다. 전투 시에는 돛대와 돛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날 안토니는 전투보다는 탈출하기 위하여 돛대와 돛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오후 1시 경에 클레오파트라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전장을 탈출하였다. 안토니도 몇 척의 갤리선과 함께 가까스로 클레오파트라를 뒤따라 탈출하였다. 이때부터 안토니의 잔여 함대는 전의를 상실하고 패배하기 시작하였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안토니 함대의 일부가 악티움으로 도주하고 대부분은 불타거나 나포되었다.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가 패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중해 동부지역의 여러 지방이 옥타비우스에게 항복하였다. 그 다음 해 7월에 옥타비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를 추격하여 이집트에 상륙하자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는 자살하였다.

〈해전의 의의 및 승패 요인〉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함대가 결정적으로 패배함에 따라 로마의 권력은 옥타비우스 1인에게 돌아갔으며, 옥타비우스는 기원전 27년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악티움 해전은 로마가 공화제에서 제국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던 역사적인 해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후 약 4세기 동안 로마가 전 지중해를 지배하였는데, 로마의 지중해 지배는 로마가 광대한 제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요인이었던 것이다.

레판토 해전 Battle of Lepanto

〈해전의 배경〉

328년에 콘스탄틴 대제(Constantin the Great)가 동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를 로마로부터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 : 현재의 Istanbul)로 옮겼다. 또 363년에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리되었으며, 서로마 제국은 이어 여러 국가로 분열되었다. 반면에 동로마 제국(비잔틴 제국)은 수세기 동안 강력한 국가체제를 유지하였으며, 7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세력의 침공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는 방파제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점차 동로마 제국이 쇠퇴함에 따라 소아시아 지역과 동부 지중해 연안(발칸반도 지역)이 이슬람 세력의 수중에 들어갔고,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오토만 터키 제국에 의해 함락되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였다.

이후 오토만 터키 제국이 지중해로 진출하려고 하자 로마 교황을 비롯한 스페인, 베니스 및 제노아 등 기독교 세력이 터키에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 함대를 편성하였다. 결국 1571년 10월 7일 그리스의 코린트 만 입구에서 양측의 대규모 함대가 격돌한 레판토 해전이 전개되었는데, 이 해전은 노선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역사적인 대해전이었다.

<해전의 경과>

기독교연맹(Holy League)의 후원 아래 교황, 스페인, 베니스, 사보이, 제노아, 몰타, 나폴리 그리고 여러 이탈리아의 귀족들이 각각 함선과 인원을 제공하였다. 스페인 왕 필립 2세(Philip II)의 이복형제인 돈 환(John of Austria)이 지휘하는 기독교연맹의 세력은 갤리선 209척, 갈래아스선(galleass) 6척, 수송선 30척으로 구성되었으며, 보병 28,000명, 선원 12,920명, 노수 43,500명 그리고 대포 1,815문이 동원되었다.

이에 대항하는 터키 함대는 갤리선 229척, 소형 함선 60척이 알리 파샤(Ali Pasha)의 지휘 아래 집결하였다. 터키 함대의 병력은 병사 34,000명, 선원 13,000명 및 노수 41,000명으로 기독교측보다 약간 우세하였으나 대포는 758문에 불과하였다. 터키 함대는 수적으로 우세할 뿐만 아니라 33년 전에 프레베사 해전(Battle of Prevesa, 1538)에서 기독교 함대를 격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두 함대가 조우한 곳이 코린트만 입구의 레판토 근해였다.

돈 환은 함대의 주력을 황열진으로 전개하고 깃발의 색에 따라 지정된 3개 전대를 편성하였다. 중앙에는 61척의 갤리선으로 구성된 청색전대가 배치되었으며, 그 우측에는 제노아의 도리아(Giannandrea Doria) 지휘 아래 53척의 강력한 갤리선으로 구성된 녹색전대가 전개되었다. 좌익에는 바르바리고(Agostino Barbarigo)가 지휘하는 황색전대가 전개되었는데, 이 전대는 갤리선 55척으로 구성되었다. 각 전대의 갤리선은 간신히 노를 저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밀집된 진형을 유지하였다. 1마일 후방에는 스페인의 산타크루즈(Marquis of Santa Cruz) 지휘 아래 30척의 갤리선으로 구성된 백색전대가 후위전대를 형성하였다. 터키 함대도 역시 3개 전대와 1개 예비대로 편성되었다. 사령관인 알리 파샤가 지휘한 중앙전

대에는 94척의 갤리선이 배치되었다. 시로코(Mahomet Srocco)가 지휘한 우익전대는 60척의 갤리선으로 구성되었다. 좌익전대는 알제리아의 왕 울루치 알리(Uluch Ali)의 지휘 아래 65척의 갤리선이 배치되었다. 알리 파샤 전대의 후방에 배치된 예비대는 드라구트(Amurat Dragut)의 지휘아래 10척의 갤리선과 60척의 소형 함선으로 구성되었다.

10월 7일 오전에 전투준비를 갖춘 양측 함대는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진형을 갖추었는데, 기독교 함대는 서쪽, 터키 함대는 동쪽에 위치하여 대치하였다. 기독교 함대는 적이 포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좌익을 연안 가까이에 배치해 두었다. 처음에 터키 함대에게 유리한 남동풍이 불었다. 수적으로 우세하여 승리를 확신한 알리 파샤는 기독교 함대의 중앙을 공격하기로 결심하였으며, 동시에 시로코 전대의 일부로 기독교 중앙전대의 좌익을 포위하고자 하였다. 터키 함대는 모두 돛을 이용하여 기독교 함대를 향해 전진하였다. 기독교측 함선들도 노를 저어 서서히 접근하였다. 갑자기 남동풍이 멈추자 돛으로 더 이상 바람을 이용할 수 없게 된 터키 함선들은 속력이 느려졌고 방향을 잃어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정오가 가까워 오자 기독교 함대에게 유리한 서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열을 확인한 돈 환은 병사들을 격려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본격적인 전투는 정오경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알리 파샤가 원거리에서 돈 환의 기함을 향해 포격을 개시하면서 도전하였다. 돈 환도 즉시 응전하여 이교도를 향해 그의 선수포를 발사하였다. 이때 대치하고 있던 각 전대는 서로 상대를 향해 접근하였다. 이제 돛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터키 함선들이 빠르게 노를 저어 접근하였는데, 터키 함선들은 앞에 가로막고 있는 두우도의 거대하고 강력한 갈래아스선을 보고 진형을 변경하여 갈래아스선과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래아스선으로부터 가공할 포격을 받아 손상을 입기 시작하였으며, 곧 기독교측 갤리선과 충돌하였다. 이제 전술적 기동이 소용없게 되었으며, 해상전투는 지상전투를 방불하게 하는 혼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전투는 갤리선 건현판(gunwale)의 선수 발사대 그리고 통로를 따라 발사되는 화살, 화승총, 칼 등의 무기가 난무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매우 치열한 백병전이 기함 사이에 전개되었다. 알리 파샤의 기함이 돈 환의 기함과 접전하였으며, 기독교 함대와 터키 함대의 여러 갤리선이 그들의 주장을 응원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였다. 격렬한 전투가 있던 후 알리 파샤의 기함이 나포되고 이슬람교의 녹색기를 끌어내린 그 자리에 십자기가 게양되었다. 터키 함대는 알리 파샤가 전사하자 함대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중앙전대의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베니스의 바르바리고가 지휘하는 황색전대는 터키 함대의 우익전대와 격렬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시로코 전대가 자신을 포위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간파한 바르바리고는 오히려 예하 갤리선을 대동하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였다. 바르바리고의 공격이 너무나 격렬하였기

때문에 터키 함선들은 육지 쪽으로 도주하였다. 시로코는 혼전에 가담하지 않았던 38척의 갤리선과 함께 바르바리고의 기함을 나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두 번 다 격퇴당하고 말았다. 제3차 공격 때 화살이 바르바리고의 눈을 명중하였다. 지휘관의 치명상으로 인해 기함의 병사들이 구심점을 잃었으나, 다른 베니스의 동료 갤리선들이 전력을 기울여 마침내 시로코의 갤리선들을 굴복시켰다.

우익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황이 기독교 함대에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우익인 도리아 전대는 이상한 기동을 전개한 결과 전투 대열에서 멀리 이탈해 있었으며, 이 공간으로 인해 울루치 알리가 기독교 중앙전대를 협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후위전대의 산타 크루즈가 개입하여 중앙전대는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익전대에서도 기독교 함대의 용맹성이 유감 없이 발휘되었는데, 몰타의 기함을 포함한 이탈리아의 갤리선 17척이 위치를 고수하라는 도리아의 명령에 불복하고 울루치 알리 전대의 퇴각을 차단하려고 기도하였다. 우익전대의 전투에서 기독교측은 1천명의 인원과 12척의 갤리선을 잃었으나, 25척의 터키 갤리선들에 심한 손상을 주고 이들을 나포하였다.

저녁까지 계속된 이 해전은 기독교 함대의 완승으로 끝났다. 알리 파샤의 갤리선 229척 가운데 8척이 소실 또는 침몰하였으며, 117척이 나포되었다. 60척의 소형 함선 가운데 27척이 침몰하였고 13척이 나포되었다. 울루치 알리를 제외하고 알리 파샤를 비롯한 모든 터키 지휘관들이 병사와 선원 약 40,000명과 함께 전사하였다. 그리고 약 8,000명이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터키 함선에서 노수로서 쇠사슬에 묶여 있던 약 10,000명의 기독교인 포로가 자유를 찾게 되었다. 한편 기독교 함대는 용맹한 지휘관인 바르바리고를 포함하여 7,656명이 전사하고 7,784명이 부상을 당했다.



| 레판토 해전도

〈해전의 의의〉

레판토 해전은 터키 세력의 지중해 진출을 좌절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전은 곧 기독교연맹이 와해됨으로써 제해권을 확장하거나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으로는 전략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참가한 세력의 규모에 있어서도 매우 감명적이었던 이 레판토 해전은 함포가 사용되었지만, 본격적인 기동전투라기보다는 충각전투였으며 백병전 형태로 전개되었다. 구조가 가볍고 노에 의해서 추진되던 노선은 포의 발달과 더불어 이제 보다 대형이며 무거운 강력한 범선으로 대체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레판토 해전은 노선시대의 마지막 해전을 의미하였다.

아르마다의 몰락

〈전쟁의 배경 및 경과〉

포르투갈과 함께 신항로 개척과 신대륙 발견에 앞장섰던 스페인은 유럽의 다른 국가보다 일찍 신대륙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많은 부를 획득하여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특히 필립 2세(Philip II, 재위 1556~1598) 시대에 스페인은 네덜란드, 밀라노, 나폴리, 시실리 등을 영유하고 신대륙에서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등의 식민지와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을 식민지로 두고 국위를 떨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스페인은 해외 식민지를 유지하고 금과 은을 수송하는 상선을 보호하며 지중해에서 터키와 경쟁하기 위하여 무적함대(Invincible Armada)를 건설하였다.

이때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재위 1558~1603)는 스페인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자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네덜란드 반란군에게 정치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영국의 사략선(privateer)이 스페인의 해상교통로를 교란하도록 하였다.

영국·스페인 전쟁(1567~1604) 기간은 해전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세계일주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적의 함선을 격침할 수 있는 중포를 탑재한 범선이 처음으로 출현하여 해전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스페인에 대하여 공세적인 해양전략을 추구하였는데, 여왕을 비롯한 무역상, 은행가 등 투자자들이 일치단결된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스페인에 대한 약탈 활동을 장려하였으며, 선체가 낮지만 항해성이 뛰어나고 현측에 중포를 설치한 전투함의 건조를 적극 추진하였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585년에 7,000명의 병력을 네덜란드에 파병하고 드레이크

공(Sir Francis Drake)에게 카리브해의 스페인 영토에 대한 해군공격을 허가하였다. 영국군은 네덜란드군과 함께 네덜란드 연안의 수심이 깊은 항구를 통제하였다. 이는 반란군을 지원하는 데 요긴했을 뿐만 아니라, 무적함대의 영국 침공이 실패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스페인과 적대관계에 있었다. 그러한 영국이 1585년에 네덜란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스페인 왕 필립 2세는 영국에 일격을 가함으로써 네덜란드에 대한 지속적인 통치를 유지하고 영국과의 종교적 및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필립 2세는 영국을 침공하기 위하여 무적함대를 출동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스페인 무적함대의 패배〉

필립 2세의 요구에 따라 1586년 3월에 산타 크루즈(Marquis of Santa Cruz) 제독이 영국 침공을 위한 견적을 제출하였다. 그의 견적에 의하면, 최소한 50척의 대형 갤리온(Galleon : 범선), 100척의 무장상선, 40척의 대형 수송선, 연안작전에 사용될 320척의 소형 보조선 그리고 25,000명의 선원과 60,000명의 병력이 요구되었다. 이는 스페인 자원동원 능력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이에 필립 2세가 구상한 영국 침공계획은 무적함대가 영국해협을 향해하여 플랑드르(Flanders) 근해에서 네덜란드에 주둔한 파르마공(Duke of Parma)의 병력 30,000~40,000명을 수송하는 바지(barge) 함대를 상봉한 다음, 이 바지 함대를 상륙장소인 테임즈 강 입구로 호송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무적함대가 19,000명의 병력을 수송하며, 스페인군의 상륙작전을 엄호하고 파르마군의 교통선을 보장하며 영국 함대를 격퇴한다는 것이었다.

1587년 영국은 스페인 무적함대의 출동준비를 방해하기 위하여 드레이크의 지휘 아래 전투함 16척과 경무장 함선 7척으로 구성된 전대를 출동하였다. 드레이크는 카디즈 만(Cadiz Bay)을 급습하여 스페인 함선 37척을 나포하거나 불태워버렸다. 이후 드레이크는 수주일 동안 이베리아 반도 남서해역에서 다수의 소형 선박을 나포하고 화물을 불태워버렸다. 이들 선박의 화물은 나무통을 제작하는 재료 1,700톤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나무통들은 25,000~30,000톤의 식품과 음료수를 담을 수 있는 양이었다. 그런데 잘 말린 나무통 재료를 불태워 버렸다는 것은 결국 조잡한 나무통 재료를 사용하여 불량한 나무통을 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이는 식료품이 상하고 음료수가 새는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드레이크의 활약으로 인해 필립 2세는 무적함대의 출동을 1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립 2세는 산타 크루즈 제독을 무적함대 사령관으로 임명하였으나 그는 무적함대가 출동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성실하지만 해상경험이 적은 메디나 시도니아 공(Duke of

Medina-Sidonia)이 뒤를 이어 1588년 5월 23일 총 130척의 함선으로 구성된 무적함대가 리스본(Lisbon)을 출항하였다. 여기에는 대형 갤리온선 20척, 무장상선 44척, 수송선 23척, 소형 보조선 35척 그리고 갈래아스선과 갤리선이 각각 4척이 있었다. 포 2,431(중포 1,100)문이 있었으며, 승조원 8,500명과 보병 19,000명이 승조하였다. 스페인 무적함대는 적선의 현측에 접근하여 백병전을 수행한다는 레판토 해전시의 전술을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항하는 영국 함대는 하워드 경(Lord Howard)과 드레이크가 지휘하는 2개 전대 전투함 68척, 소형 함선 약 50척이 있었으며, 또 다른 2개 전대 전투함 53척이 도버(Dover) 근해에서 파르마군의 영국해협 횡단에 대비하고 있었다. 영국 함대는 중포 1,600문을 장착하고 있었다. 영국의 전투함은 스페인의 전투함보다 속력이 빨랐으며, 포의 성능과 포요원의 경험도 모두 앞서 있었다.

무적함대는 8월 6일 영국 침공군인 파르마군 40,000명을 수송하는 바지를 호송하기로 예정했던 곳이며 중립항인 프랑스의 칼레(Calais) 외해에 정박했으나 평저선이 부족한 무적함대는 파르마군을 지원할 방법이 없었다.

8월 7일 야간에 영국 함대가 투묘 중인 무적함대에 대하여 8척의 화선(fire ship)을 출격시켜 공격을 감행하였다. 화선이 접근해오자 공포감에 사로잡힌 무적함대의 많은 함장들이 닻줄을 절단하고 도피함에 따라 무적함대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어 아침에 영국 함대가 공격을 가해왔다. 무적함대의 많은 함선이 파손되고 인명의 손실도 많았다. 8시간이나 계속된 이 전투에서 영국 함대가 탄약이 다 떨어져 철수하였으며, 남풍이 불었기 때문에 양측 함대는 북쪽으로 향해하였다. 메디나 시도니아는 북해를 경유하여 영국 북쪽을 돌아 귀국하기로 결심하였다.

무적함대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일주하여 귀국할 때까지 불량한 나무통으로 인해 식량과 식수가 부패하고 이로 말미암아 기아와 갈증 그리고 전염병으로 극심한 곤란을 겪었다. 메디나 시도니아의 명령에 불복하고 많은



| 레판토 해전도

함선이 아일랜드 항구에 입항하려다가 난파당하여 무적함대는 다시 많은 함선과 인명의 손실을 보았다.

패주한 무적함대는 9월 말에 귀국하였는데, 총 44척을 상실하였다. 전투함 64척 가운데 44척이 귀항하였지만 대부분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손실은 수천 명의 승조원과 수천 명의 유능한 보병을 상실하였다는 점이었다.

수리를 마치고 재기한 무적함대가 영국을 침공하기 위하여 1596년과 1597년에 두 번 더 출동하였는데, 이 두 번의 원정은 폭풍으로 인해 다시 실패로 끝났다. 1604년에 영국과 스페인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1609년에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휴전에 합의한 후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조약(Treaty of Westphalia)을 통해 네덜란드가 독립되었다.

〈해전의 의의〉

장기간 지속된 영국과 스페인의 전쟁은 유럽과 세계 역사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영국과 네덜란드 동맹은 해양력을 이용하여 네덜란드를 계속 통치하려고 했던 스페인의 노력을 좌절시켰고 영국을 정벌하려고 계획했던 막강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결정적으로 패배시켰다. 그리하여 이 전쟁을 통해서 네덜란드와 영국은 그들의 경제와 해군을 세계적으로 팽창시킬 수 있었다. 반면에 스페인은 장기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력의 소모가 많았고 정치적으로 유럽의 지도력을 잃고 장기간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무적함대의 패배는 범선과 대포의 우월성을 보여 주었으며, 해전에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충각전술은 현측포격전으로 대체되었으며, 진형은 횡열진에서 종열진으로 바뀌게 되었다. 스페인은 무적함대의 패배로 인해 국위가 실추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양력의 쇠퇴도 뒤따랐다.

러일전쟁 Russo-Japanese War

〈전쟁의 배경〉

러일전쟁은 부동항 획득과 남진정책을 추구하던 러시아와 대륙침략을 도모하던 일본이 한국과 만주의 이권을 둘러싸고 전개한 전쟁이었다. 따라서 이 전쟁은 한국과 만주 그리고 그 주변해역에서 전개되었으며, 이 전쟁에서 해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은 청으로부터 요동반도(대련, 여순)와 대만을 할양받고 한반도에서 청의 세력을 축출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야심에 대하여 삼국간섭(1895. 4. 23)을 통해 열강

은 요동반도의 반환을 권고하였으며 전쟁에 자신이 없었던 일본은 부득이 3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요동반도를 반환하였다.

한편, 러시아가 만주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는데, 1898년에 러시아는 청으로부터 여순과 대련을 조차하고 여순 항(Port Arthur)을 군항으로 개발하였다. 1990년에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만주에 출병한 러시아군은 의화단사건이 진압된 후에도 만주에 그대로 주둔하였다. 1902년 2월 1일에 영국과 일본이 영일동맹을 체결하였다. 이 동맹은 청에 대한 영국의 이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의도에서 체결되었던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 이권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였다. 일본의 요구는 러시아에 대하여 만주에서 철군하고 한국에서 일본의 이익을 인정하며, 만주에서 일본의 상업상 진출을 허용하라는 것이었다. 반면에 러시아는 만주에서 일본의 이익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한국의 39° 선 이북을 중립지대로 설정하자고 제의하였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1904년 2월 6일 양국은 국교를 단절하였다.

일본은 1904년 2월 10일 러시아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는데, 이에 앞서 일본 해군이 2월 8~9일에 인천항의 러시아 함정과 여순 항의 러시아 함대에 대하여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지상전은 주로 남만주에서 진행되었고, 해전은 한반도의 동·서·남해에서 전개되었다.

〈양국의 작전계획〉

전쟁에 앞서 러시아와 일본은 군함 구입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였는데, 이탈리아에서 건조 중이던 아르헨티나의 7,800톤급 장갑순양함 2척을 일본이 재빨리 구입하였다. 닛신(日進)과 카스가(春日)로 명명된 이들 장갑순양함 2척이 일본으로 회항하려고 하자 러시아에서는 전함 오슬리비아(Osliabya)를 보내 이들을 격파하고자 시도하였다. 닛신과 카스가는 유럽 해역에서 영국의 전함 킹 알프레드(King Alfred)의 호송을 받고 영국과 이탈리아 승조원이 운전하여 일본에 회항하였다. 그리고 영국에서 건조 중이던 칠레의 12,000톤급 전함 2척을 러시아에서 구입하려고 하자, 러시아의 구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영국이 먼저 이들을 매입한 다음 일본에 매각하였다.

양국의 해군 전력에 있어서는 일본이 전함 6척을 비롯하여 총 152척 총톤수 26만 톤이었으며, 러시아는 태평양함대에 전함 7척을 비롯하여 19만 1천 톤을 보유하고 있었다. 양측의 전력을 비교해 볼 때, 개전 초에는 일본이 유리하지만 장기전에 돌입하면 러시아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본 해군은 1903년 12월에 상비함대로서 제1, 제2 및 제3함대를 편성하고 제1 및 제2함

대로 연합함대를 조직하였다. 연합함대 사령관에는 제1함대 사령관인 도고 대장이 임명되었다. 제1함대의 주력인 제1전대 전함 6척과 제2함대의 주력인 제2전대 장갑순양함 6척이 소위 일본 해군의 66함대를 형성하였다. 러시아 해군은 3개 함대 즉, 발틱함대, 흑해함대 및 태평양함대로 분할되어 있었다.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일본 해군에 비하여 다소 열세했지만, 주력함에 있어서는 거의 대등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는 발틱함대에 전함 11척, 장갑순양함 12척을 포함하여 총 28만 톤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태평양함대를 증강할 수도 있었다.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여순(전함 7척), 블라디보스톡(장갑순양함 4척)과 인천(순양함 1척과 포함 1척)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분산이 결국 러시아 해군의 전략적 과오가 되었다.

〈해전의 경과〉

－ 여순항 봉쇄전

1904년 2월 4일, 일본 어전회의에서 대 러시아 전쟁이 결정됨에 따라 일본 연합함대는 2월 6일 오전에 사세보를 출항하였다. 이 가운데 제4전대(장갑순양함 1척, 순양함 5척 및 2개 어뢰정대)는 2월 8일 오후에 인천에 도착한 다음, 러시아의 순양함 베리아그(Variag)와 포함 코리츠(Koriets)에게 2월 9일 정오까지 인천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튿날 전력의 현저한 열세로 인해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베리아그와 코리츠는 이날 오후에 각각 자침하였다.

일본은 러시아 여순함대의 격멸 또는 완전한 봉쇄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였다. 2월 8일 저녁 여순 항 외해에 도착한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은 예하의 3개 구축함전대(10척)를 이용하여 여순 항을 야습하였다. 당시에 러시아의 전함 7척과 순양함 9척이 여순 외항에 정박하고 있었다. 9일 자정을 조금 지나 감행된 일본 구축함전대의 야습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불만족스럽게 나타났다. 일본 구축함전대는 모두 18발의 어뢰를 발사하였으나 러시아의 전함 차레비치(Czarevitch)와 레트비찬(Retvizan) 그리고 순양함 1척이 2개월 정도의 수리를 요하는 손상을 주는 데 그쳤다.

여순항에 대한 기습은 전술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략적 성과는 매우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야습으로 인해 여순함대가 당분간 출동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일본 해군이 황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 육군의 주력이 조기에 한반도에 상륙하였으며, 또한 러시아 육군보다 먼저 남부 만주에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여순 항에 대한 야습에 뒤이어 일본 연합함대의 공격이 계속되었다. 일본 연합함대의 여순 항 공격은 주간 포격, 항공포격, 기뢰에 의한 봉쇄, 함대봉쇄 그리고 지상군에 의한 배후 공

격으로 이어졌다. 이중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기뢰에 의한 ‘봉쇄’였다. 일본 해군에 의한 기뢰부설은 4월 12일 야간에 실시되었으며, 이 기뢰부설의 성과는 그 다음 날인 13일에 즉각 나타났다. 이날 러시아의 여순함대 사령관이 승함한 전함 Petropavlovsk가 기뢰에 접촉되어 순식간에 침몰하고 사령관 마카로프(Stepan O. Makarov) 제독과 600여 명의 장병이 전사하였다.

그러나 5월 15일에 일본의 전함 하츠세와 야시마가 러시아군이 은밀히 부설한 기뢰에 접촉되어 침몰하였다. 이 참사로 인해 일본은 전함 6척 가운데 2척을 상실하는 큰 타격을 받았다. 이제 극동 해역에서 전함의 수는 러시아가 일본에 비하여 6 : 4로 우세하게 되었다.

- 황해 해전과 울산근해 해전

비트게프트 소장은 8월 7일 니콜라이 2세(Nicholas II) 황제로부터 “전함대를 인솔하여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라!”는 칙명을 받았다. 8월 10일 오전에 비트게프트 지휘 아래 여순함대가 출항하였다. 순양함 1척과 구축함 8척이 먼저 출항하고 뒤이어 전함 6척과 순양함 3척이 출항하였다. 오전에 여순함대가 출항했다는 보고를 받은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도고 제독은 즉시 예하 함대를 집결시켰다. 도고의 주력은 전함 4척과 장갑순양함 2척이었으며, 순양함 8척과 구축함 18척 그리고 어뢰정 30척이 합세하였다.

교전 끝에 여순함대는 사정권에서 이탈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속력이 우세한 일본 함대는 러시아 함대를 추격하여 포격을 재개하였다. 러시아의 기함 차레비치 함교에 포탄 2발이 명중하여 먼저 사령관 이하 참모 전원이 전사하였으며, 곧이어 함장과 키 왼편 상태에서 타수마저 전사하여 기함이 좌현으로 크게 회전하면서 자신의 종열진을 향해 돌진함에 따라 여순함대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여순함대는 분산한 채로 도주하였는데, 여순함에 입항한 것은 전함 5척과 순양함 1척 그리고 구축함 3척이었다. 차레비치는 순양함 1척 및 구축함 3척과 함께 무장해제를 당했으며, 순양함 1척과 구축함 1척은 상해에서 그리고 순양함 1척은 사이공에서 무장해제를 당했다. 일본 함대는 기함 미카사에 10여발이 명중되어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 큰 피해가 없었다.

한편, 블라디보스톡에 기지를 둔 러시아의 장갑순양함 3척은 일본군의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동시에 일본 함대를 견제하였다. 이 블라디보스톡 전대는 전후 7차에 걸쳐 출동하여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공격하였는데, 4월 12~19일에는 대한해협까지 진출하여 일본 수송선 3척을 격침하였으며, 7월 하순에는 일본 동해안에 침몰하여 여러 척의 상선을 격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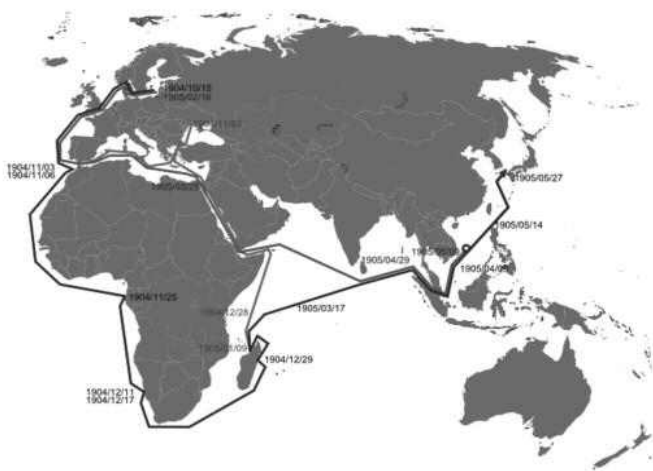
여순함대의 탈출과 블라디보스톡 전대의 남하에 대비하여 대한해협을 경비하고 있던 카미무라 전대의 장갑순양함 이즈모, 아주마, 토기와 및 이와테 4척은 8월 14일 05:00시에 울산

근해에서 남하하는 블라디보스톡 전대의 장갑순양함 러시아(Russia), 그로모보이(Gromoboi) 및 루릭(Rurik) 3척을 발견 포격을 개시하였다. 러시아의 장갑순양함 3척이 모두 화재를 일으켰으며, 루릭이 타기 고장으로 전열에서 이탈하였다. 러시아의 나머지 2척이 루릭을 구원하기 위하여 카미무라 전대를 북쪽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루릭이 자침하고 나머지 2척은 많은 피해를 입고 블라디보스톡을 향해 도주하였다.

여순 항에 입항한 러시아 함정은 그곳에서 수리하였으나 다시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톡 전대 역시 그후 종전될 때까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제 한반도 주변해역의 제해권은 완전히 일본 해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 발틱 함대의 원정항해

제2태평양전대로 편성된 발틱함대가 로제스트벤스키 (Zinovi P. Rozhdestvenski) 중장 지휘 아래 1904년 10월 15일 발틱해의 리바우(Libau)를 출항하여 극동해역을 향해 18,000 마일의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 발틱함대의 전력은 신형 전함 4척을 포함한 전함 7척, 구형 장갑순양함 3척, 순양함 4척, 구축함 7척 그리고 보조함 9척으로 구성되었다. 발틱 해와 블라디보스톡 사이에는 발틱함대가 이용할 수 있는 수리소와 석탄기지가 없었기 때문에, 함정의 수리와 보급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우호적인 중립국(특히 프랑스의 보호령) 항구의 협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발틱함대는 계약을 맺은 독일 선박회사의 석탄보급에 의존하며 항해하였다. 10월 21일 발틱함대는 북해의 도거 뱅크(Dogger Bank) 근해에서 영국 어선을 일본 어뢰정으로 오인해 이들에게 발포함으로써, 영국 국민을 격분시키고 거의 영국을 전쟁에 끌어들이 뻔하였다.



| 발틱함대의 항로

발틱함대는 1905년 1월 9일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의 노시베(Nosy Be)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전대와 합류하였는데, 5월 9일에 합류한 네보가토프전대는 구형 전함 1척, 장갑해방함 3척, 순양함 1척으로 모두 낡고 속력이 느렸다. 이제 총 53척으로 증강된 발틱함대는 마지막 전투준비를 갖춘 후 5월 14일 베트남

해역을 출항하였다. 로제스트벤스키가 블라디보스톡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세 항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었다. 첫째, 항로는 대한해협이며, 둘째, 항로는 쓰가르 해협 그리고 셋째는 소야 해협이었다. 대한해협은 일본 함대가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많았으며, 쓰가르 해협과 소야해협은 항해 장애(협수로, 안개 그리고 기뢰부설의 가능성)가 많았고 1천 마일 이상의 항해가 더 요구되었다.

발틱함대는 5월 23일에 상해 근해에서 석탄선으로부터 마지막 석탄보급을 받았는데, 각 함정은 창고를 가득 채우고 갑판에 쌓을 정도로 석탄을 만재하였다. 로제스트벤스키는 야간 어뢰공격을 우려한 나머지 주간에 대마도를 통과하기 위하여 순항속력을 8노트로 감속하였다. 그러나 대마도 근해의 주간 통과는 일본 전투함대의 집중적인 차단이 예상되었다.

로제스트벤스키의 과제는 첫째, 일본 함대와의 교전. 둘째, 발틱함대의 블라디보스톡 입항. 셋째,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차단과 블라디보스톡의 제한된 시설을 감안한 보조함선의 동행이었다. 그는 전투와 항해 그리고 선단의 방호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계획하였다. 그의 전투 계획은 전함전대가 전열을 형성하여 교전하고 순양함으로 전함전열을 지원하거나 선단을 방호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일본 함대의 목표는 오로지 발틱함대의 격파에 있었다. 이를 위하여 일본 연합함대는 정비와 훈련을 마치고 만반의 전투준비를 갖춘 상태였다. 일본 함대는 5월 19일 이후 대한해협 남서해역에 경비함정 70여 척을 배치시켜 엄중한 경비를 하며 발틱함대를 기다렸다.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도고는 작전참모인 아끼야마 중령의 구상에 따라 7단수비전법(발틱함대를 따라 점차 북상하면서 4회의 주간전투와 3회의 야간 공격을 감행)으로 발틱함대를 격멸하려고 하였다.

- 쓰시마해전

1905년 5월 27일 04:45시에 일본의 정찰선 시나노마루가 발틱함대를 발견하고 무전으로 긴급 보고하였다. 06:30시에 진해만을 출항한 일본 연합함대는 발틱함대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마도 동쪽을 향해 항진하였다. 일본의 주력 전투함대는 제1전대(도고 제독 직접 지휘, 기함 삼립(三笠)) 전함 4척과 장갑순양함 2척 그리고 제2전대(사령관 카미무라, 기함 출운(出雲)) 장갑순양함 6척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에 각각 4척으로 구성된 3개 순양함전대가 뒤따랐으며, 구축함 21척과 어뢰정 44척이 동행하였다.

발틱함대의 주력 전투함대는 각각 4척으로 구성된 3개 전대로 편성되었다. 제1전대는 로제스트벤스키의 기함인 수보로브(Suvorov)를 선두로 알렉산더 3세(Alexander III), 보로디노(Borodino) 및 오렐(Orel) 등 신형 전함 4척으로 구성되었으며, 제2전대는 오슬리비아

(Osliabya)를 포함한 전함 3척과 장갑순양함 1척 그리고 제3전대는 네보가토프가 지휘하는 구형 전함 니콜라이 1세(Nicolai I) 과 장갑해방함 3척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에 순양함 8척과 구축함 9척이 동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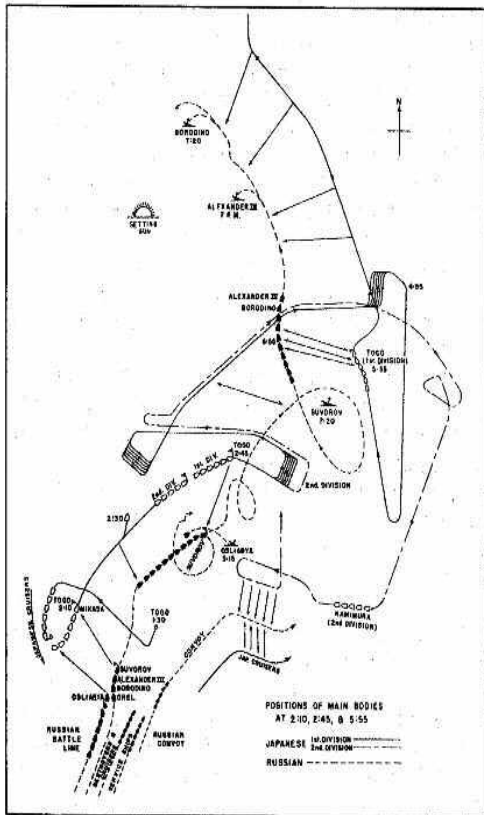
양측 전투함대의 주요 무장은 발틱함대는 230mm이상 대구경포에서 압도적으로 우세(43문 대 17문)하였으나, 중구경포에 있어서는 일본 함대가 우세하였다. 일본함대의 포는 발틱함대의 포보다 현대화되어 있어서 사정거리가 길고 탄약의 성능도 우수하였다.

27일 오전에 일본 순양함전대가 발틱함대를 집요하게 추적하자 로제스트벤스키는 함대의 진형을 여러 차례 변경하다가 일본 전투함대가 출현하자 로제스트벤스키는 자신의 전투함대(제1, 제2 및 제3전대)에게 종열진을 형성하도록 신호를 보냈다.

13:55시에 도고가 발틱함대의 좌현 함수 방향에서 발틱함대에 대하여 역방향인 남서침로를 취했을 때, 기함 미카사의 마스트에 “황국의 흥망이 이 전투에 달려있다. 각자 최선을 다하라.”라는 신호기가 게양되었다. 남서로 향하던 도고는 14:05시에 갑자기 좌현으로 회전하여 북동동으로 변침한 다음 후속함들을 뒤따르게 하였다. 14:10시에 일본 함대는 14노트

로 향진하며 발틱함대의 선두함인 수보로브와 오슬리비아에 대하여 포격을 집중하였다. 교전한지 30분도 안 되어 발틱함대 전열의 여러 척이 손상을 입었다. 14:45시에 Osliabya가 심한 손상을 입고 전열에서 이탈하고 30분 후에 침몰하였다. 15:00에 Suvorov가 전투력을 상실하고 전열에서 이탈하였으며, 중상을 입은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은 나중에 구축함으로 이송되었다.

17:55시부터 도고가 직접 지휘하는 일본 함대 제1전대가 발틱함대를 좌현 함수에 두고 양측이 북서진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일몰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본 제1전대 6척과 발틱함대 10척이 교전하는 상황에서 포격은 선두함인 알렉산더 3세에 집중되었는데, 약 15분 후에 알렉산더 3세가 전열에서 이탈하고 19:00시에 침몰하였다. 도고전대는 새로 선두가 된 보로디노에게 포격을 집중하였고, 보로디노 역시



| 쓰시마해전

19:20시에 침몰하였다. 이렇게 해서 발틱함대의 주력을 형성했던 신형 전함 5척 가운데 4척이 격침되었다.

어둠이 다가오자 네보가토프가 생존자를 구조하고 혼란에 빠진 나머지 발틱함대를 지휘하여 북상하였다. 도고는 구축함분대와 어뢰정전대에게 야간 공격을 명령하고 전함과 순양함을 지휘하여 14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집결장소인 울릉도 근해를 향해 북상하였다. 20:30시 경부터 일본 전투함대는 울릉도 동남 해역에서 전함 오렐과 니콜라이 1세 그리고 장갑해방함 2척과 순양함 1척을 포착하고 그 후방에 위협사격을 가했다. 10:30시에 네보가토프가 백기를 게양하고 일본 함대에게 항복하였다. 이날 오후 낚고 속력이 느린 장갑해방함 우사코프(Ushakov)가 항복을 거부하고 일본 순양함 2척과 교전한 후에 자침하였다.

발틱함대의 전열을 형성했던 12척 가운데 전함 6척을 포함하여 7척이 격침되었고 장갑해방함 1척이 심한 손상을 입고 자침하였으며, 전함 2척과 장갑해방함 2척이 항복하였다. 그 외에 순양함 2척이 격침되고 2척이 좌초되었으며, 구축함 4척과 보조선 3척이 격침되었다. 로제스트벤스키가 승함한 베도프이(Bedovyi)를 포함하여 구축함 2척과 병원선 2척이 나포되었다. 순양함 3척, 보조선 3척 그리고 구축함 1척이 중립항에 입항하여 그곳에서 억류되었다. 대한해협에 들어선 38척의 발틱함대 가운데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것은 순양함 1척과 구축함 2척 그리고 보조선 1척에 지나지 않았다. 발틱함대의 인명 손실은 전사 5,000명, 부상 500명 그리고 포로가 6,000명이었다.

일본 함대의 전열에서는 몇 척이 손상을 입었는데, 가장 심한 손상을 받은 것은 도고의 기함인 미카사였다. 그 외에 순양함 1척이 전투력을 상실했고 구축함 8척이 손상을 입었다. 격침된 것은 어뢰정 3척 뿐이었다. 일본 함대에서는 전사 116명, 부상 570명이 발생하였다. 쓰시마해전에서 발틱함대가 결정적으로 패배함에 따라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국내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해 극동에 군사력을 더 증강시킬 수도 없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미국이 중재하는 강화회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해전의 의의〉

러일전쟁은 양국에 정치적·군사적인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발틱함대가 궤멸된 후 러시아와 일본은 미국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중재를 받아들여 1905년 9월 5일 포츠머드(Porstmouth)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러시아는 만주에서 철수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이익을 인정하였으며, 여순 항과 요동반도 그리고 사할린(Sakhalin) 남부를 일본에 양도하였다.

전쟁의 결과에 따라 러시아의 남진정책이 좌절되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패전의 후유증

은 정치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볼셰비키 혁명을 유발하는 간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 침략을 본격화하고 대륙침략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세계 열강의 하나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세계 열강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지위의 확립과 더불어 일본은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고 주요 해군국가로 부상하였다.

러일전쟁의 결과는 해군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해군 무기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쓰시마해전의 결과로 인해 대구경포를 장착한 대형 전투함만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해양을 제패할 수 있다는 거함거포주의 전략사상이 대두하였다. 그리하여 화력을 집중한 주력함(capital ship)이 등장하였는데, 단일함의 다중다포주의에서 탈피하여 대구경의 단일총포를 다수 탑재한 전거포함(all-big-gun ship)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1차 세계대전에 출현한 노급전함(Dreadnought)과 전투순양함(battle cruiser)이었다. 한편 야간전투 수단으로 어뢰정과 구축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러일전쟁의 결과로 각광을 받게 된 거함거포주의와 더불어 함대의 적극적인 공세로 제해권의 장악을 주장한 마한의 함대결전 사상에 따라 열강은 해군력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거함거포주의를 전략적으로 뒷받침하는 함대결전 사상은 양차 세계대전시에 열강 해군의 함대편제와 진형에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일본 해군의 전략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발틱함대의 격파라는 전략적 성공에 고취된 일본 해군은 그후 함포 교전의 주체가 된 전함을 중심으로 함대를 건설하였으며, 이러한 함대에 의한 결전을 기본 전략으로 삼아 제2차 세계대전시 미국 해군을 상대하였던 것이다. 한편 요새함대 전략을 취한 러시아의 여순함대가 패배함에 따라 주요 해군에서 요새함대 전략 사상이 퇴조하게 되었다.

전술적 측면에서는 종열진과 현측사격(broad fire) 그리고 우세한 속력을 이용한 기동, 특히 T자 씌우기 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전술을 원활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전술적 특성을 가진 동형함으로 진형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었다.

한산대첩

임진왜란 발발 후 일본 수군은 이순신 함대의 막강한 전력을 체험하고는 수군력을 총동원하여 조선 수군을 격파하려는 작전으로 변경하였다. 일본 수군장 와키자카는 6월 7일과 19일 거제도 안쪽에 조선 전선이 많이 출현한다는 보고서를 도요토미에게 보냈다. 이 보고서를 받은 토요도미는 구키 · 가토 · 와키자카 등 3인의 수군장에게 협동하여 조선 수군을 격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와키자카는 합동작전을 펼치라는 토요도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개별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가토·구키 두 사람이 전선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와키자카는 휘하의 수군을 이끌고 7월 7일에 거제도로 진출하였다. 한편 이순신은 전력보강에 힘쓰는 한편, 적정 수집에 힘을 다하며 적 해군을 격멸 소탕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덕·거제 방면에 10여 척 혹은 30여 척의 왜선이 출몰하고 전라도 금산지경에도 왜 육군의 세력이 크게 뻗치고 있어 수륙양면으로 전라도를 공격할 상황에 있다는 것이었다. 위급함을 느낀 이순신은 선제공격으로서 거제도·가덕도 등지에 출몰하는 일본 수군을 격멸하려는 결단을 내렸다. 이순신은 6일에 전라좌·우수군의 연합선대는 일제히 출동하여 노량 앞바다에서 경상우수사 원균의 전선 7척과 합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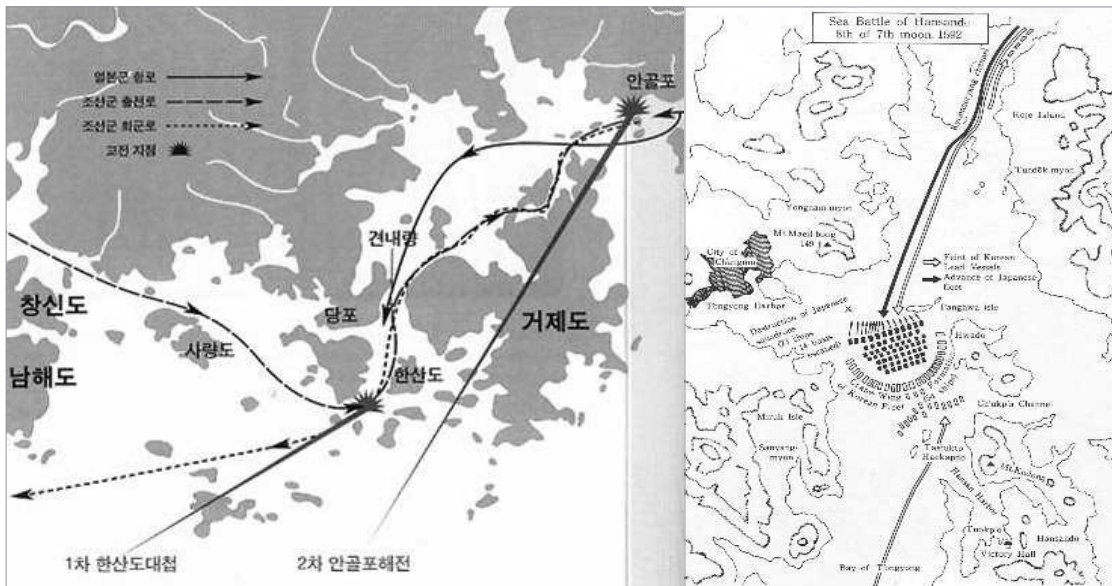
이순신은 그의 주력함대인 48척의 전선과 원균의 전선 7척을 합한 55척의 전선을 이끌고 7월 7일 고성땅의 당포에 이르렀다. 이때 거제도의 목동인 김천손(金千孫)이 ‘적의 대·중·소선을 합하여 70여 척이 오늘 하오 2시쯤, 영등포 앞 바다로부터 거제와 고성의 경계인 견내량에 이르러 머무르고 있다.’는 왜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순신은 다음날인 7월 8일 이른 아침 견내량을 향해 출동하였다. 견내량의 바깥 바다에 이르렀을 때 일본 수군의 척후선 2척이 이순신 함대를 발견하고 본대로 도주하자 이를 추격하며 견내량의 일본 수군 상황을 살폈다. 그 결과 견내량에 정박중인 왜선은 대선 36척, 중선 24척, 소선 13척 등 계 73척이 정박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정박하고 있던 일본 수군은 와키자카의 함대였다. 와키자카는 토요도미의 명령을 받고 7월 7일에 견내량으로 출진하였던 것이다. 와키자카의 함대를 발견한 이순신은 몇 가지의 이유로 인해 유도 작전을 실행하였다.

견내량의 지형이 매우 좁고, 또 암초가 많아서 판옥전선은 서로 부딪치게 될 것 같아서 싸움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적은 만약 형세가 불리하게 되면 기슭을 타고 육지로 올라갈 것이므로 한산도 바다 한가운데로 끌어내어 모조리 잡아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산도는 거제와 고성사이에 있어 사방에 헤엄쳐 나갈 길이 없고, 적이 비록 육지로 오르더라도 틀림없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임진장초』 「견내량의 일본군을 격파한 일을 아뢰는 계본」)

일본군을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적의 도주로 차단을 계획한 이순신은 판옥선 5·6척으로 일본군을 공격하여 총공격하는 듯 시위하여 적을 한산도 앞 바다로 유인하였다. 조선 수군은 퇴각하여 바깥 바다로 나온 후, 속도를 조절하여 적선이 일렬로 서도록 유도한 후 마치 학의 날개와 같이 전개하여 적선을 좌우에서 포위하고[학익진(鶴翼陣)] 공격하였다. 신속하게 적

을 포위한 뒤, 조선 수군은 먼저 3척의 거북선으로 적진에 돌입하여 공격하고, 모든 전선이 각기 지자·현자·승자 등 각종의 총통과 화전을 발사하여 일본 수군은 궤멸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와키자카의 휘하전선 73척중 47척을 격파하였고 12척은 나포하였으며 무수한 일본 수군이 참수되거나 익사하였고 전투 중 뒤떨어졌던 왜대선 1척과 중선 7척 소선 6척 등 14척만이 안골포 및 김해 등지로 도주하였다.



이 한산해전의 승리는 이순신의 탁월한 작전 지휘와 그 지휘 아래의 조선 수군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리하여 한산해전은 조선 수군의 대승리로서 끝났다. 다음날 9일 안골포(安骨浦)에 왜선 40여 척이 머무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자 이순신 함대는 10일 이른 아침 출동하였다. 전라우수사의 함대는 예비선대로서 가덕도의 가까운 바다에 진을 치게 한 후, 학익진의 대형으로 먼저 진격하고 경상우수사의 선대가 그 뒤를 향해하며 안골포에 이르렀다. 안골포의 선창에는 왜대선 21척·중선 15척·소선 6척이 머물고 있었고 그 중에 3층으로 방이 마련된 대선 1척과 2층으로 된 대선 2척이 포구에서 밖을 향해 떠 있었다. 안골포에 정박중이었던 왜선 42척은 구키와 가토의 함대였다. 일본측 기록 『고려선전기』에 의하면, 이들은 와키자카가 견내량에서 패한 사실을 알고 급히 이곳으로 향했으나 조선 수군과 대적할 수 없어 안골포로 돌아와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순신은 이 지역이 매우 협소하고 알아서 썰물이 되면 판옥선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왜선을 여러 번 끌어내려 하였지만, 일본군은 형세가 불리해지면 육지로 오르려 하였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이순신은 유인작전을 포기하고, 각 전선으로 하여금 교대로 적선에 접근하여 종일토록 포와 불화살로 공격하였다. 이에 왜병들도 반격하게 되어 조그마한 포구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요란한 총성과 더불어 바깥 바다에서 대기중인 이역기 함대도 계획에 의거하여 포구 안으로 돌입하여 이 포구에서의 접전은 하루종일 계속되었는데, 이 접전으로 왜의 대장선과 다른 전선들도 거의 깨졌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선전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9일 오전 8시 경부터 적의 대선 58척과 소선 50척이 공격해 왔다. 대선 가운데 3척은 장님배[거북선]로 철로 요해하고 석화시, 봉화시, 대구오 등을 쏘아가며 오후 6시 경까지 들락날락하면서 공격하여 망루와 갑판, 요해까지 모두 부숴놓고 말았다.…… 귀숙선[거북선]은 좌마의 대선앞을 가로막았고 소선들을 그 뒤에 쫓게 하였다. 그들 배에서 철포를 쏘아댔으며 귀숙선과 좌마의 대선은 서로 쏘아댔으나 좌마의 배가 난사 당해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그대로 섬 사이로 후퇴하였다.

전투에서 승리한 이순신의 조선 수군함대는 그날 밤 육지로 도망한 일본군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것을 염려하여 포구 안의 왜 전선들만은 그대로 남겨두고 1리정도 밖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하였다.

이 안골포해전은 처음 해전에 참가한 3인의 일본 수군장 중 와키자카를 제외한 나머지 2인 구키와 가토의 연합 함대를 격멸시켰다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거북선이 일본 수군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점을 극명하게 나타낸 해전이였다.

이 전투로 일본 수군들은 한산도에서의 패전으로 사기가 급속히 저하되고 제해권을 상실하여 끝내 호남지방을 점령할 수 없었으므로 조선군과 명 원군의 군량이 확보되었다. 한산해전의 패전으로 인해 토요도미은 “거제도에 축성하여 구키 · 가토 등 양삼인이 상담하여 견고하게 지킬 것을 계획하라”는 새로운 작전을 지시하였다. 이는 토요도미가 와키자카에게 임진년 7월 14일에 내린 명령이였다. 토요도미는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닫고 새로운 작전, 즉 수비 위주의 작전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일본에 와 있던 서양선교사들조차 일본 수군은 해상 전투에서 이순신 함대를 상대로 정면승부할 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었음은 다음의 세스뻬데스가 교황청에 올린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은 사기충천하여 일본인들을 기다렸고, 큰 소리와 아우성을 치면서 일본인들을 공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고 일본 병사들의 상당수가 바다로 뛰어들었다. 꼬라이인들은 그들이 항상 사용하던 쇠갈고리와 쇠사슬을 가지고 일본인들의 배들을 붙들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얼마동안은 공방전이 진행되면서 일본인들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고 끝내는 일본인들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3차출동의 결과 토요도미는 당초 수륙합공으로 조선을 점령하려 하였던 계획을 변경하여 해전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이 해전의 결과가 일본 수군에게만 미친것이 아니라 지상군에게도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겨 놓았다. 이순신과 전라수군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예로 일본군에 포로가 되었던 조선 사람의 말에 의하면 김해성 내외에 머물고 있던 일본군은 어떤 밤에 조선 수군의 불을 보고 전라 수병이 내습한다고 대경실색하여 떠들어대며 동분서주하며 어찌할 바를 모른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전쟁 자체는 대규모의 살상이 뒤따르는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변화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전쟁에 쓰인 무기는 최신 과학의 검증의 장이었으며, 대규모의 강제적 집단적 접촉에 따라 전쟁 당사국은 문화적 변화가 불가피 했다. 또한 다수 발생한 포로는 문화 전파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전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한층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으며 전술적 변화도 심하였다.

420년 전 임진왜란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불행히 조선은 당하는 입장에 서있었으나, 해전에서 조선은 이순신이 이끄는 함대를 바탕으로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전세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순신의 세계적인 전략가로서의 위상은 한층 빛난다.

다만 현재의 눈으로 볼 때 임진왜란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미 하나로 편입된 “세계”의 체제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고립적이 태도를 고수하였다는 점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9기

가야학아카데미

발행처 : 국립김해박물관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90(621-030)

TEL : (055) 320-6800

FAX : (055) 325-9334

<http://gimhae.museum.go.kr>

발행일 : 2012년 4월

인쇄처 : 김해장유신문(Tel.055-313-2064)

발간등록번호 알림 11-1371087-000009-01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